

2009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2009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 이용자를 위하여

1. 국내편에 수록된 통계자료는 정부 각 부처 및 주요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국제편은 UN, IMF, ILO, WHO, ITU 등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자료를 종합 편집한 것으로 각 통계표의 시계열은 매년, 5년, 10년 단위로 수록하였고, 통계표 하단에 자료 출처와 주를 표시하였음.
2. 최신자료를 수록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해당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접근경로는 갱신될 수 있음.
3. 국민계정자료는 기준 년 개편으로 전 시계열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2000년 이후만 시계열이 2005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1999년 이전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임.
4. 국제편의 자료편집은 한국을 중심으로 순위별로 앞선 국가 위주로 선정했고, OECD 주요국가 순으로 배열하였음.
  - 지표별 순위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연도의 자료가 없는 국가는 전년도 자료로 보정하였으며, 비교 가능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절대적인 순위는 아님.
5.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내용의 계가 합계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6.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숫자 없음, 미상      「p」 잠정치      「0」 단위미만
7.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통계표 하단에 표기된 자료 제공 기관이나 (재)한국통계진흥원(02-3443-79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C | 목 차 | Contents

## \* 제1장 | 국토 및 기후

013

- 1-1 국토면적 및 이용 · 14
- 1-2 기온 · 17
- 1-3 강수량 · 습도 및 일조시간 · 20
- 1-4 황사 · 23

## \* 제2장 | 인구 및 가구

027

- 2-1 인구 추이 · 28
- 2-2 인구 구조 · 31
- 2-3 고령화 · 34
- 2-4 출산율 · 37
- 2-5 학령 인구와 혼인 연령 인구 · 40
- 2-6 기대수명 · 43
- 2-7 혼인 · 46
- 2-8 이혼 · 49
- 2-9 가구 구조의 변화 · 52

## \* 제3장 | 고용 · 노동

055

- 3-1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 56
- 3-2 성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59
- 3-3 주당 평균 취업시간 · 62
- 3-4 비경제활동인구 · 65
- 3-5 노동생산성지수 · 68
- 3-6 산업재해 · 71
- 3-7 노동쟁의 · 74

\* 제4장 | 물가 및 가계

077

- 4-1 소비자 물가 · 78
- 4-2 생산자 물가 · 81
- 4-3 화폐가치의 변화 · 84
- 4-4 가계소득 · 87
- 4-5 가계지출 · 90
- 4-6 가계자산 및 부채 · 93
- 4-7 소득분배 · 96

\* 제5장 | 국민계정

099

- 5-1 경제규모 · 100
- 5-2 경제구조 · 103
- 5-3 경제성장률 · 106
- 5-4 소득분배 및 지출 구조 · 109
- 5-5 지역내총생산 규모 · 112
- 5-6 시도별 경제구조 · 115

\* 제6장 | 농림어업

119

- 6-1 농 · 어가 및 농 · 어가 인구 · 120
- 6-2 농가인구 구조 및 혼인 상태 · 123
- 6-3 경지 규모 및 영농 형태 · 126
- 6-4 농축산물 소비 · 129
- 6-5 농축산물 생산 · 132
- 6-6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 변화 · 135
- 6-7 농가 가계수지 · 138
- 6-8 어업 형태 및 생산량 · 141

## \* 제7장 | 제조업

145

- 7-1 제조업 동향 · 146
- 7-2 섬유류 수출 · 149
- 7-3 시멘트, 레미콘 및 철강재 수급 · 152
- 7-4 전기·전자 제품 수출 · 155
- 7-5 자동차산업 · 158
- 7-6 조선 수주 · 161

## \* 제8장 | 건설 및 주택

165

- 8-1 건설업 개황 · 166
- 8-2 건축허가면적 · 169
- 8-3 주택건설 및 투자 · 172
- 8-4 주택유형별 주택 수 · 175
- 8-5 해외건설 수주 · 178
- 8-6 미분양 주택 현황 · 181
- 8-7 도로 연장 · 184
- 8-8 상수도 보급 · 187
- 8-9 하수도 보급 · 190

## \* 제9장 | 도소매 및 서비스업

193

- 9-1 도소매·음식숙박업 개황 · 194
- 9-2 대형 소매점 · 197
- 9-3 식품위생접객업소 개황 · 200
- 9-4 전자상거래 · 203
- 9-5 사이버쇼핑몰 · 206

\* 제10장 | 교통 및 정보통신

209

- 10-1 육상운수업 개황 · 210
- 10-2 수상운수업 개황 · 213
- 10-3 국내 여객수송 · 216
- 10-4 지하철수송 · 219
- 10-5 국내 화물수송 · 222
- 10-6 국제여객 및 화물수송 · 225
- 10-7 자동차 등록대수 · 228
- 10-8 항만하역능력 · 231
- 10-9 정보통신사업 현황 · 234
- 10-10 인터넷 기반 · 237
- 10-11 우체국 및 우편물 현황 · 240

\* 제11장 | 에너지

243

- 11-1 원유 도입 · 244
- 11-2 석유제품 수출입 · 247
- 11-3 에너지수급 · 250
- 11-4 1차 에너지 소비 · 253
- 11-5 발전설비 및 발전량 · 256
- 11-6 전력 소비 및 도시가스 공급 · 259

\* 제12장 | 무역 및 국제수지

263

- 12-1 무역 현황 · 264
- 12-2 수출 및 수입 · 267
- 12-3 국제수지 · 270
- 12-4 교역조건과 환율동향 · 273
- 12-5 외환거래와 국제투자 · 276

## \* 제13장 재정 및 금융

279

- 13-1 재정 및 조세 · 280
- 13-2 세입 및 세출 · 283
- 13-3 통화량 · 286
- 13-4 은행 예금상품과 대출금 · 289
- 13-5 어음 교환 및 금리 · 292
- 13-6 증권시장 · 295
- 13-7 보험시장 · 298

## \* 제14장 보건 및 사회보장

301

- 14-1 의료기관 · 302
- 14-2 의료인력 · 305
- 14-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 308
- 14-4 초·중·고등학생의 신장 · 311
- 14-5 초·중·고등학생의 체중 · 314
- 14-6 장애인 복지시설 · 317
- 14-7 노인복지 생활시설 · 320

## \* 제15장 환경

323

- 15-1 대기 오염 · 324
- 15-2 수질 오염 · 327
- 15-3 해수 오염 · 330
- 15-4 오염배출 시설 · 333
- 15-5 생활폐기물 · 336

\* 제 16장 | 교육 및 과학기술

339

- 16-1 유치원 현황 · 340
- 16-2 초등학교 현황 · 343
- 16-3 중 · 고등학교 현황 · 346
- 16-4 대학교 현황 · 349
- 16-5 학력별 졸업생 취업률 · 352
- 16-6 학원 현황 · 355
- 16-7 가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 · 358
- 16-8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 · 361
- 16-9 과학기술 성과 · 364

\* 제 17장 | 문화 · 여가

367

- 17-1 도서관 및 이용자 수 · 368
- 17-2 영화극장 및 관객 수 · 371
- 17-3 관광호텔 및 객실 수 · 374
- 17-4 내국인 출국 현황 · 377
- 17-5 외국인 입국자 및 관광수입 · 380

\* 제 18장 | 공공행정 및 기타

383

- 18-1 행정부 공무원 · 384
- 18-2 형사범죄 발생 · 387
- 18-3 연령별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 · 390
- 18-4 교통사고 · 393
- 18-5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 · 396
- 18-6 자연재해 · 399
- 18-7 화재발생 및 피해 · 402

## \* 제19장 | 국제편

405

- 19-1 인구 · 406
- 19-2 출산율 · 407
- 19-3 인구구조 및 부양비 · 408
- 19-4 경제성장률 · 409
- 19-5 국내총생산 · 410
- 19-6 1인당 GNI · 411
- 19-7 조세부담률 · 412
- 19-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413
- 19-9 실업률 · 414
- 19-10 조강생산 · 415
- 19-11 선박건조량 · 416
- 19-12 자동차 생산 · 417
- 19-13 전자제품 생산액 · 418
- 19-14 수출 · 수입 · 419
- 19-15 무역의존도 · 420
- 19-16 이동전화가입자 수 · 421
- 19-17 1차 에너지 소비량 · 422
- 19-18 전력발전량 · 423
- 19-19 주요원인별 사망률(인구10만명당) · 424
- 19-20 교통사고 · 425
- 19-21 이산화탄소 배출량 · 426

# 1 장

## 국토 및 기후

- 1-1 국토면적 및 이용
- 1-2 기온
- 1-3 강수량·습도 및 일조시간
- 1-4 황사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국토 면적 정부 수립 이후 6.6%(여의도 면적의 730배) 증가

국토 면적은 1949년 9만3,634km<sup>2</sup>에서 2008년 9만9,828km<sup>2</sup>로 6.6%(6,194km<sup>2</sup>) 늘어졌다. 국토 면적이 매년 조금씩 넓어져왔다. 국경 변경과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요 증대에 맞춰 매립·간척사업이 이뤄져 공유수면이 매립돼 토지로 등록돼 활용되기 때문이다.

근대적 의미의 간척사업은 일제시대에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1960년대 이후다. 1961년 동진강수리간척 방조제 준공, 금강·평택지구 등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삼포천방조제, 영산강하구둑, 대호방조제, 금강하구둑, 시화지구방조제 등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 지역별 농어촌 광역 종합개발 차원의 거점개발 추진 사업(시화지구, 새만금지구)과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대규모 간척사업(김포, 서산지구, 영산강지구)과 다목적 종합개발(홍보·고흥지구)등이 추진되었다.

## 농경지와 임야는 산업화 이후 계속 감소

농경지 면적과 임야는 산업화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농경지 면적은 1만9,798km<sup>2</sup>로서 전 국토의 19.8%를 차지했다. 1949년(21.9%)에 비해 2.1%포인트 낮아졌다. 1960년대에는 증가(2.7%)했으나 1970년 2만2,975km<sup>2</sup>, 1980년 2만2,099km<sup>2</sup>, 1990년 2만1,484km<sup>2</sup>, 2000년 2만507km<sup>2</sup> 등 1970년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경지 면적이 1960년대에 잠시 늘어난 것은 당시 식량 자급자족 달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간척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농경지를 다른 목적(공공시설, 공장부지, 대지) 용도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었기 때문이다. <표 1-1>

농경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 등 택지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주거 및 산업용지 수요와 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농지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휴경 면적도 늘고 있다.

2008년 임야 면적은 6만4,546km<sup>2</sup>로 전 국토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에 비해 2.5%(1,590km<sup>2</sup>) 줄었으며, 1970년대 이후 산간개발 등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경지·임야 면적은 여전히 전체 국토 면적에서 절대적 비중(85%)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일부 산지에 대한 다른 용도여로의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우량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2000년대 쌀 자급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량농지의 전용을 대체하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표 1-1>

한편으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 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환경·휴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림의 보전 또한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 공장용지 80년 대비 6.9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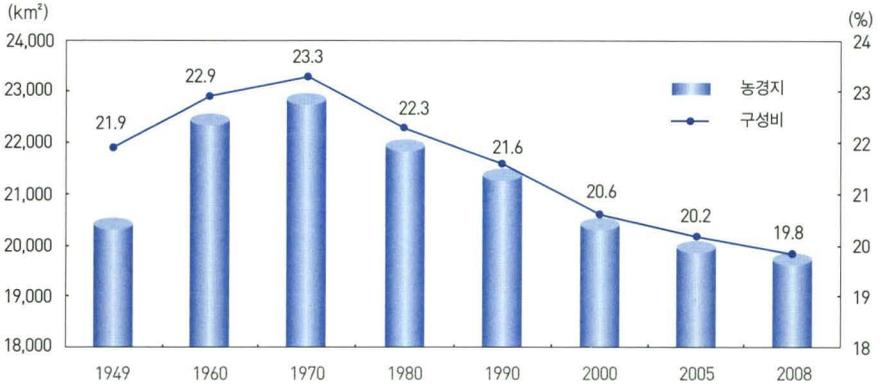
대지 면적은 1960년 1,205km<sup>2</sup>에서 2008년 2,659km<sup>2</sup>로 2.2배 증가하였다. 공장용지는 1980년에 비해 6.9배, 공공용지도 1980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대지 면적의 증가는 국토 보전보다는 고속도로 확충, 신도시 개발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에 중점을 둔 결과로 분석된다. 택지 면적의 증가에는 1980년대 말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이 크게 작용했다. 1989년 11월 분당 신도시로부터 1990년 7월 일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택지조성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표 1-1>

공장용지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울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크게 확대됐다. 70년대에 광양(철강), 여천(석유), 창원(기계) 등 중화학 공업기지, 80년대에는 거점개발 중심에서 균형개발 형식으로 역점을 두며 원주·충주, 동해·삼척, 전주·군산 공업지대, 광주 하남공단, 대불공단이 조성되었다. 이어 90년대에는 첨단산업기지가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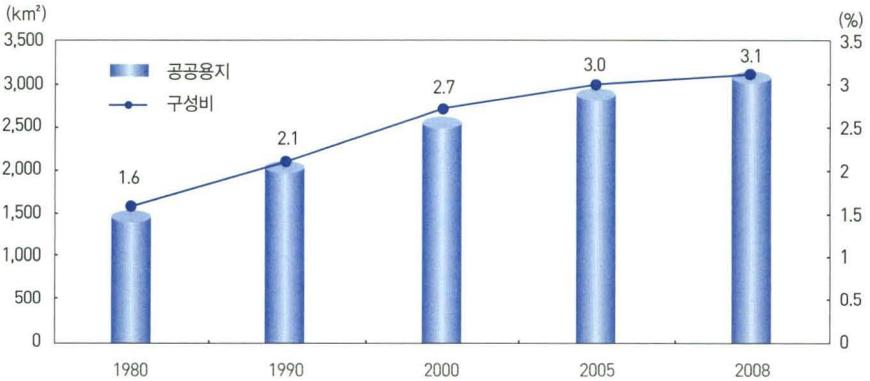
하천용지도 1970년 1,153km<sup>2</sup>에서 2008년 2,839km<sup>2</sup>로 2.5배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에 조선하천조사가 시행됐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하천개발 사업은 청계천 복개공사('61년)와 한강개발 3개년 계획('68년)이다. 70년대에는 동진강('72), 삼교호('79) 등 방조제 및 간척사업이 전개되었다. 60, 70년대에는 한강개발 등 강변 개발이 주로 이뤄진 시기였다. 80년대 들어 이수·치수·친수 공간 확보라는 명목 아래 한강을 습터화하기 위한 한강종합개발이 진행됐다.

한강과 낙동강 등 대규모 하천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하천개발 사업은 90년대 들어 소규모 하천으로 대상이 바뀌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서울 강남·서초구의 양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과 북개해 도로로 쓰이던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양재천의 사례는 지방에 널리 전파돼 전주의 전주천, 부산의 온천천, 수원시 수원의 수원천 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림 1-1] 농경지 이용



[그림 1-2] 공공용지 이용



[표 1-1] 국토이용 현황<sup>1)</sup>

(단위 : km<sup>2</sup>, %)

연도	총면적 <sup>2)</sup>	농경지		임야		대지 <sup>3)</sup>		공장용지		공공용지 <sup>4)</sup>		하천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1949	93,634	20,535	21.9	-	-	-	-	-	-	-	-	-	-
1960	98,431	22,564	22.9	66,136	67.2	1,205	1.2	-	-	-	-	-	-
1970	98,477	22,975	23.3	66,115	67.1	1,344	1.4	-	-	-	-	1,153	1.2
1980	98,992	22,099	22.3	66,129	66.8	1,721	1.7	102	0.1	1,564	1.6	2,942	3.0
1990	99,274	21,484	21.6	65,571	66.1	1,937	2.0	246	0.2	2,112	2.1	2,900	2.9
2000	99,461	20,507	20.6	65,139	65.5	2,349	2.4	514	0.5	2,637	2.7	2,804	2.8
2005	99,646	20,108	20.2	64,805	65.0	2,533	2.5	622	0.6	2,946	3.0	2,803	2.8
2007	99,720	19,901	20.0	64,639	64.8	2,611	2.6	674	0.7	3,066	3.1	2,831	2.8
2008	99,828	19,798	19.8	64,546	64.7	2,659	2.7	703	0.7	3,143	3.1	2,839	2.8

주 :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현황임 2) 1995년 이후는 미복구지 제외 3) 1974년 이전은 과세 민유지 면적임

4) 학교, 도로, 철도용지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 2008년 전국 평균기온 13.1℃, 30년전 보다 0.7℃ 높아

19세기 이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지표 기온이 (0.5~0.6℃) 상승했다. 특히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기온 상승폭이 크고, 동아시아 지역의 상승폭은 세계 평균보다 크다(hulme et al.,1994). 아시아 동단에 위치한 한반도 또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00년대 이전 관측치가 없는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을 고온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1800년대에 비해 1900년대 초가 비교적 고온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김연옥, 1998).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균 기온도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08년 전국 평균 기온은 13.1℃, 평균 최고기온은 18.6℃로 지난 30년(1971~2000년) 동안의 평균값보다 모두 0.7℃ 높아졌다. 평균 최저기온은 8.3℃로 지난 30년에 비해 0.7℃ 높아 전국 60개 관측지점이 완비된 1973년 이래 1998년(9.1℃), 2007년(8.9℃), 1990년(8.7℃), 2006년(8.5℃) 다음으로 최고 5위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평균 기온, 평균 최고기온 모두 0.7℃ 상승했다. [그림 1-4]

〈표1-3〉에서 보듯 2008년 평균 기온은 서울 12.9℃, 부산 15.0℃, 대구 14.6℃, 전주13.9℃로 지난 30년(1971~2000) 동안에 비해 각각 서울 0.7℃, 부산 0.6℃, 대구 0.9℃, 전주 0.9℃씩 상승했다. 우리나라 주요 관측지점의 기간별 평균 기온과 편차를 보면 B기간(1904~1930년)에 비해 C기간(1931~1960년)은 모두 기온이 상승하고 그 폭은 0.1~0.4℃이다. D기간(1961~1990년)은 C기간에 비해 상승폭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D기간을 B기간과 비교하면 D기간에서의 상승폭이 커서 현저한 고온화가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대관령 연평균 기온 6℃내외, 제주도 15℃ 이상

관측지점 중 기온이 가장 낮은 대관령은 연평균 기온이 6℃ 내외이며, 강원 산간 지방에서는 10℃, 가장 기온이 높은 제주도는 15℃ 이상이다. 연평균 기온의 분포는

위도에 따라 북쪽으로 갈수록 낮고, 내륙 산간에서 낮다. 특히 주변 지역에 비하여 고도가 높은 백두대간은 기온이 낮다.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강릉과 속초의 연평균 기온은 12℃ 이상으로 서해안 지방에 비해 높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는 경상남·북도 지방은 연평균 기온이 같은 위도에 위치한 다른 지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인다.

1930년대에 비해 1950년대에 모두 기온이 상승하였고, 1980년대 이후 현저한 고온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반도 기온의 지역별 변동 행태는 1960년대를 전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60년대 이전이 자연적인 변동인 데 비해 1960년대 이후는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역별 기온 상승의 차이가 자연적인 변동을 넘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뚜렷한 기온 증가는 한반도 전체의 고온화에 영향을 미쳤다. <표 1-3>

###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 1℃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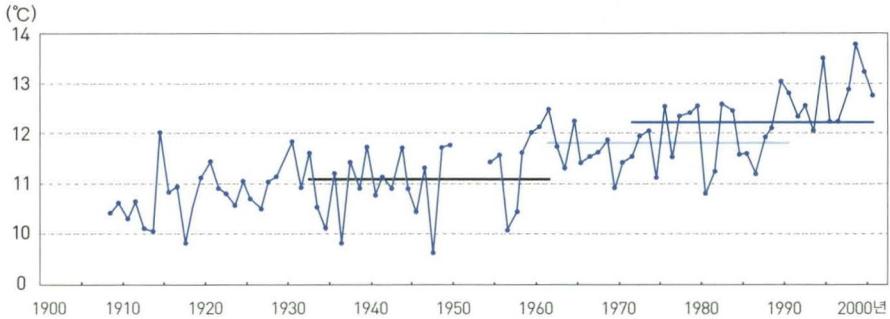
1904년 현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약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다. 특히 D기간(1961~1990년)에 상승폭이 컸으며,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상승폭은 1℃ 이상으로 세계적인 추세(0.5~0.6℃로 추정)를 웃돌았다. 한반도의 기온 변화가 지구촌의 고온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림 1-3]에서 보듯 기상관측 시대 이래의 서울의 연평균 기온을 시기별로 나누는 뒤 해당 기간의 평균치를 직선으로 표시했다. 연대별로 1931~1960년의 평균기온은 11.1℃, 1961~1990년은 11.8℃, 1971~2000년은 12.2℃로 고온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온난화 결과 갖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름 전염병이 봄철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왜가리와 백로, 황로 등 여름 철새들이 텃새화하였으며,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 특히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는 점은 그만큼 겨울이 짧아졌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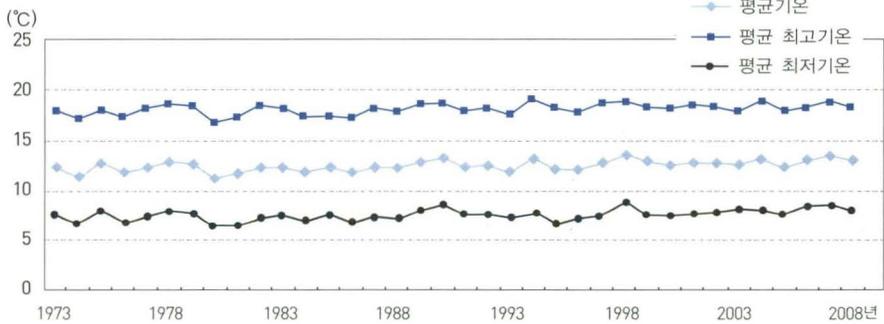
기상학계는 '하루 평균 기온이 5℃ 이하'인 기간을 겨울로 본다. 겨울은 지난 80년 동안 한 달 가까이 짧아져, 개나리·진달래·벚꽃 등의 개화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1920년대 겨울은 3월 하순 무렵까지 계속된 데 비해 1990년대 겨울은 3월 초순에 끝났다.

[그림 1-3] 서울 연평균 기온 변화



주 : 그래프 안의 직선은 해당기간(1931~60, 1961~90, 1971~2000)의 평년값

[그림 1-4] 전국 연평균 기온 변화



<표 1-2> 전국의 평균 기온

요 소	2008년 (a)	평년값 (1971~2000) (b)	(a-b)	1973년 이후 순위 <sup>1)</sup> (5위 까지만)	1970년대 (1973~1980) (c)	2000년대 (2001~2008) (d)	(d-c)
평균기온(°C)	13.1	12.4	0.7	-	12.2	12.9	0.7
평균 최고기온(°C)	18.6	17.9	0.7	-	17.7	18.4	0.7
평균 최저기온(°C)	8.3	7.6	0.7	최고 5위	7.5	8.3	0.8

주 : 1) 2008년 평균최저기온의 '73년 이후 순위

자료 : 기상청 「기후표」

<표 1-3> 주요 지점의 시기별 평균기온(°C)

구 분	(A) 2008	(B) (1904~1930)	(C) (1931~1960)	(D) (1961~1990)	(E) (1971~2000)	(E)-(A)	(C)-(B)	(D)-(C)
강 릉	14.6	11.9	12.1	12.5	12.9	1.7	0.2	0.4
서 울	12.9	10.9	11.1	11.8	12.2	0.7	0.2	0.7
인 천	12.8	10.7	11.1	11.4	11.7	1.1	0.4	0.3
대 구	14.6	12.5	12.6	13.2	13.7	0.9	0.1	0.6
부 산	15.0	13.6	13.8	14.1	14.4	0.6	0.2	0.3
전 주	13.9	12.1	12.4	13.0	13.0	0.9	0.3	0.6
목 포	14.2	13.1	13.4	13.6	13.8	0.4	0.3	0.2
제 주	16.0	14.6	14.7	15.3	15.5	0.5	0.1	0.6

자료 : 기상청 「기후표」

##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 집중

우리나라의 강수는 특히 여름몬순이 불어오는 여름에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되고,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겨울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다. 그러나 울릉도와 제주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1315.9mm(1971~2000년)로 세계 평균(880mm)보다 많으나, 1,500mm 이상의 연평균 강수량을 갖는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보다는 강수량이 적다.

전국의 2008년 강수량은 1028.3mm로 지난 30년(1971~2000년) 동안 평균 강수량의 78% 수준으로 1973년 이후 적은 강수량 기준 5위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평균 강수량은 1414.1mm로 1970년대에 비해 약 13% 증가하였다. 또 강수 강도는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1.4mm/일 많았다. <표 1-4>

해마다 강수량은 기온보다 변동이 큰 편이다. 연간 강수량은 1910년대와 1940년대에는 소우(少雨),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다우(多雨) 형태를 보였는데 연간 강수량은 1,000~1,400mm사이로 해마다 차이가 난다.

여름철 우리나라 강수량의 변화를 보면 500~1,000mm 사이를 오르내린다. 주로 여름장마의 지속 기간, 태풍의 유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지만 빗물의 대부분이 우기에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계은행(1999)은 우리나라가 2050년부터 물 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지역별, 계절별 '빗물의 양극화' 현상 심각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은 지역과 계절별로 강우차가 큰 '빗물의 양극화' 현상이다. 연간 강수량 최고치(2003년, 1907.7mm)가 최저치(895.3mm)의 두 배가 넘는 정도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전국과 서울 모두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하루 강수량 150mm, 120mm, 80mm, 50mm이상 일수는 각각 2.5배, 1.8배, 1.7배, 1.4배, 1.2배 증가하였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상이상 현상이 증가한다(Easterling et al., 2000). 우리나라 호우 일수의 증가는 홍수를 유발하고 가뭄의

지속 기간도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Verschuren et al., 2000; Hodell et al., 2001; Kerr, 2008)

주요 관측지점의 연간 강수량 변화는 <표 1-5>와 같으며, 연간 강수량은 기온에 비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연중 강수량이 많은 지방은 제주 남서부, 경상남도 남해안과 대관령으로 연간 강수량이 1,700mm 이상을 기록하였다. 경상북도 의성은 지난 30년(1971~2000년) 동안의 평균 강수량이 972mm로 관측 지점 중 가장 적다.

우리나라에 산지가 많은 것도 지역별로 기후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지는 지역간 기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인자이다.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에는 산지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바람받이에는 강수량이 많고, 그 반대 사면에는 강수량이 적다.

대구, 의성, 안동 등 영남 내륙지방도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를 넘지 않아 물 부족 사태를 겪기 쉽다. 안동댐과 남강댐 등이 일찍이 건설된 것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 지역은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남쪽으로 운문산, 천황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강수량이 적다. 일찍부터 사과 과수가 발달한 것은 강수량이 적어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서해안도 강수량이 적은 편으로 일조시간이 비교적 길다.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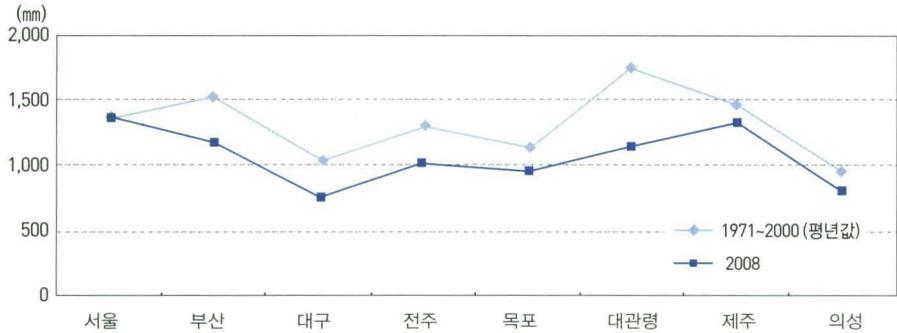
### 일조시간 1970년대에 비해 9.6% 감소

연평균 상대습도의 분포는 서해안 지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영남지방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영남지방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상대습도가 낮다. 상대습도는 4월이 가장 낮고 7월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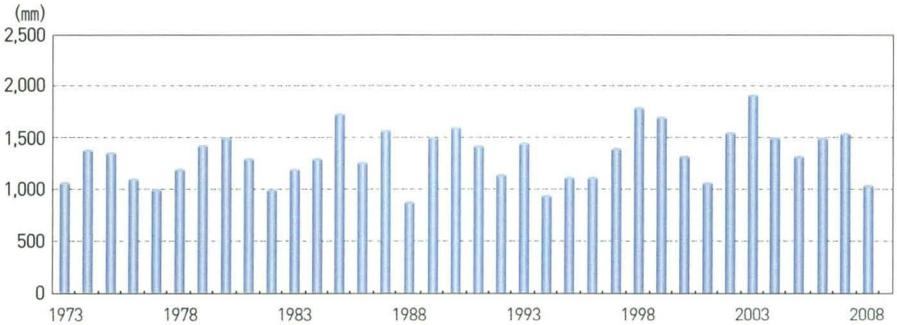
서울의 2008년 상대습도는 59.5%로 지난 30년(1971~2000년) 동안보다 7.4% 낮아 190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되면 도로 포장에 따른 토양, 수목, 초지가 감소함에 따라 수증기가 줄어들는데다 여기에 도시 고온 현상이 가중되어 습도가 낮아진다.

2008년 전국 일조시간은 2121.0 시간으로 지난 30년(1971~2000년) 동안의 평균 값보다 105.3 시간(4.7%)이 줄어들었다. 2000년대의 일조시간도 1970년대에 비해 193.4시간(9.6%) 감소했다. 구름의 양(운량)은 7월, 6월, 8월의 순서로 많으며, 이는 여름철 우기와 관련이 깊다. 12월은 구름의 양이 4로 맑은 날이 가장 많은 달이다.

[그림 1-5] 주요 지점의 강수량



[그림 1-6] 전국 연평균 강수량



[표 1-4] 전국의 강수량 및 기온요소

요 소	2008년 (a)	평년값 (1971-2000) (b)	(a-b)	1973년 이후 순위 <sup>1)</sup>	1970년대 (1973-1980) (c)	2000년대 (2001-2008) (d)	(d-c)
강수량(mm)	1028.3	1315.9	-287.6 [28.0% ↓]	최저 5위	1255.0	1414.1	159.1 [12.7% ↑]
강수일수(일)	103.7	105.3	-1.6	-	107.4	107.3	-0.1
강수강도(mm/일)	9.9	12.5	-2.6	최저 3위	11.7	13.1	1.4
일조시간(시간)	2121.0	2226.3	-105.3 [4.7% ↓]	-	2265.3	2074.2	-191.1 [8.4% ↓]
운량(전체 10중예)	5.0	5.2	-0.2	-	5.2	5.1	-0.1
습도(%)	67.5	70.8	-3.3	-	72.3	67.0	-5.3

주 : 1) 2008년 강수량·강수강도의 '73년 이후 순위

자료 : 기상청 「기후표」

[표 1-5] 주요 지점의 시기별 강수량

(단위 : mm)

요 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주	강릉	목포	순천	군산	의성	대관령	제주
1971- 2000(평년값)	1,344	1,492	1,028	1,152	1,287	1,402	1,125	1,488	1,201	972	1,717	1,457
2008	1,356	1,168	761	1,137	1,000	1,343	961	958	901	786	1,129	1,309

자료 : 기상청 「기후표」

### 황사관측 최초 기록은 신라 아사달왕 때

중국 북부와 몽골의 사막 또는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 황토, 먼지 등이 모래폭풍에 의해 높이 올라가 떠다니거나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제 강점기부터(1910년 이후) ‘황사(黃砂)’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먼지 현상은 서기 174년 신라 아사달왕 때 기록이 최초다. 그 당시에는 ‘우토(雨土)’란 표현을 썼다. 같은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흙가루가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황사는 고대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전영신, 기상청 기상연구소)

중국 문헌을 통해 보면 황사 대신 우토(雨土)란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정 1km 이내의 먼지 현상을 ‘사진폭(沙塵暴)’이라고 부르며, 그보다 약한 시정 10km 이내의 먼지 현상에 대해선 ‘양사(揚沙)’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먼지 현상의 최초 기록은 서기 807년 ‘황우(黃雨)’로 누렇다는 색깔을 강조하여 황사 현상을 설명하였다. 1929년에 ‘사진(沙塵)’, 1939년에 ‘황사(黃砂)’란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황사란 용어가 20세기 이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황사는 바람에 의해 퇴적된 모래와 진흙이 섞여 만들어진 황토 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건조 지대와 반건조 지대에서 모래 폭풍과 같은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황사 현상은 3~5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황사의 발원지인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데다 겨우내 얼었던 메마른 토양이 녹으면서 부서지기 쉬운 모래 먼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는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는데,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거의 아시아 중심부에서 발원한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황사는 하와이나 미국 본토까지 이동한다.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봄철의 황사는 보통 하루 내지 닷새 전에 발원지에서 떠오른 것으로 발원지에서 떠오른 먼지의 30% 정도는 그대로 발원지에 떨어지고, 20% 정도는 주변지역에, 나머지 50% 정도는 한반도를 비롯해 미국 본토까지 이동하는데 그 총량이 2천만t에 이른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올봄 황사 일수는 2.2일로 2008년에 비해 1.8일 감소하였다. 올해 황사 발생 일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황사 발원지에서 저기압의 활동이 약했고, 발원지 지역에 동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면서 한반도 쪽으로 황사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 2009년 봄철 황사 현황 및 전망), <표 1-6>

### 황사 발생 2000년대 급증

최근 중국 중·북부 내륙지방의 사막화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횟수는 200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2년 봄철에는 매우 강한 황사(10.8일)가 발생하여 초등학교 휴교, 호흡기 질환자 급증, 반도체 등 정보산업 업체의 일시적 공장 가동 휴업 등 황사로 인한 피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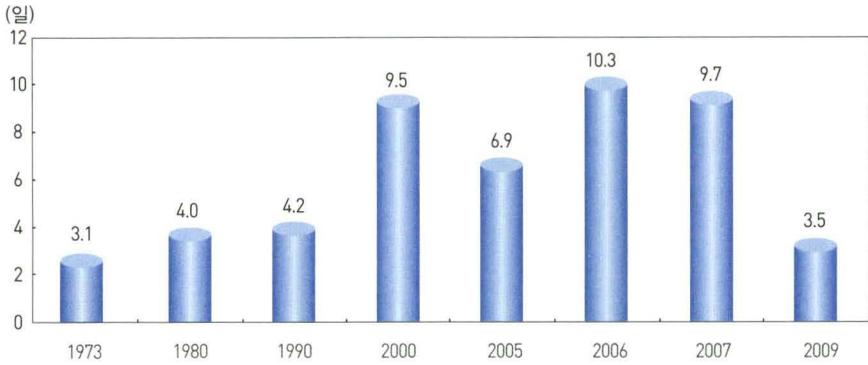
1973년 봄철 황사 일수는 2.5일로 2006년(10.3일)에 비해 7.8일, 2002년(10.8일)에 비해 선 8.3일이나 적었다. 황사 발생빈도를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 2.3일/년, 1970년대 3.1일/년, 1980년대 3.0일/년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1990년대 들어 5.1일/년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0년대에는 9.2일/년으로 더욱 많아졌다. <표 1-6>

지구 온난화로 인해 2000년 이후 황사 발생 일수가 증가하면서 토양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황허강 중류에서만도 매년 20억t에 이르는 토양이 휩쓸려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체에 걸쳐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미 총면적의 15.9%가 사막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

황사는 한반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정 장애, 호흡기 질환, 눈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유해 오염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이나 몽골뿐 아니라 황사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 일본 등지에서도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방풍림 조성이다. 중국에서는 황사 발원지인 사막 지대에 꾸준히 방풍림을 조성해왔다.

[그림 1-7] 황사 발생일수



<표 1-6> 연도별 황사 발생일수

(단위 : 일)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봄철	연
1973	-	-	0.3	0.2	2.0	-	-	-	-	-	0.6	-	2.5	3.1
1975	-	-	0.1	2.3	-	-	-	-	-	-	-	-	2.4	2.4
1980	-	-	-	1.8	2.1	-	-	-	-	-	-	0.1	3.9	4.0
1985	-	-	1.7	0.0	-	-	-	-	-	-	-	-	1.7	1.7
1990	-	-	0.1	4.1	-	-	-	-	-	-	-	-	4.2	4.2
1995	-	-	0.8	5.1	0.3	-	-	-	-	-	-	-	6.2	6.2
2000	-	-	5.3	4.2	0.0	-	-	-	-	-	-	-	9.5	9.5
2005	-	-	0.8	4.3	-	-	-	-	-	-	1.8	-	5.1	6.9
2006	-	-	3.7	5.9	0.7	-	-	-	-	-	-	-	10.3	10.3
2007	-	0.3	3.1	2.0	2.8	-	-	-	-	-	0.0	1.5	7.9	9.7
2008	-	0.7	2.1	0.3	1.6	-	-	-	-	-	-	1.5	4.0	6.2
2009	-	1.0	2.2	0.3	-	-	-	-	-	-	-	-	2.2	3.5

자료 : 기상청 「기후표」

## 인구증가율 1960년 3%에서 2009년 0.29%로 감소

일찍이 중상주의자들은 인구를 부의 축적과 군사력 강화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인구는 국가의 힘을 의미한다.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인구는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의 낮은 인구증가 단계에서 높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의 높은 인구증가 단계를 거쳐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의 낮은 인구증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과 높은 사망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농경사회였다. 그러다가 1920년경 서구 보건제도와 의학, 의약품이 들어오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2,501만 명, 인구증가율은 연 3% 정도로 높아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3·3·35운동(3살 터울로 3자녀만 35세 이전에 낳기), 1971년에는 둘 낳기 운동,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더불어 빠른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출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급기야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08명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인구증가율이 1986년 이후 1%로 낮아졌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875만 명으로 인구증가율은 0.29%이며, 세계에서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 제2의 인구변천기에 진입, 2019년부터 총인구 감소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력이 세계적으로 대만(1.1명, 2007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1.19에 그친 가운데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기대수명으로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사망률도 상승하여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제2의 인구변천기를 지나고 있다.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장

## 인구 및 가구

- 2-1 인구 추이
- 2-2 인구 구조
- 2-3 고령화
- 2-4 출산율
- 2-5 학령 인구와 혼인 연령 인구
- 2-6 기대수명
- 2-7 혼 인
- 2-8 이 혼
- 2-9 가구 구조의 변화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인구증가율 1960년 3%에서 2009년 0.29%로 감소

일찍이 중상주의자들은 인구를 부의 축적과 군사력 강화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인구는 국가의 힘을 의미한다.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인구는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의 낮은 인구증가 단계에서 높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의 높은 인구증가 단계를 거쳐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의 낮은 인구증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과 높은 사망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농경사회였다. 그러다가 1920년경 서구 보건제도와 의학, 의약품이 들어오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2,501만 명, 인구증가율은 연 3% 정도로 높아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3·3·35운동(3살 터울로 3자녀만 35세 이전에 낳기), 1971년에는 둘 낳기 운동,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더불어 빠른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출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급기야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08명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인구증가율이 1986년 이후 1%로 낮아졌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875만 명으로 인구증가율은 0.29%이며, 세계에서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 제2의 인구변천기에 진입, 2019년부터 총인구 감소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력이 세계적으로 대만(1.1명, 2007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1.19에 그친 가운데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기대수명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사망률도 상승하여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제2의 인구변천기를 지나고 있다.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변천이론상 이 시기에는 국제이동으로 인구 규모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도 앞으로 국제 혼인이나 노동이민 등 외국인의 입국이 중요한 인구정책 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는 국가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아지면 자원을 나누어 갖게 되고 모두 가난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어떤 규모의 인구가 적정 인구(optimum population)인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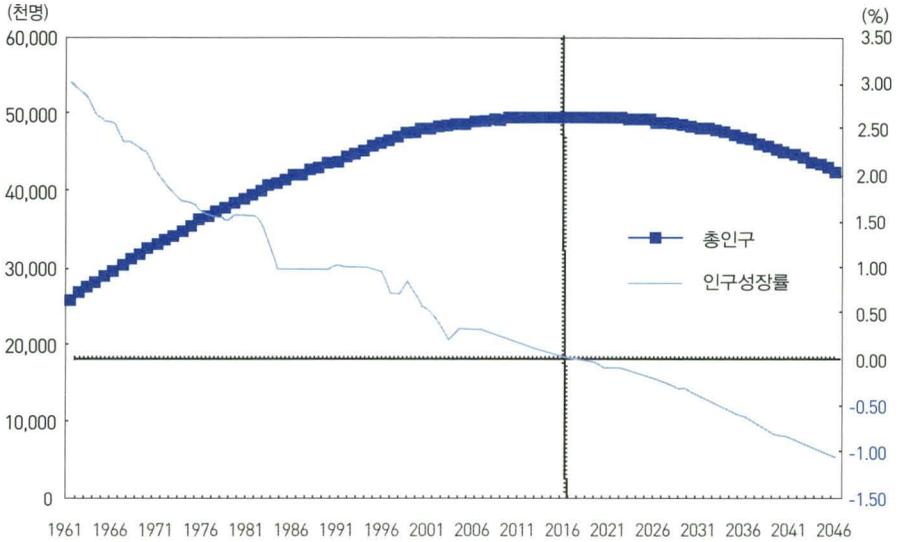
클라우드(P. Cloud)는 적정인구를 '모든 사람이 무한정 높은 질의 삶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인간능력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히 큰, 그러나 질의 손상과 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잠재력 또는 생태계의 현명한 관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인구'로 정의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일반적으로 적정인구는 일정 지역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 상태에서 최대의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적정인구 4,660만~5,100만 명

우리나라의 적정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환경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 정대연(2006)은 적정인구 규모를 4,749만~4,850만 명으로 제시하였다. 인구학자들은 적정 규모를 연간 인구성장률 0.5%의 4,660만~5,100만 명을 제시하였다. (한국인구학회, 2006)

오늘날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국가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국가의 인구 증감이 과거보다는 의미가 크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규모의 변동은 사회 여러 방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9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2-1] 한국의 인구 추이 : 1960~2050년



<표 2-1> 한국의 인구 추이 : 1960~2050년

연 도	총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성 비	연간 인구 성장률(%)
1960	25,012,374	12,550,691	12,461,683	100.7	-
1970	32,240,827	16,308,607	15,932,220	102.4	2.21
1980	38,123,775	19,235,736	18,888,039	101.8	1.57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101.3	0.99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101.4	0.84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100.9	0.29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100.8	0.26
2018	49,340,350	24,709,222	24,631,128	100.3	0.02
2020	49,325,689	24,679,762	24,645,927	100.1	-0.02
2030	48,634,571	24,190,354	24,444,217	99.0	-0.25
2040	46,343,017	22,854,325	23,488,692	97.3	-0.67
2050	42,342,769	20,734,181	21,608,588	96.0	-1.07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생산인구와 고령인구는 증가

인구구조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 분포를 의미한다. 인구전체에 대해 젊고 늙음을 나타낼 때는 인구의 평균연령(mean age)이나 중위연령(median age)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서 2009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37.3세로 높아졌다. 남자가 36.3세로 여자(38.4세) 보다 2.1세 젊다.

평균연령은 1960년에는 중위연령보다 4.1세 높은 23.1세였는데 2009년에는 37.5세로 중위연령보다 불과 0.2세 높은 수준으로 간격이 줄었다. 이는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인구 및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를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살펴보는 방법은 인구를 연령 그룹에 따라 크게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만 해도 유소년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2.3%로 높았는데 2009년에는 16.8%로 25.5%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생산인구는 54.8%에서 72.6%로 17.8%포인트 높아졌고, 고령인구 또한 2.9%에서 10.7%로 7.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60년에는 생산인구 100명당 82.6명을 부양했는데, 2009년에는 37.8명으로 부양비가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그동안 생산인구의 괄목한 증가로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 인구구조가 경제사회 발전에 우호적으로 작용해왔다. 그런데 생산인구의 증가는 노년 부양비의 증가를 실제보다 적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곧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년 부양비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산인구는 2016년(3,619만 명)을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인구피라미드는 종형과 선진국 주발형의 중간 형태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사용하는 인구피라미드도 인구구조를 살피는데 효과적이다. 인구피라미드는 높은 연령부터 낮은 연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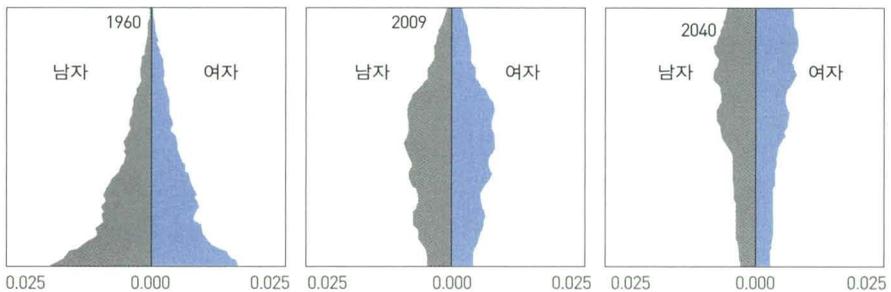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중심축으로부터 막대그래프로 남녀를 좌우로 구분하여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2]에서 보듯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는 1960년에는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는 피라미드형(pyramid-shape)이었다. 이와는 달리 2009년에는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정체하는 종형(bell-shape)과 인구가 감소하는 선진국형 주발형(bowl-shape)의 중간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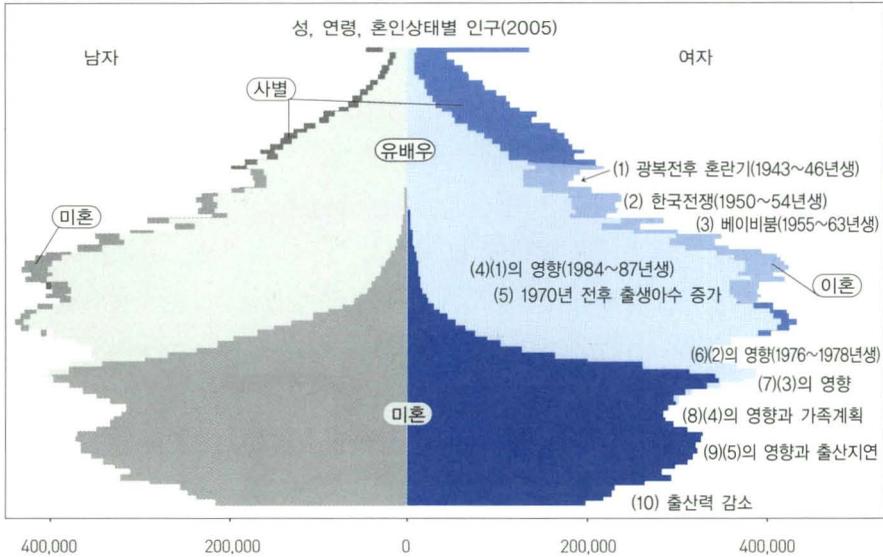
인구의 연령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출산력과 사망력, 인구이동이다. 인구구조는 과거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역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쟁 후에 나타나는 베이비붐과 같이 정치·경제·사회나 자연재해 등이 특정 연령층의 인구 증감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뒤튼린 인구구조는 인구의 재생산 과정에서 약간의 규모가 축소되어 25~30년 후에 그대로 전달되어 반복되는 효과(echo effect)를 가지고 있다.

[그림 2-3]을 보면, (1), (2)는 전쟁 등 사회적 혼란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연령층이며, (3)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난 연령층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령구조의 굴곡은 다음 세대인 (4), (6), (7) 연령층에서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각각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인구피라미드 : 1960, 2009, 2040년



[그림 2-3] 인구피라미드(2005)



자료 : 2005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표 2-2> 인구구조 : 1960~2009년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총인구(명)	25,012,374	32,240,827	38,123,775	42,869,283	47,008,111	48,746,693
0-14세(%)	10,587,583 [42.3]	13,709,367 [42.5]	12,950,775 [34.0]	10,973,592 [25.6]	9,911,229 [21.1]	8,180,366 [16.8]
15-64세(%)	13,698,341 [54.8]	17,540,152 [54.4]	23,716,967 [62.2]	29,700,607 [69.3]	33,701,986 [71.7]	35,373,617 [72.6]
65세 이상(%)	726,450 [2.9]	991,308 [3.1]	1,456,033 [3.8]	2,195,084 [5.1]	3,394,896 [7.2]	5,192,710 [10.7]
총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7.8
-유소년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3.1
-노년부양비	5.3	5.7	6.1	7.4	10.1	14.7
중위연령(세)	19.0	18.5	21.8	27	31.8	37.3
-남자(세)	18.2	17.9	21.2	26.3	30.8	36.3
-여자(세)	19.8	19.2	22.4	27.7	32.7	38.4
평균연령(세)	23.1	23.6	25.9	29.5	33.1	37.5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 우리나라 2008년부터 ‘고령인구’ 국가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곧 분자의 고령인구가 늘어나거나 분모의 유소년 및 생산인구가 감소해도 고령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처음에는 영·유아 사망력의 감소와 이에 동반된 출산력의 감소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고령자(특히 85세 이상)의 사망력 감소에 기인한다. (Gavrilov and Heuveline, 2002)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면 고령 인구, 5% 미만은 젊은 인구로 나타내기도 한다(Shryock 외, 1980)<sup>1)</sup>.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9년(4.8%)년까지는 젊은 인구에 속했으나 2008년(10.3%)부터는 고령 인구로 분류된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먼저 어느 사회의 절대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가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반대로 늘어남으로써 인구구조가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한편 노동력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이로써 노동의 생산성과 창의성, 직업·산업 및 지역간 이동성 저하로 노동력의 수급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생산을 담당해야 할 계층의 감소로 총생산량이 줄어드는데다가, 생산 재투자를 위해 투입해야 할 국가 자원이 고령자 부양으로 제한을 받아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물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데다 노후 준비를 한 소비력이 있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여행, 레저, 중장년층 제품 등 시니어 마켓을 형성하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각하는 측면도 있다.

1)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hyper-aged society)’로 분류하지만, 이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기준으로 UN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분류 방식은 아니다.

##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증가 두드러져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연령에 따라 65~74세의 전기 고령자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전기 고령자는 1960년 56만 명(전체의 2.2%)에서 2009년 331만 명(전체의 6.7%)으로 5.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후기 고령자는 11만 명(전체의 0.4%)에서 189만 명(전체의 3.9%)으로 17배 급증했다. 특히 후기 고령자 중 여성은 1960년에는 전체 후기 고령자의 59.2%였는데 2009년에는 65.9%로 비중이 커졌다.

고령자들은 연령에 따라 생물학적·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령자를 연령별로 세분해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기 고령자는 노동력에서 은퇴한지 얼마 되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에 여가 활용 및 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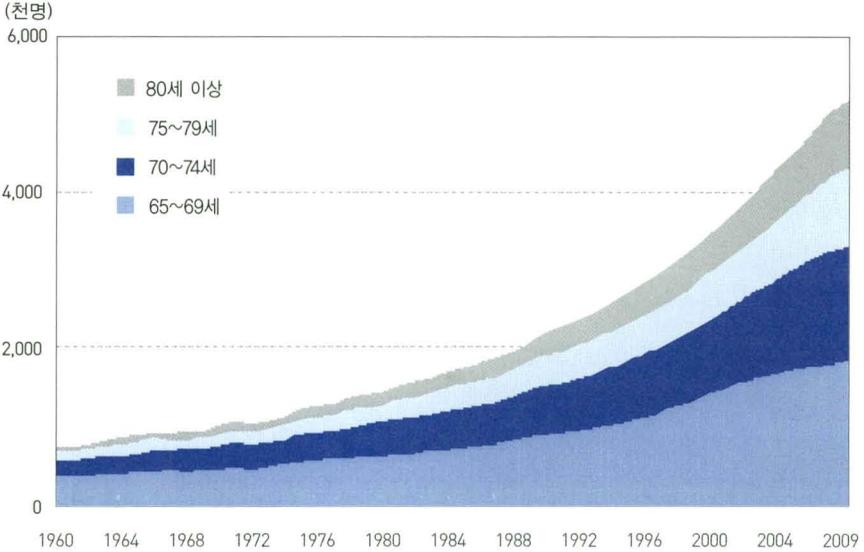
## 65~74세 전기 고령자 일자리 마련 필요

더구나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여성과 함께 고령자가 노동력 부족을 메울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은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길 원할 경우 고령자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함과 동시에 소비력이 있는 실버 마켓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자 개인적으로는 보람과 함께 소득을 얻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는 조만간 베이비붐(1955~1963년생)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후기 고령자는 시력과 청력이 감소하면서 근육과 골격계통, 순환기계통, 뇌혈관계통 등에 변화를 경험하며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후기 고령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유병상태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다.

[그림 2-4] 고령인구 추이 : 1960~2009년



<표 2-3> 고령인구 추이 : 1960~2009년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계				남자		여자	
		65세이상	65-69세	70-74세	75세이상	65세이상	75세이상	65세이상	75세이상
1960	25,012	667 (2.7)	346 (1.4)	210 (0.8)	111 (0.4)	268 (40.1)	45 (40.8)	400 (59.9)	66 (59.2)
1970	32,241	890 (2.8)	429 (1.3)	312 (1.0)	150 (0.5)	374 (42.0)	56 (37.5)	516 (58.0)	94 (62.5)
1980	38,124	1,278 (3.4)	624 (1.6)	426 (1.1)	228 (0.6)	500 (39.1)	74 (32.4)	778 (60.9)	154 (67.6)
1990	42,869	1,893 (4.4)	901 (2.1)	599 (1.4)	393 (0.9)	742 (39.2)	132 (33.7)	1,151 (60.8)	261 (66.3)
2000	47,008	3,395 (7.2)	1,381 (2.9)	922 (2.0)	1,091 (2.3)	1,300 (38.3)	351 (32.2)	2,095 (61.7)	740 (67.8)
2009	48,747	5,193 (10.7)	1,820 (3.7)	1,486 (3.0)	1,887 (3.9)	2,113 (40.7)	643 (34.1)	3,080 (59.3)	1,244 (65.9)

주 : '계'란의 괄호 안은 전체 인구에 대한 구성비, '남자' '여자'란의 괄호 안은 같은 연령그룹별 남녀의 비중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장래인구추계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현재 세계 최저 수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보통 15~49세)] 동안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 수준을 따를 경우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는 1960년만 해도 6.0명으로 높았다. 그런데 가족계획사업과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해 1970년에 4.5명, 1980년에는 2.8명으로 낮아졌다.

급기야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sup>2)</sup>인 2.1명에 도달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6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1.5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76으로 대만(1.1, 2007년)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다.

물론 2006년에 약간 반등하여 1.123, 2007년에는 1.25까지 높아졌으나 2008년 합계출산율이 다시 1.19까지 낮아진 것을 보면 2006~2007년의 반등은 이른바 쌍춘년(2006년) 및 황금돼지해(2007년)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출산 증가로 보인다. 게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2009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신생아 약 47만 명 수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일본(1.37명, 2008), 미국(2.12명, 2007), 프랑스(1.998명, 2008), 독일(1.37명, 2007), 영국(1.90명, 2007), 이탈리아(1.3명, 2007)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출산율 하락에 따라 새롭게 인구로 편입되는 출생아 수가 1960년 100만 명에서 1970년 95만 명, 1980년 87만 명, 1990년 66만 명, 2000년에는 64만 명으로 급감했다. 급기야 2005년 44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2006년 45만, 2007년 49만 명으로 반등하였는데 2008년에는 47만 명 수준으로 다시 줄었다.

2)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은 인구 규모가 유지되는 출산력 수준을 의미한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가임기간(일반적으로 15~49세)이 끝날 때까지 살면서 자신을 대체할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출산수준을 말한다. 이를 순재생산율(NRR: net reproduction rate)이라고 하며, 재생산율 1.0인 수준이 대체 출산력 수준이다. 그런데 순재생산율이 1.0인 출산 수준을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로 환산하면 약 2.1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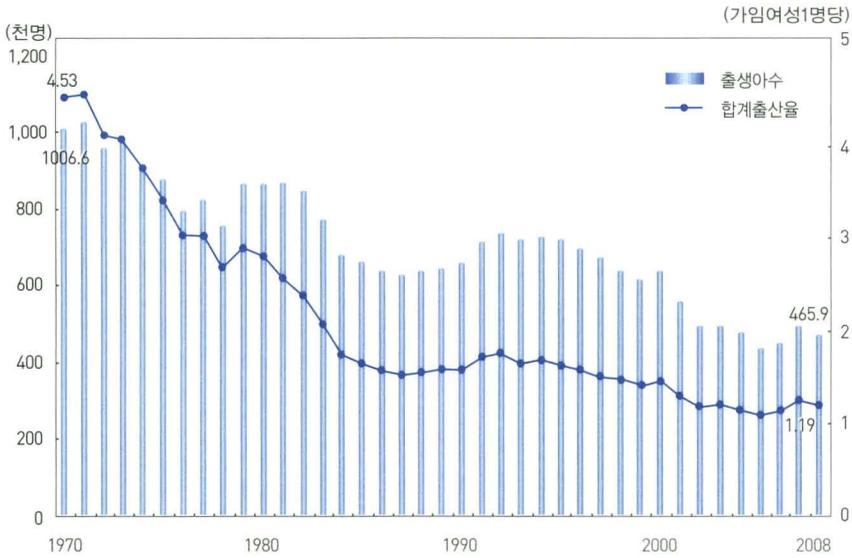
### 30~34세 출산율은 20~24세 보다 높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낮아진 가운데 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 및 경제활동 확대로 25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주 출산 연령층인 25~29세의 출산율도 같은 이유로 떨어졌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지연된 출산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인 뒤 혼인 연령 상승으로 1992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다. 30~34세의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다가 1988년 이후 꾸준히 높아졌는데, 1994년 이후에는 20~24세 출산율을 능가함으로써 25~29세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다. 35세 이상의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다가 1988년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를 보면 첫째 아이는 1980년대 초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다소 감소한 뒤 1985년 이후 점차 증가하였다가 1992년을 고비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둘째 아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1988~1995년 지연된 출산이 시작되어 둘째 아이 출산이 증가한 뒤 2000년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셋째 아이 이상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1980년대까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1990년 이후 늦둥이 출산 등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의 구성비를 보면 최근 첫째 아이의 출생 구성비는 증가한 반면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 구성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출산력 감소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낮은 사망률 수준에서도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높은 자녀 양육비, 노후 부양 수단으로써의 자녀 가치 및 효용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제도 등 복합적이다.

[그림 2-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표 2-4>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단위 : 명, 여자 천명당)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70	1,006,645	4.53	19.3	193.1	320.6	205.7	105.9	46.0	13.1
1980	862,835	2.83	12.4	135.9	242.7	114.0	40.2	15.1	5.6
1990	649,738	1.59	4.2	83.2	169.4	50.5	9.6	1.5	0.2
2000	634,501	1.467	2.5	38.8	149.6	83.5	17.2	2.5	0.2
2001	554,895	1.297	2.2	31.4	129.2	77.5	17.0	2.4	0.2
2002	492,111	1.166	2.6	26.5	110.9	74.5	16.6	2.4	0.2
2003	490,543	1.180	2.5	23.6	111.7	79.1	17.1	2.4	0.2
2004	472,761	1.154	2.3	20.6	104.5	83.2	18.2	2.4	0.2
2005	435,031	1.076	2.1	17.8	91.7	81.5	18.7	2.4	0.2
2006	448,153	1.123	2.2	17.6	89.4	89.4	21.2	2.6	0.2
2007	493,189	1.250	2.2	19.5	95.5	101.3	25.6	3.1	0.2
2008	465,892	1.19	1.7	18.2	85.6	101.5	26.5	3.2	0.2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 2-5 학령 인구와 혼인 연령 인구

Ⅱ 장 인구 및 가구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학령(學齡)인구 감소로 교육환경 변화

출산력 감소에 따라 숫적으로 줄어든 아동들이 성장해 6세 이상 21세 미만 학령 인구가 되면서 교육시장의 수급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 명에서 2009년 1,006만 명, 2030년에는 61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대학입학 대상인 18세 인구를 보면 2003년에 66만 명으로 이미 대학입학 정원(67만 명)보다 적어졌으며, 2030년에는 40만 명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늘어나 우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비인기 학과 및 비인기 계열의 폐지, 학교 통폐합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의 감소로 이어져 인구학적인 변화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출생성비 불균형, 1990년 116.5 기록

저출산은 출생성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인구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 남아선호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남아선호 의식이 여전한 가운데 출산력이 떨어지다 보니 성(性)을 선별해 출산함으로써 출생성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자연 상태의 출생성비는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는 105~108명 정도가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자연 성비는 인구 변천이 마무리되는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1985년 109.5를 기록했다. 출생성비는 1990년 116.5까지 치솟았다.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국민 의식도 바뀌면서 1990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2005년(107.8)부터 정상 성비로 돌아왔다.

문제는 성비 불균형 세대들이 성장해 혼인시장에 진입하면 남녀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이다. 더구나 출산력 감소로 연령별 코호트<sup>3)</sup> 인구가 순차적

3) 코호트(cohort)는 특정 기간에 특정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개인들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1960년 출생 코호트는 1960년에 출생한 모든 사람(동년배)을 의미하고, 1960~1965년 혼인 코호트는 그 기간 중에 혼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으로 감소하면 신랑이 평균적으로 2~3살 연하 신부와 결혼하는 우리나라 혼인 패턴으로 볼 때 혼인시장에서의 신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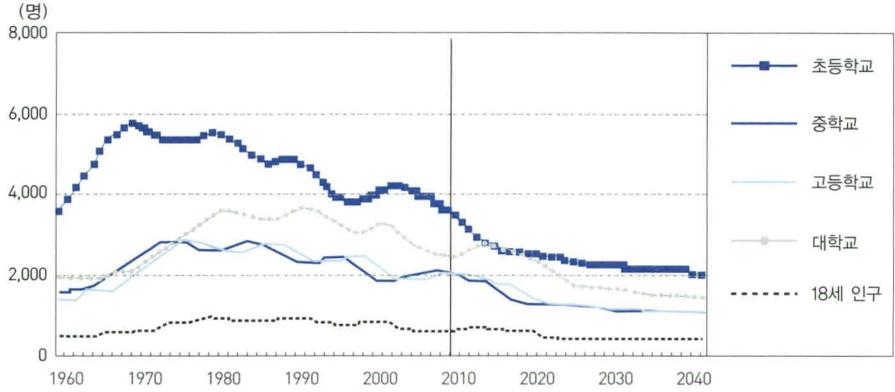
### 성비 불균형 세대 혼인시장 신부 부족

혼인 적령기를 남자 30~39세, 여자 25~34세로 가정할 경우 1993년까지는 혼인시장에서 신부 후보감이 더 많았고, 그 뒤로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출산력 감소의 여파로 연하의 신부 후보감이 크게 줄어 남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2006)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혼인시장에서의 남자 초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2032년에 절정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혼인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혼인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혼인 패턴은 남자가 여자보다 2~3살 연상이고, 혼인의 대부분이 남자 초혼-여자 초혼의 결합인 가운데 재혼은 남자 재혼-여자 초혼이 우세했다. 학력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패턴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혼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혼인 패턴을 여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있다. 남녀의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여자가 연상인 혼인, 여자 재혼-남자 초혼인 결합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농촌 총각들은 지금보다 혼인 기회가 더욱 적어져 혼인 연령이 더 늦어지거나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외국에서의 신부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림 2-6] 학령인구 추이 : 196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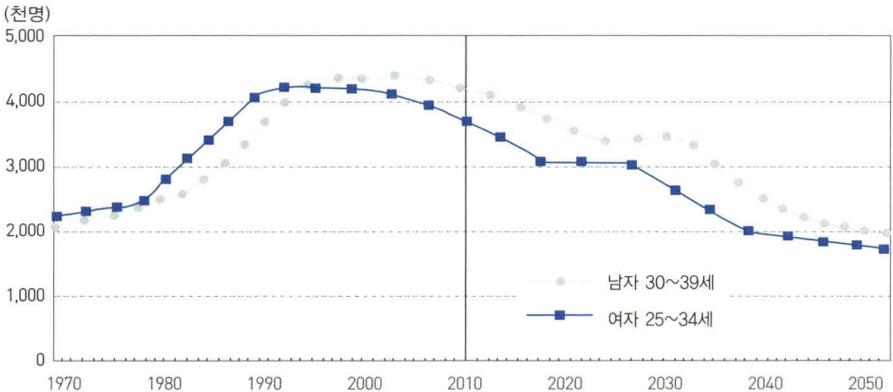
<표 2-5> 학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계(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18세 인구(명)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503,920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608,833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923,463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920,316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826,889
2009	10,062	3,464	2,025	2,067	2,506	654,964
2010	9,901	3,297	1,962	2,069	2,574	679,151
2020	7,434	2,510	1,291	1,364	2,269	508,282
2030	6,163	2,209	1,131	1,175	1,648	404,098
2040	5,580	2,001	1,075	1,071	1,433	353,812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그림 2-7] 혼인연령(남자 30-39세, 여자 25-34세) 인구 추이 : 1970~2050



### 1960년에 비해 남자 25년, 여자 29년 더 살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계속되어 왔고, 실제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유엔(2000, 2003)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1950~1955년 46.5세에서 1995~2000년 64.4세로 늘었고, 2045~2050년에는 74.3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균수명(life expectancy)과 수명(life span)은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 수명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수 연령을 의미한다. 몇몇 극단적인 연령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숫자로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대개 100년 정도로 본다. 출생 코호트가 0.1%보다 작아지는 연령으로 계산하기도 한다(Shryock 외, 1980).

이와는 달리 평균수명은 출생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생명표 상의 사망 패턴에 따라 해마다 사망한다고 가정할 때 몇 해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나타내는 기대 연수를 의미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세기 초 남자가 23세, 여자가 24세였으며 그 후 계속 높아졌다. 1942년에는 남자 43세, 여자 47세, 1960년에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로 높아졌으며, 1975년에는 남녀 모두 60세를 넘었다. 평균수명은 매년 높아져 2001년에는 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여자가 처음으로 80세를 넘겼다. 2007년에는 남자 76.13세 여자는 82.73세로 늘어났다.

최근 10년(1997~2007년) 동안 기대수명 증가는 남자의 경우 청장년층(30~64세)과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사망률 감소가, 여자는 고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크게 기여하였다. 연령별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는 70세 미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데 비해 7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8)

### 남자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여자는 0.9세 많아

2007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남자 76.1세, 여자 81.8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같은 수준이며 여자는 0.9년 더 높다.

세계적으로 남자 최장수 국가인 아이슬란드(79.4세, 2007년)보다 3.3세, 여자 최장수 국가인 일본(86.05세, 2008년)보다 3.3세 낮지만 서구 대부분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1970년 이후 기대수명 변화를 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곤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1950년대 후반 2.6년에 불과했던 것이 모성사망의 개선 등에 힘입어 여자의 사망 수준이 크게 감소하면서 1985년에는 8.37년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남자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면서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져 2007년에는 기대수명의 차이가 6.6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폴란드(8.7년), 헝가리(8.1년), 슬로바키아(7.6년) 등 동구권 국가 보다는 낮고 일본(6.8년), 프랑스(6.9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 암 없다면 남자 5년, 여자 2.7년 기대수명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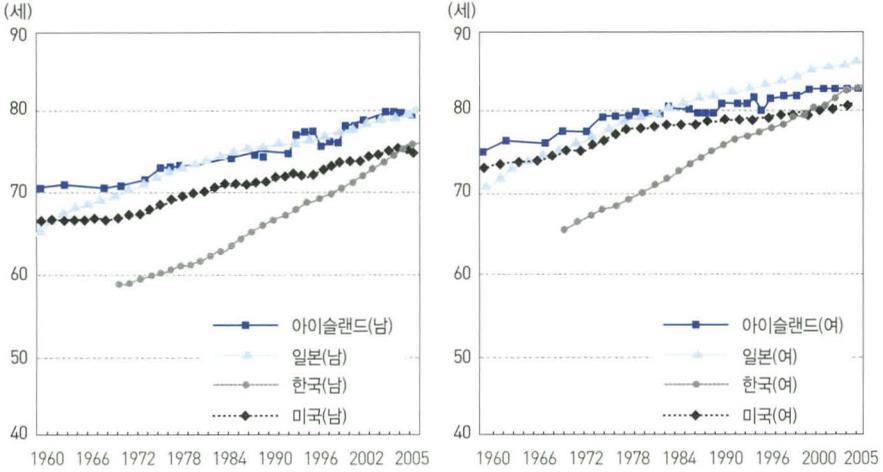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이들 3대 질환이 전체 사망자의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31.5%에서 2007년 48.3%로 높아졌다.

특히 암의 경우 1987년 전체 사망자의 13.6%를 차지했던 것이 2007년에는 27.6%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고령화된 인구구조에 기인한다.

뇌혈관질환은 2002년(15.1%) 이후 감소했는데, 이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거나 세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심장질환 사망자는 관련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의 유병률 증가로 사망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7년 현재 특정 사인이 제거되면 늘어나는 기대수명은 암의 경우 남자 5.0년, 여자 2.7년, 뇌혈관질환은 남자 1.6년, 여자 1.6년, 심장질환은 남자 1.2년, 여자 1.1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2-8] 기대수명 추이 비교(1960~2005)



〈표 2-6〉 한국인의 기대수명 추이

(단위 : 세)

연 도	남자(a)	여자(b)	차이(b-a)
1960	51.1	53.7	2.6
1966	59.7	64.1	5.6
1970	58.67	65.57	6.90
1975	60.19	67.91	7.72
1980	61.78	70.04	8.26
1985	64.45	72.82	8.37
1990	67.29	75.51	8.22
1995	69.57	77.41	7.84
2000	72.25	79.60	7.35
2005	75.14	81.89	6.75
2006	75.74	82.36	6.62
2007	76.13	82.73	6.60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장래인구추계, 1960년 자료는 OECD(2009)

### 20~30대의 미혼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애 독신 증가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보편혼(universal marriage)이 관습화한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등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 젊은 층의 미혼율이 크게 높아졌다. 또 급격한 사회 변화의 영향으로 혼인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면서 더 이상 결혼이 미덕이 아니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아예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마저 있다.

[그림 2-9]에서 보듯 모든 연령층에 걸쳐 미혼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20~30대 여성의 미혼율 증가폭(동일 연령에서 그래프 간의 높이 차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45~49세 여성의 미혼 구성비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지연된 혼인이 생애 독신으로 연결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 여자 연상 커플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연령 매칭 패턴이 변화

1990년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였다. 이것이 2008년에는 남자 31.4세 여자 28.3세로 남자는 3.6세, 여자는 3.5세 높아졌다. 이처럼 남녀의 초혼연령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남녀간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3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남자 연상 커플은 1990년 82.2%에서 2008년 70.4%로 줄었고, 여자 연상 커플은 8.8%에서 13.7%로 늘었다. 혼인의 연령 매칭 패턴이 크게 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녀간 초혼연령 차이(3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자 연상 커플의 연령 차이가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남자 10년 이상 연상 커플의 비율이 1990년 2.3%에서 2008년 5.9%로 높아졌다.

### 외국인과 혼인 2005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정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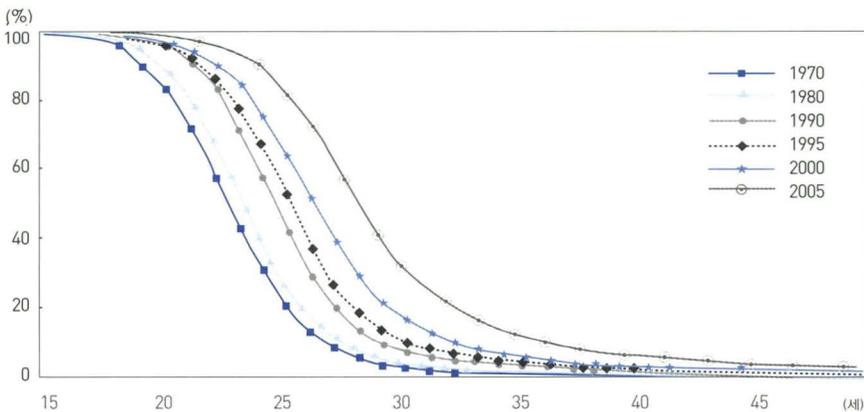
1990~1994년 사이 국제혼인은 연 5천건 정도로 전체 혼인의 2% 미만이었으며, 대부분 해외로의 이주였다. 국제혼인은 1995년 1만3,494건으로 전체 혼인의 3.4%로 급증하였으며, 이때부터 국외유출보다 국내유입이 더 많아졌다. 이후에도

매년 늘어나 2005년에는 4만2,356건으로 전체 혼인의 13.5%를 차지했다. 2005년 이후 국제혼인 건수는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여 2006년 3만8,759건, 2008년 3만 6,204건 등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국제혼인의 남녀간 국적 패턴을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과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제혼인이 대다수였다. 그런데 1995년 이후에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이 국제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이 2만8,163건으로 전체 국제혼인의 77.8%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1만3,203건(전체 국제혼인의 46.3%),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일본 1,162건(4.1%) 등의 순서다.

2008년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혼인한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농어촌 지역(13.8%)이 도시 지역(7.6%)보다 높았다. 직업별로 볼 때 2008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6,458명 중 38.3%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신부 부족으로 야기된 혼인압박(marriage squeeze), 특히 조건이 열악한 농촌 총각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외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9] 한국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표 2-7〉 한국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단위 : %)

연령(세)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5-19	97.1	97.4	98.2	99.1	99.5	99.2	99.3	99.6
20-24	57.2	62.5	66.1	72.1	80.5	83.3	89.1	93.7
25-29	9.7	11.8	14.1	18.4	22.1	29.6	40.1	59.1
30-34	1.4	2.1	2.7	4.2	5.3	6.7	10.7	19.0
35-39	0.4	0.7	1.0	1.6	2.4	3.3	4.3	7.6
40-44	0.2	0.3	0.5	0.7	1.1	1.9	2.6	3.6
45-49	0.1	0.2	0.3	0.4	0.6	1.0	1.7	2.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2-8〉 평균 초혼연령 및 연령 매칭 패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초혼 연령(세)〉					
남자 (a)	27.8	28.4	29.3	30.9	31.4
여자 (b)	24.8	25.3	26.5	27.7	28.3
차이(a-b)	3.0	3.0	2.8	3.2	3.1
〈연령 매칭 패턴(%)〉					
남자 연상	82.2	81.0	76.5	72.8	70.4
동갑	9.0	10.3	12.8	15.1	15.9
여자 연상	8.8	8.7	10.7	12.1	13.7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인구동향조사

〈표 2-9〉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1990~2008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99,312	398,484	332,090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4,710	13,494	11,605	42,356	38,759	37,560	36,204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1.2	3.4	3.5	13.5	11.7	10.9	11.0
한국남자+외국여자	619	10,365	6,945	30,719	29,665	28,580	28,163
한국여자+외국남자	4,091	3,129	4,660	11,637	9,094	8,980	8,041

주 : 1990 및 1995년은 인구동태통계연보(통계청) 수치로 향후 과거 시계열 정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결과」

### 2004년부터 이혼 건수 감소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다가 다른 성의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이들 자식이 다시 성장하여 혼인으로 분가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이혼을 통한 가족 해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쉽게 이혼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1970년 1만2천건이었던 이혼은 2003년 16만7천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11만7천건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이혼숙려제<sup>4)</sup>가 시행된 이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났다.

### 20년 이상 동거 부부 이혼 크게 증가

흔히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면 이혼하고 싶어 몸이 근질(the seven year itch) 거리기 때문에 이혼이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초혼의 절반이 이혼으로 끝난다는 미국에서조차 결혼 7년 뒤에도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혼율은 낮다. 이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에 대한 이익과 이혼에 대한 불이익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Goldstein, 2003).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줄고 있는 반면, 15년 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표 2-11>을 보면 동거기간 5년 미만 이혼의 구성비는 1990년 39.5%에서 2008년 28.4%로 낮아졌다. 15~19년은 같은 기간 7.9%에서 14.1%로 1.8배 늘었고, 20년 이상 동거는 5.2%에서 23.1%로 무려 4.4배 증가했다.

4)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으면 1개월간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제도로 이른바 '화김 이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평균 이혼연령 남자 44.3세, 여자 40.5세

이에 따라 평균 이혼연령도 1990년 남자 36.8세 여자 32.7세에서 2008년에는 남자 44.3세 여자 40.5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소위 '황혼이혼'이 늘어난 것은 교육 수준의 향상,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등 한국 여성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동안 억제해오던 이혼 욕구가 자식이 성인이 된 뒤 구체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다. 2000년 전체 이혼의 40.2%를 차지했던 것이 2008년 47.8%로 늘어났다. 경제적인 이유도 2000년 10.7%에서 2008년 14.2%로 많아졌다. 이혼 종류를 보면 협의이혼은 1998년 9만 7천건으로 전체 이혼의 83.6%였으나 2008년에는 9만1천건으로 77.9%를 차지하여 다소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재판이혼은 비중이 커졌다.

##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 이혼 증가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의 이혼은 2002년 1,744건으로 전체 이혼(14만4,910건)의 1.2%에 머물렀다. 그런데 2008년에는 크게 늘어나 1만1,255건으로 전체 이혼(11만6,535건)의 9.7%를 차지했다.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이 7,962건으로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 이혼 건수의 70.7%를 차지했다.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3,293건으로 29.3%였다.

[그림 2-10] 총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표 2-10〉 총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연 도	이혼 (건)	전년대비		조이혼율(%)
		증감 (건)	증감률(%)	
1970	11,615	-	-	0.4
1975	16,453	2,380	16.9	0.5
1980	23,662	6,484	37.7	0.6
1985	38,187	2,415	6.8	0.9
1990	45,694	1,677	3.8	1.1
1995	68,279	3,264	5.0	1.5
2000	119,455	2,006	1.7	2.5
2005	128,035	-10,897	-7.8	2.6
2008	116,535	-7,537	-6.1	2.4

주 : 1981년 이후 자료는 이혼사건 신고기준임(1970~1980년은 이혼사건 발생기준)  
 자료 : 통계청 「이혼통계결과」

〈표 2-11〉 동거기간별 이혼 추이

(단위 : 건수,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5년 미만	18,053	39.5	22,272	32.7	35,047	29.4	33,144	25.9	33,114	28.4
5-9	13,320	29.2	17,179	25.2	26,643	22.3	28,516	22.3	21,694	18.6
10-14	8,323	18.2	14,052	20.7	22,360	18.7	23,621	18.4	18,307	15.7
15-19	3,630	7.9	8,974	13.2	18,342	15.4	18,887	14.8	16,478	14.1
20년이상	2,363	5.2	5,571	8.2	16,978	14.2	23,867	18.6	26,942	23.1
미 상	5	-	231	-	85	-	0	-	0	-

주 : 구성비는 미상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인구동향조사

〈표 2-12〉 이혼사유별 이혼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 부정	8.1	8.7	8.7	7.4	7.0	7.6	7.6	7.8	8.1
정신·육체적 학대	4.4	4.7	4.8	4.3	4.2	4.5	4.5	4.8	5.0
가족 간 불화	21.9	17.6	14.4	13.0	10.0	9.5	8.9	8.0	7.7
경제문제	10.7	11.6	13.6	16.4	14.7	14.9	14.7	13.7	14.2
성격차이	40.2	43.1	44.8	45.4	49.5	49.2	49.8	46.9	47.8
건강문제	0.9	0.7	0.6	0.6	0.6	0.6	0.8	0.7	0.6
기 타	13.7	13.5	13.2	12.9	13.9	13.7	13.8	18.0	16.5

자료 : 통계청 「이혼통계결과」

### 가족의 분화·탈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에 기초한 가족중심 사회였으나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의 분화와 탈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현상으로 가구의 총량은 물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등 가구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김형석, 2007).

2005년 일반 가구 수는 1,589만 가구로 20년 전(1985년)과 비교할 때 연평균 2~3%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증가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진 인구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 속도가 계속 낮아지는데도 1인 가구 등 가구 분화(分化)에 따른 가구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가구의 구성별 분포를 보면 2세대 가구가 전체의 55.4%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 밖에 1인 가구(19.9%), 1세대 가구(16.2%), 3세대 이상 가구(6.9%) 등의 순서다. 20년 전인 1985년과 비교할 때 2세대 가구(11.6%포인트)와 3세대 이상 가구(8.0%포인트)는 크게 감소한 데 비해 1인 가구(13.0%포인트), 1세대 가구(6.6%포인트)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 1인 가구 1985~2005년 사이 4.8배 증가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1985~2005년 사이 약 4.8배(251만 가구) 늘어남으로써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수 증가(631만6천 가구)의 39.7%를 차지했다. 2005년 기준 핵가족 가구(부부 가구, 부부+자녀 가구, 부+자녀 가구, 모+자녀 가구)의 비율은 65.0%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30여 년(1975년 67.7%, 1980년 68.3%) 동안 유지해오던 68%대의 핵가족 가구 비율(prevalence of nuclear family)이 1인 가구 증가의 여파로 3%포인트 감소한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가구주 중 여성 및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여자 가구주의 비율은 1995년만 해도 16.6%였는데 2005년 22.1%로 5.5%포인트 높아졌다. 65세 이상 가구주 비율도 1995년 9.7%에서 2005년 15.5%로 10년 사이 5.8%포인트 상승했다.

## 여성 가구주 및 고령 가구주 크게 증가

가구주율(가구주÷인구×100)의 연령별 패턴을 보면, 남자는 2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 30대 후반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이후 고령층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고원(plateau) 형태를 띤다. 이와는 달리 여자는 혼인 이전에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뒤 감소하다가 고령층에서 절정을 이루는 쌍봉(two peaks) 형태를 보인다.

2005년 남자는 55~59세에서 가구주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연령층은 100명 중 95.1명이 가구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는 75~79세에서 가구주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연령층은 100명 중 41.2명이 가구주였다. 1985~2005년 사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 남자는 55~59세 이전에는 가구주율이 낮아졌고 그 이후에는 높아졌으며, 여자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이 높아짐으로써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평균 가구원수는 1985년 4.09명에서 2005년 2.88명으로 축소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85년 4.09명에서 1990년 3.71명으로 4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05년에는 2.88명으로 3명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축소됨으로써 소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평균 가구원수 감소는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는데다 기대수명이 늘어나 고령자 1인 가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4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0%로 가장 주된 유형이다. 그 다음으로 2인 가구(22.2%), 3인 가구(20.9%), 1인 가구(19.9%)의 순서다. 1985년에 비해 비중이 늘어난 경우는 1인 가구(13.0%포인트), 2인 가구(9.9%포인트), 3인 가구(4.4%포인트), 4인 가구(1.8%포인트)의 순서로 나타났다.

1985년에 비해 비중이 줄어든 경우는 5인 가구(-11.8%포인트), 6인 가구(-10.7%포인트), 7인 이상 가구(-6.6%포인트)의 순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주로 여성 고령자 가구의 증가에 기인하며, 2인 가구는 저출산으로 자녀 수가 줄어들어 가운데 기대수명이 높아져 자녀 출가 후 부부만의 빈 둥지(empty nest) 기간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3자녀 가구의 증가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자녀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표 2-13〉 가구구성별 가구 및 구성비 추이(1985~2005)

(단위 : 가구, %)

연 도	계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비친족가구	1인 가구	(핵가족)
1985	9,571,361 (100.0)	195,529 (9.6)	6,412,196 (67.0)	1,422,830 (14.9)	159,865 (1.7)	660,941 (6.9)	6,586,227 (68.8)
1990	11,354,540 (100.0)	1,219,667 (10.7)	7,529,077 (66.3)	1,418,091 (12.5)	166,224 (1.5)	1,021,481 (9.0)	7,726,327 (68.0)
1995	12,958,181 (100.0)	1,640,434 (12.7)	8,200,487 (63.3)	1,291,864 (10.0)	182,990 (1.4)	1,642,406 (12.7)	8,886,488 (68.6)
2000	14,311,807 (100.0)	2,033,763 (14.2)	8,696,082 (60.8)	1,198,298 (8.4)	159,231 (1.1)	2,224,433 (15.5)	9,780,777 (68.3)
2005	15,887,128 (100.0)	2,574,717 (16.2)	8,807,326 (55.4)	1,108,464 (6.9)	225,946 (1.4)	3,170,675 (19.9)	10,330,684 (65.0)

주 : 1세대가구는 부부, 부부+기타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이고, 2세대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이며, 3세대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표 2-14〉 가구주의 성 및 연령 분포 추이(1995~2005)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5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100.0	83.4	16.6	100.0	81.5	18.5	100.0	77.9	22.1
25세미만	3.6	1.9	1.7	3.1	1.5	1.6	3.0	1.4	1.6
25-44세	51.4	46.5	4.9	48.5	42.7	5.8	42.0	35.1	6.9
45-64세	35.3	28.8	6.5	36.3	29.7	6.6	39.5	31.9	7.6
65세 이상	9.7	6.1	3.6	12.0	7.5	4.5	15.5	9.5	6.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표 2-15〉 가구원수별 일반가구 구성비 및 평균 가구원수 추이(1985~2005)

(단위 : %)

가구원 수	1985	1990	1995	2000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6.9(7)	9.0(5)	12.7(5)	15.5(4)	19.9(4)
2인	12.3(5)	13.8(4)	16.9(3)	19.1(3)	22.2(2)
3인	16.5(3)	19.1(2)	20.3(2)	20.9(2)	20.9(3)
4인	25.2(1)	29.5(1)	31.7(1)	31.1(1)	27.0(1)
5인	19.5(2)	18.9(3)	12.9(4)	10.1(5)	7.7(5)
6인	12.4(4)	5.9(6)	3.8(6)	2.4(6)	1.7(6)
7인 이상	7.2(6)	3.8(7)	1.6(7)	0.9(7)	0.6(7)
평균가구원수(명)	4.09	3.71	3.34	3.12	2.88

주 : 괄호 안은 순위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 3장

## 고용·노동

- 3-1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 3-2 성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3-3 주당 평균 취업시간
- 3-4 비경제활동인구
- 3-5 노동생산성지수
- 3-6 산업재해
- 3-7 노동쟁의



##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계속 증가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말하며,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구직기간 4주 기준에 따른 실업자 통계는 1999년 6월부터 매월 작성되고 있으며, 구직기간 1주 기준에 따른 실업자 통계 또한 1980년대부터 매월 공표되고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6월부터 실업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27만7천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남자가 연평균 14만7천명, 여자는 13만 명으로 남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연평균 15세 이상 인구가 남자(22만5천명 증가)가 여자(20만1천명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8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434만 7천명으로 이 중 남자는 1,420만 8천명, 여자는 1,013만 9천명으로 남자가 406만 9천명 많다.

## 2004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여성은 50% 넘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남자가 73.5%, 여자가 50.0%로 남자가 23.5%포인트 높다.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아 남자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 정도가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2000년 이후 지표표를 보면 2004년 62.1%를 기록한 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최근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자는 2000년 48.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처음으로 50%선을 넘었으며, 2006년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남자보다 하락폭이 적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선택 폭이 커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업자수 2000년 이후 감소 추세

실업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준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000년 이후 실업자 동향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97만9천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실업자는 76만9천명으로 이 중 남자가 50만5천명, 여자는 26만5천명이다.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 65.6%, 여자 34.4%로 남자가 훨씬 높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활동 참여 의식이 높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직장이 없어도 가정에서 할 일이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 육아, 가사 등 비경제활동을 하므로 남자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 실업률,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4.4%로 2000년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그 이후 실업률은 감소 추세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2년 연속 3.2%를 기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6%, 여자는 2.6%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고용구조 특성상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고,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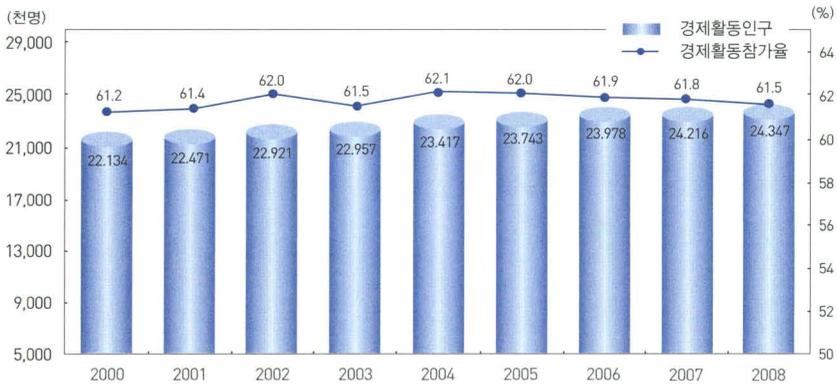
〈표 3-1〉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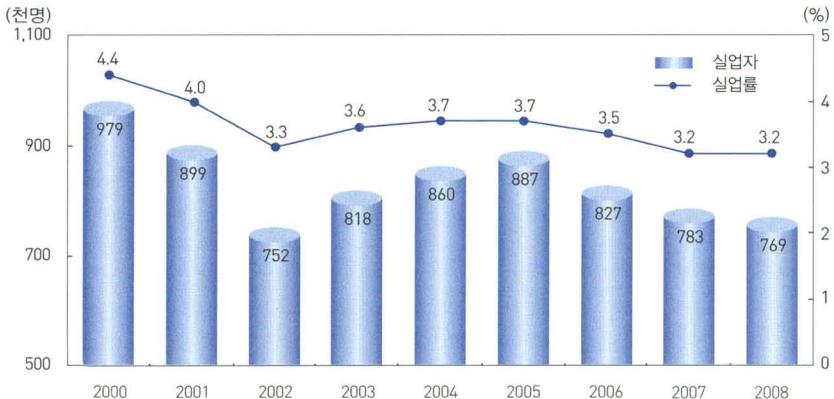
연 도	계				남 자				여 자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0	22,134	979	61.2	4.4	13,034	647	74.4	5.0	9,101	332	48.8	3.6
2001	22,471	899	61.4	4.0	13,172	591	74.3	4.5	9,299	308	49.3	3.3
2002	22,921	752	62.0	3.3	13,435	491	75.0	3.7	9,486	261	49.8	2.8
2003	22,957	818	61.5	3.6	13,539	508	74.7	3.8	9,418	310	49.0	3.3
2004	23,417	860	62.1	3.7	13,727	534	75.0	3.9	9,690	326	49.9	3.4
2005	23,743	887	62.0	3.7	13,883	553	74.6	4.0	9,860	334	50.1	3.4
2006	23,978	827	61.9	3.5	13,978	533	74.1	3.8	10,001	294	50.3	2.9
2007	24,216	783	61.8	3.2	14,124	517	74.0	3.7	10,092	266	50.2	2.6
2008	24,347	769	61.5	3.2	14,208	505	73.5	3.6	10,139	265	50.0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3-2] 실업자 및 실업률



### 취업자 1970년 대비 2.5배 증가한 2,358만 명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주당 18시간 이상 근로) 및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일한 사람을 말한다. 일시 휴직자는 직업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으나 병,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 일시적인 사유로 조사주간 동안 일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2,357만7천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970년(961만7천명)의 2.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2.3배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가 인구 증가보다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다만 1984년(7만6천명), 1998년(127만6천명), 2003년(3만 명)에는 감소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세계경기 불황,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 2003년 카드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별 취업자는 1970년에 비해 남자는 2.2배, 여자는 2.8배 증가함으로써 여자의 취업자 증가율이 남자보다 높아 여자의 사회참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1970년 여성 취업자는 300만 명(326만1천명) 수준이었는데 2008년에는 1,000만 명(987만4천명)에 육박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남녀 비율도 1970년 63 대 37에서 2008년 58 대 42로 좁혀졌다.

여성의 취업은 평상시에는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경기가 나쁠 때에는 남자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큰 경향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줄어든 127만6천명의 취업자 중 여자가 64만1천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 당시에도 남자는 되레 8만7천명 증가한 가운데 여자가 11만7천명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고용 특성상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경기 침체에 남성보다 일자리가 취약한 것과 연관이 있다.

## 자영업자는 근래에 감소 추세 유지

취업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970년 374만6천명에서 2008년 1,620만6천명으로 4.3배, 자영업자는 328만6천명에서 597만 명으로 1.8배 증가한 반면 무급 가족종사자는 258만6천명에서 140만1천명으로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1970년 39.0%에서 2008년 68.7%로 높아진 데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61.1%에서 31.3%로 크게 낮아졌다.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선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07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31.8%인데 비해 미국은 7.2%, 일본 13.4%, 캐나다 9.3%, 호주는 12.9%를 나타냈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농림어업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농림어업 가구와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 가구에서는 가구원들이 가구주를 도와 무급으로 일을 하므로 무급 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취업자로 조사된다.

자영업자 규모는 경기 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1983, 1984년, 1998년, 2003년)한 적은 있으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런데 2006년(8만5천명)부터 2008년(7만9천명)까지 최근 3년 동안 자영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자영업이 자체 구조조정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추세를 보면 상용 근로자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는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상용 근로자가 연평균 32만7천명씩 증가한 데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는 2만9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일자리가 점차 전문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취업자 계	9,617	13,683	18,085	20,414	21,156	22,856	23,151	23,433	23,577
비임금근로자	5,872	7,220	7,135	7,515	7,795	7,671	7,600	7,463	7,371
· 자영업주	3,286	4,651	5,068	5,569	5,864	6,172	6,135	6,049	5,970
· 무급가족종사자	2,586	2,569	2,067	1,946	1,931	1,499	1,466	1,413	1,401
임금근로자	3,746	6,464	10,950	12,899	13,360	15,185	15,551	15,970	16,206
· 상용근로자	-	-	5,938	7,499	6,395	7,917	8,204	8,620	9,007
· 임시근로자	-	-	3,171	3,598	4,608	5,056	5,143	5,172	5,079
· 일용근로자	1,018	1,300	1,840	1,802	2,357	2,212	2,204	2,178	2,1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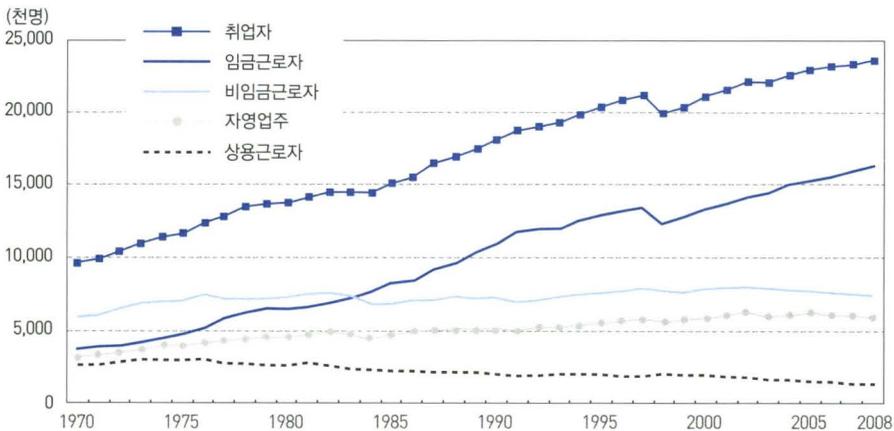
〈표 3-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전년대비, 천명)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계	332	81	525	566	865	299	295	282	144
비임금근로자	136	96	-36	145	167	8	-71	-138	-92
· 자영업주	48	80	17	193	161	63	-38	-85	-79
· 무급가족종사자	88	16	-52	-48	6	-55	-33	-52	-13
임금근로자	199	-15	560	420	697	291	365	420	236
· 상용근로자	-	-	248	274	260	293	287	416	386
· 임시근로자	-	-	198	123	353	-26	87	30	-93
· 일용근로자	3	-121	113	23	83	25	-9	-26	-5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 근로시간 계속 감소, 1980년 대비 7.9시간 줄어

한국 경제가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성장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넘게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개인의 여가 활용과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적으로 주당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근로시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기간에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할 수도 있고, 평소 근로시간을 조사하거나 법정 근로시간, 또는 단체 협약 근로시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조사대상 1주간에 개인이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조사한다. 이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다른 방법보다 품이 많이 들지만 월별, 계절별,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시간에 변동이 많은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1980년 이래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시대별로 특징이 나타난다. 1980년대는 월평균 54.9시간 일했는데 매년 평균 0.01시간씩 감소하였다. 1990년대는 52.2시간으로 연평균 0.32시간 줄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48.6시간으로 연평균 0.5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이후 1980년까지는 취업시간 변동이 미미하였는데 199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을 받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이 무렵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 40시간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 40시간제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근로시간이 2007년(47.1시간)에는 전년대비 0.8시간, 2008년(46.0시간)에는 1.1시간이 줄었다. 주 40시간제는 2011년까지 대상 사업체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도소매·음식숙박업<sup>1)</sup>이 취업시간 가장 길어

산업별로 볼 때 2008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시간이 50.8시간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53.6시간으로 가장 길다. 이 밖에도 기타, 공공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50.3시간, 운수업이 49.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이와는 달리 농림어업(39.9시간)과 가사서비스업(39.9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근로시간 가장 길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그리스로 2,122시간이며, 일본 1,785시간, 미국 1,798시간의 순서다. OECD 국가 중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1,390시간에 머물렀다. 한국 근로자가 네덜란드 근로자보다 연간 약 900시간 더 일한다는 의미다.

### ■ 주요 OECD국가의 연평균 실제근로 시간(2007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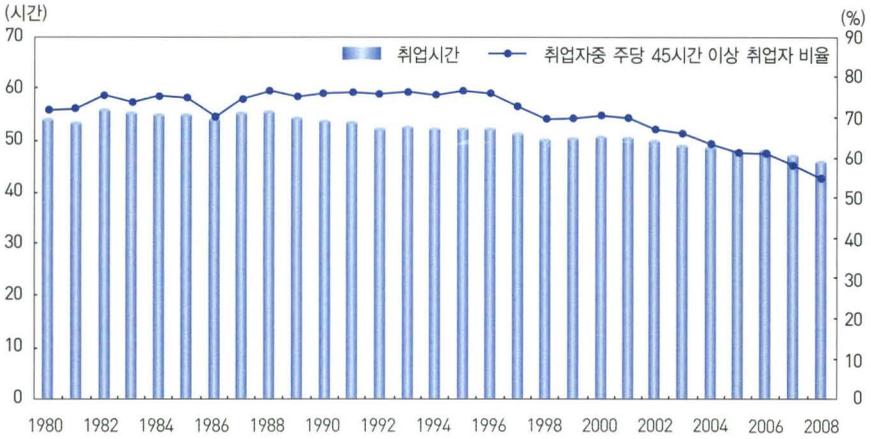
구 분	한 국	프랑스	캐나다	독 일	그리스	일 본	미 국	네덜란드
취업자	2,316	1,553	1,735	1,433	2,122	1,785	1,798	1,390
고용인	2,294	1,457	1,731	1,354	1,782	1,808	1,799	1,297

주 : 한국, 일본은 5인 이상 정규직 사업체의 근로시간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 산업별 통계는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고용통계의 산업분류는 2008년부터 9차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장기 시계열 비교를 위해 8차 산업분류(2000-2007)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림 3-4] 취업시간 및 주당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



[표 3-4] 산업별 주당 취업시간

(단위 : 시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50.6	50.4	49.8	49.1	48.7	48.1	47.9	47.1	46.0
농림·어업	43.0	43.2	41.4	41.3	40.9	40.5	41.1	41.5	39.9
광업	51.8	49.2	47.0	50.1	47.2	47.5	47.4	47.3	45.4
제조업	51.0	50.6	50.0	49.6	49.6	49.1	49.1	48.2	46.8
건설업	48.3	48.7	48.2	47.2	45.7	45.1	45.7	45.2	44.2
도소매·음식숙박업	55.7	55.2	55.0	54.3	53.8	53.0	52.6	51.9	5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48.2	48.1	47.4	46.6	46.4	45.9	45.5	44.4	43.6
전기·운수·통신·금융	51.3	51.4	50.8	49.9	49.1	48.5	48.3	47.6	4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5] 산업별 주당 취업시간 증감

(단위 : 시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	-0.2	-0.6	-0.7	-0.4	-0.6	-0.2	-0.8	-1.1
농림·어업	-	0.2	-1.8	-0.1	-0.4	-0.4	0.6	0.4	-1.6
광업	-	-2.6	-2.2	3.1	-2.9	0.3	-0.1	-0.1	-1.9
제조업	-	-0.4	-0.6	-0.4	0.0	-0.5	0.0	-0.9	-1.4
건설업	-	0.4	-0.5	-1.0	-1.5	-0.6	0.6	-0.5	-1.0
도소매·음식숙박업	-	-0.5	-0.2	-0.7	-0.5	-0.8	-0.4	-0.7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0.1	-0.7	-0.8	-0.2	-0.5	-0.4	-1.1	-0.8
전기·운수·통신·금융	-	0.1	-0.6	-0.9	-0.8	-0.6	-0.2	-0.7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2002년 이후 대체로 비슷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것으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의 사람들을 말한다. 1999년 6월 실업자 통계 작성기준 변경<sup>2)</sup>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통계의 장기 시계열 비교를 위해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한 실업자 수치를 적용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인구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 1980년 1,003만 명이었던 것이 2008년 1,53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전체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대 초 급상승하였다가(1984년 44.2%) 이후 수출 호조와 88 서울올림픽 개최 등 호재 속에 1997년(37.5%)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8년(39.4%)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및 경기 침체로 다시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2002년(38.1%)부터 2008년(38.6%)까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율은 1980년에는 남자가 27.8%, 여자가 72.2%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후 남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대신 여자는 감소하여 2008년에는 남자 33.6%, 여자 66.4%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비경제활동인구 가사(주부)와 통학(학생)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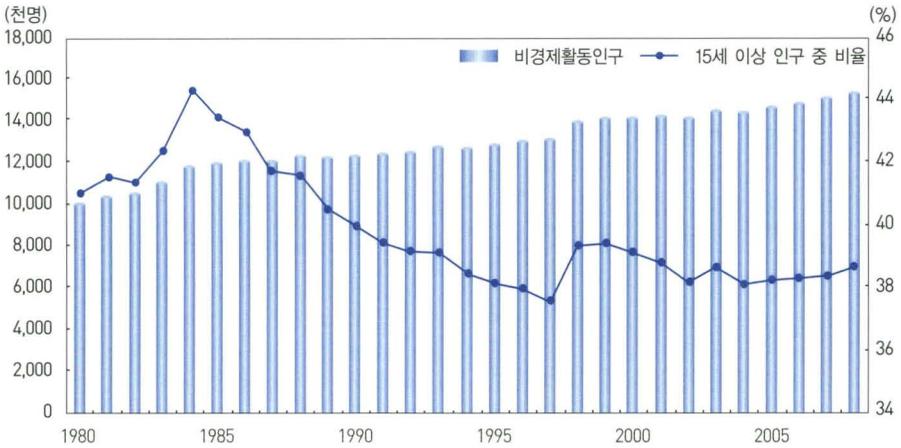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가 540만 명(35.4%)으로 가장 많다. 이와 비슷한 활동인 '육아' (156만 명, 10.2%) 종사자까지 합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 그 다음으로는 주로 학생인 '정규 교육기관 통학'으로 395만 명(25.9%)이다.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9년 6월부터 공식 실업자 통계 산출을 위한 기준 중 구직활동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하였다.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조사대상 1주 동안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보았지만, 이제 조사대상 주를 포함하여 지난 4주 동안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조사한다. 4주 기준 실업자가 1주 기준 실업자보다 더 많고 실업률도 더 높다. 통계청은 1주와 4주 기준 실업자(률) 통계를 모두 공표하나 공식 실업률은 4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과 관련된 활동 상태인 '취업준비자'는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을 다니거나 집·독서실 등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취업준비자는 처음 조사한 2003년 35만 명(2.4%)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에는 60만 명(3.9%)에 이르렀다. 취업준비자는 주로 20~30대 젊은 연령층인 점에서 볼 때 높은 대학 진학률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기대 수준에 맞는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8년 비경제활동인구의 8.9%를 차지하는 135만 명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퇴직, 병, 일거리 부족, 휴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쉬었음' 인구는 60대 이상이 33%, 50대가 23%로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 대체로 고령층에 많다.

[그림 3-5]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율 추이



〈표 3-6〉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활동상태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	계	14,383	14,300	14,557	14,784	14,954	15,251
	육아	1,502	1,510	1,502	1,508	1,496	1,559
	가사	5,156	5,212	5,223	5,265	5,343	5,404
	정규교육기관통학	3,706	3,548	3,521	3,704	3,855	3,946
	취업준비	345	383	457	525	546	598
	연로	1,667	1,544	1,524	1,502	1,442	1,518
	심신장애	450	467	477	470	447	437
	쉬었음	907	1,033	1,238	1,277	1,321	1,352
그 외	650	603	615	533	504	437	
비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육아	10.4	10.6	10.3	10.2	10.0	10.2
	가사	35.8	36.4	35.9	35.6	35.7	35.4
	정규교육기관통학	25.8	24.8	24.2	25.1	25.8	25.9
	취업준비	2.4	2.7	3.1	3.6	3.7	3.9
	연로	11.6	10.8	10.5	10.2	9.6	10.0
	심신장애	3.1	3.3	3.3	3.2	3.0	2.9
	쉬었음	6.3	7.2	8.5	8.6	8.8	8.9
그 외	4.5	4.2	4.2	3.6	3.4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생산성지수 상승세 주춤, 광업은 하락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Input)과 산출물(Output)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투입요소 한 단위가 산출한 산출량(또는 부가가치)을 말한다. 생산성이 증가(향상)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보다 적은 투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노동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종업원의 숙련도나 조업도, 또는 생산기술의 변화나 설비의 고도화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생산 과정에 있어서 생산 효율의 향상 정도, 기술 수준의 변화 등 주로 기술적 효율성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임금결정 및 성과배분 등의 주요지표로 활용된다.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그 상승폭이 축소되는 추세다. 광업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광공업의 생산성은 2001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05년 기준(2005=100)으로 물적 노동생산성을 보면 2008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20.4로 높은 반면 광업은 82.7로 낮았다. 제조업은 소폭이나마 기준 연도에 비해 높아진 반면, 광업은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광업 생산의 효율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광업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생산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노동투입 대비 부가가치는 좋음을 알 수 있다.

## 제조업 중에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아

2008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중분류로 살펴보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가 147.9로 가장 높다. 이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의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반면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은 100 이하의 수치를 나타냈다. 노동생산성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것은 기준 연도인 2005년보다 3년이 지난 2008년 생산성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제조업 중 2008년 생산성이 가장 낮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생산성지수는 95.4로 기준 연도인 2005년보다 낮아졌다.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은 2003년 119.2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그 뒤 하락 추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은 2006년까지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 92.8로 크게 떨어진 뒤 2008년에는 98.5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 연도를 밑돌고 있다.

2008년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특히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20~3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결과 2008년 147.9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생산성이 높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2004~2006년 사이 20% 이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08년 현재 전년에 비해 생산성이 가장 크게 좋아진 업종은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으로 전년대비 25.8% 높아졌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도 9.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이 14.1% 낮아진 것을 비롯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은 하락하였다.

〈표 3-7〉 물적 노동생산성 지수 (시간당, 2005=100,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up>*)</sup>
지 수	광공업	66.2	72.2	71.5	79.7	84.8	92.6	100.0	111.1	118.0	119.9
	광업	84.7	90.0	95.3	97.8	96.3	105.9	100.0	101.0	95.3	82.7
	제조업	66.2	72.3	71.3	79.6	84.7	92.7	100.0	111.5	118.6	120.4
	전기·가스 및 수도	65.5	72.3	70.2	78.9	85.7	90.7	100.0	103.3	107.2	112.9
증 감 률 (%)	광공업	-	9.1	-1.0	11.5	6.4	9.2	8.0	11.1	6.2	1.6
	광업	-	6.3	5.9	2.6	-1.5	10.0	-5.6	1.0	-5.6	-13.2
	제조업	-	9.2	-1.4	11.6	6.4	9.4	7.9	11.5	6.4	1.5
	전기·가스 및 수도	-	10.4	-2.9	12.4	8.6	5.8	10.3	3.3	3.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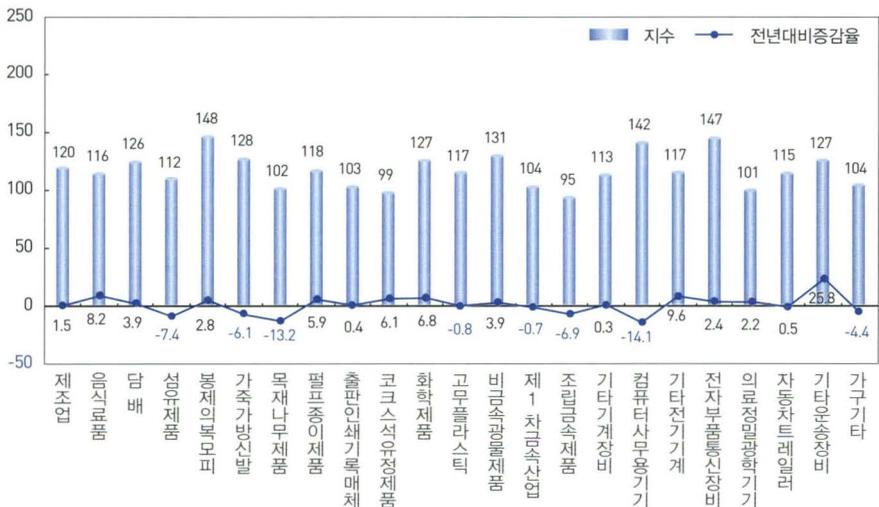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 지수」

〈표 3-8〉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시간당, 2005=100, 1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up>*)</sup>
지 수	광공업	66.7	72.6	72.5	80.3	85.7	94.3	100.0	111.8	119.9	121.5
	광업	81.9	78.7	85.7	85.7	90.8	106.6	100.0	103.8	109.4	110.4
	제조업	66.4	72.5	72.2	80.1	85.5	94.4	100.0	112.2	120.7	122.2
	전기·가스 및 수도	63.7	69.7	70.9	78.5	84.7	90.4	100.0	103.9	107.2	113.0
증 감 률 (%)	광공업	-	5.9	-0.1	7.8	5.4	8.6	5.7	11.8	8.1	1.6
	광업	-	-3.2	7.0	0.0	5.1	15.8	-6.6	3.8	5.6	1.0
	제조업	-	6.1	-0.3	7.9	5.4	8.9	5.6	12.2	8.5	1.5
	전기·가스 및 수도	-	6.0	1.2	7.6	6.2	5.7	9.6	3.9	3.3	5.8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 지수」

〔그림 3-6〕 제조업 중분류별 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2008)



## 2003년 이후 재해율 감소세

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재해율은 연간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산업재해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지다가 2003년 0.90을 기록한 이후 2004년부터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08년 재해율은 0.71로 근로자 100명당 약 0.7명이 재해를 입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0.84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재해 사고가 많다는 의미다.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2008년 1.59로 가장 높게 나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높아지다가 2003년 1.02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연간 근로자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인 사고성 사망만 인율은 1998년 2.19에서 계속 낮아져 2008년 1.07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수는 1998년 2,212명에서 늘어나 2003년 2,923명을 기록한 뒤 2004년부터 줄어 2008년에는 2,422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질병자 수는 1998년 1,838명에서 2005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07년 1만1,472명까지 늘었으며 2008년에는 다시 9,734명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재해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제조업과 기타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안전보건 규제 완화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외국인·고령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2004년까지는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한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등 재정·기술 지원과 2004년부터 실시한 사망재해 예방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클린사업은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및 작업공정 개선, 설비구입 자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광업, 재해율 및 사망 만인율 등 크게 높아

산업별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 기타산업, 건설업의 순서다. 제조업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3만5,819명이 재해를 입었다. 하지만 연간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을 보면 광업이 8.68로 두 번째인 제조업(1.15)보다 월등히 높다. 광업 근로자가 제조업 종사자보다 적는데 비해 재해자 수는 훨씬 많다는 의미다. 광업의 경우 2008년에 근로자 100명당 약 9명이 재해를 입어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

광업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274.96으로 두 번째인 운수·창고·통신업(2.60)보다 무려 100배도 넘게 높다. 게다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성 사망만인율 또한 9.17로 두 번째인 건설업(1.87)의 5배에 이른다. 이를 종합하면 광업 종사자는 사고로 죽을 확률도 높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훨씬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광업은 업무 특성상 질병 사망자 중 진폐증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으로 2008년 재해율은 0.18이었다.

- 재 해 율 : 연간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함  
 $\text{재해자수} / \text{근로자수} \times 100$
- 사고성 사망만인율 : 연간 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자수의 비율  
 $\text{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text{근로자수} \times 10,000$
- 사 망 자 수 :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보상표가 제출된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자수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질병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보상표가 제출된 업무상질병자수
- 재 해 자 수 :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결정된 재해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보상표가 제출된 재해자수

〈표 3-9〉 산업재해 현황

(단위 : %,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재해율	0.68	0.74	0.73	0.77	0.77	0.90	0.85	0.77	0.77	0.72	0.71
300인미만사업장재해율	0.87	0.99	0.92	0.97	0.92	1.02	0.96	0.93	0.91	0.85	0.84
사고성사망만인율	2.19	1.96	1.49	1.47	1.3	1.45	1.47	1.26	1.14	1.1	1.07
사망자수	2,212	2,291	2,528	2,748	2,605	2,923	2,825	2,493	2,453	2,406	2,422
전년대비사망자수증감률	-19.3	3.6	10.3	8.7	-5.2	12.2	-3.4	-11.8	-1.6	-1.9	0.7
업무상질병자수	1,838	2,732	4,051	5,653	5,417	9,130	9,183	7,495	10,235	11,472	9,734
전년대비질병자수증감률	-13.3	48.6	48.3	39.5	-4.2	68.5	0.6	-18.4	36.6	12.1	-15.1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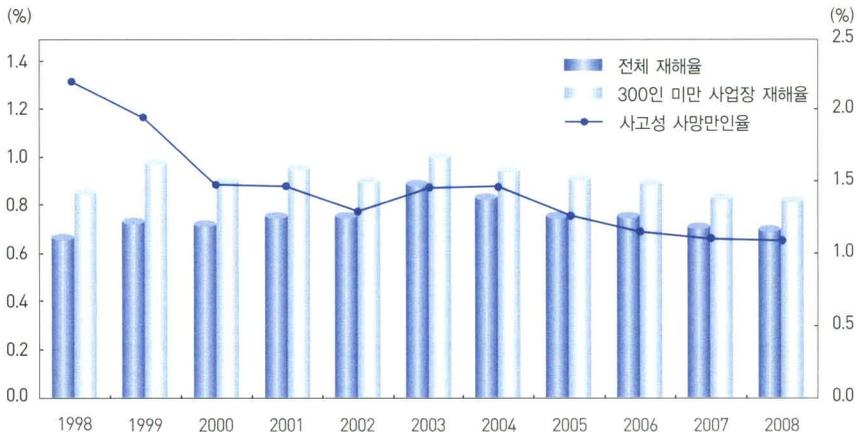
〈표 3-10〉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2008년)

(단위 : %, 명)

구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기타산업
근로자수	15,275	3,103,942	3,248,508	703,249	54,479	6,364,533
사고성 사망만인율	9.17	1.31	1.82	1.62	0.73	0.5
사고성 사망자수	14	407	592	114	4	317
사망만인율	274.96	1.94	2.06	2.60	1.28	0.85
사망자수	420	602	669	183	7	541
업무상질병자수	1,027	4,067	735	442	12	3,451
재해율	8.68	1.15	0.63	0.67	0.18	0.52
재해자수	1,326	35,819	20,473	4,739	99	33,350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현황」

〈그림 3-7〉 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 최근 3년 연속 노사분규 감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해 노조가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노동쟁의 산정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국가별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국 가	노동쟁의 산정기준
한국	분규 지속기간(누계) 8시간 이상
일본	분규 지속기간 반일 이상
호주	손실일수 10일 이상
프랑스	손실일수 1일 이상
독일, 영국	분규지속기간 1일 이상 및 참가자 10인 이상 (손실일수 100일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
스웨덴	손실일수 8시간 이상
미국	분규지속기간 1일 이상 및 참가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2005년까지는 단위 사업장별로 산출하였으나 국제 기준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ILO(국제노동기구)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할 경우 1건으로 계상하도록 바꿨다. 따라서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된 지표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근로손실일수} = \text{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times \text{파업시간} \div \text{1일 근로시간}$$

1998년부터 기준이 바뀌기 전인 2005년까지 동향을 보면 2004년까지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04년에 462건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28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준이 바뀐 뒤 2006년부터 발생 건수가 2008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 노사분규 발생 감소는 신규 노조의 노사분규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규 발생 건수와 달리 근로손실일수는 기준 개정과 상관없이 시계열로 살펴볼 수 있는데, 2000년에 189만4천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증감은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근로손실일수는 80만9천일로 2007년(53만6천일)에 비해서는 50%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속노조 및 자동차 제조 회사의 근로손실일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 발생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2000년 초반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05년 170건을 기록하였다. 그 뒤 2006~2008년에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08년 기준 전체 108건의 노동쟁의 중 제조업이 71건으로 가장 많은데 구체적으로 기계·금속 44건, 화학공업 9건의 순서다. 기계·금속은 과거에도 전체 노동쟁의 건수 중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분규가 많은 업종으로 기록됐다.

운수·창고·통신업종의 노사분규는 택시·버스 등 운수업계의 제도 개선 관련 집단파업으로 2004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4년에는 병원의 노사분규 또한 산별교섭, 주 40시간 근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급증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100~1천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가 전체 분규의 약 50%를 차지한다. 1천인 이상 사업체의 노사분규는 10%대, 100인 미만 사업장은 약 30%를 차지한다.

〈표 3-11〉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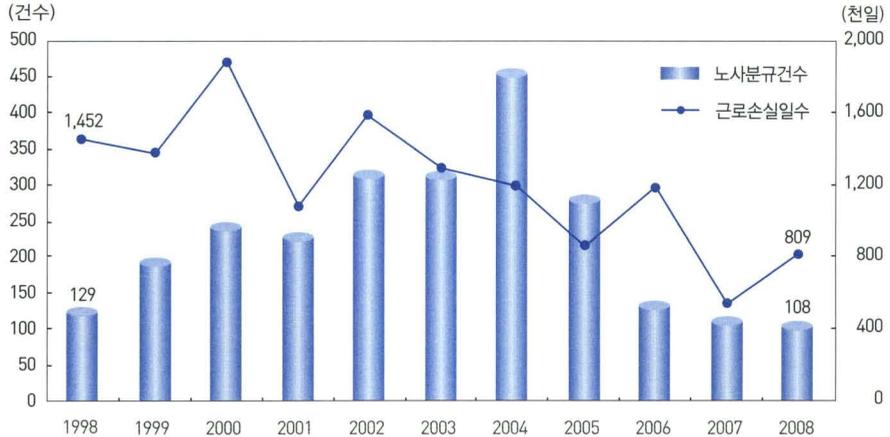
(단위: 건, 천일)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사분규건수	129	198	250	235	322	320	462	287	138	115	108
근로손실일수	1,452	1,366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주: 노사분규건수는 2006년부터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2005년 이전과 직접비교를 할 수 없음

자료: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그림 3-8〉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표 3-12〉 산업별 노동쟁의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29	198	250	235	322	320	462	287	138	115	108
제조업	72	116	121	117	136	167	140	170	64	54	71
-화학공업	3	11	18	19	20	22	15	18	12	7	9
-기계·금속	49	80	63	59	63	106	104	136	41	33	44
-전기·전자	3	9	12	11	14	20	4	5	7	4	6
-섬유	2	2	4	4	4	1	-	2	0	0	-
-기타제조	15	14	24	24	35	18	17	9	4	10	12
운수·창고·통신업	37	26	26	38	72	66	165	35	14	17	8
전기·수도·가스	-	-	2	4	5	-	-	0	2	0	0
광업	-	-	1	-	-	-	-	0	0	0	0
기타	20	56	100	76	109	87	157	82	58	44	29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8	21	33	17	23	29	32	15	12	16	6
-사회·개인서비스	9	22	50	43	81	41	99	64	41	20	19
-기타사업	3	13	17	16	5	17	26	3	5	8	4

주: 노사분규건수는 2006년부터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2005년 이전과 직접비교를 할 수 없음

자료: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 4장

## 물가 및 가계

- 4-1 소비자 물가
- 4-2 생산자 물가
- 4-3 화폐가치의 변화
- 4-4 가계소득
- 4-5 가계지출
- 4-6 가계자산 및 부채
- 4-7 소득분배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정부 발표 지수물가가 낮다고 느끼는 이유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가격으로 국민은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전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하고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100으로 보고 지수화한 것이 물가지수다. 물가지수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변동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그리고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로 구분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상승률보다 물가작성 기관에서 공표하는 지수물가의 상승률이 낮다고 느낀다.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원인으로서는 개인 또는 가구별로 소비하는 재화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수물가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 물가지수인데 비해 체감물가는 주관적 물가로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변동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따라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품목은 가격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물가 변동이 없어도 소비자는 물가가 상승하였다고 느낀다.

둘째로 개인 또는 가구의 지출 증가를 물가상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수준이 높아져 소형 가전제품을 대형으로 바꾸거나 에어컨 등 제품을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지출 증가를 물가상승으로 착각할 수 있다.

셋째로 개인 또는 가구의 자기중심적인 심리로 인해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를 판단하거나 과거에 물가가 가장 낮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지수 작성 방법의 한계로 인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가 차이가 난다.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고정한 뒤 품목별로 가중치를 두고 작성하는데 현재의 물가지수가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소비지출 구조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다.

## 소비자물가 1965년보다 31.3배 상승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준시점에 비해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소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시점은 5년마다 바꾸는데,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점은 2005년이다.

지난 4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1960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고도 성장 위주 정책의 영향을 받아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및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4~1975년 및 1980년대 초 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이후 1982년부터 물가는 안정 기조로 돌아서 한자리수의 상승률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저성장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3%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원유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경기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을 나타내며 연간 상승률이 4.7%를 기록했다.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로 1965년(3.5)의 31.3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4-1]

###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보다 1%p 정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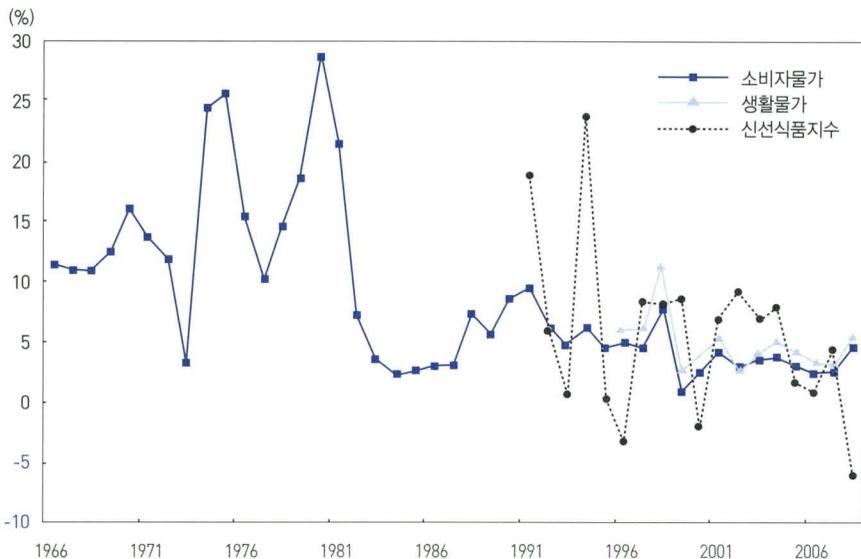
통계청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1995년부터 쌀, 배추, 라면 등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 156개를 선정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 지수로서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통상 소비자물가지수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1996년 6.0%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1%로 급격히 상승했다가 이후 5% 이하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4-1]

신선식품지수는 채소·어개·과실류 등 상품의 신선 정도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품목들을 따로 분리하여 집계하는 물가지수다. 전반적으로 가격변동 폭이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지수에 비해 높는데, 이는 신선식품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계절적 요인과 가뭄이나 장마·한파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의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지역별로 서울이 물가 상승률 가장 낮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2008년 16개 시·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로 5.3%,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였다. 두 지역간 물가 상승률 차이가 1.2%포인트에 이르렀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 지역보다 지방 지역 사람들의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즉 휘발유·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표 4-1>

[그림 4-1]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표 4-1〉 지역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

시도별	1991	2000	2005	2006	2007	2008
전도시	9.3	2.3	2.8	2.2	2.5	4.7
서울특별시	9.7	2.5	2.6	2.1	2.6	4.1
부산광역시	9.7	2.0	2.8	2.2	2.4	4.8
대구광역시	9.4	2.1	2.6	2.3	2.3	4.8
인천광역시	8.3	2.8	2.5	2.4	2.3	4.9
광주광역시	8.9	2.0	3.0	2.2	2.6	4.8
대전광역시	8.4	2.3	2.9	2.6	2.4	4.7
울산광역시	8.3	1.8	3.1	2.7	2.9	5.2
경기도	9.1	2.5	2.8	2.5	2.4	4.9
강원도	9.6	1.7	3.5	2.3	2.3	5.3
충청북도	8.5	2.0	3.1	2.3	2.7	5.1
충청남도	8.6	0.9	3.2	2.6	2.4	4.9
전라북도	8.6	2.5	2.8	2.2	2.4	4.9
전라남도	8.6	2.5	2.6	2.1	2.4	4.8
경상북도	8.3	1.4	3.0	2.3	2.4	5.3
경상남도	9.1	1.8	2.6	2.0	2.4	5.1
제주특별자치도	9.5	2.1	2.5	1.9	2.2	5.1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생산자물가 1965년보다 18.5배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출하하는 시점에서의 기업간 거래에서 이뤄지는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기준 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공장도가격)으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포괄 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물가지수도 기준시점과 비교한 현재의 물가 수준을 보여준다. 5년마다 기준년도가 바뀌며, 현재 기준년도는 2005년이다.

지난 40년 동안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97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하다 석유판동으로 1981년까지 20% 이상으로 급상승한 뒤 1982년부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는 8.6%로 크게 높아졌다. 2008년 생산자물가지수는 111.1로 1965년(6.0)에 비해 18.5배 오른 수준이다. [그림 4-2]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대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지만 1·2차 석유판동 시기인 1974년과 1980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에 각각 소비자물가보다 상승률이 4%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생산자들의 경영수지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그만큼 불황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 2008년 원자재물가지수, 1980년의 6.3배 수준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 1980년부터 작성되는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를 원재료·중간재·최종재 등 가공단계로 구분하여 가격 동향을 조사함으로써 물가의 단계별 파급 과정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sup>1)</sup> 국산품만이 조사 대상인 생산자물가지수에 비해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수입품도 함께 조사하므로 수입품의 국내 물가에 대한 파급 효과도 파악할 수 있다.

1) 원자재는 원유, 철광석 등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천연자원을 말하고, 중간재는 한번 이상 가공단계를 거쳐 다른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화를 말함, 최종재는 자본재와 소비재로 구분되는데, 자본재는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기계설비 등을 말하고 소비재는 가계가 소비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를 말함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원재료와 중간재는 인플레이션을 예고하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최종재 물가지수는 재화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측정하는데 쓰인다.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원재료의 물가상승률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아 생산자물가에 비해 등락 폭이 크다. 국제유가 및 곡물 등의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로 2008년 원재료 물가상승률은 49.2%를 기록해 1980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 원자재물가지수는 179.2로 1980년(28.5)의 6.3배 수준이다. [그림 4-2]

### 소비자물가지수와 비슷한 최종재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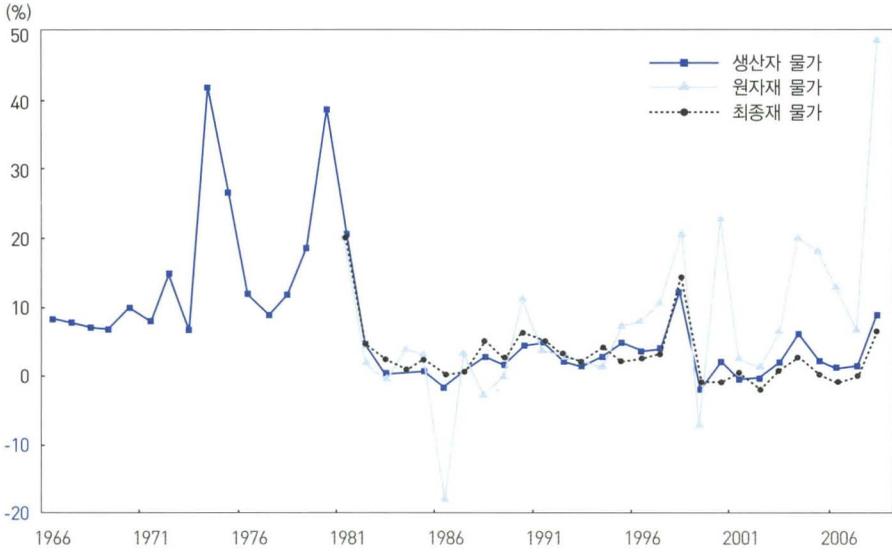
최종재의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자본재가 포함된 대신 서비스 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자본재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08년 최종재 물가상승률은 6.8%를 기록했으며, 최종재 물가지수는 105.5로 1980년(45.1)에 비해 2.3배 상승한 수준이다. [그림 4-2]

### 공산품 가격 상승률 11.9%로 높아

품목별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운수·금융·부동산 등 서비스업은 평균 2%대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2.9% 상승에 그쳤고 금융서비스업의 침체 여파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료품, 화학 및 석유제품, 금속제품과 식료품, 철강제품 등 공산품의 가격이 11.9%, 광물 등 광산품 가격이 9.7% 급등하며 2008년 생산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품은 1.1%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채소(-12.2%)와 과일(-17.9%)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의 2008년 가격 상승률은 4.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았다. <표 4-2>

[그림 4-2] 생산자 및 가공단계별 물가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4-2> 품목별 생산자물가 상승률

(단위 : %)

연도	총지수	상품	농림수산물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서비스
1966	8.3	8.3	9.5	8.3	8.7	13.5	-
1970	10.0	10.0	15.6	7.5	8.0	10.8	-
1975	26.7	26.7	37.8	27.3	22.4	48.0	-
1980	39.1	39.1	25.0	41.5	43.6	62.5	-
1985	0.8	0.8	5.7	4.9	-0.3	0.0	-
1990	4.2	4.2	14.3	2.1	2.4	-5.9	-
1995	4.7	4.8	3.8	-0.1	5.0	3.7	-
2000	2.0	2.2	-2.6	2.2	2.9	8.6	1.6
2001	-0.4	-1.1	3.6	1.1	-2.1	8.4	1.0
2002	-0.3	-1.3	2.6	7.8	-1.5	-3.3	2.1
2003	2.2	2.1	5.7	1.6	1.8	2.9	2.3
2004	6.1	7.5	12.1	7.5	7.6	0.9	2.9
2005	2.1	2.5	-3.7	6.7	6.7	1.2	1.2
2006	0.9	0.5	-2.5	-2.2	0.2	7.4	2.2
2007	1.4	1.0	2.8	7.3	0.8	3.5	2.3
2008	8.6	10.8	1.1	9.7	11.9	4.2	2.5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4-3 화폐가치의 변화

4장 물가 및 가계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물가와 화폐가치는 반비례

물가와 화폐가치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화폐)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 같은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것은 화폐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많아진다. 같은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 것은 화폐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물가와 화폐가치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화폐와 물가의 관계는 화폐 발행량 내지 통화량 변동이 물가를 변화시키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공급이 늘어나면 그 상품의 가격(가치)이 하락하듯 화폐를 많이 찍어 내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화폐 가치와 물가는 반비례하므로 이 경우 물가는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봉급이나 연금 생활자 등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림이 어려워지는 반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누리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의욕을 감퇴시킨다. 또한 사람들이 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을 사거나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미리 사두려 하기 때문에 금융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 2008년 현재 1만원 가치, 1965년 기준 320원에 불과

1965년 당시 돈 1만원의 가치는 현재 얼마나 될까? 1만원권 지폐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으로 1965년에는 가장 단위가 큰 지폐가 500원권이였다. 그 다음으로 50원, 10원, 5원, 1원, 50전, 10전 지폐가 있었다.

1965년 당시 지갑에 1만원이 있었다면 가장 큰 고액권 500원권으로 20장이므로 지갑이 꽤 두터웠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2008년 현재 1만원의 가치는 소비자물가를 고려해 볼 때 1965년 당시의 320원의 가치를 가진다.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로 1965년(3.5)에 비해 31.3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2008년 1만원의 가치는 1965년 당시 1만원의 31.3분의 1의 가치인 320원에 머물게 된다. 전반적인 물가가 31.3배 올랐기 때문에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물가가 오른

비율과 반비례해 31.3분의 1만큼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거꾸로 1965년 당시 1만원의 가치는 소비자물가를 고려해 볼 때 2008년 현재 31만 2,625원의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196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3.5로 2008년의 31.3분의 1 수준이므로 1만원이면 2008년 31.3배에 이르는 31만 2,625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sup>2)</sup> <표 4-3>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화폐가치의 변동을 살펴보면 1965년 1만원의 가치는 2008년 현재 18만 5,167원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 생산자물가지수는 111.1로 1965년(6.0)에 비해 18.5배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거꾸로 2008년 현재 1만원의 가치는 1965년 당시 540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표 4-3>

### 자장면 값, 1965년 35원에서 2008년 3,773원으로 올라

실제로 몇 가지 품목의 실제 소비자가격을 보면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자장면의 경우 1965년에는 한 그릇에 35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에는 3,773원으로 107.8배 올랐다. 다방에서 파는 커피 한 잔 값은 1965년 30원에서 2008년 3,364원으로 112.1배 상승했다. 대중 목욕탕 목욕요금의 경우 같은 기간 30원에서 4,227원으로 140.9배 올랐다.

1965년 당시 지갑에 1만원이 있으면 자장면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목욕탕에서 피로를 풀고 다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데 95원을 쓰고 9,905원이 남았다. 그런데 2008년에는 자장면 먹고 목욕하는 데에만 8,000원이 들어 나머지 2,000원으로 다방 커피를 마실 수 없어 자동판매기에서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 마셔야 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진 것이다.

자장면과 커피 값, 목욕료 등의 물가 변동 폭이 큰 것과 달리 운동화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975년 19.89에서 2008년 100.1로 403.3%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적었다. 주식인 쌀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975년 14.74에서 2008년 101.3으로 587.5% 증가함으로써 물가 상승폭이 적었다.

이와 같은 개별 품목의 물가변동 사례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음식값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오른 데 비해 정부가 수매 가격을 관리한 쌀값이나 일반 공산품 가격 등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게 가격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2) 1965년을 10,000원, 2008년을 10,000원으로 두고 각각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3) 1965년을 10,000원, 2008년을 10,000원으로 두고 각각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표 4-3〉 물가지수와 화폐가치의 변화

(단위 : 원)

연 도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생산자물가지수(2005=100)		
		화폐가치			화폐가치	
		1965년=만원	2008년=만원		1965년=만원	2008년=만원
1965	3.5	10,000	312,625	6.0	10,000	185,167
1970	6.2	5,615	175,548	8.8	6,818	126,250
1975	12.7	2,756	86,168	20.9	2,871	53,158
1980	28.2	1,245	38,937	47.0	1,277	23,638
1985	39.7	884	27,620	60.3	995	18,425
1990	51.7	679	21,214	64.8	926	17,145
1995	69.9	502	15,700	75.7	793	14,676
2000	84.9	413	12,926	91.0	659	12,209
2005	100.0	351	10,970	100.0	600	11,110
2006	102.2	343	10,734	100.9	595	11,011
2007	104.8	335	10,468	102.3	587	10,860
2008	109.7	320	10,000	111.1	540	10,000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4-4〉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 비교

(2005=100)

항 목	1975	2008	증가율(%)	비 고
운동화	19.89	100.1	403.3	
달걀(10개)	18.94	109.5	478.0	
쇠고기(600g)	4.61	106.2	2,203.2	2008년 : (국산)500g기준
돼지고기(600g)	13.18	113.4	760.4	2008년 : (국산)500g기준
자장면(1그릇)	4.74	118.9	2,409.0	
커피(1잔)	4.41	109.5	2,383.0	
목욕료(대인1회)	5.07	116.8	2,202.4	대중탕
쌀(8kg)	14.74	101.3	587.5	2008년 : 20kg기준
콩(7.2kg)	3.14	93.1	2,867.8	2008년 : 1kg기준
신문구독료(1개월)	7.99	116.9	1,362.9	
시내버스요금	4.69	114.8	2,348.3	

주 : 전도시 기준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 1963년보다 15배 증가

가계소득 및 지출은 국가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well-being)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과 소비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63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5,990원인데 비해 지출이 6,330원으로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적자를 나타냈다.<sup>4)</sup> 그런데 3년 뒤인 1966년에는 가계소득 1만 1,750원, 가계지출 1만 1,390원으로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소득이 가계지출보다 많음에 따라 가계저축이 증가하였다. [그림 4-3]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에 따른 경제 호황과 노동운동의 확산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 결과 가계소득 및 지출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과 지출은 196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해 2008년 현재 각각 389만 5천원과 303만 7천원을 나타냈다. [그림 4-3]

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및 실질지출<sup>5)</sup>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은 1965년 24만 1천원에서 2008년 355만 원으로 15배로 늘어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지출은 1965년 24만 6천원에서 2008년 276만 8천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 근로소득 비중 감소, 사업 및 부업소득 비중은 증가

가계소득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생성된다. 가계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사업이윤, 이자, 배당금 등 재산적 수입, 그리고 공적 및

4)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만 공표하고 2003년부터 비근로자 가구(자영업자, 고위 경영자, 무직 등)의 소득을 공표하므로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2003년부터 이용 가능함. 하지만 전 가구에 대한 지출 정보는 1965년부터 이용 가능함.

5) 실질소득(및 지출) =  $\frac{\text{가구소득(및 지출)}}{\text{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times 100$

사적 가계보조금 등의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경상소득과 퇴직금, 경조사비 등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인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원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1963년 92.5%에서 2008년 86.9%로 감소한 데 비해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은 점점 커져 2008년 전체 소득의 2.8%를 차지하였다. 재산소득도 감소하여 1963년 2.0%에서 2008년 현재 1.1%를 보였는데, 이는 가구주 직업이 근로자인 가구에 대한 소득 정보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5>

2003년부터 공표되는 비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 가구(1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이 63.7%, 사업소득 19.7%, 재산소득 2.3%, 이전소득 9.8%, 비경상소득이 6.0%를 차지하는 등 사업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구성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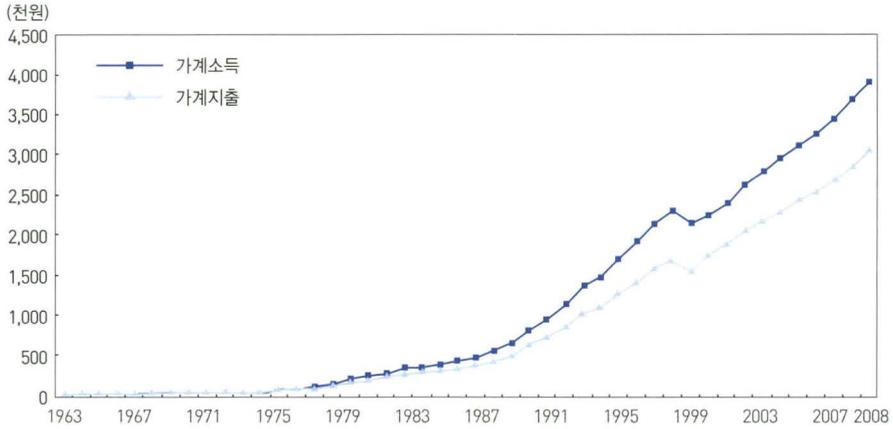
### 가구주 소득 비중 줄고, 가구원 비중 증가

1963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5,990원 중 근로소득은 5,540원이며, 이 중 가구주 소득이 5,020원으로 90.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중 기타 가구원 소득은 520원으로 9.4%에 머물렀다. 그 무렵만 해도 맞벌이 부부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기타 가구원 소득은 성장한 자녀가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4-6>

이런 추세는 경제개발 초기인 197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진 1980년대 중반 이후 배우자들도 가계소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에서 가구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맞벌이 부부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특히 배우자 근로소득은 1982년 처음 통계를 작성할 당시 1만 686원이었던 것이 1993년 1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1997년 20만원, 2003년 30만원대를 각각 돌파했다. 2008년에는 40만원을 넘어선 43만2,881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338만 4758원 중 12.8%를 차지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68만 6,985원으로 79.4%,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은 26만 4,892원으로 7.8%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1963년 9.4%였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가운데 가구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그 두 배를 넘는 20.6%로 커진 것이다.

[그림 4-3]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및 지출(2인 이상)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표 4-5]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원천별 구성비(2인 이상)

(단위 : %)

연도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963	100.0	98.8	92.5	1.0	2.0	3.3	1.2
1970	100.0	90.7	86.3	1.2	3.2	-	9.3
1975	100.0	97.7	91.5	0.7	3.7	1.9	2.3
1980	100.0	97.4	90.2	0.9	3.3	3.1	2.6
1985	100.0	97.1	89.4	2.4	2.6	2.7	2.9
1990	100.0	94.1	85.8	2.6	2.7	3.0	5.9
1995	100.0	94.1	85.9	3.3	2.2	2.6	5.9
2000	100.0	92.8	84.1	3.9	1.9	2.8	7.2
2005	100.0	95.1	86.2	3.5	1.3	4.1	4.9
2006	100.0	94.9	86.4	3.4	1.3	3.9	5.1
2007	100.0	94.9	86.4	3.2	1.3	4.1	5.1
2008	100.0	95.1	86.9	2.8	1.1	4.2	4.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표 4-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원, %)

구분	1963		1970		1982		1993		1997		200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근로소득	5,540	100.0	24,320	100.0	284,270	100.0	1,275,725	100.0	1,938,794	100.0	3,384,758	100.0
가구주소득	5,020	90.6	22,360	91.9	258,043	90.8	1,066,840	83.6	1,543,013	79.6	2,686,985	79.4
배우자소득	-	-	-	-	10,686	3.8	114,517	9.0	213,560	11.0	432,881	12.8
기타가구원소득	520	9.4	1,960	8.1	15,541	5.5	94,368	7.4	182,222	9.4	264,892	7.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와 함께 가는 소비지출

가계의 소비지출은 경제 상황과 소득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경기가 좋아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가계의 소비지출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반면 경기 침체로 기업이 적자를 내고 근로자 임금이 동결되거나 되레 깎이면 가계 소비지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계의 소비지출 행태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 증가와 흐름을 같이 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본 생활필수품인 식료품과 피복비,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대신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의 가계소득 구성 비중이 크게 다른 것과 달리 가계의 소비지출 구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국 전 가구(1인 이상)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가 25.8%로 가장 많고 주거 3.9%, 광열수도 5.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4.2%, 보건의료 5.3%, 교육 11.1%, 교통통신 17.1%, 기타 소비지출 19.9%로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 엔겔계수 1960년대 60%대에서 2006년 25%대로 낮아져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통 서민 가정은 먹고 살기가 빠듯했다.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엔겔계수)으로 입증된다.<sup>6)</sup> 1965년 당시 63.4%였던 엔겔계수는 1980년대 30%대로 내려간 데 이어 1990년대 들어 20%대로 더욱 낮아졌다. 2006년 이후 엔겔계수는 25%대를 맴돌고 있다. <표 4-7>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해 식료품비 지출 내역도 크게 바뀌었다. 곡류와 식빵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외식비 지출 비중이 커졌다. 1960년 61.5%였던 곡류·식빵

6) 독일의 통계학자 C.L.E.엔겔은 1857년 벨기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소득 가계일수록 지출 총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엔겔의 법칙'이라 하며, 총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엔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개발도상국 일수록 엔겔계수가 높고, 고소득층과 선진국일수록 엔겔계수가 낮다.

비중이 2008년 7.0%로 뚝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외식비 비중은 1.3%에서 48.9%로 38배가 되었다. 그만큼 집에서 밥을 덜 해먹는다는 의미로 이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림 4-4]

1980년대 중반 영끌계수가 30%대로 낮아질 무렵 의류 및 신발 구입비, 광열수도비 비중도 함께 내려갔다. 그 대신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의 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19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절을 벗어나 차츰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로 옮겨간 것이다.

###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증가가 큰 요인인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1963년 4.9%였던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95년 1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08년 현재 12.6%의 비중을 기록했다.

교육비 지출 비중은 주거(3.4%), 광열수도(4.9%), 가구집기 가사용품(4.3%) 구입비 등 주거 및 살림과 직결된 세 분야의 지출 비중을 합친 것과 같을 정도로 크다. 이는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펴왔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비 지출은 특히 맞벌이 부부 가정일수록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맞벌이 가정에서 월평균 38만9,136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데 비해 맞벌이가 아닌 가정에선 29만88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맞벌이가 15.3%인데 비해 비맞벌이 가정은 13.4%로 1.9%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 가장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난 교통통신비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하고 초고속 통신망 및 휴대전화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통신비 지출이 급격하게 커졌다.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교통비 지출도 많아졌다.

그 결과 1965년 2.3%였던 교통통신비 지출 비중이 2008년 16.9%로 7배 이상 높아졌다. 가계의 소비지출 분야 가운데 증가 속도와 폭이 가장 빠르고 크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와 이동전화 기술 진보에 맞춰 교통통신비 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가계의 공적연금과 세금으로 내는 돈의 비중도 커졌다. 1980년까지 10% 안팎에 머물렀던 도시근로자가구의 기타 소비지출 비중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했으며 2008년 현재 17.3%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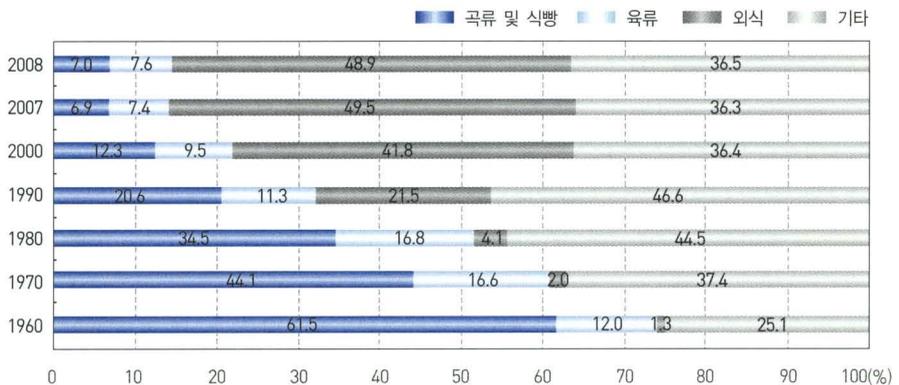
〈표 4-7〉 도시가구 소비지출 구성비(2인 이상)

(단위 : %)

연도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1965	100.0	63.4	2.1	7.1	1.1	6.3	1.3	4.9	1.6	2.3	10.0
1970	100.0	46.6	5.9	4.7	1.7	11.6	3.5	7.6	2.1	5.5	10.7
1975	100.0	48.8	2.7	6.5	4.4	9.0	4.4	7.3	1.9	4.6	10.4
1980	100.0	43.2	4.5	7.8	4.3	9.8	6.3	6.3	1.8	5.8	10.1
1985	100.0	37.5	5.0	7.5	4.7	7.6	5.5	7.8	3.5	6.5	14.4
1990	100.0	32.2	4.7	4.5	5.6	8.2	5.1	8.4	4.7	8.5	18.2
1995	100.0	29.0	3.8	4.1	4.7	7.7	4.7	10.0	5.3	11.3	19.4
2000	100.0	27.4	3.5	5.3	3.6	5.6	4.3	11.2	5.2	16.0	17.8
2005	100.0	26.4	3.4	4.9	4.1	5.3	4.9	11.8	4.9	17.3	16.9
2006	100.0	25.7	3.5	4.9	4.2	5.3	5.1	11.8	4.8	17.5	17.2
2007	100.0	25.1	3.4	4.8	4.4	5.3	5.2	12.0	5.0	17.2	17.5
2008	100.0	25.6	3.4	4.9	4.3	5.1	5.1	12.6	4.7	16.9	17.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4-4]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



## 4-6 가계자산 및 부채

가계소득 및 지출과 함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는 가계의 생활수준 및 복지 상태를 반영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소득과 지출은 일정기간 동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플로우(flow) 통계라고 할 수 있고, 자산과 부채는 일정 시점에서의 액수를 나타내므로 스톡(stock)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가계(또는 개인)는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며 이는 소비 및 투자의 주요한 재원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계자산과 함께 가계부채도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률을 감소시키고 잠재성장률<sup>7)</sup>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부채는 특히 민간소비의 감소와 내수 침체를 동반할 수 있어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up>8)</sup>

가계자산(총자산)은 크게 고정자산인 부동산, 유동자산인 저축,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기타자산으로 구성된다. 가계부채(부채총액)는 금융기관 대출, 깃돈 미불입 금액 등을 포함한 부채액과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으로 향후 지불해야할 금액인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 가구당 평균 자산 2억8,112만원, 부채는 3,948만원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이다. 이중 저축, 보험,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저축총액)은 5,745만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 2억1,604만원,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중 부동산이 76.8%, 금융자산이 20.4%, 기타자산이 2.7%로 부동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부채총액은 총자산의 14.0%에 해당하는 3,948만원이다. 이 중 금융기관 대출 등의 부채는 2,881만원이고, 임대보증금은 1,067만원이다.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4,164만원이다. <표 4-8>

7)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총생산 성장률  
8) 그동안 가계자산 및 부채 현황은 통계청의 1996년 및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했으나 조사의 중단으로 인해 이후의 우리나라 가계자산 및 부채의 수준은 파악되지 않았음. 그 후 7년 만인 200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6년 기준 「가계자산조사」를 통해 최근의 가계자산 및 부채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9) 자산에 관한 모든 금액 자료는 2006년 5월 31일 기준 가구당 평균 금액이고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평균 금액은 시가 평가액 기준임.

## 남성 가구주 나이 많을수록 자산 보유액 증가

전체 가구의 가구주 성별 자산보유 현황을 보면 총자산과 순자산 모두 남자 가구주가 여자 가구주보다 2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자산보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여자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남자 가구주는 부동산 비중이, 여자 가구주는 금융자산 비중이 크다. <표 4-8>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총자산과 순자산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보유하다가 60대 이상 계층부터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 중 저축총액은 40대, 부동산은 50대가 가장 많은 금액을 갖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동산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에 대한 비중이 크다. 전체 가구의 부채총액은 부양가족과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시기인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30대, 60대 이상 순이다. 부채총액 중 부채액은 40대, 임대보증금은 50대가 가장 크다. <표 4-8>

## 소득 최상위 계층, 최하위 계층보다 4.6배 많은 자산 보유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20%씩 5분위로 나뉜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연간소득 5분위 계층(상위 20% 계층, 6억172만원)이 1분위 계층(하위 20% 계층, 1억2996만원)보다 약 4.6배 많이 보유하고 있다.

순자산도 연간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약 4.5배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채총액 또한 연간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약 5.8배 많이 보유하고 있다. <표 4-10>

##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에 큰 차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총자산, 순자산, 저축총액, 부채총액 모두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보다 적어 부동산 보유 유무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 가구가 미소유 가구보다 총자산 평균 금액은 9.2배, 순자산 평균 금액은 10.3배나 되어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부동산 소유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보다 총자산 평균 금액과 순자산 평균 금액이 각각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9>

〈표 4-8〉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2006)

(단위 : 만원, %)

항 목	전 체	성		연령				
		남 자	여 자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자산	28,112.3	32,268.7	15,658.5	5,418.2	18,001.0	30,260.2	37,243.4	32,075.8
저축총액	5,744.8	6,404.7	3,767.3	2,903.8	5,611.3	6,744.3	6,548.4	4,557.4
저축액	4,569.8	5,232.1	2,585.4	1,350.5	3,647.1	5,313.7	5,875.3	4,081.2
전·월세보증금	1,175.0	1,172.7	1,181.9	1,553.3	1,964.2	1,430.6	673.1	476.1
부동산	21,604.1	24,945.7	11,591.6	2,137.7	11,598.0	22,597.1	29,723.2	27,072.3
주택	12,755.9	14,295.7	8,142.1	1,673.5	8,602.5	14,345.4	16,470.9	13,934.5
주택이외	8,848.2	10,650.0	3,449.5	464.2	2,995.6	8,251.7	13,252.3	13,137.9
기타자산	763.5	918.3	299.6	376.8	791.6	918.9	971.8	446.1
부채총액	3,947.9	4,436.5	2,484.0	986.5	3,722.7	4,943.4	4,620.0	2,997.2
부채액	2,881.0	3,296.5	1,636.1	901.0	3,000.2	3,763.2	3,257.1	1,781.3
임대보증금	1,066.9	1,140.0	847.9	85.5	722.4	1,180.1	1,362.9	1,215.9
순자산	24,164.4	27,832.3	13,174.5	4,431.7	14,278.3	25,316.9	32,623.4	29,078.6

자료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표 4-9〉 가구주 부동산 보유 여부별 자산보유 현황(2006)

(단위 : 만원, %)

항 목	전 체	부동산 소유	부동산 미소유		
			주택소유	주택 미소유	
총자산	28,112.3	37,496.8	38,433.5	23,283.6	4,061.7
저축총액	5,744.8	6,524.7	6,331.9	9,450.2	3,745.8
저축액	4,569.8	5,691.4	5,752.5	4,764.1	1,695.3
전·월세보증금	1,175.0	833.4	579.5	4,686.0	2,050.5
부동산	21,604.1	30,033.9	31,151.2	13,081.3	-
주택	12,755.9	17,733.1	18,901.9	-	-
주택이외	8,848.2	12,300.7	12,249.3	13,081.3	-
기타자산	763.5	938.1	950.4	752.1	315.9
부채총액	3,947.9	5,130.0	5,211.3	3,896.6	918.3
부채액	2,881.0	3,646.8	3,649.8	3,602.2	918.3
임대보증금	1,066.9	1,483.2	1,561.5	294.4	-
순자산	24,164.4	32,366.8	33,222.2	19,387.0	3,143.4

자료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표 4-10〉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현황(2006)

(단위 : 만원, %)

항 목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총자산	12,996.2	17,936.6	20,187.5	29,264.2	60,171.7
저축총액	2,487.1	3,813.5	4,679.3	6,286.8	11,455.9
저축액	1,917.0	2,743.7	3,638.3	4,801.3	9,747.8
전·월세보증금	570.1	1,069.7	1,041.0	1,485.6	1,708.1
부동산	10,316.4	13,772.7	14,957.1	22,117.5	46,852.7
주택	5,891.2	7,519.1	9,375.2	14,371.3	26,620.2
주택이외	4,425.2	6,253.6	5,581.9	7,746.2	20,232.5
기타자산	192.7	350.4	551.1	859.9	1,863.1
부채총액	1,425.6	2,310.9	3,044.9	4,698.8	8,258.3
부채액	1,006.9	1,726.4	2,308.4	3,590.8	5,771.8
임대보증금	418.7	584.5	736.5	1,108.0	2,486.5
순자산	11,570.6	15,625.7	17,142.5	24,565.5	51,913.4

자료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소득분배와 빈곤을 1992년 이후 악화

한 국가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복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및 빈곤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소득분배 측정 방법 중 흔히 지니계수와 분위배율이 소득분배의 불평등 상황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다는 의미다.<sup>10)</sup> 분위배율은 1분위(하위 소득 20% 계층)에 대한 5분위(상위 소득 20% 계층)의 소득 및 지출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이 많이 사용된다. 빈곤은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로 구분하여 파악하는데 일반적인 국제비교 및 빈곤현황 분석에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전체 가구에 대한 비율이 사용된다.<sup>11)</sup>

소득분배 및 빈곤율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소득에는 여러 개념이 있지만 흔히 소득에서 정부 및 민간의 이전소득을 더하고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2008년 지니계수 0.301, 빈곤율 13.3%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1990년대 초까지 낮아지다가 1993년 0.263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기업 도산과 근로자 정리해고가 많았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0.287로 급상승하였다. 지니계수는 2008년 현재 0.30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빈곤율도 지니계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199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8년 현재 13.3%를 기록했다. [그림 4-5]

10)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도출하는데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낮은 소득부터 누적 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지고, 대각선(45도)은 균등 분배 상태의 선이 된다. 이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균등선과 가로축, 세로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면 지니계수가 산출된다.

11)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대신 40%, 60%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

가구소득 및 지출의 최상위 계층인 5분위와 최하위 계층인 1분위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지니계수와 소득격차는 평균 5배 이상, 지출격차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8년 5분위 소득은 764만원으로 1분위 소득 143만 4천원보다 5.33배 많았다. 5분위의 지출은 510만 8천원으로 1분위 지출 154만 7천원보다 3.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 상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의 격차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별 가구가 저축 및 대출 등을 통해 지출을 위한 소득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표 4-11>

비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소득분배 현황을 보면 전국 전 가구(1인 및 농가 포함)의 2008년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316, 상대적 빈곤율 15.1%, 5분위 배율은 5.74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의 분배 상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 가구 조사대상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OECD 회원국 중 지니계수 17위, 빈곤율은 2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2000년대 중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sup>12)</sup>를 비교하면 한국은 0.312로 30개 회원국 중 1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 평균 0.311보다 높은 수치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0.232,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0.474이다.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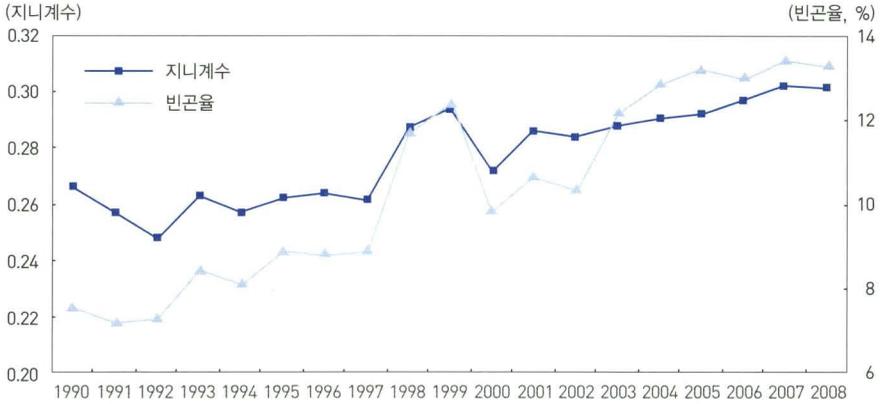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30개국 중 24위이며 OECD 평균(10.6%)보다 매우 높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5.3%,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18.4%다. [그림 4-6]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빈곤율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및 빈곤층 지원 등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고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2)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1인가구 및 농가 포함한 수치임

[그림 4-5] 소득분배 지표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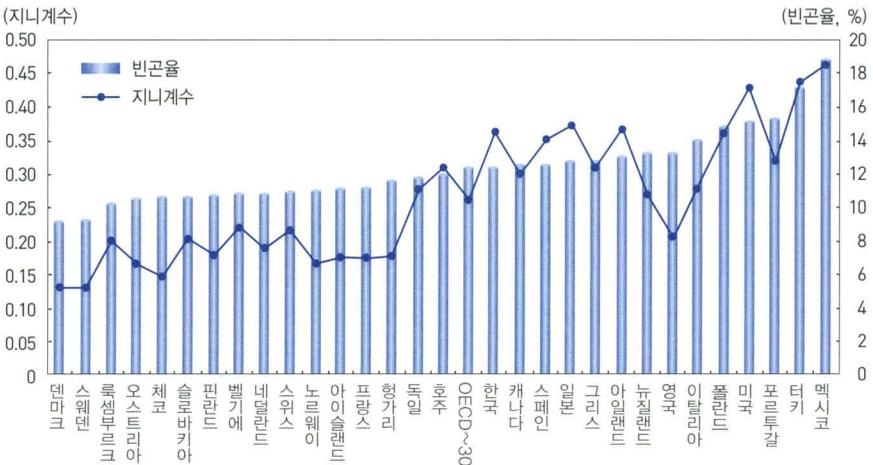
[표 4-11] 5분위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및 지출(2인 이상)

(단위 : 천원, 배)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배율	
	소득	지출	소득	지출								
1983	143	151	231	196	301	243	403	313	717	500	5.01	3.32
1985	165	177	274	227	355	280	476	358	848	602	5.13	3.39
1990	394	389	624	510	809	630	1,061	801	1,828	1,284	4.64	3.30
1995	812	801	1,286	1,082	1,677	1,292	2,193	1,551	3,587	2,318	4.42	2.89
2000	899	973	1,513	1,385	2,029	1,730	2,705	2,102	4,786	3,249	5.32	3.34
2005	1,165	1,306	2,101	1,904	2,866	2,308	3,790	2,882	6,330	4,315	5.43	3.30
2007	1,329	1,410	2,355	2,049	3,210	2,658	4,245	3,231	7,234	4,857	5.44	3.44
2008	1,434	1,547	2,504	2,202	3,402	2,837	4,492	3,489	7,640	5,108	5.33	3.3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4-6] OECD 국가의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



자료 : OECD 「Growing Unequal」

# 5장

## 국민계정

- 5-1 경제규모
- 5-2 경제구조
- 5-3 경제성장률
- 5-4 소득분배 및 지출 구조
- 5-5 지역내총생산 규모
- 5-6 시도별 경제구조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2008년 GDP, 1970년의 370배

사람들은 통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대체로 농가, 기업, 병원, 학교, 정부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자나 가계 등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처분된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에 의한 생활수준 등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한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그 포괄 범위와 평가 방법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등으로 나뉜다.

국민소득 통계지표 가운데 해당 연도 가격으로 평가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s)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국내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 투입(원재료, 부품 등 구입액)을 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표 5-1>에서 보듯 초창기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고도성장을 이룬 1970년 2조 7,640억 원에서 1980년 38조 7,75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14배 규모로 늘어났다. 20년 후인 1990년에는 186조 6,910억 원으로 65배 정도로 증가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2000년 603조 2,360억 원을 거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른 2008년에는 1,023조 9,3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8년 GDP를 1970년과 비교하면 무려 370배로 팽창한 규모다. 이는 정보기술(IT)와 자동차 부문 등에서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 1인당 국민총소득 1970년 254달러—2008년 1만 9,231달러

GDP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지만 총량 지표라서 국민의 생활수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사용한다. 한국 경제 부흥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970년 당시 1인당 GNI는 254달러에 불과했다. 그 뒤 10년 동안 꾸준히 경제발전을 꾀한 결과 1980년 1,645달러로 6.5배로 확대되면서 1천 달러를 넘어섰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두 차례 국제경기를 개최하면서 1980년대에도 성장을 지속해 1990년에는 6,147달러로 급증했다.

1990년대에는 대망의 1만 달러를 달성했다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 2000년 1만 1,292달러로 다시 1만 달러대를 회복하였다. 2005년 1만 7,531달러를 거쳐 2008년에는 1만 9,231달러로 1970년에 비해 38년 동안 76배로 확대되었다.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세계 14위

GDP 규모를 세계 국가와 비교하면 1970년 세계 33위에서 2008년 14위로 발돋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이다.

주요 국가와 GDP 변화 상황을 비교하면 <표 5-2>에서 보듯 1990년 대비 2008년 GDP가 미국 2.5배, 일본 1.6배, 독일 2.1배, 영국 2.6배 등 선진국들은 약 2배 안팎으로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더 큰 폭인 3.5배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은 과거 한국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계속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고도성장에 힘입어 GDP 규모가 11.1배의 크기로 확대되었다.

〈표 5-1〉 우리나라 연도별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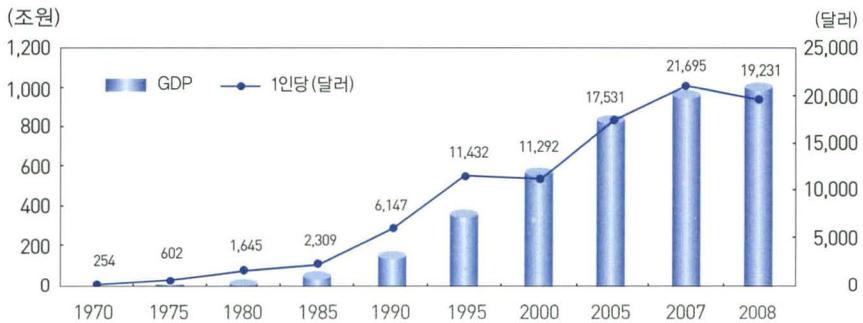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GDP	2,764	10,386	38,775	84,061	186,691	398,838	603,236	865,241	975,013	1,023,938
GNI	2,800	10,278	38,118	82,033	186,560	397,459	600,159	864,427	976,814	1,030,636
1인당(\$)	254	602	1,645	2,309	6,147	11,432	11,292	17,531	21,695	19,231

주 : 2000년 이전 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5-1〕 우리나라 국내총생산과 1인당 GNI



〈표 5-2〉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비교

(단위 : 억달러)

국가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08/90(배)
미국	58,031	73,977	98,170	124,219	131,784	138,075	142,646	2.5
일본	30,183	52,476	46,675	45,522	43,626	43,804	49,107	1.6
독일	17,145	25,226	19,002	27,884	29,168	33,234	36,559	2.1
영국	10,126	11,572	14,775	22,773	24,322	28,023	26,526	2.6
유로지역	56,464	72,772	62,460	101,293	107,294	123,160	135,770	2.4
중국	3,903	7,279	11,985	22,358	26,578	33,824	43,274	11.1
한국	2,637	5,173	5,335	8,447	9,511	10,493	9,287	3.5
대만	1,645	2,738	3,212	3,560	3,664	3,848	3,913	2.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 농림어업 비중 축소, 서비스업 확대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것인데 국민소득이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씩 생기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활동 유형이 비슷한 것을 묶어 몇 개의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본다.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용 편의상 이들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개 경제활동 부문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 부문이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구성비를 경제구조(생산구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과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된 1960년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새마을운동을 발판삼아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는 지나친 외화 사용 등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뼈아픈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 건설업 비중 커져, 2000년 이후 7%대

경제구조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표 5-3>에서 보듯 1970년 당시에는 농림어업이 29.3%, 광공업 19.5%, 건설업 5.1%, 서비스업 44.7%의 비중을 차지하여 후진성을 띠는 구조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는 농림어업이 10%대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대신 광공업이 20%대로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농림어업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에는 농림어업이 한 자리 숫자로 축소된 대신 건설업이 10%대로 크게 증가

하여 건설경기가 호황을 이루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농림어업이 4.6%까지 축소된 데 비해 광공업은 28.6%, 서비스업은 57.3%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농림어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대로 감소되었고, 서비스업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다.

2008년에는 농림어업 2.5%, 광공업 28.3%, 건설업 7.0%, 서비스업 60.3%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를 1970년과 비교하면 농림어업이 26.8%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광공업은 8.8%포인트, 서비스업 비중은 15.6%포인트 늘어났다. 건설업의 경우 1.9%포인트의 소폭 상승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업 비중은 1970년 5%대에서 1990년대 1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뒤 2000년대에서는 7%대의 고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 1970년대 1%대에서 1980년 2~3%대로 높아졌다가 1990년대에는 다시 2% 수준으로 떨어져 2000년 이후에는 줄곧 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구조 선진국형으로 변모

일반적인 경제구조의 변화 행태를 보면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림어업의 비중은 거의 1%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05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농림어업 1.0%, 광공업 17.3%, 건설업 4.9%, 서비스업 76.8%로 나타났다. 일본은 농림어업 1.4%, 광공업 22.6%, 건설업 6.1%, 서비스업 69.9%의 경제구조다. 또 독일은 농림어업 1.0%, 광공업 25.4%, 건설업 3.9%, 서비스업 69.7% 등으로 농림어업은 1%대, 서비스업은 70%대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농림어업 비중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데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면서 전형적인 선진국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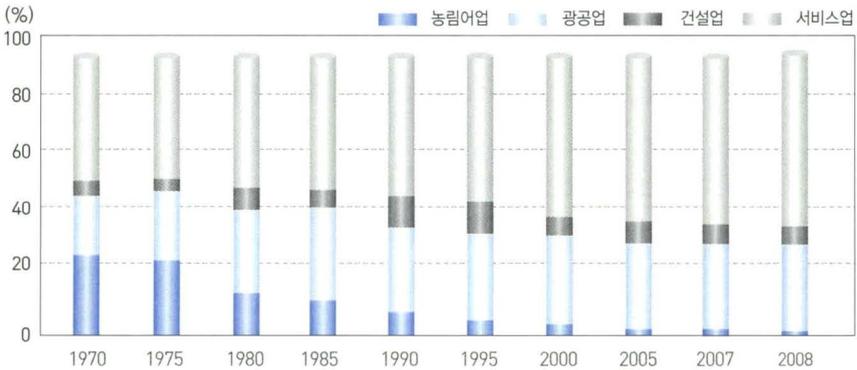
〈표 5-3〉 생산구조의 변화

(단위 :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sup>2)</sup>	2000	2005	2007	2008
농림어업	29.3	27.1	16.2	13.5	8.9	6.3	4.6	3.3	2.9	2.5
광공업	19.5	23.5	26.4	28.7	28.1	28.2	28.6	27.8	27.5	28.3
전·가·수 <sup>1)</sup>	1.4	1.1	2.2	3.0	2.1	2.0	2.5	2.3	2.2	1.8
건설업	5.1	4.6	8.0	7.3	11.3	11.6	7.0	7.6	7.4	7.0
서비스업	44.7	43.7	47.2	47.5	49.5	51.8	57.3	59.0	60.0	60.3

주 :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 95년 이전 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5-2] 연도별 생산구조 변화 추이



### 2008년 경제성장률 2.2%로 크게 감소

여러 부문의 경제활동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즉 국민경제 수준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이용한다.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물가, 실업률, 국제수지 등과 함께 경제정책 수립이나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등 국민 후생이 증진되어 개인과 국가의 복리와 안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물가 요인을 제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규모의 절대적인 변화보다는 상대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명목 가치보다는 실질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표 5-4>에서 보듯 2.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5.1%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농림어업의 성장이 전년 4.0%에서 5.5%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2.4%의 저성장을 유지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성장률이 각각 3.1%, 2.5%로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 성장률 70년대 두 자리수→ 90년대 9%대→2000년대 4~5%

경제성장률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부문이 13%대 두 자리수로 성장하면서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는 건설업과 광공업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9% 대의 GDP 성장에 일조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산업별로 광공업이 7% 내외, 건설업이 2%대, 서비스업이 4% 내외의 안정적인 저성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4~5%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과정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선진국에서도 경제발전 후기 단계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다. 2006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고 있어 건설경기가 점차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1971년에 9%대의 성장을 보였지만 1980년 3%대까지 떨어졌다가 90년대 들어 다시 8%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4%대 내외의 꾸준한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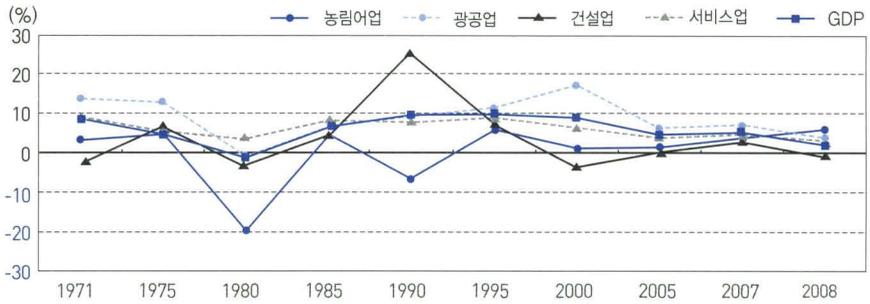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은 자동차, 정보기술(IT) 산업 등 광공업 생산이 거의 주축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이 경제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 대만과 유사

경제성장률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1971년 당시 대만이 12.8%, 우리나라는 8.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데 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2~4%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여기서 한국과 대만은 1980년을 제외하고는 아주 유사한 형태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5년 이후로는 성장률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에 따라 1991년 이후 고도성장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 이후 줄곧 거의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활발한 외국인자본의 투자 유치와 함께 수출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각종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과 중국, 즉 G2가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향후 성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림 5-3]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추이



<표 5-4>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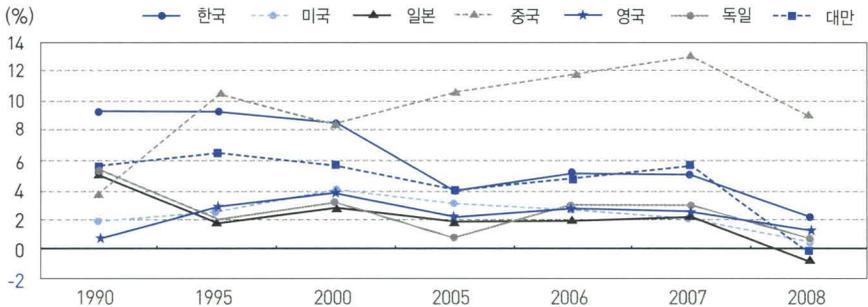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sup>2)</sup>	2005	2007	2008
농림어업	3.9	4.3	-19.4	4.5	-6.5	5.3	1.2	1.3	4.0	5.5
광공업	13.6	13.4	-1.3	6.4	8.3	11.2	16.7	6.1	7.1	3.1
전·가·수 <sup>1)</sup>	21.6	15.2	23.2	11.1	17.0	6.1	12.9	7.4	3.8	5.1
건설업	-2.5	6.5	-3.6	4.3	25.5	7.7	-3.5	-0.3	2.6	-2.4
서비스업	9.1	4.6	3.4	8.0	7.8	8.1	6.1	3.6	5.0	2.5
GDP	8.2	5.9	-1.5	6.8	9.2	9.2	8.5	4.0	5.1	2.2

주 :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 2000년 이전 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5-4]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2007년 임금 비중 GDP의 절반 이상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생산요소들에게 지불하는 소득을 통하여 파악하는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피용자보수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와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한다. 영업잉여는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 주체의 몫으로 시장 생산자인 산업 부문에서 나타나고, 비시장 생산자인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정자본 소모는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감소분으로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노후화에 대비해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물세와 기타 생산세로 구분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기타 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또한 보조금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한다.

### 피용자보수 비중 커지는 대신 영업잉여는 낮아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표 5-5>에서와 같이 GDP 전체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40.0%, 1990년 44.9%대, 1995년 46.9%로 증가했다가 2000년 42.9%로 감소했다. 2008년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46.0%로 나타났다.

영업잉여는 1985년 38.0%, 1990년 32.8%, 1995년 30.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08년에는 29.2%를 나타냈다. 최근의 소득분배 구조는 1985년 당시의 피용자보수율 40.0%, 영업잉여율 38.0%과 비교할 때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다.

기업가에게 분배되는 영업잉여가 줄어든 데 비해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몫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정자본 소모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08년 민간소비 1970년보다 20.0%p 감소

국내총생산(GDP)은 가계, 기업, 정부에 분배되어 최종소비와 자본형성(투자) 등에 지출된다. 이들 지출의 합계는 개념적으로 GDP와 똑같은데, 지출면에서 본 경우에는 국내총지출(GDE)이라고 한다.

지출국민소득은 민간 최종소비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고증감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금액이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정부가 국민에게 공공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비용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수입간 차액으로 계상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 등 생산자가 생산능력 유지 및 향상,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기계, 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한다. 이러한 건물 건축이나 장비 취득 등에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재고증감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소비나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수출로 처분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부분을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액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여행에서 지출한 숙박료나 교통비는 수출에 포함되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여행시 구입한 기념품 등은 수입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출 항목들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5-6>에서 보듯 2008년에는 민간소비가 전체에서 54.5%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0년 당시에는 74.5%로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197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최근에는 50%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 대비 20.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소비는 1970년 9.8%였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15.3%를 차지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은 1990년대 37%대를 제외하고 거의 20% 후반대를 유지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입 비중은 1970년에 37.4%였던 것이 2008년 107.0%로 2.9배로 확대되었다. 1970~1990년대만 해도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 수출이 수입을 앞서 점차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 비중을 주요 선진국(2006년 기준)과 비교할 때 미국 22.2%, 일본 27.4%, 독일 69.8%보다 한국이 80%대로 훨씬 높아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5〉 분배구조의 변화

(단위 : %)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피용자보수	40.0	44.9	46.9	42.9	45.8	46.1	46.0
영업잉여	38.0	32.8	30.0	31.6	29.8	29.2	29.2
고정자본소모	10.5	11.1	12.1	13.8	13.2	13.2	13.3
생산 및 수입세	11.7	11.4	11.4	11.8	11.5	12.0	12.0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5년 이전 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5-5〉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표 5-6〉 지출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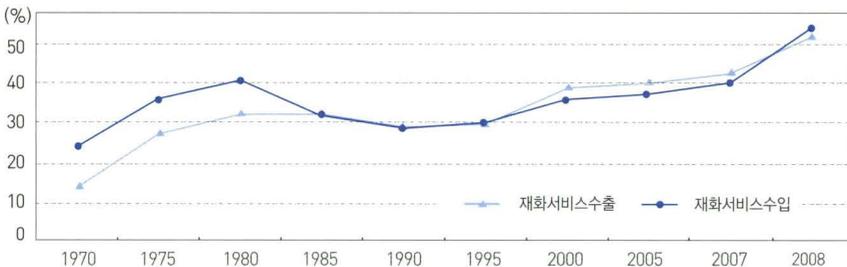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민간최종소비	74.5	69.0	62.5	56.6	50.9	52.3	54.8	53.8	54.4	54.5
정부최종소비	9.8	11.2	12.4	11.2	11.8	11.2	12.0	13.9	14.7	15.3
총고정자본형성	25.6	26.9	32.2	28.8	37.1	37.3	30.0	28.9	28.5	29.3
재고증감	-0.2	1.8	-0.4	1.2	0.4	0.4	0.6	0.8	0.9	2.1
재화서비스수출	13.6	26.9	32.1	32.0	28.0	28.8	38.6	39.3	41.9	52.9
재화서비스수입	23.8	35.4	40.0	31.4	29.0	29.9	35.7	36.6	40.4	54.1

주 : 2000년 이전 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5-6〉 수출입구조의 변화 추이



## GRDP 서울이 가장 큰 236조원

지역내총생산(GRDP)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지역 단위로 나누어 측정 한 것으로 일정 지역 내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GRDP도 GDP와 마찬가지로 UN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1993 국민계정 체계(SNA)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GRDP는 통계청에서 1985년부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1993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출 측면 소득도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분배소득까지 시도별로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시·군·구 단위의 GRDP를 각 시도에서 추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이러한 소지역 단위까지 소득통계가 작성되면 지역경제 정책 자료로 활용가치가 클 것이다.

또한 GRDP는 각 지역간 경제력 및 생산기반 규모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1인당 생산수준 등의 측정도 가능해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GRDP 서울>경기>경남>경북의 순서

우리나라의 시도별 GRDP는 <표 5-7>에서 보듯 2007년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236.5조원)이고, 그 다음으로 경기(193.7조원), 경남(69.2조원), 경북(64.0조원)의 순서다. GRDP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도(8.7조원)이며, 광주(21.3조원), 대전(22.2조원), 강원(26.0조원) 순서로 작다.

서울의 GRDP 비중은 인구 규모가 전국의 5분의 1을 차지함에 따라 전체의 약 25% 수준에 이른다. 이 중 서비스업이 전국의 31.5%에 이르는 비중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전자 등을 기반으로 하는 광공업 규모가 전국의 26%를 차지하면서 서울 다음으로 산업 규모가 큰 지역이다.

## 경기도 1985년 대비 GRDP 규모 크게 증가

1985년에 비해서 생산규모의 크기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15.9배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인천이 12.0배, 제주 11.0배, 서울 10.8배, 충북 9.7배, 경북 9.5배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0배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생산집중 현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 1인당 생산수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특정 지역의 생산규모를 해당지역 주민 1인당으로 평가하여 그 지역의 인구나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산수준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는 1인당 생산수준은 2007년 기준 전국을 100으로 볼 때 울산 지역이 219.4로 가장 높다. 울산에 중화학 공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울산에 이어 충남 140.4, 전남 128.3, 경북 119.7 순으로 공업기반 시설이 많은 지역들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소비와 투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전국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5.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22.6%, 부산 6.5%, 경남 6.2%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비 비중이 적기로는 제주 1.1%, 울산 2.1%, 광주 2.6%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소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가 3.7%포인트로 나타났고, 그 다음 서울이 1.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줄어든 지역은 부산(-1.3%p), 경북(-1.0%p), 전남(-0.9%p), 대구(-0.8%p) 등으로 나타났다.

## 투자 비중 가장 큰 지역 경기도

2007년 전국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4.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서울 16.8%, 경남 7.2%, 충남 7.2%의 순서다. 투자 비중이 적기로는 제주 0.9%, 대전 1.9%, 광주 2.0%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투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남과 충남이 각각 1.2%포인트 높아졌고, 경기도가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반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서울(-2.5%포인트)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북(-0.8%포인트), 부산(-0.6%포인트), 광주(-0.4%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표 5-7〉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비교

(단위 : 십억원)

시도별	1985	1990	1995	2000 <sup>1)</sup>	2005	2006	2007	'07/'85
서울	21,943.9	49,311.8	102,171.5	151,355.9	208,899.2	220,134.6	236,516.7	10.8(배)
부산	6,911.1	14,374.5	26,141.2	34,127.0	48,068.6	49,433.6	52,679.5	7.6
대구	3,820.2	8,538.7	15,782.2	21,859.6	28,756.2	30,243.7	32,260.9	8.4
인천	3,990.6	9,737.5	21,064.2	27,121.8	40,398.5	43,311.0	47,779.9	12.0
광주	-	4,470.4	9,486.2	13,134.5	18,896.1	20,299.0	21,281.3	4.8 <sup>2)</sup>
대전	-	4,710.8	9,559.5	14,008.3	20,029.9	20,802.4	22,185.8	4.7 <sup>2)</sup>
울산	-	-	-	28,958.5	41,697.3	43,214.3	48,059.4	1.7 <sup>3)</sup>
경기	12,157.2	32,261.3	72,568.9	114,628.4	169,315.1	180,852.0	193,657.7	15.9
강원	3,533.9	6,542.3	12,040.0	16,964.4	23,014.6	24,133.0	25,989.4	7.4
충북	3,095.1	5,931.2	14,038.2	19,841.5	26,720.5	27,997.4	30,000.7	9.7
충남	5,670.5	7,344.8	17,330.2	29,277.1	47,497.3	51,361.3	55,148.4	7.5 <sup>2)</sup>
전북	3,396.2	6,415.9	14,112.2	19,298.6	25,221.2	26,488.0	28,586.5	8.4
전남	6,554.6	9,484.2	20,908.9	27,829.4	42,815.7	42,181.5	47,021.5	5.0 <sup>2)</sup>
경북	6,724.4	13,504.0	25,931.3	40,377.3	61,757.2	62,642.8	63,969.3	9.5
경남	9,383.1	20,035.0	44,799.2	39,600.3	58,250.8	61,735.1	69,157.2	1.7 <sup>3)</sup>
제주	795.1	1,883.6	4,196.9	5,350.3	7,966.2	8,096.0	8,735.9	11.0

주 : 1) 2000년 이후는 2005년 기준 자료 2) '07/'90년 자료 3) '07/'00년 자료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그림 5-7]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 수도권 서비스업 규모 전국의 57% 차지

국민소득이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씩 생기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활동 유형이 비슷한 것을 묶어 몇 개의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보듯 지역내총생산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개 경제활동 부문으로 통합하여 지역별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표는 지역별로 산업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그 지역의 주력산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각 산업 부문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지역의 경제발전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07년 경제활동별 지역구조를 <표 5-8>에서 보면 농림어업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이 전체의 6.2%로 비중이 아주 낮고 상대적으로 도 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 지역에서도 전남이 15.0%로 가장 규모가 크며, 그 다음으로 경북 14.8%, 충남 12.8%, 경남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은 자동차와 영상통신 정보기술(IT)산업 기반이 탄탄한 경기도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의 2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북 11.0%, 경남 9.9%, 충남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2.9%로 건설 경기가 특히 수도권에서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서비스업은 서울 34.8%등 수도권 지역이 57.0%를 차지하였으며, 서울과 광역시 지역이 전체의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 규모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

2000년과 비교할 때 농림어업의 규모는 전남이 1.2%포인트, 서울이 1.1%포인트, 충북이 1.0%포인트씩 각각 줄어든 데 비해 늘어난 지역은 경남 1.8%포인트, 경북 1.3%포인트, 강원 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의 규모는 충남 2.8%포인트, 전남 1.7%포인트, 경남 1.4%포인트 등의 순으로 증가한데 비해 경기는 2.7%포인트, 서울은 1.8%포인트, 대구는 0.8%포인트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의 규모는 서울이 3.2%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울산이 1.6%포인트, 경남 1.5%포인트, 충남 1.0%포인트씩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규모는 서울이 2.3%포인트 줄어든데 비해 경기도 2.9%, 인천 1.0%포인트씩 각각 증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의 서비스업 규모가 경기와 인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서울 서비스업 비중 90% 육박

지역별로 2007년의 경제구조 변화를 <표 5-9>에서 보면 서울은 광공업이 6.1%, 건설업이 4.8%, 서비스업이 89.0%로 서비스업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대규모 '소비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산은 광공업이 20.1%, 건설업 7.5%, 서비스업 71.5%의 비중이며, 대구는 광공업이 21.2%, 건설업 8.5%, 서비스업 69.7%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들이 서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른 광역시와 달리 울산은 광공업 68.1%, 건설업 6.5%, 서비스업 24.9%로 전형적인 중화학 공업도시의 형태를 나타냈다.

도 지역에선 경기도가 광공업 36.1%, 건설업 8.4%, 서비스업 54.0%로 서울 주변 지역에 생산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광공업이 5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공업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65.6%, 6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록 농촌지역이지만 관광수입 등에 따른 소득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서비스업 비중 크게 증가한 대구

지역별 경제구조 변화를 1987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비중이 전국과 마찬가지로 서울 14.4%포인트, 부산 14.7%포인트, 대구 22.4%포인트, 인천 17.1%포인트, 경기 18.2%포인트, 강원 19.1%포인트, 제주 20.4%포인트 등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광공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농촌) 지역의 경우에 농림어업 비중이 제주가 -22.6%포인트, 전남 -20.3%포인트, 전북 -19.5%포인트, 경북 -16.8%포인트, 충북 -16.6%포인트 큰 폭으로 감소한 대신 광공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광공업이 26.4%포인트 증가한 대신 농림어업(-12.7%포인트)과 서비스업(-15.8%포인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5-8〉 경제활동별 지역구조

(단위 : %, %p)

시도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0	2007	07-00	2000	2007	07-00	2000	2007	07-00	2000	2007	07-00
전국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서울	2.3	1.1	-1.1	6.6	4.8	-1.8	19.2	15.9	-3.2	37.1	34.8	-2.3
부산	2.5	1.9	-0.6	4.1	3.8	-0.3	5.7	5.5	-0.3	8.3	7.9	-0.5
대구	0.6	0.5	-0.1	3.2	2.3	-0.8	3.8	3.7	-0.1	4.2	3.9	-0.3
인천	1.6	1.1	-0.5	6.0	5.3	-0.7	4.8	5.3	0.5	3.8	4.7	1.0
광주	1.2	0.8	-0.4	1.8	2.0	0.3	2.5	2.4	-0.1	2.5	2.4	-0.1
대전	0.3	0.2	-0.1	1.7	1.4	-0.3	2.7	2.0	-0.7	2.9	2.9	0.0
울산	0.6	0.6	0.0	9.0	9.5	0.5	2.2	3.8	1.6	1.7	1.8	0.1
경기	11.8	11.5	-0.3	28.1	25.4	-2.7	22.1	21.7	-0.4	14.6	17.5	2.9
강원	4.9	6.1	1.1	1.7	1.3	-0.4	4.3	4.5	0.2	3.2	3.2	-0.1
충북	6.4	5.4	-1.0	4.6	4.2	-0.4	3.7	3.8	0.1	2.5	2.4	-0.1
충남	13.3	12.8	-0.5	6.9	9.7	2.8	5.6	6.6	1.0	3.1	3.3	0.2
전북	9.8	10.7	0.9	2.9	2.8	0.0	4.2	3.7	-0.5	2.9	2.8	-0.1
전남	16.2	15.0	-1.2	3.9	5.6	1.7	5.1	6.0	0.9	3.5	3.2	-0.3
경북	13.5	14.8	1.3	10.3	11.0	0.7	6.6	6.2	-0.4	4.5	4.1	-0.4
경남	10.7	12.5	1.8	8.5	9.9	1.4	6.2	7.6	1.5	4.9	4.9	0.0
제주	4.3	4.9	0.6	0.1	0.1	0.0	1.4	1.2	-0.2	1.1	1.1	0.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표 5-9〉 지역내 생산구조

(단위 : %, %p)

시도별	1987년				2007년 <sup>4)</sup>				1987-2007			
	농림어업	광공업 <sup>3)</sup>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sup>3)</sup>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sup>3)</sup>	건설업	서비스업
전국	10.4	33.1	7.1	49.4	2.8	29.6	7.5	60.1	-7.6	-3.5	0.4	10.7
서울	1.1	14.8	9.5	74.6	0.2	6.1	4.8	89.0	-0.9	-8.7	-4.7	14.4
부산	2.3	35.3	5.6	56.8	0.9	20.1	7.5	71.5	-1.4	-15.2	1.9	14.7
대구	1.0	47.1	4.5	47.3	0.5	21.2	8.5	69.7	-0.5	-25.9	4.0	22.4
인천	1.4	50.7	7.1	40.9	0.6	32.9	8.6	58.0	-0.8	-17.8	1.5	17.1
광주	1.4	30.7	8.5	59.4	1.0	26.0	7.9	65.1	-0.4	-4.7	-0.6	5.7
대전 <sup>1)</sup>	1.9	26.7	13.7	57.7	0.2	16.6	6.4	76.7	-1.7	-10.1	-7.3	19.0
울산 <sup>2)</sup>	0.9	70.7	4.7	23.6	0.4	68.1	6.5	24.9	-0.5	-2.6	1.8	1.3
경기	9.2	47.9	7.1	35.8	1.6	36.1	8.4	54.0	-7.6	-11.8	1.3	18.2
강원	15.1	30.1	8.3	46.5	6.3	15.8	12.2	65.6	-8.8	-14.3	3.9	19.1
충북	21.8	33.9	7.6	36.7	5.2	40.5	9.1	45.2	-16.6	6.6	1.5	8.5
충남	19.4	23.8	6.5	50.3	6.7	50.2	8.7	34.5	-12.7	26.4	2.2	-15.8
전북	29.6	22.0	5.8	42.6	10.1	24.9	9.7	55.3	-19.5	2.9	3.9	12.7
전남	29.5	23.4	8.6	38.4	9.2	39.5	10.0	41.2	-20.3	16.1	1.4	2.8
경북	23.2	42.6	4.5	29.7	6.4	51.6	7.1	34.9	-16.8	9.0	2.6	5.2
경남	11.7	48.6	4.7	35.0	4.8	46.4	7.7	41.2	-6.9	-2.2	3.0	6.2
제주	39.0	4.7	7.7	48.6	16.4	5.2	9.3	69.0	-22.6	0.5	1.6	20.4

주 : 1) 1989년 자료 2) 1998년 자료 3) 전기·가스·수도업 포함 4) 2005년 기준자료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6장

## 농림어업

- 6-1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 6-2 농가인구 구조 및 혼인 상태
- 6-3 경지 규모 및 영농 형태
- 6-4 농축산물 소비
- 6-5 농축산물 생산
- 6-6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 변화
- 6-7 농가 가계수지
- 6-8 어업 형태 및 생산량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전국 농가 121만 가구, 전체 가구의 7.3%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산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4.5%는 농사를 짓는 가구였다. 그러나 이농향도(離農向都)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2차 및 3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sup>1)</sup>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1980년 전체 가구의 27.0% 수준인 216만 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1990년에는 15.6%인 177만 가구로 200만 가구에도 못 미쳤다. 2008년 현재 농가는 12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7.3% 수준이다.

어가(漁家)의 경우 1970년 1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했던 것이 역시 매년 줄어 1990년에는 12만 가구(전체 가구의 1.1%)에 머물렀다. 2008년 현재 어가는 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0.4% 수준이다.

1970~2008년 농가가 51.2% 줄어드는 사이 농가 인구는 7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 또한 52.4% 줄어드는 동안 어가 인구는 78.9%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가 가구 감소보다 더 급격한 것은 농가 및 어가의 분화 및 소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70~2008년 사이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를 보면 1인 가구는 전체 농가의 1.9%에서 14.7%로 12.8%포인트, 2인 가구는 5.8%에서 46.9%로 41.1%포인트, 3인 가구는 8.6%에서 16.5%로 7.9%포인트 높아진 반면 4인 가구는 11.9%에서 11.1%로 0.8%포인트, 5인 가구는 15.8%에서 6.4%로 9.4%포인트, 6인 가구는 18.1%에서 3.2%로 14.9%포인트, 7인 이상 가구는 37.9%에서 1.3%로 36.6%포인트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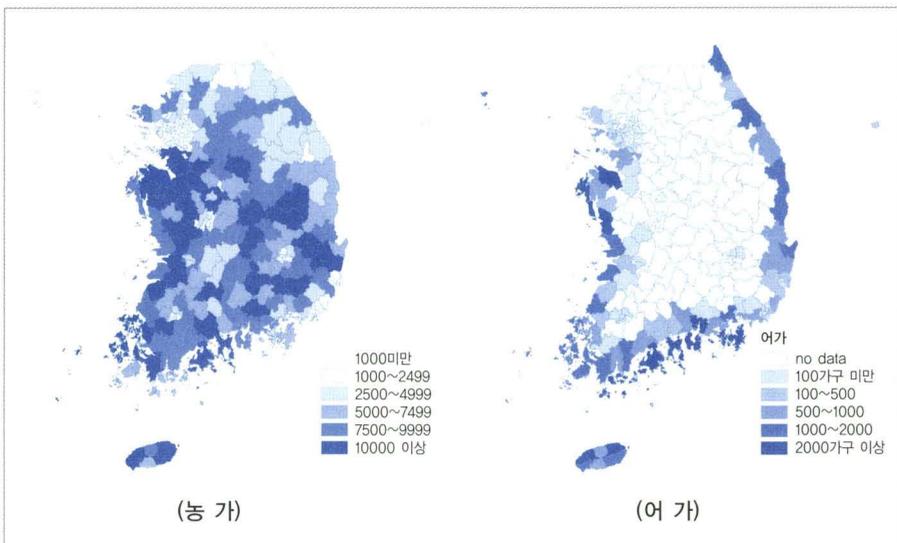
1) 산업별 취업자 비율(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을 보면 1970년 1차(50.4%)>3차(35.3%)>2차(14.3%)였던 것이 1990년 3차(54.5%)>2차(27.6%)>1차(17.9%)를 거쳐 2008년에는 3차(75.6%)>2차(17.7%)>1차(7.4%)로 바뀌었다.

## 농가 많은 곳 경북 > 전남 > 충남

전통적으로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1970년 농가가 45만3,732 가구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43만5,800 가구) 보다 1만 8천여 가구가 많았다. 그런데 1988년 경북(31만4,420 가구)이 전남(30만3,862 가구)을 추월했으며 현재까지 경북 지역이 가장 많다. 1997년에는 오랜 기간 농가 순위 3위였던 경남(17만9,896 가구)이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충남(18만963 가구) 보다 농가가 더 적은 도로 순위가 바뀌었다.

농가는 주로 경남·북, 전남·북 및 충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어가는 해안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5년 시·군·구별 분포를 보면, 농가는 경북 경주시(1만8,282 가구), 경북 상주시(1만7,987 가구), 경북 안동시(1만6,332 가구), 경북 김천시(1만5,438 가구), 경남 진주시(1만5,342 가구) 등의 순으로 많다. 어가는 전남 완도군(5,654 가구), 전남 여수시(5,031 가구), 제주 북제주군(3,576 가구), 충남 태안군(3,421 가구), 전남 고흥군(3,284 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6-1] 시·군·구별 농가 및 어가 분포(2005년 기준)



자료 :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

〈표 6-1〉 농·어가 수 추이

(단위 : 가구, 명, %)

연도	가구 (A)	인구	농가 (B)	농가인구	비율 (B/A)	어가 (C)	어가인구	비율 (C/A)
1970	5,576,277	32,240,827	2,483,318	14,421,730	44.5	149,107	912,612	2.7
1975	6,647,778	35,280,725	2,379,058	13,244,021	35.8	127,885	751,353	1.9
1980	7,969,201	38,123,775	2,155,073	10,826,748	27.0	134,109	725,314	1.7
1985	9,571,361	40,805,744	1,925,869	8,521,073	20.1	126,800	602,237	1.3
1990	11,354,540	42,869,283	1,767,033	6,661,322	15.6	121,525	496,089	1.1
1995	12,958,181	45,092,991	1,500,745	4,851,080	11.6	104,480	347,210	0.8
2000	14,507,010	47,008,111	1,383,468	4,031,065	9.5	81,571	251,349	0.6
2005	15,971,010	48,138,077	1,272,908	3,433,573	8.0	79,942	221,132	0.5
2008	16,673,162	48,606,787	1,212,050	3,186,753	7.3	71,046	192,341	0.4

주 : 가구 자료는 2000년 이후는 장래추계가구, 그 이전은 인구총조사 자료이며, 인구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농가 및 농가인구는 농업조사, 어가 및 어가인구는 어업조사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농림어업

〈표 6-2〉 시도별 농·어가 수

(단위 : 가구, %)

시도별	농 가				어 가			
	1970	1990(a)	2008(b)	(b/a)	1970	1990(c)	2008(d)	(d/c)
전 국	2,483,318	1,767,033	1,212,050	-31.4	149,107	121,525	71,046	-41.5
특·광역시	18,111	50,496	71,736	42.1	1,579	7,431	6,549	-11.9
경 기	254,229	202,595	137,670	-32.0	9,138	6,286	1,466	-76.7
강 원	149,500	100,689	76,562	-24.0	19,023	7,208	3,866	-46.4
충 북	173,452	115,640	85,388	-26.2	-	-	-	-
충 남	306,418	225,447	160,734	-28.7	10,552	12,934	9,871	-23.7
전 북	281,515	188,160	112,607	-40.2	4,278	5,623	3,504	-37.7
전 남	453,732	298,017	185,569	-37.7	64,905	45,566	22,827	-49.9
경 북	435,800	307,822	203,169	-34.0	8,225	7,451	4,633	-37.8
경 남	355,105	238,020	143,971	-39.5	16,647	20,843	11,688	-43.9
제 주	55,456	40,147	34,645	-13.7	14,760	8,183	6,642	-18.8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농림어업

### 생산인구 급감해 일손 부족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전하면서 농촌의 젊은 층이 보다 나은 취학 및 취업 기회를 좇아 도시로 이동한 결과 농촌의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었다. 1970년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3.1%였을 당시 농가 인구는 4.9%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그런데 2008년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0.3%로 1970년에 비해 7.2%포인트 높아진 반면 농가의 고령자 비율은 33.3%로 무려 28.4%포인트 급등했다. 전국 평균으로는 10명 중 1명꼴로 노인인데, 농가는 3명 중 1명꼴로 고령자라는 의미다.

생산인구(15~64세 인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2016년(3,619만 명)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농가는 1970년대 700만 명 수준에서 1980년대 400~600만 명, 1990년대 200~300만 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8년에는 200만에도 못 미치는 184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급격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농촌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된다.

###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7배

농가의 유소년 인구(15세 미만)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1970년대 300~600만 명이었던 것이 1980년대 100~200만 명, 1990년대 5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지더니 2008년에는 29만 명으로 줄었다. 이와는 달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8년 현재 106만 명이다. 지금 우리나라 농가에선 유소년을 만나기보다 고령자 보기가 3.7배나 더 쉽다.

우리나라 농촌 노동력은 양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면서 질적으로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저하로 이모작 영농이나 영농 자체를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 유�휴 농경지가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농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빈집만 남기고 떠나는 등 농촌이 폐쇄화되는 실정이다.

## 농가인구 셋 중 한 명꼴로 고령자

농가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30대는 취학 및 취업으로 도시로 빠져 나가 허리가 잘록하고, 40대부터 점차 인구가 많아져 60~70대에서 인구가 많아지는 표주박 형태다.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20~30대가 더욱 줄어든 것은 물론 10대 후반에서도 두드러진 감소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50대 중반~60대 중반의 급격한 감소와 60대 중반부터의 인구 증가는 인구구조에 나타난 동일 연령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쪽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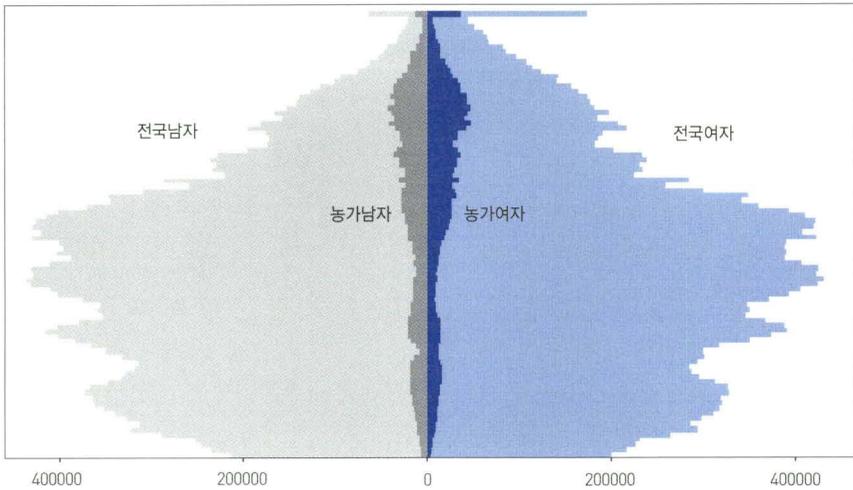
## 30대 미혼 비율 농가 35.4%, 전체 21.6%

2005년 기준 15세 이상 농가 인구의 혼인상태를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유배우(농가 69.4%, 전체 59.3%)와 사별(농가 12.4%, 전체 7.6%)은 농가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미혼(농가 17.2%, 전체 30.2%), 이혼(농가 1.0%, 전체 3.0%)은 농가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농가의 미혼 비율이 낮은데도 30대만 볼 경우 농가 인구의 미혼 비중이 35.4%로 전체 인구(21.6%)보다 오히려 13.8% 포인트나 높다. 농가 30대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3%, 여자는 15.3%가 미혼으로 많은 농촌 총각들이 혼인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력 감소로 연하의 신부가 줄었고 여기에 농촌으로 시집오기를 꺼리는 풍조가 더해져 농촌 총각들의 '혼인압박(marriage squeeze) 현상'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생애 독신자로 볼 수 있는 40~50대 인구의 미혼 비율이 2005년에는 농가가 전체 인구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30대의 높은 미혼율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농가의 생애 독신자 비율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2] 전국 및 농가 인구 피라미드(2005)



<표 6-3> 농가의 연령구조

(단위 : 명, %)

연도	전체 인구					농가 인구					
	계	0-14	15-64	65+	총부양비 (a)	계	0-14	15-64	65+	총부양비 (b)	(b/a)
1970	32,240,827	42.5	54.4	3.1	83.8	14,421,730	43.5	51.6	4.9	93.9	1.1
1980	38,123,775	34.0	62.2	3.8	60.7	10,826,748	33.0	60.3	6.7	65.9	1.1
1990	42,869,283	25.6	69.3	5.1	44.3	6,661,322	20.6	67.9	11.5	47.3	1.1
2000	47,008,111	21.1	71.7	7.2	39.5	4,031,065	11.4	66.9	21.7	49.5	1.3
2005	48,138,077	19.2	71.7	9.1	39.4	3,433,573	9.8	61.1	29.1	63.6	1.6
2008	48,606,787	17.4	72.3	10.3	38.4	3,186,753	9.0	57.7	33.3	73.3	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인구·가구

<표 6-4>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천명, %)

구분	2005 농가인구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체인구					
	합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합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합계	3,098	17.2	69.4	12.4	1.0	38,055	30.2	59.3	7.6	3.0	
연령	15-29	450	93.1	6.7	0.1	0.2	10,434	88.2	11.6	0.0	0.2
	30-39	248	35.4	61.0	0.6	2.9	8,209	21.6	75.1	0.4	2.9
	40-49	449	4.7	90.6	1.9	2.8	8,024	4.8	86.5	2.4	6.3
	50-59	601	0.6	92.5	5.8	1.2	5,134	1.7	84.6	8.4	5.3
	60-69	760	0.1	84.4	15.1	0.3	3,569	0.7	74.8	22.2	2.3
	70세이상	591	0.1	62.0	37.8	0.2	2,685	0.5	45.7	53.0	0.8

주 : 합계란은 인구, 혼인상태란은 해당 연령계층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

## 6-3 경지 규모 및 영농 형태

6장 농림어업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1ha 미만 농가 전체의 64.7%

우리나라 농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경지 규모를 보면 1975년 1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63.9%였는데, 2008년에도 농가 수는 줄어든 가운데 1ha 미만 농가의 비중은 1975년에 비해 오히려 0.8%포인트 높아진 64.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농가의 경지 규모는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문 농가(경작 규모가 3ha 이상이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도 1975년 3만6천 가구(전체 농가의 1.5%)에서 2008년에는 8만8천 가구(7.3%)로 2.5배 증가했다. 우리 농업도 일각에서 농가의 규모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가는 경지 규모 면에서 본다면 양극화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영농 규모,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달리하는 '맞춤형 농정체계'를 도입하여 준전업농, 성장 가능 중소농, 창업농에 대해서 경영 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논벼 중심 농가가 전체의 절반

2008년 전체 농가(121만 가구) 중 농업만 하는 전업농가는 58.3%, 겸업을 하는 농가는 41.7%였다. 주된 영농 형태로는 논벼가 4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채소 21.5%, 과수 12.0%, 축산 6.3%, 일반 발작물 6.0%, 특용작물 3.3%, 화훼 0.9%의 순서다.

논벼 가구는 1991년에 118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9.2%였는데 계속 줄어 2007년(49.6%)부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임금이 올라 수익성이 떨어지자 벼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채소는 논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영농 형태다. 1981년 18만1천 가구였던 영농

규모가 국민의 소득수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소 소비가 늘어나면서 재배 농가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26만 가구로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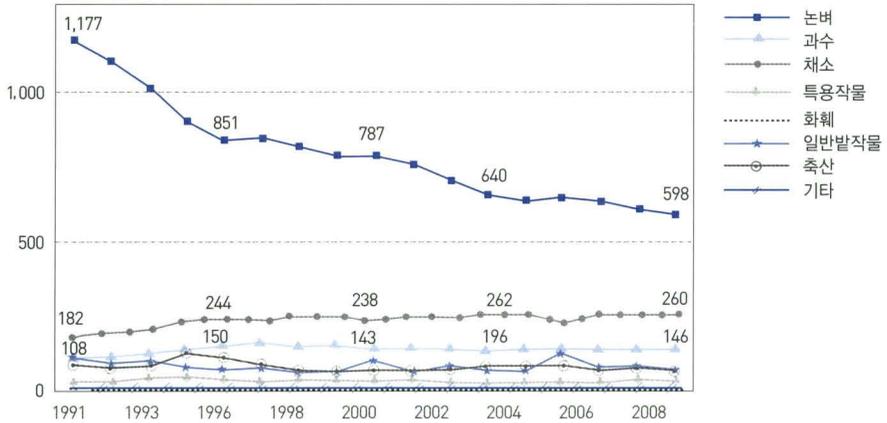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는 1994년 12만 9천 가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7만 6천 가구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사육두수가 적은 영세 축산 농가가 감소하는 대신 사육두수가 많은 축산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1991~2008년) 주된 영농 형태가 특용작물인 농가는 1.8%에서 3.3%로, 화훼는 0.3%에서 0.9%로 각각 비중이 늘어난 반면 일반 밭작물 농가는 6.3%에서 6.0%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농사만 전적으로 하는 전업농가는 농업 이외의 수입활동을 함께 하는 농촌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1991년 전체 농가의 65.7%(112만 가구)를 차지했던 전업농가가 2008년에는 58.3%(71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겸업의 형태도 과거에는 농업 수입이 많은 1종 겸업농가가 농업 이외 수입이 더 많은 2종 겸업농가보다 훨씬 많았지만(1970년에는 1종 겸업이 60.9%, 2종 겸업이 39.1%), 1981년부터는 1종 겸업농가 49.9%, 2종 겸업농가 50.1%로 2종 겸업농가가 더 많아졌다. 그 뒤 2종 겸업농가가 더욱 늘어나 2008년에는 그 비중이 68.4%까지 높아졌다. 이는 그만큼 농가의 수입구조에서 농업 이외의 활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3]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 추이

(천가구)



[표 6-5] 경지 규모별 농가

(단위 : 가구, %)

연도	농가	경지 없음	경지 있음	1ha 미만					1.0 - 2.0ha	2.0 - 3.0ha	3.0ha 이상
				계	%	0.1ha 미만	0.1 - 0.5ha	0.5 - 1.0ha			
1975	2,379,058	94,322	2,284,736	1,519,140	63.9	1,923	689,060	828,157	617,897	111,717	35,982
1980	2,155,073	27,877	2,127,196	1,359,277	63.1	14,187	597,511	747,579	629,197	107,559	31,163
1985	1,925,869	45,622	1,880,247	1,219,627	63.3	8,524	524,971	686,132	549,988	87,391	23,241
1990	1,767,033	23,803	1,743,230	1,027,160	58.1	14,796	467,907	544,457	543,027	129,510	43,533
1995	1,500,745	23,918	1,476,827	865,089	57.6	15,719	417,263	432,107	417,960	123,333	70,445
2000	1,383,468	14,170	1,369,298	819,260	59.2	30,248	410,357	378,655	351,534	113,790	84,714
2005	1,272,908	17,017	1,255,891	788,466	61.9	38,327	419,488	330,651	280,685	93,295	93,445
2008	1,212,050	14,325	1,197,725	784,589	64.7	28,113	448,625	307,851	243,848	80,963	88,324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농업조사

[표 6-6]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 추이

(단위 : 가구, %)

	1991	1994	1997	2000	2005	2008
전국	1,702,307	1,557,989	1,439,676	1,383,468	1,272,908	1,212,050
농부	69.2	58.4	59.0	56.9	50.9	49.4
과수	6.3	8.5	10.9	10.4	11.4	12.0
채소	10.7	15.4	16.2	17.2	18.1	21.5
특용작물	1.8	3.3	2.2	2.7	2.2	3.3
화훼	0.3	0.7	0.6	0.6	0.8	0.9
일반밭작물	6.3	5.2	5.0	6.6	9.9	6.0
축산	5.1	8.3	5.8	5.2	6.5	6.3
기타	0.2	0.2	0.2	0.3	0.3	0.5
전업	65.7	59.8	58.7	65.2	62.6	58.3
겸업	34.3	40.2	41.3	34.8	37.4	41.7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농업조사

## 2008년 1인당 양곡 소비 1970년의 44% 수준

전통적으로 양곡에 크게 의존했던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이 소득증대와 함께 서구화 하면서 대체식품을 많이 찾음에 따라 양곡 소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70년 190kg에서 2008년 83.9kg으로 급감했다. 38년 사이 무려 106.1kg이나 감소한 것으로 2008년 양곡 소비량은 1970년의 44.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곡 소비량 감소를 주도한 것은 주곡인 쌀이다. 같은 기간 136.4kg에서 75.8kg으로 1인당 연간 60.6kg을 덜 먹게 되었다. 쌀 소비 감소는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진데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식빵, 떡, 국수, 라면, 씨리얼 등과 같은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참살이(웰빙) 풍조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채소, 과일 등 다른 식품을 많이 찾고 미용과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쌀 소비를 더욱 감소시켰다.

## 1인당 쌀 소비 1970년 대비 60kg 줄어

우리와 식생활 패턴이 비슷한 일본 및 대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75.8kg)이 일본(61.4kg, 2007년)보다 14.4kg, 대만(47.5kg, 2007년)보다는 28.3kg 많은 수준이라서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08년 1인당 쌀 소비량을 용도 별로 보면 주식용이 74.4kg으로 전체의 98.2%, 떡·과자용은 1.7%였다. 10년 전(1998년)과 비교하면 주식용 소비가 97.2kg에서 74.4kg으로 22.8kg이나 줄었다.

보리쌀 또한 1970년 37.3kg에서 2008년 1.1kg으로 36.2kg이나 줄었다. 쌀과 보리의 소비 감소(96.8kg)가 전체 양곡 소비량 감소의 91.2%를 차지했다. 밀가루도 같은 기간 4.5kg 감소했으며, 잡곡(-1.2kg), 두류(-1.7kg), 서류(-1.9kg) 등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소비량이 줄었다.

한편 1인당 결식 횟수는 2008년 기준 월 1.5회(연 17.6회)로 조사됐다.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이 월 3.9회로 가장 많고, 여자도 30대 초반이 월 4.0회로 가장 많았다. 2003년의 경우 1인당 결식 횟수는 월 1.7회(연 20.8회)로 2008년 보다 월 0.2회 더 많았다.

## 식량자급률 26.2%, 쌀 자급률은 93.9%

사료용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1998년 31.4%를 기록한 뒤 30% 안팎을 맴돌다가 2001년 31.1%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사료 및 가공용 곡물의 수입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2003년부터 30% 아래로 내려갔고, 2008년에는 26.2%까지 낮아졌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998년 57.6%를 기록한 뒤 54~58%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02년 58.3%까지 상승한 뒤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08년에는 49.2% 수준으로 하락했다.

쌀 자급률은 1998년 104.5%에서 2002년도 107.0%까지 상승한 뒤 조금씩 하락하여 2008년에는 93.9% 수준으로 낮아졌다.

## 1인당 축산물 소비는 급증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채소와 과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채소 1인당 소비량은 1970년 59.9kg에서 2007년 149.2kg으로 2.5배 늘어났다. 과일 1인당 소비량도 1980년 22.3kg에서 2008년 65.5kg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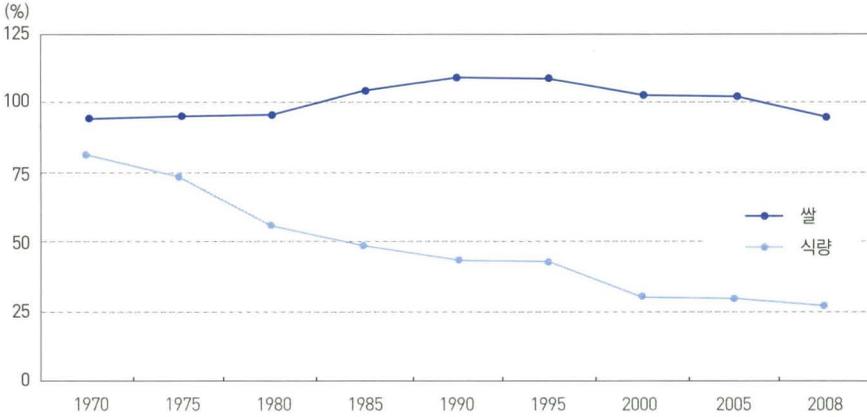
축산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인당 소비량도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났다. 1970년 5.2kg에서 2002년 33.2kg을 기록한 뒤 2005년까지 32.1kg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08년 35.4kg으로 다시 증가했다.

쇠고기 1인당 소비는 1970년 1.2kg에서 1999년 8.4kg까지 증가한 뒤 8kg대를 유지하다가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줄면서 2004년에는 6.8kg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08년에는 7.5kg을 기록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는 1970년 2.6kg에서 2008년 19.1kg으로 16.5kg 많아졌다. 1인당 닭고기 소비는 1970년 1.4kg에서 2002년 8.0kg까지 꾸준히 증가한 뒤 매해 6~7kg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9.0kg으로 증가했다.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1970년 77개에서 2008년 224개로 급증했다. 마시는 우유의 1인당 소비량도 1970년 1.6kg에서 다양한 유제품 개발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64.2kg까지 늘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8년에는 61.3kg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6-4] 식량 및 쌀 자급률 추이



〈표 6-7〉 1인당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연도	계	쌀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	서류
1970	190.0	136.4	37.3	5.9	1.7	4.0	4.7
1975	174.1	123.6	36.3	4.1	1.2	3.7	5.2
1980	158.2	132.4	13.9	4.5	0.3	3.6	3.5
1985	143.9	128.1	4.6	4.3	0.4	3.4	3.1
1990	130.5	119.6	1.6	3.1	0.5	3.4	2.3
1995	117.9	106.5	1.5	3.2	0.5	3.5	2.7
2000	106.5	93.6	1.6	3.4	0.8	3.4	3.7
2005	89.0	80.7	1.2	1.5	0.5	2.6	2.5
2008	83.9	75.8	1.1	1.4	0.5	2.3	2.8

자료 : 통계청 「2008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양곡소비량」

〈표 6-8〉 주요 농축산물(양곡 이외) 1인당 소비량추이

(단위 : kg, 개)

연도	채소	과실	축산물				계란 (개)	우유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970	59.9	-	5.2	1.2	2.6	1.4	77	1.6
1975	62.5	-	6.4	2.0	2.8	1.6	83	4.6
1980	120.3	22.3	11.3	2.6	6.3	2.4	119	10.8
1985	98.6	36.0	14.4	2.9	8.4	3.1	131	23.8
1990	132.6	41.8	19.9	4.1	11.8	4.0	167	42.8
1995	160.6	54.8	27.4	6.7	14.8	5.9	184	47.8
2000	165.9	58.4	31.9	8.5	16.5	6.9	184	59.2
2005	144.9	62.6	32.1	6.6	17.8	7.5	220	62.7
2008	149.2 <sup>1)</sup>	65.5	35.4	7.5	19.1	9.0	224	61.3

주 : 1) 2007년 자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8년 농림업 생산액)」

## 쌀 생산량 2000년대 들어 감소

2008년 쌀 생산량은 484만톤으로 2007년(440만톤)에 비해 9.9%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날씨가 좋아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20kg으로 평년작(최근 5개년 중 최고와 최저 연도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의 평균 수량) 483kg을 웃도는 풍작을 이뤘다. 이는 역대 최고 풍작이었던 1997년(518kg)보다 2kg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세계 쌀 시장의 1.1%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쌀 생산량은 중국이 1억2,950만 톤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3,400만 톤, 베트남 2,330만 톤, 태국 1,860만 톤, 일본 790만 톤, 미국 640만 톤의 순서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970년 394만 톤 수준이었는데 통일벼 등 품종 개발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계속 늘렸다. 기후 등의 영향으로 진폭은 있지만 1980~90년대에는 500만 톤 이상을 유지했는데 2000년대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데다 품질의 고급화,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은 1970년 120만3천 ha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 107만2천 ha로 줄었다. 2005년에는 98만ha로 100만ha 밑으로 떨어졌고, 그 뒤에도 계속 줄어 2008년에는 93만6천 ha에 머물렀다.

채소류 생산량은 1970년 265만 톤에서 매년 크게 늘어 1998년 이후 1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토마토·오이 등 시설채소는 증가한 반면 무·배추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다. 앞으로 채소류 중 엽근 및 양념류 생산량은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과채·양채류 생산량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 생산량은 1970년 42만 톤에서 매년 급신장하여 1998년 이후 200~2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상 여건이 좋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늘었는데 감귤 생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 생산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앞으로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 과수 재배면적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 축산물 생산, 수입개방과 가축질병 영향 커

축산물 생산은 수입개방과 악성 가축질병 등 대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쇠고기 생산량은 1970년 3만7천 톤에 불과하던 것이 사육 두수의 증가로 계속 늘었다. 사육 두수가 최대였던 1996년(284만 두) 이듬해인 1998년 사상 최고 생산량(27만3천 톤)을 기록하였는데, 그 뒤 가격 하락의 여파로 점점 줄어 2003년에는 생산량이 최저 수준인 14만2천 톤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자 가격이 올라 다시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에는 생산량이 17만4천 톤까지 회복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국내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1970년 8만3천 톤에서 1998년 74만9천 톤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분뇨 처리 문제와 신규 진입규제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한계(2008년 70만9천 톤)에 머물러 빠르게 늘어나는 소비 추세를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수요가 많은 삼겹살·목살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7년 21만 톤에 이르러 1998년 대비 277% 급증했다.

닭고기 생산량은 1970년 4만5천 톤에서 2000년 26만1천 톤까지 증가하여 대부분 국내 수요를 충당했다. 이런 가운데 수입육이 지속적으로 늘어 자급률은 70%대를 형성했다. 그러다가 2004년 주요 수출국인 미국·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자 국내 생산이 다시 늘어 2007년 37만4천 톤, 2008년에는 37만7천 톤을 기록했다.

## 생산액 기준 미곡, 돼지, 한우, 우유, 닭의 순서

2008년 농림업 생산액은 총 39조 6,626억원이며 재배업이 62.7%, 축산업이 34.3%를 차지했다.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미곡, 돼지, 한우, 우유, 닭의 순서로 많았다. 이들 5개 품목의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49.9%를 차지하였다.

계란, 오리, 수박, 건고추, 인삼까지 포함하면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의 62.6%를 차지했다. 미곡, 돼지, 한우(2005년까지는 한육우), 우유가 2000년 이후 4위권을 지속한 반면, 1991년 이후 상위 5위 안에 들었던 건고추는 2008년 9위로 밀렸다. 오리는 2000년 15위에서 2008년 7위로 상승했다.

〈표 6-9〉 농축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백만개)

연도	쌀	채소	과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1970	3,939	2,653	423	37	83	45	2,456	48
1975	4,669	4,767	543	70	99	56	2,896	160
1980	3,550	7,676	833	93	239	92	4,543	452
1985	5,626	7,763	1,464	118	346	126	5,390	1,006
1990	5,606	8,677	1,766	95	508	172	7,151	1,752
1995	4,695	10,586	2,300	155	639	265	8,261	2,014
2000	5,291	11,282	2,429	214	714	261	8,682	2,253
2005	4,768	9,584	2,593	152	701	298	10,366	2,229
2008	4,843	9,934	2,698	174	709	377	10,838	2,1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표 6-10〉 농림업 상위 20개 품목 생산액

순위	2005		2006		2007		2008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전체		100.0		100.0		100.0		100.0
1	미곡	23.5	미곡	23.1	미곡	21.9	미곡	23.7
2	돼지	10.4	돼지	9.9	돼지	9.3	돼지	10.3
3	한육우	8.7	한우	7.8	한우	8.7	한우	8.3
4	우유	4.3	우유	4.2	우유	4.3	우유	4.0
5	닭	3.1	닭	3.7	닭	2.9	닭	3.6
누계		49.9		48.6		47.1		49.9
6	계란	3.0	계란	2.4	건고추	2.8	계란	2.9
7	수박	2.5	수박	2.3	계란	2.4	오리	2.9
8	건고추	2.4	건고추	2.2	수박	2.2	수박	2.4
9	감귤	2.2	딸기	2.1	딸기	2.2	건고추	2.3
10	오리	1.8	인삼	1.9	인삼	2.2	인삼	2.2
누계		61.8		59.6		58.9		62.6
11	딸기	1.8	벗짚	1.9	배추	2.0	딸기	1.9
12	벗짚	1.8	오리	1.8	벗짚	2.0	벗짚	1.8
13	배추	1.7	배추	1.7	토마토	1.9	사과	1.8
14	토마토	1.7	토마토	1.7	감	1.8	감	1.6
15	감	1.7	감귤	1.7	오리	1.6	감귤	1.6
누계		70.5		68.4		68.2		71.3
16	인삼	1.6	감	1.7	포도	1.5	배추	1.6
17	마늘	1.5	포도	1.5	사과	1.4	토마토	1.4
18	포도	1.4	사과	1.4	감귤	1.3	참외	1.2
19	콩	1.3	오이	1.3	오이	1.1	포도	1.1
20	사과	1.3	육우	1.2	참외	1.1	콩	1.1
누계		77.6		75.5		74.7		77.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 6-6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 변화

### 복숭아·감귤 재배지역 확대, 사과는 감소

지구 온난화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촌 평균 기온이 0.74℃ 높아진 데 비해 한반도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빠른 1.5℃ 상승하였다. 지난 35년 동안에만 0.95℃ 높아졌는데, 겨울 기온이 1.9℃, 여름 기온은 0.3℃ 상승했다.

계절의 길이도 변하여 여름은 길어진 반면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 1990년대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한 달 정도 짧아졌다. 특히 1988년 이후에는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국립기상연구소, 2004). 또한 지난 38년(1968~2005년) 동안 연근해 평균 표층 수온이 0.9℃ 높아졌다. 동해의 경우 0.82℃, 남해는 0.98℃, 서해는 0.91℃ 각각 상승하였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내 아열대 기후대가 증가하면서 온대 과일인 사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줄어들자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복숭아는 최적 생육 조건이 연평균 11~15℃인데, 온난화에 따라 재배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 강원 등으로 북상하고 있다. 기온 상승의 여파로 동해(凍害) 발생 지역이 줄어들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아열대 과수인 감귤의 경우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다가 전남, 경남 등으로 점차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 쌀보리·가을감자는 주산지 변화

한·칠레 FTA 등 시장개방의 여파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포도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주산지가 경북에서 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쌀보리는 내한성이 약해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되었는데, 기온 상승으로 재배 가능 지역이 충북, 강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산지도 현재 전남에서 전북으로 북상하고 있다.

가을감자 또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2모작이 강원도까지 북상하는 등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적으로 전남과 전북의 가을감자 재배면적이 1990년 중반부터 역전되어 최근에는 전북의 재배면적이 전남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밖에도 녹차 재배지는 전남 보성에서 강원 고성까지 확대되었다.

## 오징어·고등어 및 멸치는 증가, 명태·도루묵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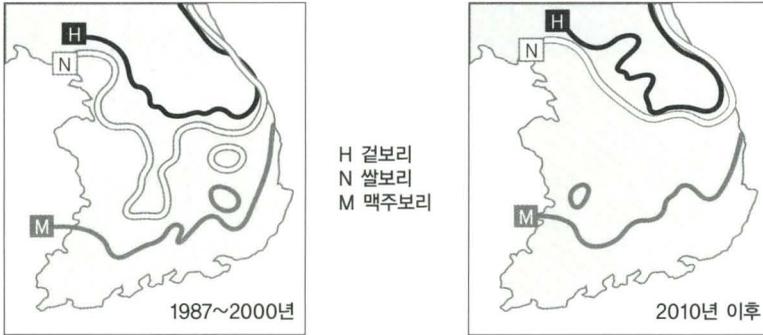
지구 온난화는 바다 수온을 상승시켜 어종 분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동해의 경우 주요 어종이 명태, 도루묵에서 오징어, 청어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970~80년대 동해에서는 수온이 낮은 해저에 서식하는 저어류(底魚類)인 명태와 도루묵이 전체 어획물의 40%에 이르렀는데 2008년에는 1.2%에 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70~80년대 어획 비율이 15%에도 못 미치던 오징어, 청어 등이 서식에 적합한 수온을 따라 이동하면서 해수면 가까이 사는 부어류(浮魚類)가 2008년에는 60.9%를 차지했다. (국립수산과학원, 2009)

온수성 어종인 오징어는 주 어장인 동해는 물론 수온 변화에 따른 이동경로 변경에 따라 서해에서도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섭씨 15~19℃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온수성 어종인 고등어도 수온 상승의 여파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역시 온수성 어종인 멸치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멸치의 증가는 멸치를 먹이로 하는 고등어, 삼치, 다랑어 등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 명태는 어린 새끼고기(노가리)와 어미고기의 무분별한 어획과 연안의 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동해 연안에 산란하는 냉수성 어류인 도루묵도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 2만여 톤의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평균 3천 톤 미만의 적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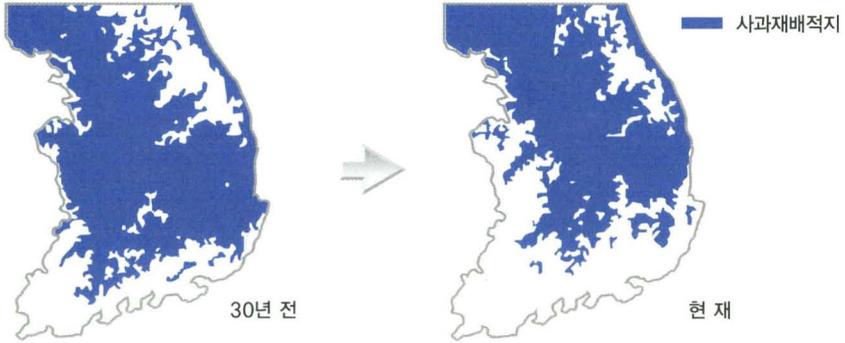
기후 온난화는 농어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목 전환, 아열대 신품종의 도입, 기술개발 등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5] 가을보리의 안전재배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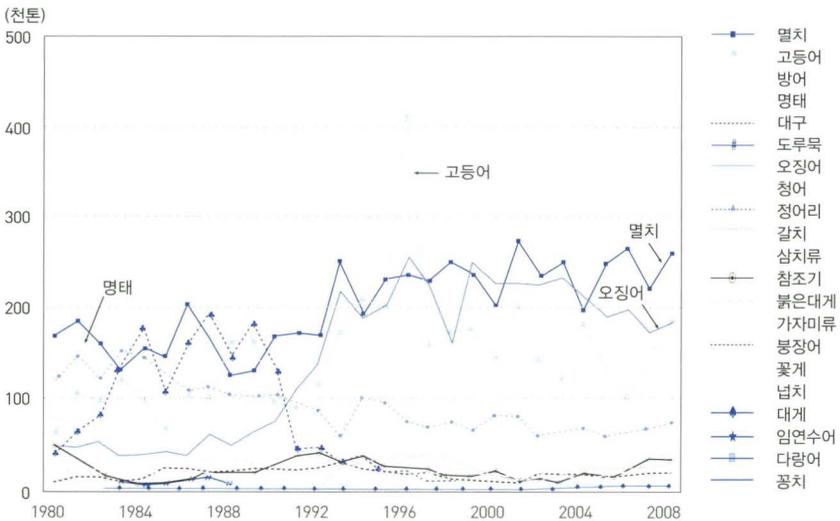
자료 : 농촌진흥청(2007)

[그림 6-6] 사과 재배적지 분포 변화



자료 : 농촌진흥청(2009)

[그림 6-7] 어종별 어획량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어업조사

## 농가소득 도시근로자 소득의 65.3%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1970년 25만 6천원에서 전반적으로 매년 상당한 신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사상 처음 감소했고, 2007~2008년에는 사료·비료값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에 따라 농가소득이 줄었다.

그 결과 2008년 농가소득은 3,052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44만원 감소했다. 1970년부터 2008년 사이 농업이외 소득(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포함)은 가구당 2,081만원 증가하여 농업소득 증가(946만원)보다 2.2배 많았다. 특히 이전소득은 정부 투융자 계획에 따른 직접 지불금 증가로 크게 늘어 가구당 529만원 수준으로 많아졌다.

농업 총수입 중에서 농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88.7%에서 2008년에는 77.2%로 낮아졌다. 쌀이 55.6%에서 28.5%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채소·특용·과수는 13.3%에서 41.0%로 크게 높아졌다. 농작물 이외 수입에서는 축산 수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최근 몇 년 사이 농업 경영비 증가로 안정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호당 농업소득은 재배면적 감소와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감소 요인과 농가 수 감소 및 지불금 추가 투입과 같은 증가 요인이 서로 상쇄되어 당분간 혼조세를 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농가 소득(3,052만원)을 도시근로자 소득(4,674만원)과 비교하면 가구의 평균 연령(농가 63.9세, 도시근로자 44.2세)이나 평균 가구원수(농가 2.67명, 도시근로자 3.43명)가 서로 달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1,622만원의 차이가 났다.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5.3% 수준인 셈이다. 농가 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격차는 1994년 이후 점차 확대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농업 경영비 증가로 농업 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이 점차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업 소득률은 1994년 67.3%에서 2008년에는 37.4%로 29.9%포인트 낮아졌다.

## 농가 엔겔계수(식료품비 비중) 소폭 높아져

가계지출<sup>2)</sup> 중 소비지출의 비율을 보면 2003년에는 농가가 73.6%로 도시 근로자 가구(84.9%) 보다 11.3%포인트 낮았다. 그런데 2008년에는 농가가 72.1%로 낮아지고 도시 근로자 가구 또한 82.1%로 낮아져 그 차이(10.0%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농가(1.5%포인트)의 비소비지출 구성비 증가폭이 도시 근로자 가구(2.8%포인트) 보다 적었음을 의미한다.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농가의 경우 2003년 20.5에서 2008년 20.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엔겔계수는 22.6에서 20.9로 낮아졌다.

## 농가 보건의료비 지출 도시근로자보다 많아

농가 소비지출 구조의 특징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아 보건의료비가 절대 금액에서나,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에서나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2003년 농가의 보건의료비는 136만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6.1%를 차지한 데 비해 도시 근로자가구는 108만원으로 소비지출 중 3.9%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비가 늘어나는 속도 또한 고령화의 정도가 높은 농가가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훨씬 빠르다. 2008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보건의료비는 143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2.8% 증가했지만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농가의 보건의료비는 184만원으로 35.5% 증가했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로 1.5%포인트 높아졌다.

가구당 교육비(교육비와 출타 가족에 대한 교육비 송금 합계) 지출은 2008년의 경우 농가가 163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444만원) 보다 적었지만, 출타 자녀 교육비 송금의 경우 농가(98만원)가 여전히 도시 근로자 가구(53만원) 보다 많았다.

---

2) 도시 근로자 가구와의 소비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농가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했음

〈표 6-11〉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연 도	농가 소득 (a)= (b)+(e) +(f)+(g)	농업 소득 (b)= (c)-(d)	농업 총수입(c)								농업 경영비 (d)	농외 소득 (e)	이전 소득 <sup>1)</sup> (f)	비경상 소득 <sup>2)</sup> (g)
			농작물수입				농작물 이외 수입							
			(%)	미 곡	맥 류	채소특용 과 수	(%)	축 산						
1970	256	194	248	88.7	55.6	10.5	13.3	11.3	11.3	54	62	-	-	
1975	873	715	891	88.0	54.8	10.0	13.5	12.0	12.0	176	158	-	-	
1980	2,693	1,755	2,342	86.2	48.7	5.1	25.7	13.8	13.8	587	938	-	-	
1985	5,736	3,699	5,477	82.6	48.0	2.3	28.0	17.4	17.4	1,778	1,060	977	-	
1990	11,026	6,264	9,078	82.3	48.2	1.9	28.1	17.7	17.7	2,814	2,841	1,921	-	
1995	21,803	10,469	16,012	75.0	34.0	1.2	35.8	25.0	25.0	5,543	6,931	4,403	-	
2000	23,072	10,897	19,514	86.8	39.8	0.9	41.2	13.2	13.2	8,617	7,432	4,743	-	
2005	30,503	11,815	26,496	75.3	27.4	0.8	39.8	24.7	24.1	14,681	9,884	4,078	4,725	
2008	30,523	9,654	25,843	77.2	28.5	0.7	41.0	22.8	20.6	16,189	11,353	5,289	4,227	

주 : 1) 사례금, 가족보조금, 타인보조금 등은 1983년부터 농외소득(사업 외 수입)에서 이전소득으로 항목 분리 신설

2) 2003년부터 이전소득에서 일부항목 분리 신설된 것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

자료 : 통계청 「2008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표 6-12〉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농 가				도시근로자가구			
		2003		2008		2003		2008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가 계 지 출		22,314	100.0	24,282	100.0	27,368	100.0	36,443	100.0
소비 지출	소비지출 계	16,412	73.6	17,508	72.1	23,240	84.9	29,936	82.1
	-식료품	4,575	20.5	4,992	20.6	6,185	22.6	7,618	20.9
	-주거	452	2.0	452	1.9	755	2.8	977	2.7
	-광열수도	974	4.4	1,210	5.0	1,095	4.0	1,366	3.7
	-가구집기가사용품	511	2.3	500	2.1	908	3.3	1,320	3.6
	-의류 및 신발	581	2.6	546	2.2	1,310	4.8	1,571	4.3
	-보건의료	1,356	6.1	1,838	7.6	1,077	3.9	1,430	3.9
	-교육	874	3.9	649	2.7	2,647	9.7	3,903	10.7
	-교양오락	461	2.1	638	2.6	1,156	4.2	1,431	3.9
	-교통통신	2,035	9.1	2,404	9.9	4,069	14.9	5,198	14.3
-기타소비지출	4,593	20.6	4,279	17.6	4,038	14.8	5,122	14.1	
비소비 지출	비소비지출 계	5,901	26.4	6,773	27.9	4,128	15.1	6,507	17.9
	-조세·연금·사회보험	988	4.4	1,079	4.4	2,729	10.0	4,075	11.2
	-기타비소비지출	4,913	22.0	5,694	23.4	1,399	5.1	2,432	6.7
	·출타가족 교육비	1,195	5.4	978	4.0	323	1.2	532	1.5

주 : 농가 소비지출과 가계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2003년 1,749천원, 2008년 2,820천원)는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제외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 어가 3분의 2 고기 잡고, 3분의 1 양식업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는 1970년 10만4천 가구로 전체 어가의 69.8%,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4만 5천 가구로 30.2%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어로어업 종사 가구 4만 9천 가구(68.9%), 양식어업 종사 가구 2만 2천 가구(31.1%)로 어가 수가 줄었는데 전체 어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업 생산량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즉 어선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선 사용 어가수도 1970년 3만 4천 가구에서 1990년 3만 9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원 남획,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해양 오염, 매립간척 등으로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는 어선 감축 등을 통한 연근해 어업의 체계적인 재편과 적극적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옮겨졌다. 그 결과 2008년 어선 사용 가구는 3만 2천 가구로 줄었다. 어로어업 어가 중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 등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가는 1970년만 해도 전체 어가의 47.1%였는데 점점 줄어 2008년에는 23.2%로 나타났다.

양식어업 가구는 1983년 5만 9천 가구로 최대를 기록한 뒤 매해 감소하여 2008년에는 2만 2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연안어장의 환경 악화, 중국산 등 수산물 수입 증가, 생산증대 위주 양식 경영으로 인한 양식장 질병 발생 및 생산성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 해면어업 비중 크게 감소

어업 생산량은 1999년 291만 1천 톤, 2007년 327만 4천 톤, 2008년 336만 2천 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해면어업(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10만 톤의 범위에서 큰 변동은 없는데,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45.9%에서 2008년에는 38.2%로 7.7%포인트 낮아졌다.

이와는 달리 1999년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였던 천해 양식어업은 2008년에는 41.1%로 비중이 14.8%포인트 높아졌다. 생산량은 어획 대상

어종의 해당 연도의 해·어황에 따라 좌우된다. 대형 선망어업은 고등어·정어리, 기선권현망 어업은 멸치의 어황에 따라 생산량의 기복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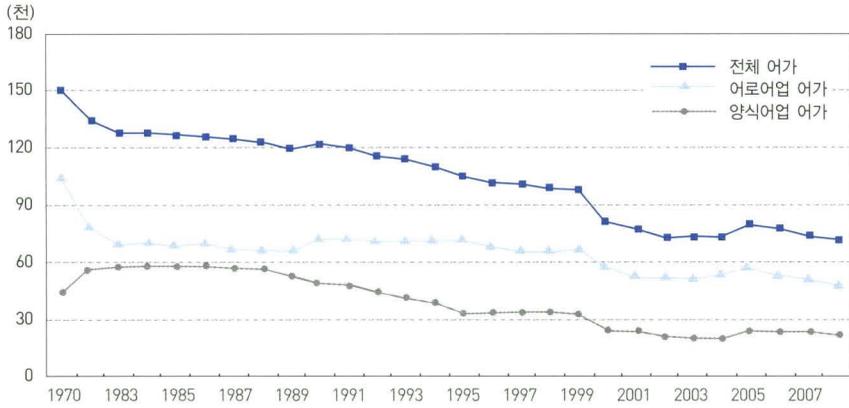
천해양식 생산량은 1999년 76만 5천 톤에서 2007년 138만 6천 톤으로 181%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138만 2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양식 생산량 감소는 주로 양식 어가 감소에 따른 종묘 입식량 축소에 따른 것이다. 양식 품목은 국민의 소득 향상 및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어류를 중심으로 다양화, 고급화하는 추세다. 유류비와 양식시설 비용 등은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어 국내 양식업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산물 소비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 증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99년 38.3kg이었던 것이 2007년 55kg로 43.6% (16.7kg)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수산물 생산량이 이러한 소비 증가 추세를 따르지 못해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105.9%로 100%를 넘어섰던 수산물 자급률은 해마다 떨어져 2004년에는 55.7%까지 낮아졌다. 그러다가 회복돼 2007년 현재 수산물 자급률은 72.3%를 기록했다.

[그림 6-8] 어업형태별 어가 추이



[표 6-13] 어업형태별 어가 추이

(단위 : 가구, %)

연도	총계	어로어업							양식어업		
		비율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무동력선	동력선				
1970	149,107	104,070	69.8	70,286	47.1	33,784	22.7	19,941	13,843	45,037	30.2
1975	127,885	-	-	-	-	-	-	-	-	-	-
1980	134,109	78,207	58.3	46,363	34.6	31,844	23.7	14,337	17,507	55,902	41.7
1985	126,800	68,488	54.0	33,835	26.7	34,653	27.3	10,149	24,504	58,312	46.0
1990	121,525	71,798	59.1	32,628	26.8	39,170	32.2	2,945	36,225	49,727	40.9
1995	104,480	70,471	67.4	33,362	31.9	37,109	35.5	1,966	35,143	34,009	32.6
2000	81,571	56,761	69.6	17,793	21.8	38,968	47.8	-	38,968	24,810	30.4
2005	79,942	55,867	69.9	19,134	23.9	36,733	45.9	-	-	24,075	30.1
2008	71,046	48,945	68.9	16,464	23.2	32,481	45.7	-	-	22,101	31.1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어업조사

[표 6-14] 어업생산량, 수산물 1인당 소비량 및 자급률

(단위 : 천 톤, kg,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2,911	2,514	2,665	2,476	2,487	2,519	2,714	3,032	3,274	3,362
-해면어업 <sup>1)</sup>	45.9	47.3	47.0	44.3	44.1	42.7	40.4	36.6	35.2	38.2
-천해양식 <sup>2)</sup>	26.3	26.0	24.6	31.6	33.2	36.4	38.4	41.5	42.3	41.1
-원양어업 <sup>3)</sup>	27.2	25.9	27.7	23.4	21.9	19.8	20.3	21.1	21.7	19.8
-내수면어업 <sup>4)</sup>	0.6	0.8	0.7	0.7	0.8	1.0	0.9	0.8	0.8	0.9
1인당소비량	38.3	36.8	42.2	44.7	44.9	49.0	49.5	56.5	55.0	-
수산물 자급률	105.9	87.7	77.9	63.8	61.7	55.7	60.0	60.1	72.3	-

주 : 1) 해면어업 : 해수면에서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2) 천해양식 : 해수면이나 육상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3) 원양어업 :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4) 내수면어업 : 못, 하천, 호수 등에서 민물 어류 패류 등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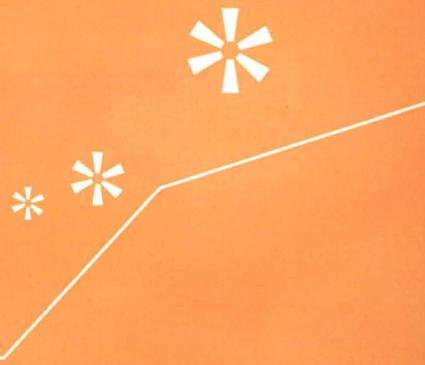
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7장

## 제조업

- 7-1 제조업 동향
- 7-2 섬유류 수출
- 7-3 시멘트, 레미콘 및 철강재 수급
- 7-4 전기·전자 제품 수출
- 7-5 자동차산업
- 7-6 조선 수주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2000년 이후 사업체수 증가폭 둔화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는 2007년 11만9천개로 1970년(2만4천개)의 4.9배로 많아졌다. 제조업 사업체수는 2000년을 전후하여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1990년 사업체수는 6만8천개로 1980년(3만개)에 비해 2.2배 증가했는데, 1970년 이후 10년 주기로 본 사업체 증가 규모에서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1990년대까지 수출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정보통신(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공장설비 자동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유발 효과가 약해진 제조업 사업체수의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제조업체는 9만8천개로 1990년(6만8천개)에 비해 3만개 증가했다. 5년 뒤 2005년 11만7천개, 2007년 11만9천개 등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현저히 둔화되었다.

## 경공업 감소, 중화학공업 사업체는 증가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이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제조업이다. 2007년 사업체는 1만8천개로 1970년(6천개) 대비 3배 많았다. 2000년까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6%, 2000년에는 사업체가 2만개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 사업체수는 1990년대(1만6천개)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학, 석유 및 고무플라스틱제조업과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학, 석유 및 고무플라스틱제조업사업체 수는 2007년 1만4천개로 1970년(2천개)의 8.1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970년 이후 매 10년 동안 3천개 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1만개를 넘어섰다. 2000년 이전 10년 동안 늘어난 것이 3천개였는데, 2005년에 1만3천개로 2000년에 비해 3,100개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및 부품산업이 주축인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사업체수

또한 2007년 5만4천개로 1970년(3천9백개)의 14배로 증가했다. 완성차의 수출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사업체도 급증한 것이다. 1990년 사업체가 2만3천개로 1980년(6천개)에 비해 10년 사이 1만6천개 늘어났다. 2000년에도 3만9천개로 1990년에 비해 10년 사이 1만6천개 증가했다.

### 1990년 이후 종사자 수 감소

종사자 수는 2007년 287만 명으로 1970년(86만 명)의 3.3배에 이르렀다. 국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고용을 창출한 제조업은 1990년 종사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 종사자가 26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뒤 2005년 286만 명, 2006년 290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287만 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 종사자의 56%는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으로 2007년 현재 162만 명이 종사함으로써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 종사자는 1970년 15만 명이었던 것이 1990년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후 2000년 127만 명, 2005년 155만 명으로 계속 늘어난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이다.

반면 종사자 비중이 10% 수준인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제조업은 2007년 종사자가 27만5천명으로 1970년(26만7천명)과 비교할 때 8천명 증가에 그쳤다. 이 업종은 1990년대 초까지 종사자가 늘어난 분야로 1980년 당시 62만2천명으로 1970년의 2.3배에 이른 적도 있다. 1990년만 해도 66만5천명으로 1980년과 비슷했는데, 그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 43만7천명 2005년 30만 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든 끝에 지금은 1970년대 수준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액은 2007년 988조 8천억원으로 1970년(1조 4천억원)의 712배에 이르렀다. 1990년 생산액은 178조 6천억원으로 1980년(36조 8천억원)의 4.9배로 증가하였고, 2000년 564조 8천억원으로 1990년 대비 3.2배로 커지면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07년 346조 6천억원으로 1970년(0.6조원)의 590배 규모다. 1990년에는 71조 9천억원으로 1980년(12조 2천억원) 대비 5.9배로 증가하였고, 2000년 219조 4천억원으로 1990년에 비해 3.1배 커짐으로써 부가가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표 7-1〉 제조업 주요 지표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b>사업체수(개)</b>	24,114	30,823	68,872	98,110	117,205	119,181	119,606
음식료품 및 담배	5,156	4,617	4,674	6,434	8,401	8,506	8,625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6,393	7,682	16,261	20,929	19,277	18,848	18,723
제재 및 나무제품	2,008	2,200	3,891	1,923	2,076	2,056	2,045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	1,738	2,300	4,933	7,514	9,213	9,309	7,537
화학·석유·고무·플라스틱	1,723	3,034	7,824	10,065	13,213	13,533	14,008
비금속광물	2,278	2,404	3,658	3,525	4,161	4,238	4,288
1차금속	344	872	1,678	2,228	2,923	3,173	3,393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3,899	6,660	23,196	39,643	51,194	52,838	54,807
기타	575	1,054	2,757	5,849	6,747	6,680	6,180
<b>종사자수(명)</b>	861,041	2,015,187	3,019,816	2,652,590	2,865,549	2,910,935	2,878,728
음식료품 및 담배	117,327	181,426	214,232	180,827	188,483	187,922	193,837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267,479	622,536	665,951	437,573	300,251	284,714	275,669
제재 및 나무제품	45,230	65,758	86,946	26,399	26,528	26,656	26,392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	49,360	90,556	135,447	143,963	160,026	159,161	109,143
화학·석유·고무·플라스틱	101,628	265,321	434,212	307,201	346,606	349,048	351,404
비금속광물	50,366	94,552	128,070	84,627	86,851	87,037	89,854
1차금속	31,528	89,895	121,907	103,898	116,168	117,484	122,863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149,896	534,596	1,139,740	1,277,321	1,551,796	1,610,132	1,627,503
기타	48,227	70,547	93,311	90,781	88,840	88,781	82,063
<b>생산액(10억원)</b>	1,388	36,817	178,618	564,834	851,789	912,763	988,790
<b>부가가치(10억원)</b>	588	12,233	71,885	219,425	312,792	326,844	346,629
종사자 1인당(백만원)	24	397	1,044	2,237	2,669	2,742	2,898
사업체당(백만원)	1	6	24	83	109	112	120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광업, 제조업조사」

## 완제품의 2/3를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산업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3분의 1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 완제품의 3분의 2를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산업이다. 섬유산업은 원료, 원사·직물제조 및 염색, 의류제조 등의 다단계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특히 직물업, 편직업, 염색업은 전체 사업체 중 중견기업이 39%를 차지하며 의류, 패션, 봉제 등은 중소기업이 생산의 56%를 담당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노동집약형 산업으로서 사업체 수, 고용 비중이 높은 핵심산업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EU, 터키,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의 섬유 수출국(2007년)이며, 패션 슱 및 패션몰 등 2만여 개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섬유류 제품 수출액은 2008년 133억 1천7백만 달러로 1980년(50억9천8백만 달러)의 2.6배 규모다.

## 2005년 쿼터 철폐 이후 수출액 감소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중화학공업 우선 육성정책에 따라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 섬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자 품질 고급화와 직물류 수출 비중을 늘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1990년 수출액은 147억6천6백만 달러로 1980년 대비 2.9배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도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구조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웠다. 이를 자체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으로 극복하며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 2000년 수출액은 187억8천3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 쿼터 철폐에 따라 수출액은 139억4천6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2006년 132억3천2백만 달러, 2007년 134억4천6백만 달러, 2008년 133억1천7백만 달러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섬유 교역의 자유화(섬유쿼터 폐지)와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의 가속화, 후발 개도국의 급격한 추격의 영향을 받아 주력 수출품목으로서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른 결과다. 국내적으로도 경기 불황에 따라 수요가 둔화되고 인건비 및 생산비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심화되면서 생산활동이 약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과 시장 잠식,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수에 따른 수출 불안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섬유산업은 IT 기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월드컵 개최이후 국가 인지도 상승, 한류 열풍에 따른 아시아 시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섬유류 수출의 60%는 직물류

품목별 수출 구조변화는 국내 산업육성 정책 변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결과로 나타났다. 2008년 섬유류 수출의 60%는 직물류가 차지하고 있고, 21.9%는 섬유제품으로 두 품목이 섬유류 수출의 주력 품목이다.

2008년 직물류 수출액은 80억4천3백만 달러로 1980년(12억7천6백만 달러)의 6.3배 규모다. 1980년에는 섬유류 수출의 주종이 섬유제품이었는데, 1980년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주력제품이 달라졌다. 2000년 직물 수출액은 102억6천3백만 달러로 1990년(46억7천5백만 달러)의 2.2배로 증가하면서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후발 주자인 중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고급 품목 시장 선점의 여파로 20% 이상 감소하여 2005년 수출액은 80억 3천8백만 달러, 2006년 78억2천4백만 달러로 감소했다. 2007년 79억5천5백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80억 달러를 넘어섰다.

### 1990년 이후 섬유제품 수출 급감

2008년 섬유제품 수출액은 29억1천6백만 달러로 1980년(31억6천4백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이던 섬유제품은 1980년 이후 단계적인 자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1990년 수출(88억8천9백만 달러)이 정점을 찍은 뒤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 수출은 61억2천6백만 달러로 1990년 대비 31.1% 감소했고, 2005년에는 다시 2000년의 절반 수준인 35억6천4백만 달러로 내려갔다. 급기야 2007년 30억 달러가 깨지면서 29억9천9백만 달러 수출에 그쳤으며, 감소세가 지속되어 2008년에는 29억1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 섬유 원료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

섬유류 수출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섬유원료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섬유원료 수출액은 10억7백만 달러로 1980년(4천만 달러)의 25.2배에 이르렀다. 섬유원료 수출은 2007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10억3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7-2〉 섬유류 제품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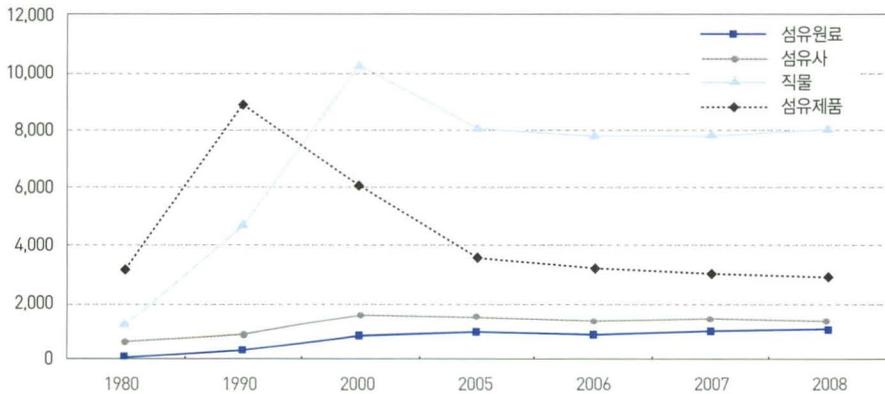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합계	5,098	14,766	18,783	13,946	13,232	13,446	13,317
섬유원료	40	325	859	922	883	1,036	1,007
섬유사	619	878	1,535	1,421	1,322	1,455	1,352
직물	1,276	4,675	10,263	8,038	7,824	7,955	8,043
섬유제품	3,164	8,889	6,126	3,564	3,203	2,999	2,916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MTI분류)」

[그림 7-1] 섬유류 품목별 수출액

(백만달러)



〈표 7-3〉 섬유류 제품 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합계	453	2,316	4,788	6,765	8,037	8,909	8,800
섬유원료	39	206	161	178	173	198	224
섬유사	109	625	1,525	1,461	1,669	1,721	1,705
직물	266	1,162	1,517	1,471	1,529	1,602	1,535
섬유제품	39	324	1,585	3,655	4,666	5,388	5,337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MTI분류)」

## 7-3 시멘트, 레미콘 및 철강재 수입

7장 제조업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1970년대 시멘트 수출국으로 전환

2008년 시멘트 생산량은 5,664만t으로 1970년(528만t)의 10.7배 규모다. 1960년대 동양, 대한양회(현 쌍용양회) 두 곳에 불과했던 시멘트 업계는 1971년 8곳으로 늘어나 생산량이 500만t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20위의 시멘트 생산국이 발돋움해 1971년 시멘트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수출 개시 초기 61만t을 수출했던 시멘트 수출은 1995년까지 100만t 수준을 맴돌다가 2000년 395만t을 거쳐 2005년 402만t으로 400만t대로 올라섰다. 시멘트 수출량은 2007년 412만t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에는 295만t으로 감소했다.

### 시멘트, 1990년대 건설경기 붐 타고 생산 급증

시멘트 생산량은 1980년 1,557만t으로 1970년 대비 2.9배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적 증가에 치중했던 국내 시멘트 산업이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기술 개발로 질적 변화를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개편한 결과다.

1990년대 들어 시멘트 생산량은 급증세를 탔다. 1990년 3,358만t에서 1995년 5,513만t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무렵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가세에 힘입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급락한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증가,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멘트 생산량이 5,126만t으로 줄었다. 생산 감소세는 2005년까지 이어져 2005년 생산량은 2000년 대비 7.9% 줄어든 4,720만t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극복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서 건설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자 시멘트 생산량은 2006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2006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920만t이었고, 2007년에는 5,218만t(증가율 6.1%)으로 다시 5,000t을 회복하였다.

### 레미콘, 88올림픽 주택 200만호 건설로 급성장

완전 내수형 업종인 레미콘은 1970년 후반 대한양회(현 쌍용양회)이 전국에 7개

공장을 세워 독점 체제로 출발했다.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해 1980년 출하량은 588만<sup>m</sup>로 1970년(24만<sup>m</sup>)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1980년대 88 서울올림픽 관련 공사, 주택 200만호 보급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급성장 산업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레미콘 출하량은 1990년 5,832만<sup>m</sup>에 이어 1995년 1억<sup>m</sup>를 돌파하였다. 불과 5년 사이 2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레미콘 파동까지 빚었으며 출하량은 1억1,473만<sup>m</sup>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냉하자 레미콘 출하량이 2000년에 1억91만<sup>m</sup>로 감소했다가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늘어나 2005년 1억2,161만<sup>m</sup>를 기록했다. 2007년 1억3,483만<sup>m</sup>까지 증가했던 출하량은 2008년 경기 침체에 따라 2008년 1억 2,697만<sup>m</sup>로 감소했다. 그래도 1970년(24만<sup>m</sup>)과 비교하면 522배에 이르는 규모다.

### 주요 철강재 수요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업 등

철강업은 주된 수요처인 건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가전산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수요 산업의 경기 움직임은 철강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철강재 생산량은 2007년 6,161만7천MT으로 1970년(131만MT)의 47배에 이르렀다. 1980년 생산량은 934만1천MT으로 1970년의 7.1배 규모로 급성장했는데, 이는 1973년 포항제철 제1기 고로공장 가동에 이어진 2~4기 건설과 정부의 철강 공업 육성 정책 덕분이다.

1990년 생산량은 2,486만8천MT으로 1980년 대비 2.7배 증가하였다. 1980년대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팽배해 무역 마찰과 분쟁이 많았다. 그 와중에도 한국 철강업의 질적 고도화와 정부의 강력한 철강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2000년 생산량은 4,873만1천MT로 1990년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 시기는 외환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는 단계로 자체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 2000년 이후 철강산업은 한보철강 매각, 철강 무관세화(2004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기공(2006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2007년 생산량이 6,161만7천MT에 이르렀다.

조강 생산량은 2007년에 5,151만7천MT으로 1970년(151만MT)의 34배를 기록했다. 조강 생산량은 1970년 이후 매 10년 주기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계속 증가한 조강 생산량은 2006년 전년 대비 22% 늘어난 5,845만5천MT을 기록했다가 2007년에는 11.9% 감소하여 5,151만7천MT을 나타냈다.

〈표 7-4〉 시멘트 생산, 출하 및 수입·수출

(단위 : 천MT)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생 산	5,282	15,573	33,575	55,130	51,255	47,197	49,199	52,182	56,639
출 하	-	-	-	56,502	48,000	46,286	48,386	50,801	55,179
수 출	612	346	1,227	966	3,946	4,024	3,987	4,123	2,954
수 입	0	0	2,100	2,082	518	3,403	3,198	2,917	-

자료 : 한국양회공업협회 「연보」,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표 7-5〉 레미콘 출하량 및 증감률

(단위 : 천m<sup>3</sup>, %)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출 하 량	243	5,878	58,415	114,731	109,081	121,608	126,964	134,828	126,969
전 년 비	7.4	5.9	18.3	7.6	13.7	-11.6	4.4	6.2	-5.8

자료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연보」,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표 7-6〉 철강지표

(단위 : 천MT, kg)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철강재 생산	1,310	9,341	24,868	48,731	55,066	57,436	61,617
1인당 소비	44	148	468	815	997	1,021	1,136
조강 생산	1,510	10,373	23,125	43,107	47,820	58,455	51,517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지표」

## 라디오 조립에서 디지털TV 생산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1959년 라디오 조립 생산으로 시작하였다. 1960년대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공업단지 조성으로 단순조립·대량생산 전략으로 라디오를 조립하고 흑백TV 등을 생산하였다.

1970년대에는 컬러TV, 전자교환기, 라디오카세트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해 생산을 늘렸다. 1980년대에는 대기업이 본격 진출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제품 생산도 VTR, 백색가전, 모니터, 오디오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지면서 전기전자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디지털 회로 설계, 반도체 공정 기술 개발, 소형화 및 집적화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제품 생산으로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구조를 전환하였다. 그 와중에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일부 회사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거친 후 1999년부터 재도약하였다.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한 결과 휴대전화와 디지털TV, MP3플레이어, 플래시 메모리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2008년 수출액 1980년의 62배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2008년 1,319억1천만 달러로 1980년(21억2,800만 달러)의 61.9배로 커졌다. 1990년 수출액은 180억1백만 달러로 1980년 대비 8.5배의 규모였다. 주요 수출품목이 1980년대 노동집약적인 흑백TV, 라디오 등에서 기술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메모리반도체와 VCR, CRT모니터 등으로 전환한 덕분이다. 2000년 수출액은 689억3천2백만 달러로 1990년 대비 3.8배 증가하였다.

## IT거품 꺼지며 고전하다 중국 시장에 힘입어 회복

2001년 세계적인 IT버블 붕괴 영향으로 반도체 등 주력품목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전자산업은 거대한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수출 회복세로 활기 찾기 시작하면서 2005년말 연간 누계 1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1,074억3천7백만 달러를 달성한다.

주요 품목은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LCD

모니터로서 등 5대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시장에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가치 상승과 차세대 동력으로 투자했던 신기술을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2005년 이후 세계시장에서 LCD, 휴대폰, D램, 플래시메모리 등 주요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위를 차지한 덕분에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207억 9백만 달러, 2007년 1,317억5천7백만 달러, 2008년 1,319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 주력 품목, 가정용 전자에서 산업용 및 전자부품으로

1980년 가정용 전자제품 수출액은 전기전자 수출액의 53%를 차지하면서 수출을 주도했으나, 2008년 전자부품(45.2%), 산업용전자(38.8%), 가정용전자(9.8%) 순으로 수출주력 부문이 바뀌었다.

### 2008년 전자부품 수출액 1980년의 100배

전자부품의 2008년 수출액은 595억5천4백만 달러로 1980년 5억9천8백만 달러의 99.6배에 달한다. 1980년 생산 및 수출 주력 품목은 가전제품으로서 전자부품의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질적 고도화와 반도체 생산기술 등을 활용한 부품생산 등 지속적인 투자로 1990년 수출액은 1980에 비해 10배 증가한 59억 4천9백만 달러, 2000년은 322억2천9백만 달러, 2005년 408억6천7백만 달러로 2007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고, 2008년 전년대비 5.3% 감소한 595억5천 4백만 달러에 이른다.

### 가정용 전자 수출액 비중 감소

2008년 가정용전자 수출액은 128억9천6백만 달러로 1980년 11억2천7백만 달러의 11.4배에 달한다. 1980년 주요 수출 품목은 컬러TV, 라디오카세트 등 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가정용전자 제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9%로 높았으나, 이후 질적 고도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품목 위주의 수출 다변화로 가정용 전자의 비중 및 수출액 증가는 둔화되기 시작한다. 1990년 수출액은 73억4천6백만 달러 2000년 101억3천6백만 달러로 수출 증가에 따라 다른 품목에 비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 146억5천6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전년대비 4~7% 감소를 보이며 2006년 145억5천3백만 달러, 2007년 134억3천3백만 달러, 2008년 128억9천 6백만 달러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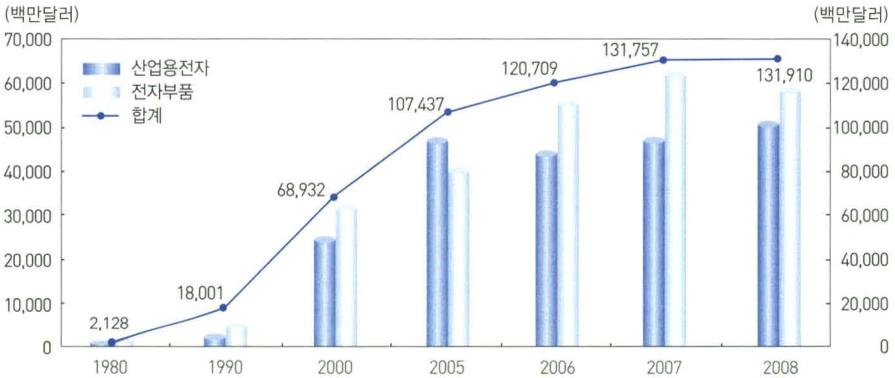
〈표 7-7〉 전기·전자제품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합 계	2,128	18,001	68,932	107,437	120,709	131,757	131,910
산업용전자	219	3,959	24,190	47,181	44,024	48,539	51,117
가정용전자	1,127	7,346	10,136	14,656	14,553	13,433	12,896
전자부품	598	5,949	32,229	40,867	56,128	62,934	59,554
중전기	122	586	1,614	2,788	3,420	4,309	5,319
전 선	63	162	763	1,945	2,584	2,542	3,023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MTI분류)」

[그림 7-2] 전기·전자제품 수출액



〈표 7-8〉 전기·전자제품 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838	12,226	46,646	63,511	69,545	75,909	80,445
산업용전자	518	4,226	15,629	20,674	22,059	22,891	24,140
가정용전자	268	1,120	2,352	4,196	4,369	4,548	4,848
전자부품	630	5,520	25,168	31,725	35,144	40,308	42,647
중전기	387	1,275	2,736	4,864	5,360	6,418	7,083
전 선	35	84	760	2,052	2,612	1,745	1,727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MTI분류)」

## 1975년 국산 모델 포니 개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의 약 70%를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1972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신진자동차에서 철수했다. 이에 신진자동차는 미국 제네럴모터스(GM)과 합작하여 GM코리아를 설립한다.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자본 협력을 추진했으나 결렬되자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선다. 기아자동차는 일본 마쯔다의 브리샤 모델을 들여와 1974년부터 국내 생산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1975년 '포니' 개발에 성공하고,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 수출에 나선다. 이로써 한국 자동차산업은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 2008년 자동차 생산 1970년의 132배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대수는 2008년 382만7천대로 1970년(2만9천대)의 132배에 이른다. 1970년 생산 물량은 100% 내수로 승용차가 1만5천대, 상용차가 1만4천대였다. 10년 뒤 1980년 생산량은 1970년의 4.2배인 12만3천대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양산한 기아자동차의 '브리샤', GM코리아의 '시보레' '레보드', 현대자동차의 국산 모델 '포니' 등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약기에 해당한다. 1980년 수출 물량은 생산량의 20%인 2만5천대였다.

## 1980년대 모델 다양화와 수출전진기지 확보

1990년 생산 대수는 1980년 대비 10.7배 증가한 132만2천대로 드디어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다. 1980년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자동차산업이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1981년 합리화 조치로 현대차와 대우차는 승용차만 생산하고, 중소형 트럭은 기아차가 독점하면서 경영이 정상화되고 양산 체제와 함께 수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1986년 기아차 '프라이드', 현대차 '포니' '엑셀' '프레스토', 대우차 '르망' 을 앞세워 미국을 전략 기지로 삼고 수출에 힘을 쏟았다.

2000년 생산량은 311만5천대로 1990년의 2.4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후 생산량 증가세는 둔화되어 2005년 369만9천대, 2006년 384만대, 2007년 408만6천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08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보다 6.3% 줄어든 382만7천대 생산에 머물렀다.

### 1996년 280만대 생산체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가로

1990년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본격 대량 수출에 나섰다.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중·소형차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그 결과 1996년 28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로 부상했다. 2000년대 들어 환경보호가 강조되면서 매연가스 배출을 줄인 저공해차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화두로 떠올랐다.

2008년 자동차 수출 규모는 268만4천대로 1980년(2만5천)대의 107배로 커졌다. 국산 모델의 다양화와 미국을 수출전략 기지로 확보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 2000년 수출 10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05년에는 258만6천대를 수출했고, 2007년에는 284만7천대로 300만 대 수출을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268만4천대의 수출에 머물렀다.

### 주력 수출 품목은 승용차

2008년 자동차 수출의 93.5%는 승용차이다. 1980년 자동차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던 승용차는 199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승용차 비중이 더욱 커졌다. 수출 자동차 중 승용차 비중은 1990년 97.9%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9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에는 수출물량 268만4천대 중 250만 9천대가 승용차로 9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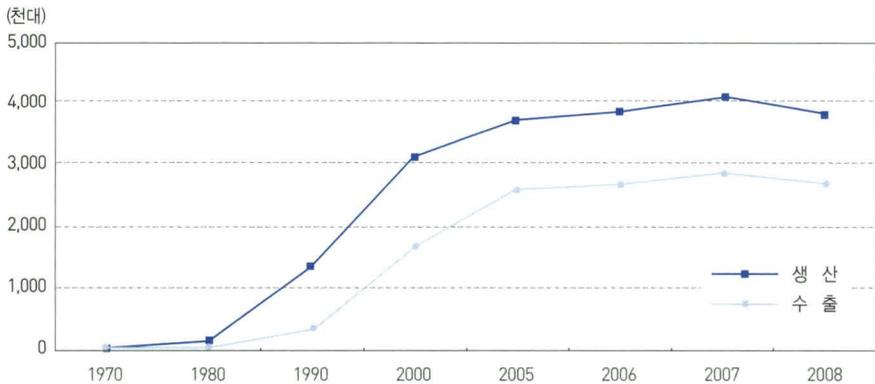
〈표 7-9〉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단위 : 천대)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생 산	29	123	1,322	3,115	3,699	3,840	4,086	3,827
승 용	15	57	987	2,602	3,357	3,489	3,723	3,450
상 용	14	66	335	513	342	351	363	376
내 수	22	105	954	1,431	1,143	1,164	1,219	1,154
승 용	12	46	626	1,058	914	936	986	959
상 용	10	59	328	373	229	229	233	196
수 출	0	25	347	1,676	2,586	2,648	2,847	2,684
승 용	0	15	340	1,544	2,457	2,530	2,719	2,509
상 용	0	11	7	132	130	118	129	175

자료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백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그림 7-3〕 자동차 생산 및 수출물량



## 1970년대 이후 급성장, 해외 수주 물량이 대부분

우리나라 선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08년 선박 수주 규모가 3,377만5천GT를 기록했다. 이는 1973년 수주량(98만2천GT)의 34.4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내선 수주가 1973년 대비 2배인 61만3천GT, 수출선이 48.3배 증가한 3,316만2천GT였다. 2008년 선박 수주 중 수출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98.2%에 이른다.

## 1980년 초 세계 2위의 조선 국가 부상

1980년 수주량은 169만GT로 1973년의 1.7배 규모였다. 국내선 수주는 1973년 대비 12.5% 감소한 25만9천GT, 수출선이 2.1배 증가한 143만2천GT이었다.

1970년대 전반에 시작된 조선소 건설 계획이 1983년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제2도크 공사가 완료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조선소 건설은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부터 세계 2위의 조선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선박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은 2% 수준이었는데, 연평균 30% 이상 지속적인 고속 성장으로 10년 후인 1980년대 중반 고용이 3배로 확대되는 등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중도 4%대로 커졌다.

그러나 1, 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1980년대 세계 해운 및 조선 시장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 와중에서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수주가 지속돼 많은 조선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국내 조선업체들도 감량 경영과 설비 자동화에 나섰지만 수주 물량 감소는 1988년까지 이어졌다.

## 1990년대 조선업 세계 1위로 부상

1990년 선박 수주량은 438만GT로 1980년의 2.6배로 커졌다. 1993년 엔화 강세에 힘입어 일본을 제치고 사상 최대 수주 물량을 기록하면서 채산성이 개선되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조선업이 각광을 받았다. 급성장한 한국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8%로 확대되면서 일본

(32.2%)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1996년 엔화가치의 절하, 국내 인건비 상승, 기자재 가격 상승 등 일본의 회복세에 밀려 국내 조선 산업은 다시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들어 세계 조선시장이 호황을 맞아 수주 물량이 사상 최초로 1천만GT를 넘어선 1,373만GT를 기록했다. 또 1999년에는 급격한 원화가치 절하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일본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본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 2007년은 선박 관련 모든 지표에서 최고의 해

2000년에 들어서도 한국 조선업은 세계 전체 발주물량의 45% 이상을 수주하면서 2년 연속 수주 물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000년 선박수주 물량은 1,938만GT로 1990년의 4.4배에 이르렀다. 2000년 수주실적은 1973년 이후 최대 물량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계 경기 둔화, 미국 9.11 테러 여파로 선주들이 선박 발주를 망설이는 바람에 수주물량이 감소세로 바뀌었다.

그 결과 2005년 수주량은 1,927만9천GT로 2000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해운시황 호조와 연이은 새로운 규칙 발효의 영향으로 선박의 대량 발주가 이어지면서 489척 3,365만6천GT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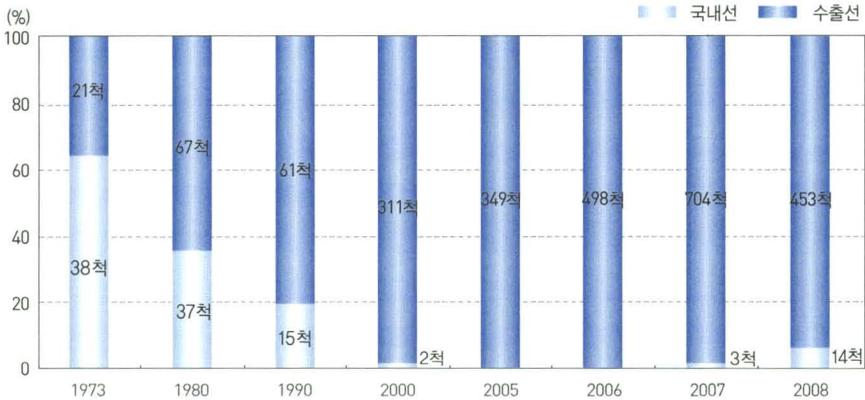
이와 같은 상승세는 2007년에도 이어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벌크 발주에 힘입어 모든 지표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48.5% 증가한 4,999만GT였다. 선박 수로도 707척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2.4% 감소한 3,377만5천GT의 수주에 그쳐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표 7-10〉 선박 수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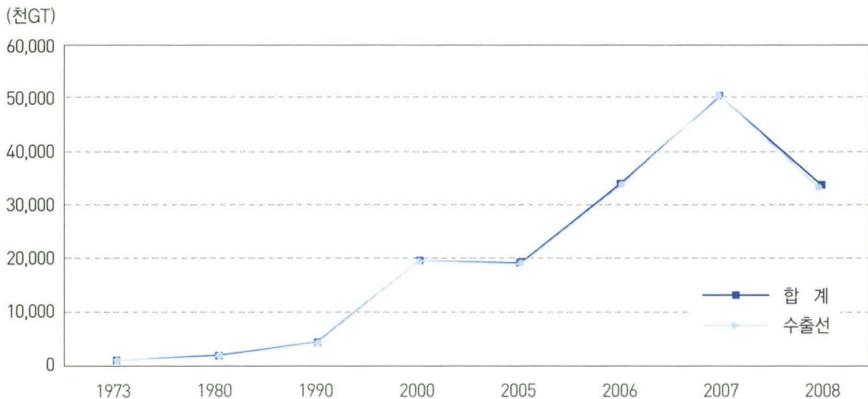
구분	1973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합계	대수(척)	59	104	76	313	349	498	707	467
	천GT	982	1,690	4,383	19,380	19,279	33,656	49,990	33,775
	천CGT	0	0	0	10,402	11,965	19,585	23,644	14,022
국내선	대수(척)	38	37	15	2	0	0	3	14
	천GT	296	259	64	17	0	0	23	613
	천CGT	0	0	0	23	0	0	26	281
수출선	대수(척)	21	67	61	311	349	498	704	453
	천GT	686	1,432	4,319	19,363	19,279	33,656	49,968	33,162
	천CGT	0	0	0	10,378	11,965	19,585	23,617	13,741

자료 : 한국조선협회 「조선통계」

[그림 7-4] 내수 및 수출선 수주 비중



[그림 7-5] 선박수주 및 수출선 추이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8장

## 건설 및 주택

- 8-1 건설업 개황
- 8-2 건축허가면적
- 8-3 주택건설 및 투자
- 8-4 주택유형별 주택 수
- 8-5 해외건설 수주
- 8-6 미분양 주택 현황
- 8-7 도로 연장
- 8-8 상수도 보급
- 8-9 하수도 보급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건설업 지속 성장, 2007년 기성액 181조원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아 1998년과 1999년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건설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기성액은 1999년 97조 6,867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81조 6,670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업의 총부가가치도 1999년 41조 6,978억 원에서 2007년 68조 19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업 부문의 성장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도 1999년 4만 7,428개에서 2007년 6만1,366개로 증가하였다. 건설업 종사자수도 1999년 132만 명에서 2007년 173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림 8-1]

## 주상복합, 공장,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기성액 증가

건설업 기성액이 200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그 증가율은 전년 대비 0.8%로 미미했다. 그래도 그 이후 건설업 기성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3년에는 전년 대비 1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2004년 8.2%, 2005년 2.3%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가 2006년 6.0%로 다시 증가율이 높아졌고, 2007년에는 12.7% 성장하였다.

기성액이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인 것은 주로 비주거용 건물 공사 물량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장과 주상복합건물 건축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주거용 건물 공사도 매년 기성액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는데, 특히 6층 이상 15층 이하 고층 및 16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건축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토목공사 중 기타 토목시설과 산업설비 중 기타 플랜트 공사가 기성액에 영향을 미친다.

## 총부가가치 종사자 20~199명, 1천명 이상 기업에서 많이 창출

건설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종사자 1천명 이상 대기업과 200~999명의 대기업들보다는 오히려 20~199명인 중소 규모 기업들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다. 이들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20~49명, 50~99명 및 100~199명으로 세분해 보면 1997년과

1) 2006년 기준부터 난방 시공업체가 건설업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006년 이후 시계열과 그 이전 시계열 사이에 단절 발생

1998년에는 100~199명 규모 기업들이 7조원대의 부가가치를, 그 이후에는 7조원 미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1999년과 2000년에는 50~99명 규모의 기업들이 6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들 3개 그룹 중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 2003년 이후부터는 20~49명 규모 소기업들이 12조원대의 부가가치로 다른 두 그룹보다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종사자 1천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최고 9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데 비해 20~49명 규모 소기업들이 12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종사자 규모별로 볼 때 가장 큰 총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같은 기간 종사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이 20~49명 규모의 소기업에 비해 총부가가치를 적게 창출한 것은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기업체수가 1997년에 비해 2005년까지 계속 감소함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와 20~49명 규모의 소규모 기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종사자 수의 증가에 기인한다. <표 8-1>

### 건설업체 중 80% 이상 전문직별공사업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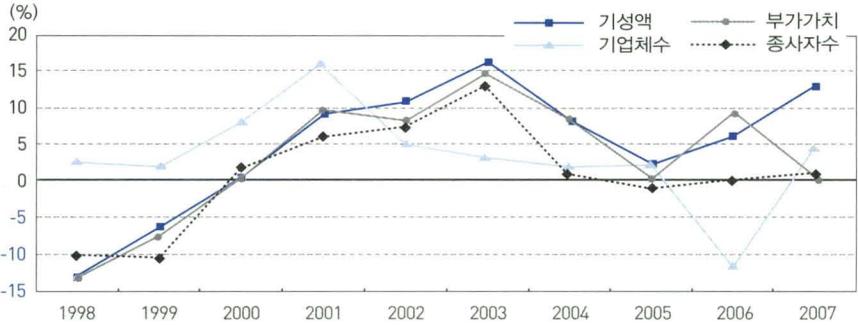
외환위기의 와중에서도 건설업 분야의 기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들 기업체들이 종사하는 건설업 세부 산업을 분석하면 2007년 기준 전문직별공사업 관련 기업체들이 5만290개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20% 이하가 종합건설업 관련 기업체다. 전문직별공사업 중에서도 건물축조관련공사업(1만3,101개), 건물설비설치공사업(7,909개), 전기공사업(9,761개) 및 건축사무리공사업(9,048개)의 구성비가 전체 건설업에 대해 각각 10~20%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 속하는 기업체들의 종사자 규모별 및 자본금 규모별로 기업체 수가 많이 분포한 층은 종사자 규모별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49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체이며, 자본금 규모별로는 1억 이상 10억원 미만의 기업체들이다. <표 8-2>

### 건설업 종사자의 60% 이상 전문직별공사업 종사

기업체 수 기준으로는 80%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전문직별공사업에 115만 1,155명이 종사하고 있어 그 구성비가 60% 이상에 이른다. 2007년 기준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반조성공사업과 통신공사업을 제외한 건설업 세부 산업들 가운데 건물축조관련공사업이 15% 이상의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어 가장 종사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이다. 이밖에 건설관련 세부 산업에 각각 10% 내외의 종사자들이 분포되어 있다. <표 8-2>

[그림 8-1] 연도별 건설업 추이(전년대비 증감률)



<표 8-1> 연도별 종사자별 총부가가치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51,967	45,181	41,698	41,915	45,951	49,683	57,040	61,700	61,740	67,684	68,020
1~19	4,975	4,301	5,683	5,626	7,244	7,868	8,370	9,118	8,907	10,158	10,492
20~49	6,533	5,668	5,984	6,309	8,367	10,006	12,049	12,279	11,374	11,941	12,488
50~99	6,855	6,138	6,230	6,580	8,311	9,684	11,534	10,503	9,568	8,461	9,147
100~199	7,746	7,277	5,484	5,779	6,422	6,215	8,576	8,447	7,657	6,363	6,855
200~299	4,467	4,476	2,597	2,646	2,675	3,067	3,770	3,410	3,575	3,550	3,577
300~ 499	5,354	4,232	2,831	3,226	2,830	2,977	3,628	4,271	4,173	3,961	4,216
500~ 999	6,437	3,335	3,591	2,934	3,033	2,970	4,180	4,374	5,173	5,890	5,053
1,000인 이상	9,598	9,755	9,297	8,814	7,070	6,895	4,934	9,298	11,312	17,359	16,192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표 8-2> 건설업 세분류별 기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구분	기업체수			종사자수		
	1999년	2003년	2007년	1999년	2003년	2007년
건설업	47,428	64,044	61,366	1,320,495	1,719,074	1,727,536
종합건설업	4,448	11,162	11,076	501,364	588,767	576,381
토목건설업	2,423	4,688	4,779	250,254	177,039	162,230
지반조성공사업	223	304	398	14,394	9,286	10,930
토목시설물공사업	2,200	4,384	4,381	235,860	167,753	151,300
건물건설업	2,025	6,474	6,297	251,110	411,728	414,151
주거용건물건설업	370	1,063	759	124,823	154,731	162,613
비주거용건물건설업	1,655	5,411	5,538	126,287	256,997	251,538
전문직별공사업	42,980	52,882	50,290	819,131	1,130,307	1,151,155
토목 및 건물공사업	11,241	16,714	19,457	342,877	485,333	477,457
토목시설물전문공사업	3,087	4,766	6,356	119,850	177,533	167,147
건축축조관련공사업	8,154	11,948	13,101	223,027	307,800	310,310
건물설비설치공사업	17,399	17,106	7,909	151,962	174,176	165,370
전기 및 통신공사업	9,627	12,012	13,876	186,576	254,707	265,204
전기공사업	6,919	8,621	9,761	132,270	189,422	191,284
통신공사업	2,708	3,391	4,115	54,306	65,285	73,920
건축마무리공사업	4,713	7,050	9,048	137,716	216,091	243,124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 건축허가면적 중 주거용 비중 40% 이상

건축허가면적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어 1979년 2,750만5천㎡이었던 건축허가면적은 2008년 1억2,065만8천㎡로 4.4배 증가하였다. 건축허가면적은 계속 증가해 1990년 1억㎡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5,096만4천㎡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후 건축허가면적은 주택 수요의 증가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3년 1억4,210만8천㎡를 거쳐 2007년에는 1억5,095만7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택건축이 축소됨에 따라 2008년에는 1억 2,065만 8천㎡로 전년 대비 20.1% 감소하였다.

건축허가면적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문은 주거용이며 상업용, 문교사회기타, 공업용의 순서다. 전체 건축허가면적 변동은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변동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주거용의 비중이 2000년까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상업용과 문교사회기타 부문 허가면적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2001년 이후에도 주거용의 비중이 여전히 40% 이상이기 때문이다.

1979년 443만㎡이던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2002년 4,986만2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1979년의 7.5배 수준인 3,326만5천㎡로 집계됐는데 주거용 건축허가면적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대에서 움직였다.

문교사회기타 부문도 1979년 346만9천㎡에서 2008년 3,042만7천㎡로 8.8배 증가하였다.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던 문교사회기타 부문은 2004년부터 허가면적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5.2%를 차지했다.

공업용의 건축허가면적은 1979년 487만㎡에서 2008년 1,850만4천㎡로 단지 3.8배 증가하였고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대로 가장 낮다. [그림 8-2]

## 주거용 가운데 역시 아파트가 으뜸

주거용 부문을 주택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아파트의 건축허가면적이 주거용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60~70% 정도,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적으로 30% 이상이다. 1985년 1,085만4천㎡이었던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은 1993년 5,103만7천㎡까지 증가한 후 감소와 재증가를 통해 2007년에는 5,223만㎡로 사상 최대 수준의 건축허가면적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2,396만㎡로 감소하였다.

단독주택<sup>2)</sup>은 주거용 부문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 내외다. 1985년 589만6천㎡이었던 단독주택 건축허가면적은 1990년까지 증가하여 1990년 1,694만9천㎡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인 이후 1998년까지 감소했다. 주차장과 일조권 확보가 강화되면서 2001년과 2002년에 건축요건 강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가면적이 각각 1,251만6천㎡와 1,312만2천㎡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 건축요건 강화의 여파로 허가면적이 감소하여 2005년에는 530만6천㎡에 머물렀다. 2006년부터 다시 허가면적이 증가하여 2007년에 1,012만1천㎡, 2008년 1,015만㎡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립주택은 건축허가면적이 1985년 323만6천㎡로 주거용 부문에 대한 비중이 15.7%였는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60만4천㎡로 81.3% 감소하여 주거용 부문에 대한 비중이 1.6%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은 1985년만 해도 허가면적이 61만9천㎡에 불과했으나 1986년부터 연립주택 수요를 대체하면서 허가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과 2002년 허가면적은 각각 1,244만1천㎡와 1,494만9천㎡로 늘었는데 이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미리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2003년부터 건축요건이 강화되면서 허가면적이 감소했으며 2006년 허가면적은 100만7천㎡ 수준이었다. [그림 8-3]

## 경기도의 건축허가면적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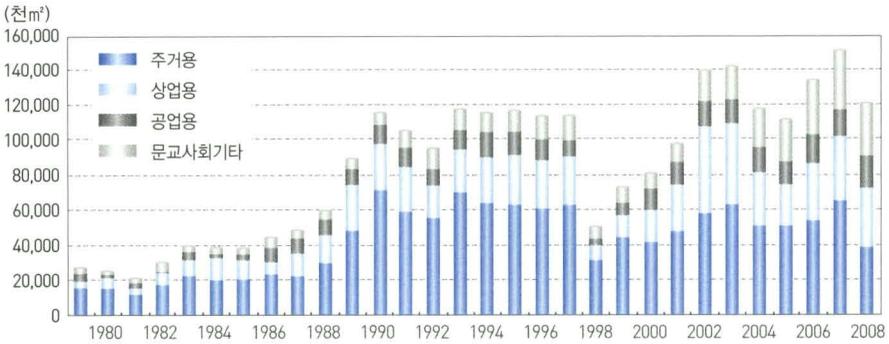
16개 시도별 건축허가면적별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고 제주도가 가장 낮다. 1989년까지는 서울시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경기도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최고다. 특히 1999년에는 경기도의 비중이 41.1%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29.8%로 서울(12.9%)의 2.3배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평균 8~9%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5% 이상의 비중이다. 그 밖의 시도들은 허가면적 비중이 5% 이하인데, 부산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증가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로 1979년 10.5%에서 2008년 3.1%로 낮아졌다. <표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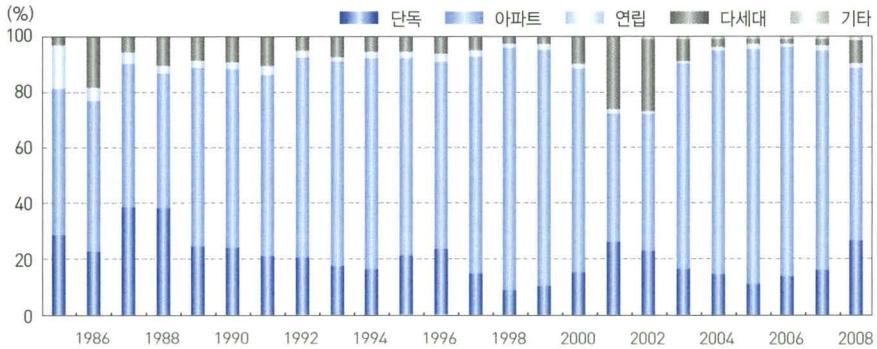
---

2)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됨

[그림 8-2] 연도별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그림 8-3] 연도별 주택유형별 건축허가면적 구성비



<표 8-3> 연도별 시도별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89	88,615	18,513	6,850	4,296	5,624	2,786	3,024	-	-
1999	72,531	7,608	2,719	2,262	2,215	1,736	1,343	1,570	-
2008	120,658	15,592	3,746	3,314	5,917	2,313	5,158	3,378	-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15,583	3,244	3,447	2,654	3,414	3,503	5,563	8,720	1,194
1999	29,797	2,235	2,318	3,556	2,740	3,052	3,943	4,296	1,142
2008	35,988	4,163	5,199	8,533	4,298	4,117	7,396	9,992	1,554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허가면적」

### 1988년 이후 매년 주택 30만호 이상 건설

1970년에는 주택을 11만5천호를 건설했는데, 소득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른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주택건설은 매년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77년부터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20만호를 넘어섰다. 1978년에는 일시적으로 30만호를 건설 하였으나 세계적인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아 경기가 침체하면서 1981년 15만호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1986년에는 28만8천호를 지었다.

1980년대 말 주택부족, 3저 현상에 따른 경기 호조 및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어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폭등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을 200만호 공급하기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41만2천호, 199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5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완료되면서 주택 건설은 60만호 내외에서 이뤄지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30만6천호로 급감하였다. 일시적인 주택공급 부족, 외환위기 극복, 이자율 하락 등에 힘입어 주택 수요가 살아나면서 2002년 66만7천호까지 주택건설 실적이 증가했는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바람에 2005년에 다시 46만4천호로 감소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의 사전 공급으로 2007년 일시적으로 55만6천호까지 주택건설이 다시 늘었지만, 미분양주택 증가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2008년 주택건설 실적은 37만1천호에 그쳤다.[그림 8-4]

### 1988년 이후 공공 부문 비중 30% 내외

주택건설 실적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0.4%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택공사, 지자체, 주택기금 사용 업체 등을 통해 주택건설을 늘림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중은 1979년 47.0%로 높아졌다. 1981년 52%, 1985년 58.1%를 거쳐 1987년 68.4%까지 공공 부문의 비중이 커진 경우도 있지만 이는 민간 부문 주택건설 실적이 상대적으로 급락함에 따른 것이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공공 부문의 주택건설은 20만호 안팎으로 이뤄졌고,

1998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는 15만호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공공 부분의 비중은 계속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 GDP 대비 주택건설 투자 비중<sup>3)</sup>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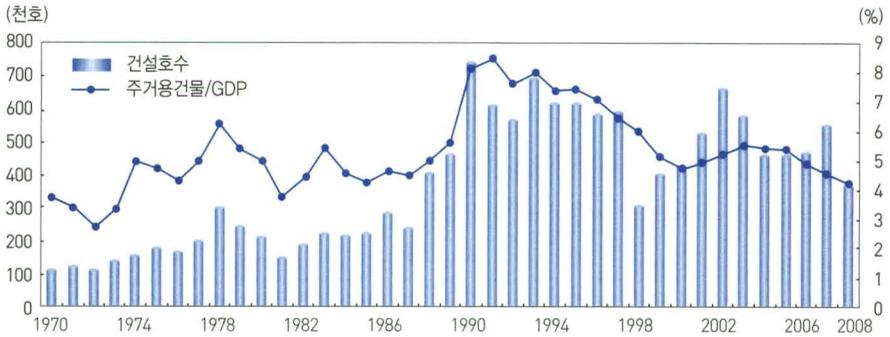
주택건설은 총고정자본 형성의 증가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다. 1970~2008년 사이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1991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여 1991년 8.5%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해 2008년에는 4.1%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장기 추세 속에는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소순환이 포함되어 있다. 1970~1991년의 장기 상승 추세 기간에도 1970~1974년, 1975~1978년, 1979~1983년 및 1984~1991년의 4차례에 걸친 소순환이 있었다. GDP 대비 비중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1992~2008년에도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다소 긴 소순환을 끝내고 2004년부터 GDP 대비 주택건설 투자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그림 8-4]

이처럼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르내리는 순환을 나타내는 것은 주택건설 실적의 변동 때문이다. 그런데 매년 30만호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 1970년대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1988년 이후에는 매년 30만호 이상 주택을 건설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즉 비중이 5.0%이었던 1977년, 1980년, 1988년 및 2001년의 주택건설 실적은 각각 20만4천호, 21만2천호, 41만2천호 및 53만호였다. 이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증가해도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여러 산업이 고루 발달함에 따라 과거보다 건설 부문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합인 총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주택건설 투자 비중과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의 합인 건설투자에 대한 주택건설 투자 비중에서도 볼 수 있다. 총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주택건설 투자 비중은 1974년 29.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이후 20%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1994년 이후 20%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8년 현재 15.3%다. 건설투자에 대한 주택건설 투자 비중은 1974년 41.0%로 최고를 기록한 뒤 30%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1997년 이후 30% 이하로 낮아졌고 2008년 현재 26.1%로 나타나 주택건설 투자의 비중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4>

3) 실질금액 기준으로 계산

[그림 8-4]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및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표 8-4>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및 주거용 건물 투자의 비중

(단위 : 천호, %)

구 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비 중	주택건설실적	115	130	110	143	158	180	170	204
	국내총생산대비	3.7	3.4	2.7	3.3	4.9	4.7	4.3	5.0
	총고정자본형성대비	24.9	23.3	19.3	21.1	29.3	26.9	22.9	22.2
	건설투자대비	32.0	31.6	27.1	29.3	41.0	38.0	34.4	34.1
구 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비 중	주택건설실적	300	251	212	150	191	226	222	227
	국내총생산대비	6.3	5.3	5.0	3.9	4.5	5.3	4.5	4.3
	총고정자본형성대비	22.7	18.8	19.4	16.5	18.5	20.7	17.1	16.5
	건설투자대비	37.2	32.3	31.2	27.2	28.9	30.9	26.4	25.6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비 중	주택건설실적	288	244	412	462	750	613	575	695
	국내총생산대비	4.6	4.5	5.0	5.6	8.2	8.5	7.5	8.0
	총고정자본형성대비	17.3	16.1	17.4	18.0	23.0	22.6	21.1	22.2
	건설투자대비	28.9	27.2	29.2	30.0	36.9	36.6	34.4	34.8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비 중	주택건설실적	623	619	592	596	306	405	433	530
	국내총생산대비	7.4	7.4	7.1	6.5	6.0	5.2	4.6	5.0
	총고정자본형성대비	19.7	19.1	18.1	17.6	19.8	17.2	14.9	16.8
	건설투자대비	32.9	33.0	31.5	29.3	29.0	28.3	25.5	27.0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중	주택건설실적	667	585	464	464	470	556	371	
	국내총생산대비	5.2	5.5	5.4	5.3	4.9	4.6	4.1	
	총고정자본형성대비	17.4	18.1	18.4	18.5	17.4	16.2	15.3	
	건설투자대비	28.2	28.3	28.9	29.7	28.8	27.6	26.1	

주 : 비중은 실질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실적」, 한국은행

## 8-4 주택유형별 주택 수

### 35년 동안 주택 수 2.9배 증가

1970년 우리나라 주택 수는 436만호에 불과했는데, 35년이 지난 2005년 현재 1,249만호로 2.9배 증가하였다.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주택 수는 1975년 이후 5년마다 10% 이상 증가세가 이어졌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특히 200만호를 건립한 제1기 신도시 건설 기간인 1990~1995년 사이 주택 증가율은 28.6%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주택 증가세는 대부분 아파트 건축 증가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 5년마다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1970년대는 후반 서울 강남 개발 및 잠실과 반포 아파트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축 및 입주가 시작된 시기로 1975년 대비 1980년 아파트 수는 9만호에서 37만호로 4.2배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충청북도는 139호에서 4,682호로 33.7배, 전라북도는 218호에서 6,310호로 28.9배 증가하였다.

이 밖의 주택 가운데 1990년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세가 미미했던 단독주택 수는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다. 1980년대 초 2.2배 증가한 적도 있는 서민주택인 연립주택의 경우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이 연립주택 수요를 대체하면서 연립주택 건축이 줄어들고 노후 연립주택이 아파트로 재건축됨에 따라 2000년 81만호에서 2005년 52만호로 36% 감소하였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을 대신하여 1990년대 이후 서민주택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처음 통계가 발표된 1990년에 비해 2005년 주택 수가 10.1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8-5]

### 2000년 이후 아파트가 단독주택 수 초과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 수는 1,249만 호다. 아파트가 663만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398만호, 다세대주택 116만호, 연립주택 52만호, 영업용건물 내 주택 20만호 등의 순서다.

아파트 수가 단독주택 수를 초과한 것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때다. 단독주택은 1995년 434만호에서 2000년 407만호로 감소한 데 비해 아파트는 1995년 345

만호에서 2000년 523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을 반영해 아파트 건축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성행하여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림 8-5>

###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 1,249만호의 20.9%에 해당하는 261만호가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에 17.9%, 인천에 5.5%가 위치함으로써 전국 주택의 44.3%인 554만호가 수도권 지역에 있다. 경기도내 주택 수는 2000년부터 서울 주택 수를 초과했다. 이는 서울시내 택지 부족으로 용인 등 경기도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역의 구성비를 보면 경상도 지역 즉 부산(7.3%), 경상남도(7.0%), 경상북도(6.5%)가 높고 제주도가 1.1%로 가장 낮다. <표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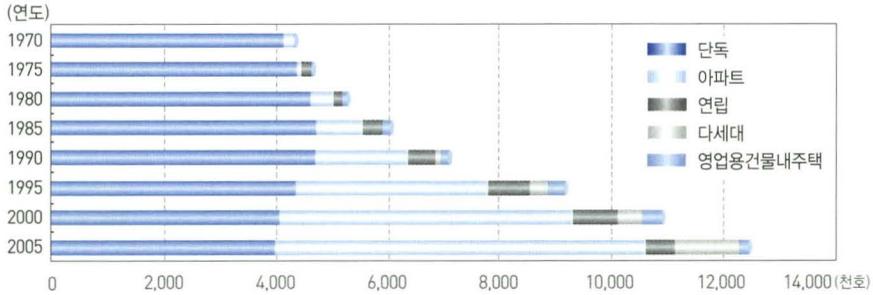
### 특별시 광역시는 아파트, 도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아

특별·광역시 7개 지역은 2005년 현재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다. 9개 도 지역 중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도 지역은 아직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많다.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이 지역 주택의 71.2%가 아파트다.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 60% 이상이다. 이들 3지역에서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다세대주택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며, 부산은 아직도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에서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이 지역 주택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도 지역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이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주택 구성비가 비슷하다. <표 8-6>

[그림 8-5] 연도별 주택 유형별 주택수



[표 8-5] 연도별 시도별 주택 수

(단위 : 호)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5	9,204,929	1,688,111	659,924	425,930	508,799	244,060	270,487	-	
2000	10,959,342	1,916,537	805,212	530,789	614,081	324,337	320,723	229,358	
2005	12,494,827	2,242,149	913,487	590,734	687,552	366,315	363,630	262,561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5	1,542,098	368,730	339,194	452,751	473,435	571,019	688,325	861,789	110,277
2000	2,045,173	419,294	395,945	536,825	536,492	607,018	774,628	780,603	122,327
2005	2,609,620	445,848	424,063	583,548	553,457	617,686	815,173	875,815	143,18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8-6] 2005년 시도별 주택 유형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독주택	31.9	19.8	27.4	29.1	15.5	25.1	23.5	24.2	
아파트	53.0	54.3	57.0	60.4	55.4	71.2	64.4	64.2	
연립주택	4.2	6.2	4.2	1.2	2.9	1.4	3.9	2.9	
다세대주택	9.3	18.4	9.6	7.3	25.1	0.9	6.9	6.5	
영업용건물내주택	1.6	1.3	1.8	1.9	1.1	1.4	1.3	2.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독주택	18.8	48.1	45.2	53.1	49.6	63.3	53.3	44.3	53.6
아파트	62.9	44.3	47.9	38.6	45.8	32.1	38.1	48.5	24.3
연립주택	5.5	4.4	3.7	3.7	2.4	2.0	3.2	2.8	7.3
다세대주택	11.7	0.8	1.4	2.9	0.6	0.8	3.1	2.5	11.9
영업용건물내주택	1.1	2.4	1.8	1.7	1.6	1.9	2.3	1.9	2.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42년 동안 해외건설 수주액 4,330배 증가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가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1966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1,100만3천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42년이 지난 2008년 476억4천만 달러로 약 4,330배 증가하였다.

1966년 9건에 불과했던 수주 건수도 2008년 642건으로 약 71.3배 증가하였다. 1966년 122만2천 달러였던 건당 수주액도 2008년에는 60.7배 증가한 7,420만5천 달러였다.

## 해외건설 수주액 변동 원인은 오일머니

1966년 1,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주액은 1973년 삼환기업이 중동지역에선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1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 뒤 매년 수주액이 계속 늘어나 1981년에는 136억8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처럼 해외건설 수주액이 증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엄청난 규모의 오일머니를 획득한 중동 국가들이 대거 도로와 항만 건설공사를 추진하였다. 둘째, 작업 환경이 열악한 사막지역에서 선진국보다 낮은 인건비에도 야간작업을 강행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열정이 중동국가에게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1973년 단 한 건이었던 중동지역 수주가 1981년 234건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주베일 산업항 건설공사처럼 한국 건설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해 건당 수주 규모도 많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중동국가의 건설공사가 줄어들어 따라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계속 감소해 1988년 16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첫 번째 해외건설 수주 사이클이 마무리되었다.

## 세 차례 해외건설 수주 사이클, 2004년부터 3차 순환 진행 중

제2차 해외건설 수주 사이클은 1989년부터 해외건설 수주액이 증가하면서 시작돼 1997년 최고의 해외건설 수주액을 기록한 다음 2003년까지 다시 하락한 기간이다. 1989년 24억 달러였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신흥 아시

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건설 붐이 일어나 이들 지역에서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1997년 수주액이 140억3천만 달러로 1966년 첫 해외건설 수주 이래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국가에 외환위기가 닥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건설 수주액은 1998년 40억6천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1999년과 2002년 수주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3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감소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36억7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제3차 해외건설 수주 사이클은 2004년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2003년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오일머니가 많아지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났다. 여기에 2007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75억 달러였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6년 164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과거 최고치인 1997년 실적을 초과하였다. 이어 2007년에 397억9천만 달러, 2008년에는 476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그림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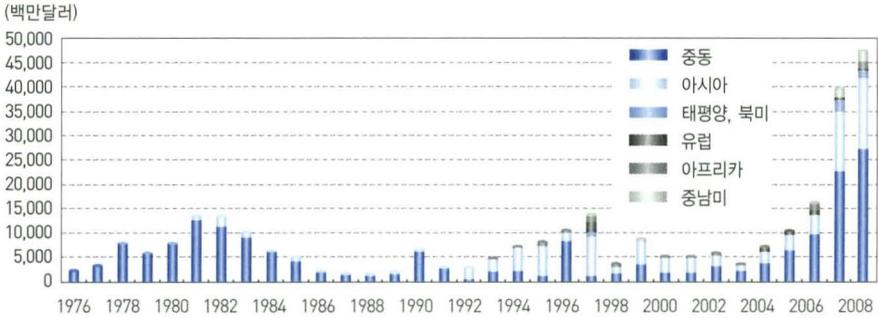
## 1998년부터 산업설비 공사 수주 급증

우리나라는 과거 단순 도급형인 토목 및 건축공사 중심으로 수주 계약을 해왔는데 1998년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설비 공사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설비 공사 수주액은 2006년 109억2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7년에 252억7천만 달러, 2008년에는 267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산업설비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산업설비 공사 수주 증가 또한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가 급증하자 정유공장, 담수발전 시설과 같은 플랜트 설비 공사를 늘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의 중심이었던 토목 및 건축공사는 2000년대 초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개도국들에게 밀려 수주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내외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과 교량, 터널, 항만 등 수주 규모가 큰 대형 공사에서 개도국들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 고난이도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면서 2004년부터 다시 수주액이 증가했다. 그 결과 토목과 건축부분 공사의 2008년도 수주액이 각각 93억6천만 달러와 91억9천만 달러로 과거 최고 수주액인 1990년(54억3천만 달러)과 1981년(88억7천만 달러)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표 8-7>

[그림 8-6] 연도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액



[표 8-7]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단위 : 백만달러)

연도	합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1966	11	10	1	0	0	0	0
1971	56	24	29	1	0	0	1
1976	2,502	1,102	949	421	12	0	17
1981	13,681	3,347	8,866	1,138	30	153	147
1986	2,239	870	1,125	208	17	2	17
1988	1,602	697	613	174	100	0	18
1989	2,412	1,001	497	608	219	67	19
1990	6,770	5,425	420	908	0	0	17
1991	3,038	1,639	354	929	81	9	26
1996	10,779	1,990	4,288	4,285	130	49	37
1997	14,032	2,613	6,124	4,957	231	98	8
1998	4,055	535	1,382	1,954	60	86	39
2000	5,433	2,768	732	1,703	212	8	10
2001	4,355	867	721	2,662	58	45	2
2002	6,126	539	605	4,826	128	8	20
2003	3,668	402	532	2,491	192	8	43
2004	7,498	806	874	5,182	545	3	89
2005	10,859	836	1,226	8,263	374	13	147
2006	16,468	1,532	3,433	10,920	474	3	106
2007	39,788	5,232	8,177	25,268	690	41	381
2008	47,640	9,364	9,192	26,764	1,336	19	965

자료 : 해외건설협회, www.icak.or.kr

## 2008년 미분양주택 사상 최대 기록

부동산 경기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미분양 주택 수는 2008년 말 현재 16만5,599호로 과거 최고 수치였던 1995년 말 기준 15만 2,313호의 미분양 기록을 경신하였다. 1990년대 1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여 1993년 말 7만7,488호에서 1995년 15만2,313호로 두 배 증가하였다가 1996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미분양 주택 수도 감소하기 시작해 1997년 말 8만8,867호로 줄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미분양주택은 다시 10만2,701호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1999년부터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2002년 말에는 미분양 주택이 2만4,923호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활황을 맞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2003년과 2004년 다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2005년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해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 공급, 지방에 주택 과잉공급 및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은 2006년과 2007년 계속 증가하였다.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경기 속 수요가 감소하면서 2008년 말 미분양 주택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림 8-7]

## 경기도와 대구시에 미분양주택 많아

2008년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만2,795호(전체 미분양 주택의 14%)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시에 2만1,379호(13%)가 있다. 제주도가 269호로 가장 적다. 이 밖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시, 광주시, 강원도의 미분양 주택도 1만호 이상 된다.

2008년 말 현재 전년 대비 미분양 주택의 증가 정도는 서울시가 2007년 말 454호에서 2008년 말 2,486호로 5.5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인천(527호→1,647호), 제주(121호→269호), 대전(1,881→3,802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8>

### 전용면적 85㎡ 초과 평형 미분양 증가

전용면적 85㎡ 초과 평형이 미분양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0.9%에서 계속 상승해 2008년 53.4%로 높아졌다. 주택 수로는 8만8,381호에 이른다. 이로써 2007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전용면적대가 60~85㎡에서 2008년 말 85㎡ 초과로 바뀌었다. 이는 최근 대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난 반면 수요는 불경기의 여파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 64.7%까지 상승하였던 전용면적 60~85㎡대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까지 매해 가장 크긴 했어도 절대 수치가 계속 낮아져 2007년 47.7%를 거쳐 2008년 말에는 42.2%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용면적 85㎡ 초과 평형(53.4%)보다 비중이 낮아졌다. 전용면적 60㎡ 이하 미분양 주택은 2002년 27.3%까지 상승했는데, 다른 평형대의 미분양 주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08년 말 현재 4.4%를 기록했다. [그림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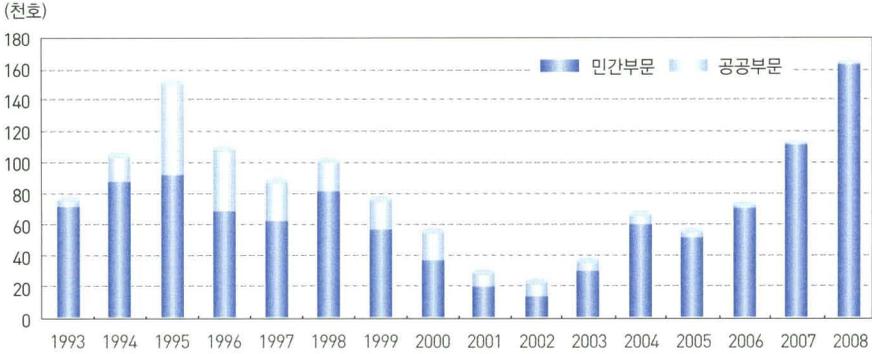
### 준공된 주택의 미분양 증가

주택시장이 불황에 빠지면 주택 수요 감소로 준공된 주택의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미분양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선 1995년과 1998년에 준공된 미분양 주택은 전년 대비 각각 6.9배와 1.4배씩 증가하였다. 미분양 주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08년에도 1.6배 증가하여 4만4,869호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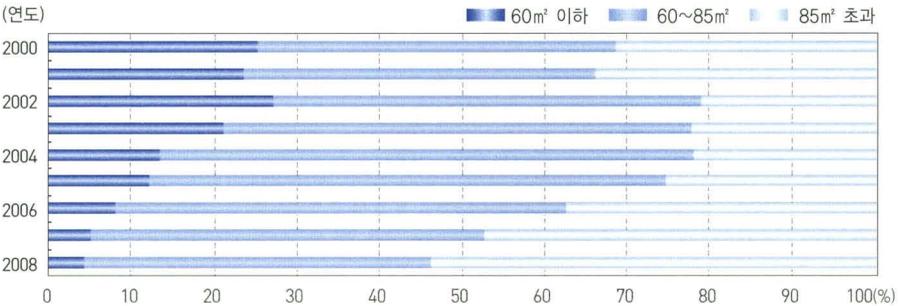
### 공공 부문 미분양은 감소

1995년 공공 부문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63호까지 증가하여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기록한 뒤 2000년과 2004년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06년부터 미분양 주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공공 부문의 미분양 주택 수는 계속 감소했다. 2008년 말 현재 1,270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0.8%에 해당한다.

[그림 8-7] 연도별 미분양 주택 수



[그림 8-8] 연도별 규모별 미분양주택 구성비



<표 8-8> 시도별 미분양 주택 수

(단위 : 호)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7	112,254	454	11,502	12,199	527	7,940	1,881	7,672	
2008	165,599	2,486	13,997	21,379	1,647	12,384	3,802	9,569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13,643	7,114	4,374	12,770	4,082	4,456	8,662	14,857	121
2008	22,795	10,581	6,412	15,918	4,617	6,530	16,106	17,107	269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미분양 현황」

## 40년 동안 도로연장 3배 증가

도로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전국의 도로연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10만km를 넘었고 2008년 말 현재 10만4천km로 고속도로가 처음 건설된 1968년(3만5천km)의 3배 규모다. 도로 종류별로 보면 고속국도 3,447km, 일반국도 1만3,905km, 특별·광역시도 1만8,517km, 지방도 1만8,193km 및 시·군도 5만 175km다. 1968년 대비 40년 동안 고속국도는 39.7배, 일반국도 1.7배, 특별·광역시도 11.2배, 지방도 1.7배, 시·군도 3.5배 증가했다. 고속국도의 도로연장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증가세가 가장 저조했다.

그 결과 1968년 23.1%를 차지했던 일반국도는 2008년 13.3%로 비중이 낮아졌고, 같은 기간 지방도 또한 30.4%에서 17.5%로 비중이 떨어졌다. 이와는 달리 같은 기간 고속국도는 0.2%에서 3.3%로, 특별·광역시도는 4.7%에서 17.8%로 비중이 높아졌다. 1984년까지 계속 비중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진 시·군도는 41.5%에서 48.1%로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도로 종류별 비중은 2008년 말 현재 시·군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고속국도의 비중이 가장 낮다. <표 8-9>

## 40년 동안 도로 포장률 12배 증가

1968년 6.5%에 불과했던 도로 포장률은 2008년 말 현재 78.5%로 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로 고속국도 100%, 일반국도와 특별·광역시도는 각각 97.4%와 99.0%의 높은 포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지방도와 시군도의 도로 포장률은 각각 81.1%와 63.0%로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다. <표 8-9>

## 도로포장률 특별·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높아

2008년 말 현재 도로 포장률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서울이 100%로 가장 높고, 6개 광역시의 도로 포장률도 90% 이상이다. 이들 6개 광역시 중 대전시의 도로

4) 도로연장이란 전국의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함

포장률이 99.7%로 가장 높고, 인천시가 90.9%로 가장 낮는데 이는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률이 각각 49.0%와 62.9%로 낮기 때문이다. 9개 도 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도간 차이가 광역시간 차이보다 크다. 포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와 제주도로 포장률이 84.0% 정도이고,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는 각각 67.1%와 69.9%로 포장률이 낮다. 그 밖의 지역의 포장률은 70%대이다. [그림 8-9]

### 도로 보급률 OECD 국가 중 28위

2008년 말 현재 한국의 도로 보급률(국토계수당 도로밀도<sup>5)</sup>)는 1.50으로 OECD 회원국 30개 중 28위로 멕시코(0.78)와 독일(1.35)만이 한국보다 도로 보급률이 낮다. 가장 도로 보급률이 높은 국가는 벨기에로 8.51이며, 4위인 일본은 5.44, 15위인 미국은 3.79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67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도로를 건설해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도로 건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10>

### 도로 보급률 서울시와 제주도가 높아

16개 시도 중 도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8년 말 현재 서울시(3.3)와 제주도(3.2)다. 도로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1.2)이고 그밖에 도로 보급률이 1.0대로 낮은 지역은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 및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로 보급률은 2.0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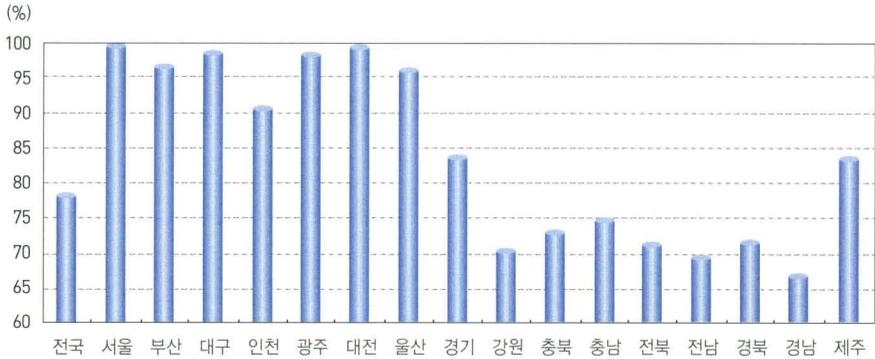
경기도의 경우 도로연장이 1만3,086km로 16개 시·도 중 가장 길지만 도로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은 경기도의 국토면적이 넓어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포장도로의 차로는 주로 2차로 이하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포장도로의 73.8%가 2차로 이하의 도로로 건설되어 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2차로 이하가 주로 차로이다. 그러나 고속국도만 4차로의 비중이 70.8%, 6차로 및 8차로의 비중이 각각 13.0%와 11.7%로 2차로 비중이 낮다.

5) 도로보급률은 도로연장(km) / √(국토면적×인구수) 로 산출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로 계산

[그림 8-9] 시·도별 도로 포장률(2008년 말)



〈표 8-9〉 연도별 도로 포장률 및 도로 유형별 도로연장

(단위 : %, km)

연도	도로 포장률	도로유형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1968	6.5	35,025	87	8,093	1,653	10,657	14,535
1973	17.9	43,581	1,013	8,288	6,537	10,878	16,865
1978	29.5	45,955	1,225	8,232	7,657	10,819	18,022
1983	39.0	54,600	1,245	12,229	9,592	10,041	21,492
1988	61.4	55,778	1,550	12,255	11,180	10,577	20,216
1993	84.7	61,296	1,602	12,057	13,336	10,656	23,644
1998	74.5	86,990	1,996	12,447	17,670	17,155	37,721
2003	76.7	97,253	2,778	14,235	17,130	17,485	45,625
2006	77.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9
2007	78.3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6
2008	78.5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5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사」

〈표 8-10〉 OECD 주요국가의 도로 보급률

평균	한국('08)	벨기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멕시코
3.67	1.5	8.51	5.44	3.79	3.27	5.15	2.02	1.35	0.78

자료 : 국토해양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 구한말에 시작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은 구한말에 시작돼 1910년께 서울, 인천, 부산, 목포, 평양 5개 도시에서 약 30만 명이 수도물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상수도보급률 통계는 1948년 18%로 시작된다. 한국전쟁 동안 북한 주민의 월남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58년 상수도 보급률은 15%까지 하락하였으나 경제개발과 함께 상수도의 보급 증가로 1976년 50%를 넘어섰다.

그 뒤 1983년 61%, 1987년 70%, 1991년 80.1%, 2004년 90.1%로 높아진 데 이어 2007년 92.1%를 기록했다. 2007년 현재 상수도를 공급받는 인구는 4,606만 명이며, 나머지 인구의 7.9%에 해당하는 397만 명은 마을상수도(3.1%), 소규모 급수시설(1.2%), 전용 상수도(0.5%) 및 우물(3.1%)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8-10]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10년 동안 2.2배 증가

16개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2007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는 100%, 6개 광역시와 경기도가 90%대이고,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도 지역은 80%대다. 충청남도가 67.4%로 보급률이 가장 낮으며, 전라남도 또한 69.9%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 규모별 상수도보급률은 2007년 현재 특별·광역시 99.1%, 시 지역 97.6%, 읍 지역 86.2%, 면 지역 45.2%다. 1997년 상수도 보급률은 특별·광역시 97.6%, 시 지역 92.6%, 읍 지역 71.2%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이들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면 지역은 1997년 20.8%에서 2007년 45.2%로 2.2배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가 면 지역 상수도 보급에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에 더욱 힘써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8-11>, <표 8-12>

## 유수율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 1년간 생산, 공급한 총 급수량<sup>6)</sup>은 57억4천7백만 $m^3$ 로 이중 누수량 7억3천4백만 $m^3$ 를 제외한 실제 유효수량은 50억1천1백만 $m^3$ 이다. 유효수량 중 수도요금 받을 수 있는 유수수량은 46억5천9백만 $m^3$ 로 유수율은 81.1%이다.

그러나 1991년에는 총 급수량이 48억9천7백만 $m^3$ 이며 유수수량은 31억9천9백만 $m^3$ 로 유수율은 65.3%에 불과했는데, 총 급수량의 증가에 비해 유수수량의 증가가 더 높아 유수율은 1994년 70.2%, 2001년 75.4%, 2006년 80.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통해 1996년 19.6%였던 누수율이 2000년 14.8%, 2007년 12.8%로 줄어들고 유효무수수량의 비율도 1997년 9.6%에서 2003년 7.9%, 2007년 6.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 하루 1인당 급수량 감소 추세

1948년 66 $l$ 에 불과했던 하루 1인당 급수량은 1961년 102 $l$ , 1975년 216 $l$ , 1987년 311 $l$ , 1997년 409 $l$ 로 계속 증가하다 1998년 395 $l$ 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하루 1인당 급수량은 340 $l$ 다.<sup>7)</sup> 이처럼 하루 1인당 급수량이 감소한 것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통한 누수량 감소, 절수기 설치 및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요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16개 시도별 하루 1인당 급수량을 보면 2007년 현재 전국 평균 340 $l$ 보다 적게 급수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도 및 제주도다. 이 밖의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양이 급수되고 있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특별·광역시는 322 $l$ , 시 지역은 406 $l$ , 읍면 지역은 212 $l$ 로 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상수도가 급수되는 반면 읍면 지역에는 아직도 급수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8-11>

##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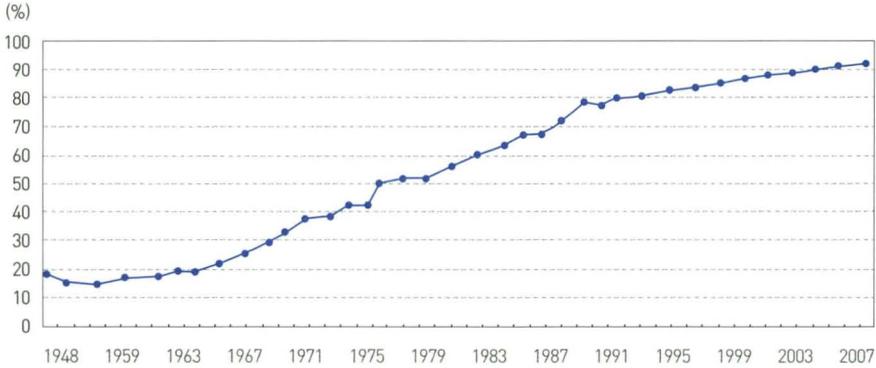
하루 1인당 급수량을 사용 용도별로 보면 2007년 현재 가정용이 177 $l$ 로 급수량 340 $l$ 의 52%를 차지한다. 유효무수수량<sup>8)</sup>이나 누수량이 65 $l$ 로 19%를 차지하며, 영업용으로 52 $l$ (15%), 업무용으로 34 $l$ (10%)가 각각 사용된다. 이밖에 공업용으로 5 $l$ , 기타 용도로 1 $l$ 가 쓰인다.

6) 총급수량=유효수량(=유수수량+유효무수량)+무효수량(=누수량+조정감액수량)

7) 2006년부터 급수량에 전용공업용수에 대한 급수량은 제외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시계열 단절 발생

8) 유효무수수량이란 사용상 유효하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을 의미

[그림 8-10]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표 8-11〉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및 1인 1일당 급수량(2007년)

(단위 : %, ℓ)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보급률	92.1	100.0	99.6	99.7	97.6	97.9	99.2	93.5	
1인 1일당 급수량	340	315	300	324	371	323	341	32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급률	93.4	84.6	82.7	67.4	85.4	69.9	80.7	84.9	100.0
1인 1일당 급수량	324	444	367	371	398	353	434	358	338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표 8-12〉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률 및 1인 1일당 급수량

(단위 : %, ℓ)

연도	상수도 보급률					1인 1일당 급수량				
	전국	특·광역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전국	특·광역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1997	84.5	97.6	92.6	71.2	20.8	409	443	380	316	294
2007	92.1	99.1	97.6	86.2	45.2	340	322	406	212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 하수도 보급률 16년 동안 2.4배 증가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하수가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와 총인구의 비율로 계산되는 하수도 보급률이 1991년에는 35.7%에 불과하였다. 그 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집중적인 투자로 1998년 65.9%를 기록한 데 이어 하수도 보급률은 매년 3%포인트 이상씩 높아지면서 2004년에는 81.4%로 80%를 넘어섰다. 2005년 이후 하수도 보급률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2007년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87.1%로 우리나라 인구 4,357만 명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림 8-11]

## 하수처리시설용량 16년 동안 4.6배 증가

하수도 보급률의 상승은 하수처리시설 증가와 이들 시설의 처리능력 증가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을 의미한다. 하루 500t 이상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은 1991년 22개에 불과했는데, 1998년 114개를 거쳐 2007년 현재 357개로 1991년 대비 16.2배로 증가하였다.

하루 500t 미만을 처리하는 마을하수도는 2003년 878개에서 2007년 1,905개로 2.2배 증가하였다. 하루 하수처리시설용량도 1991년에는 526만t에서 1996년 1,145만t, 2002년 2,023만t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현재 2,395만t을 처리할 수 있어 1991년 대비 4.6배 증가하였다. [그림 8-11]

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해주는 하수관거의 길이도 1991년 4만974km에서 1998년 6만2,330km, 2004년 8만2,214km를 거쳐 2007년 9만6,280km로 1991년 대비 2.3배로 증가하였다.

## 시도간 하수도 보급률 차이 10년 동안 축소

2007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보급률은 100.0%이며 6개 광역시 지역의 보급률은 90% 이상이지만, 9개 도 지역의 보급률은 최저 59.0%부터 최고 85.8%에 이르기까지 도 지역간 보급률 차이가 광역시보다 크고 보급률도 낮다. 도 지역 중에서는

충청남도의 보급률이 59.0%로 가장 낮고, 경기도가 85.8%로 가장 높다. 전라남도 와 경상북도가 60%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70%대이며 경상남 도의 보급률은 80.9%이다.

10년 전인 1997년 16개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특별시가 95.2%이고 6개 광역시중 부산과 울산은 제외한 4개 광역시의 보급률은 80%대였다. 부산의 경우 48.8%, 울산은 16.9%로 보급률이 매우 낮았다. 9개 도 지역의 보급률은 최저 3.9%에서 최고 69.9%까지로 2007년에 비해 지역간 보급률 차이가 매우 컸다. 가 장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3.9%,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69.9%였 다. 그 밖의 지역 중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10%대, 경상남도가 20.7%,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30%대, 충청북도와 제주도가 50%대의 보급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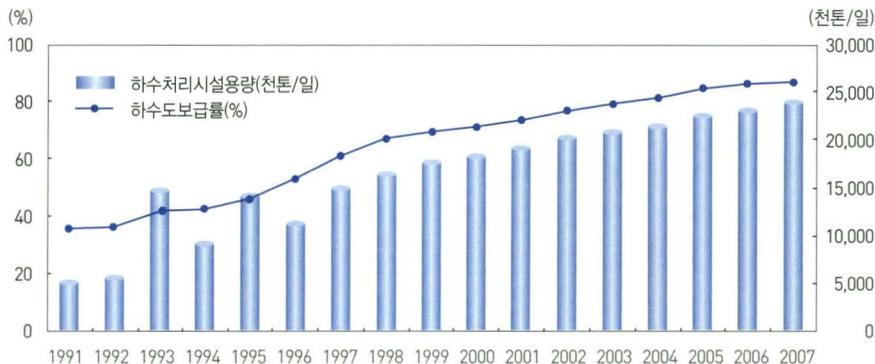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0.9%에서 87.1%로 26.2%포인트 높아졌다. 10년간 시도별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시도에서 전국 보급률 상승폭 을 초과하는 하수도 보급률 상승을 기록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1997년 16.9%에 서 2007년 92.2%로 하수도 보급률이 75.3%포인트 급상승했다. 경상남도 60.2% 포인트, 전라남도 59.4%포인트, 부산광역시 50.2%포인트, 경상북도 49.7%포인 트 등 9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 증가율을 넘어서며 하수도를 보급하였다. 그 결과 시도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도간 하수도 보급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의 낮은 보 급률 때문이다. 2007년 현재 시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1.5%인 반면 농어촌 지 역의 보급률은 45.7%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표 8-13>

### 영국, 독일보다 낮으나 일본보다 높은 하수도 보급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7년 현재 87.1%인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영국 (2002년 97.7%)이나 독일(2004년 95.5%)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일본(2006년 70.5%)이나 멕시코, 터기 등에 비해서는 높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하수도 보 급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8-14>

[그림 8-11]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및 하수처리시설용량



〈표 8-13〉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7	60.9	95.2	48.8	89.8	85.2	89.7	86.5	16.9	
2007	87.1	100.0	99.0	97.5	90.6	98.0	96.1	92.2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7	69.9	37.6	55.7	19.7	34.3	3.9	19.1	20.7	50.8
2007	85.8	75.3	76.8	59.0	74.7	63.3	68.8	80.9	79.1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표 8-14〉 OECD 주요국가의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한국 (2007)	영국 (2002)	스웨덴 (2002)	독일 (2004)	아이슬란드 (2003)	멕시코 (2005)	일본 (2006)	터키 (2004)	덴마크 (2002)
87.1	97.7	85.0	95.5	89.0	67.6	70.5	65.7	87.9

자료 : 국토해양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은 기준년도

# 9장

## 도소매 및 서비스업

- 9-1 도소매 · 음식숙박업 개황
- 9-2 대형 소매점
- 9-3 식품위생접객업소 개황
- 9-4 전자상거래
- 9-5 사이버쇼핑몰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도소매업 사업체·종사자 증가 주춤, 매출액은 증가, 사업체당 매출액 7억원 근접**

도소매업 사업체는 1971년 33만8천 개에서 1996년 98만1천 개로 증가해 25년 사이 2.9배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 종사자는 1971년 64만6천 명에서 1996년 249만8천 명으로 같은 기간 3.9배로 늘어났다. 즉 사업체 증가폭보다 종사자 증가폭이 훨씬 컸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사업체 수는 감소하여 2007년 85만개로 줄어들었으나 종사자는 248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매출액의 경우 1971년 1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는 약 550배에 이르는 587조1,130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1971년 310만원에 그쳤던 사업체당 매출액도 2007년에는 약 220배 수준인 6억9,1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을 세분해 보면 자동차 생산 및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업의 2007년 매출액이 35조8,810억 원으로 2001년에 비해 6년 새 30.1% 증가하였다. 도매업의 2007년 매출은 348조9,060억 원으로 2001년에 비해 같은 기간 40.5% 늘었다. 소매업의 경우 매출은 202조3,26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9.8%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매업과 달리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숙박업 증가세 지속, 사업체당 매출액 1억원 돌파**

음식숙박업의 사업체 수는 1971년 11만 3천개에 불과했던 것이 꾸준히 늘어나 1996년에는 그 4.9배인 55만 5천개로 집계되었다. 1971년 32만 명에 불과했던 종사자 수도 1996년에는 138만 6천명으로 4.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도소매업과 달리 음식숙박업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아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2007년 말 현재 사업체가 59만6천 개, 종사자는 164만8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1971년과 비교하면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가족식당 등 외식산업의 발달, 여가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은 1971년 1,460억 원에서 2007년 65조3,090억 원을 기록해 약 45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체당 매출액도 1971년 13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 1억1천만 원으로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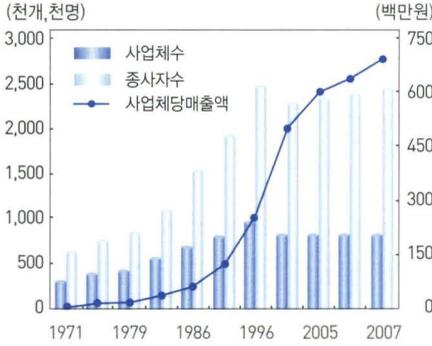
## 호텔업 · 휴양콘도운영업 매출 전체 숙박업의 3분의 2

숙박업종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1971년 당시 50% 이상을 차지하던 하숙 및 여인숙이 줄어드는 대신 여관,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업도 고급화, 대형화된 것이다. 호텔업의 경우 사업체수 비중은 1971년이나 2007년 모두 1.2%에 불과하지만 종사자 수와 매출의 신장세가 매우 높다. 2007년 종사자 수 비중은 26.0%, 매출액 비중은 52.4%로 1971년에 비해 각각 약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여관은 2007년 사업체 수 비중이 59.7%로 1971년(44.2%)에 비해 15.5%포인트 높아졌지만, 매출액 비중은 약 20%포인트 떨어진 25.3%에 그쳤다. 한편 종사자 수 비중은 41.8%로 1971년에 비해 5%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1980년대 국내에 도입된 휴양콘도 운영업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에서 100개 미만의 사업체가 운영됐다. 2007년 사업체 수가 200개를 돌파하였으며, 종사자수(비중 6.9%)와 매출액(비중 11.8%)의 신장세도 두드러져 숙박업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커졌다. 대표적인 관광숙박업 시설인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되지만, 종사자는 전체 숙박업 종사자의 32.9%, 매출액은 전체 숙박업의 64.2%로 성장 속도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림 9-1] 도소매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 매출액 추이



[그림 9-2] 음식숙박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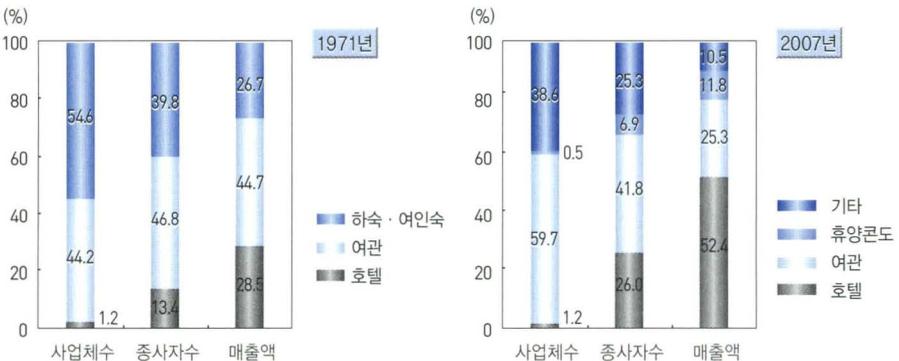


[표 9-1]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매출액(십억원)				
	'71	'82	'91	'01	'07	'71	'82	'91	'01	'07	'71	'82	'91	'01	'07
도소매업	338	588	830	835	850	646	1,119	1,946	2,319	2,480	1,063	19,742	104,903	420,651	587,113
자동차·부품판매	-	-	-	21	23	-	-	-	96	103	-	-	-	27,581	35,881
도매업	17	46	113	176	219	65	173	522	746	901	455	7,086	52,725	248,396	348,906
소매업	321	542	717	638	609	581	946	1,424	1,477	1,476	608	12,656	52,178	144,674	202,326
음식숙박업	113	234	367	540	596	320	600	1,021	1,469	1,648	146	3,091	14,760	40,911	65,309
숙박업	16	27	30	35	45	47	79	127	127	148	20	475	2,451	6,666	8,357
음식점업	97	207	337	505	551	273	521	894	1,342	1,500	126	2,616	12,309	34,245	56,95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센서스('88~'82년), 총사업체통계('86~'96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종조사('01년), 서비스업종조사('05년), 도소매업조사('06~'07년)

[그림 9-3] 숙박업 현황



### 1980년대까지 백화점이 유통산업 호령

우리나라 대형 종합소매업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할인점)로 양분된다. 백화점이라는 영업 행태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30년 10월이었다. 1970년대에 대기업이 추가로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양강 구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 들어 다른 대기업들이 가세하면서 백화점 영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00개 내외의 점포들이 영업하면서 백화점이 유통산업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할인점이라는 신입태 등장과 함께 종합소매점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국내 대형 할인점은 1993년 10월 서울 창동에서 문을 연 점포가 최초다. 1996년 18개에 불과했던 대형 할인점은 그 해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토종 할인점과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 할인점 영업 10년 만에 매출·고용 백화점 앞질러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계 유통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할인점 진출이 확대되었다. 이에 맞서 기존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점포 신증설에 나섬으로써 국내 할인점업계는 짧은 시간에 빠른 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할인점들이 유통업계를 이끌게 되면서 2001년에는 드디어 대형 할인점 매출액이 백화점 매출액을 근소하나마 추월하였다. 국내 대형 할인점업체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 경쟁이 일면서 할인점이 들어선 지 10년만인 2003년부터 대형 할인점업체들이 매출액은 물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백화점을 압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2001년 매출은 모두 16조 원 대였는데 대형 할인점 매출이 8천억 원 더 많았다. 종사자도 약 1만 명의 차이를 보이면서 대형 할인점이 더 많았다. 그 뒤에도 할인점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외형을 확장한 결과 2003년 할인점 점포는 2001년보다 27개 늘어난 반면 백화점 점포는 오히려 4개 줄었다. 이에 따라 할인점 매출은 19조7,640억 원으로 2001년보다 약 2조8천억 원 증가한 데 비해 백화점 매출은 17조3,130억 원으로 2001년에 비해

약 1조2천억 원 증가에 그쳤다. 종사자 수도 2003년 백화점이 3만2천 명인 데 비해 할인점은 그 1.8배인 5만7천 명이 일하고 있다.

### 외국계 할인점 상륙 10년 만에 퇴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매 업태로 자리 잡은 대형 할인점은 그 뒤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 점포 수가 316개를 돌파하고, 매출액도 23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계속된 점포 증설과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설 자리를 잃은 외국계 할인점들은 국내에 상륙한지 10년만인 2006년 국내 업체에 인수 합병되면서 불명예 퇴진하였다.

외국계 할인점 인수와 함께 국내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07년 점포수는 2006년보다 31개 늘어난 377개, 종사자도 5만7천 명에 이르렀다. 매출은 30조 원에 육박하는 29조1,160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1년 새 13.6%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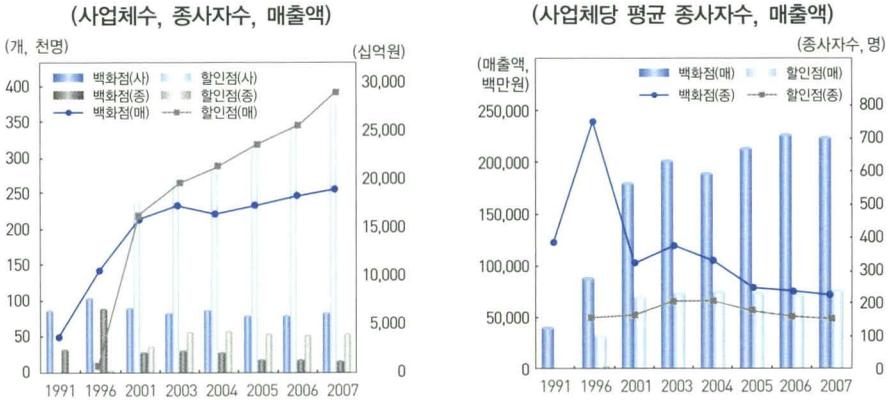
반면 백화점 점포는 85개로 2006년보다 5개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종사자는 2만 명에 못 미치는 1만8천 명에 머물렀다. 대형 할인점과 매출액 차이는 더욱 커져 할인점보다 10조 원 가까이 적은 19조1,160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4.5%에 그쳤다.

###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백화점이 대형 할인점보다 월등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백화점이 대형 할인점에 비해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대형 할인점 평균 매출액은 327억 원에 불과했으나, 백화점은 대형 할인점의 2.7배인 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백화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천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형 할인점은 2001년 7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7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백화점은 점포당 대형 할인점(772억 원)의 2.9배인 2,249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6년에 비해서는 백화점 매출이 2.5배, 할인점 매출이 2.4배로 비슷한 신장세를 보였다.

[그림 9-4] 대형종합소매업 사업체·종사자수 및 매출액 추이



〈표 9-2〉 대형소매점 추이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천명)								
	'91	'96	'01	'03	'04	'05	'06	'07	'91	'96	'01	'03	'04	'05	'06	'07
대형종합소매업	90	138	327	350	371	397	426	462	34	92	66	89	87	76	73	75
백화점	90	120	89	85	87	81	80	85	34	89	28	32	29	20	19	18
대형할인점	-	18	238	265	284	316	346	377	-	3	38	57	58	56	54	57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91년), 서비스업총조사(’05년), 도소매업조사(이외 연도)」

〈표 9-3〉 대형소매점 매출액 추이

구분	매출액(십억원)							
	1991	1996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대형종합소매업	3,771	11,210	33,076	37,077	38,118	41,085	43,917	48,232
백화점	3,771	10,620	16,134	17,313	16,591	17,376	18,296	19,116
대형할인점	-	590	16,942	19,764	21,527	23,709	25,621	29,116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91년), 서비스업총조사(’05년), 도소매업조사(이외 연도)」

〈표 9-4〉 대형소매점 사업체당 매출액 추이

구분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1991	1996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대형종합소매업	41,903	81,229	101,151	105,934	102,744	103,488	103,093	104,398
백화점	41,903	88,503	181,279	203,675	190,703	214,513	228,706	224,889
대형할인점	-	32,741	71,187	74,582	75,799	75,029	74,049	77,231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91년), 서비스업총조사(’05년), 도소매업조사(이외 연도)」

## 9-3 식품위생접객업소 개황

Ⅰ 9장 도소매 및 서비스업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2008년 식품위생접객업소 1960년의 28배

우리나라 식품위생접객업소는 1960년 2만6,312개에서 2008년 70만9,342개로 늘어났다. 48년 사이 27배로 증가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매해 늘어난 식품위생접객업소는 199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3만개 이상씩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4년과 1995년에는 전년에 비해 5만개 이상이나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1960년에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은 2만1,204개로 전체의 80.6%를 차지하였다. 이어 다방 3,303개, 과자점 845개, 유흥업소 472개 등의 순서였다. 2008년에도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은 58만5,025개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유흥·단란주점 4만5,826개, 다방 2만5,240개, 제과점 1만4,2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음식점 1개당 인구수는 83명으로 1960년의 1/14

식품위생접객업소 1개당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1960년 951명으로 1천명에 근접하였다. 업소 당 인구수는 매 10년마다 절반 규모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1971년 495명, 1980년 250명, 1990년 141명 등으로 줄었다. 1994년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줄어든 이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2005년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음식점은 83명으로 1960년의 1,180명에 비해 1/14 규모로 줄었다. 한편 다방은 1,926명으로 1960년(7,573명)의 1/4 규모로 줄었으며, 제과점은 약 3만 명에서 1/9 규모인 3,4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흥업소 40년 사이 96배 증가

업종별로 볼 때 지난 40여 년 동안 유흥업소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 472개였던 것이 2008년 4만5,826개로 늘어났으니 96배로 늘어난 셈이다. 1971년만

해도 3,488개였던 유흥업소는 1995년 그 9.7배에 이르는 3만3,842개(단란주점 1만7,533개, 유흥주점 1만6,309개)로 3만개를 넘어섰다. 2년만인 1997년 4만개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4만3,192개(유흥주점 2만2,380개, 단란주점 2만812개)로 집계됐다. 이후 단란주점은 감소한 반면 유흥주점이 계속 증가하여 2007년 사상 최고치인 4만6,193개(유흥주점 3만326개, 단란주점 1만5,867개)까지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하여 4만5,826개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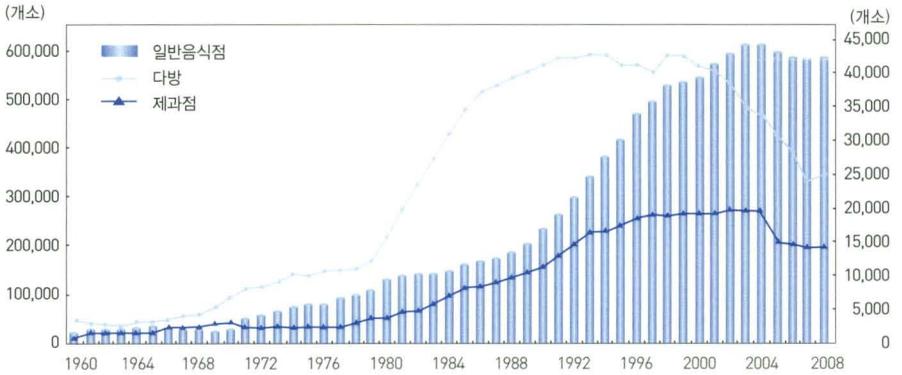
한편 다방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여 1990년대에 정점을 보인 뒤 1998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제과점(과자점)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04년 이후 감소했다. 두 업소 모두 줄어드는 추세인데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이 비교적 손쉬운 이들 업종에 진입한 탓으로 해석된다.

### 다방·제과점 줄었다가 다시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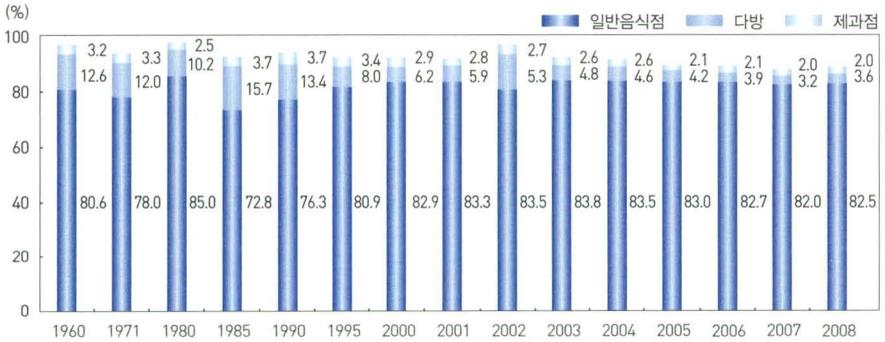
전체 식품위생접객업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중 또는 일반 음식점은 과거에 비해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82~83%를 유지하고 있다. 다방의 경우 업소가 늘어나면서 그 비중도 높아져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에 13~15% 수준으로 높아졌다. 1998년 이후 업소가 줄어들면서 2007년 비중이 3.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08년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커피 전문점 창업이 늘고 있고, 커피숍이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끄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과자점(제과점)은 점포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식품위생접객업소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그 비중은 오히려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2000년 이후 3%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그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5]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주요 업소별 변화 추이



[그림 9-6]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주요 업소별 구성비 추이



<표 9-5> 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계	대중음식점		일반 <sup>1)</sup> 유흥업소	무도 <sup>2)</sup> 유흥업소	과자점	다 방	기 타
		구성비	구성비					
1960	26,312	21,204	80.6	394	78	845	3,303	488
1971	66,379	51,756	78.0	3,488	-	2,165	7,990	980
1980	152,508	129,605	85.0	3,197	-	3,787	15,508	411
1990	304,632	232,528	76.3	17,593	957	11,388	40,874	1,292
연도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다 방	기 타
		구성비	구성비					
1995	516,132	417,629	79.6	16,309	17,533	17,481	41,139	6,041
2000	657,392	545,032	82.9	22,380	20,812	19,143	40,913	9,112
2005	720,387	598,280	83.0	29,660	17,195	14,776	30,478	23,681
2006	711,006	587,814	82.7	29,616	16,593	14,708	27,766	27,491
2007	712,238	584,294	82.0	30,326	15,867	13,984	23,033	36,883
2008	709,342	585,025	82.5	29,905	15,921	14,210	25,240	31,604

주 : 1) 나이트클럽 포함 2) 카바레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 전자상거래 2001년 이후 연평균 26.7%씩 성장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특히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상거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18조9,760억 원이었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8년 630조870억 원으로 증가했다. 7년 동안 연평균 26.7%씩 성장한 결과 5.3배 규모로 커졌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100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 전자상거래의 89%가 기업간(B2B) 거래

2008년 기준 거래 주체별 전자상거래를 보면 <표 9-6>에서 보듯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총 거래액의 88.9%인 560조2,5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는 8.3%인 52조2,660억 원,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전체의 1.9%인 11조6,66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 등)는 5조 9,070억 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2001년 108조9,41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02~2004년 사이 매해 30% 이상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01년의 5.1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거래 규모는 계속 불어났지만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1.6%에서 조금씩 낮아져 2008년에는 88.9%를 차지하였다.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는 2001년 7조370억 원에서 2008년 7.4배로 커진 52조2,6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2001년 5.9%에서 2008년 8.3%로 높아졌다.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2001년 2조5,800억 원에서 4.5배 커진 11조6,6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다른 거래주체의 전자상거래 증가폭이 커지면서 2008년에는 2% 미만으로 낮아졌다. 한편 소비자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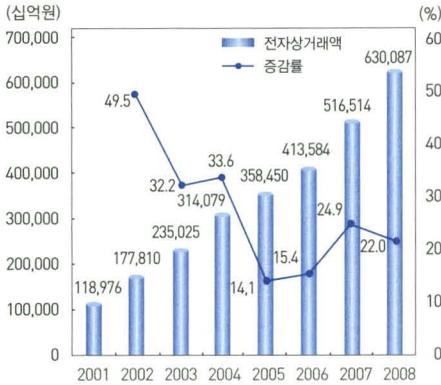
전자상거래(C2C 등)는 2001년 4,180억 원에서 14.1배인 5조9,07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서 0.9%로 높아졌다.

### **B2B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순서로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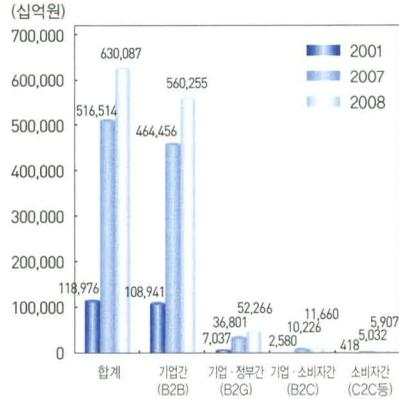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제조업 비중은 2001년 79.8%에서 2008년 64.2%로 낮아졌다. 대신 건설업은 2001년 4.1%에서 2008년 11.3%로, 도소매업은 같은 기간 13.0%에서 17.2%로 각각 높아졌다. 2008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제조업이 359조7,320억 원으로 가장 활발하였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96조1,850억 원, 건설업 63조2,880억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1~2008년 8년 동안의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를 조달 유형별로 보면 건설공사 계약 비중이 50.2%로 재화 및 서비스 구매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이전에는 건설공사 계약 비중이 재화 및 서비스 구매보다 높았으나, 2006년부터 역전되어 재화 및 서비스 구매 비중이 더 높아졌다. 한편 2008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은 30조3,060억 원으로 58.0%를 차지해 건설공사 계약액 21조9,600억 원(42.0%)보다 약 8조3,500억 원이 많았다.

[그림 9-7] 전자상거래 규모



[그림 9-8] 부문별 전자상거래



[표 9-6] 부문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18,976	177,810	235,025	314,079	358,450	413,584	516,514	630,087
기업간(B2B)	108,941	155,707	206,854	279,399	319,202	366,191	464,456	560,255
	(91.6)	(87.6)	(88.0)	(89.0)	(89.1)	(88.6)	(89.9)	(88.9)
기업·정부간(B2G)	7,037	16,632	21,634	27,349	29,036	34,436	36,801	52,266
	(5.9)	(9.4)	(9.2)	(8.7)	(8.1)	(8.3)	(7.1)	(8.3)
기업·소비자간(B2C)	2,580	5,043	6,095	6,443	7,921	9,132	10,226	11,660
	(2.2)	(2.8)	(2.6)	(2.0)	(2.2)	(2.2)	(2.0)	(1.9)
소비자간(C2C등)	418	427	442	888	2,292	3,826	5,032	5,907
	(0.3)	(0.2)	(0.2)	(0.3)	(0.6)	(0.9)	(1.0)	(0.9)

주 : ( ) 내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동향조사」 각 호

[표 9-7] 산업별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업간(B2B)	108,941	155,707	206,854	279,399	319,202	366,191	464,456	560,255
제조업	86,984	117,935	146,132	197,067	212,086	239,323	298,399	359,732
	(79.8)	(75.7)	(70.6)	(70.5)	(66.4)	(65.4)	(64.2)	(64.2)
전기·가스·수도업	815	1,070	2,289	3,657	5,186	8,552	9,518	10,807
	(0.7)	(0.7)	(1.1)	(1.3)	(1.6)	(2.3)	(2.0)	(1.9)
건설업	4,437	5,774	9,664	16,097	24,046	29,334	46,160	63,288
	(4.1)	(3.7)	(4.7)	(5.8)	(7.5)	(8.0)	(9.9)	(11.3)
도소매업	14,195	25,730	41,117	51,421	62,413	68,035	82,478	96,185
	(13.0)	(16.5)	(19.9)	(18.4)	(19.6)	(18.6)	(17.8)	(17.2)
운수업	933	1,223	1,447	1,463	2,879	4,667	7,850	8,456
	(0.9)	(0.8)	(0.7)	(0.5)	(0.9)	(1.3)	(1.7)	(1.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40	3,293	4,778	7,478	7,329	10,136	11,029	11,514
	(1.1)	(2.1)	(2.3)	(2.7)	(2.3)	(2.8)	(2.4)	(2.1)
기타	336	682	1,426	2,217	5,262	6,143	9,022	10,273
	(0.3)	(0.4)	(0.7)	(0.8)	(1.6)	(1.7)	(1.9)	(1.8)

주 : ( ) 내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전자상거래동향조사」 각 호

## 사이버쇼핑몰 2001년 이후 연평균 27.3%씩 성장

우리나라에 사이버쇼핑몰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9년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쇼핑 동향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3조3,470억 원이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8조 1,46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에 비해 5.4배로 커진 규모로 연평균 27.3%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08년 거래액 중 기업·소비자간(B2C) 거래액은 11조6,600억 원으로 전체 사이버쇼핑 거래액의 64.3%를 차지하였다. 기업·소비자간(B2C) 거래 비중은 2001년 77.1%에서 2003년 86.4%로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초고속인터넷망 보급 확대로 소비자(C2C), 기업간(B2B)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사업체는 전문 몰이 대부분, 거래액은 종합 몰이 70% 이상 점유

사이버쇼핑몰은 하나 또는 주된 상품만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전문 몰과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판매하는 종합 몰로 구분된다. 취급상품 범위별 사업체는 [그림 9-9]에서 보듯이 전문 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 몰의 비중은 2001년 85.2%에서 2007년<sup>1)</sup>(연말 기준) 95.4%로 높아졌다. 그러나 거래액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몰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운영 형태별로 보면 Online망만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Online몰이 2001년에는 31.9%였는데 매년 그 비율이 높아져 2007년에는 Online몰과 On/offline병행몰이 비슷해졌다. 거래액 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2001년 41.6%였던 Online몰 거래 비중이 2004년에는 거의 비슷해졌다. 2005년 Online몰 거래액이 On/offline병행몰 거래액을 추월한 뒤 차이가 계속 벌어져 2008년에는 Online몰 거래액이 66.5%를 차지하였다. 이는 Online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쇼핑몰이 창업 러시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2008년부터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체수는 2007년까지만 집계되었음

##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주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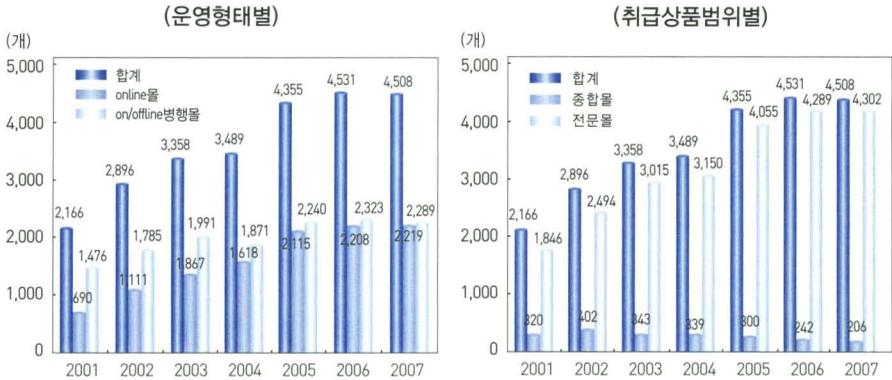
사이버쇼핑몰에서 거래된 상품은 2001년 쇼핑몰 개설 초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8,460억 원), 가전·전자·통신기기(7,040억 원), 생활·자동차용품(2,320억 원) 등의 거래가 활발하여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 Online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 여행 및 예약서비스 등이 꾸준히 늘어나 2006년부터 이 부문의 거래가 더 많아졌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져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이 2001년 5.3%에서 2008년 16.5%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는 6.4%에서 15.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두 부문의 거래가 2008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거래 비중은 2001년(21.0%)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2008년 비중이 13.6%로 여전히 높은데, 이들 상품이 가정생활 및 여가활동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 외에도 아동·유아용품,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거래가 2001년의 10배 이상으로 커져, 거래액이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거래 지불수단은 신용카드 결제, 배송수단은 택배가 대부분

사이버쇼핑 거래에 대한 지불결제 수단은 신용카드가 67.2%로 가장 높다(2008년 기준). 그 다음으로 온라인 계좌이체 29.3%, 전자화폐 0.7% 등의 순서다.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 수단으로는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86.7%로 가장 많다. 쇼핑몰 업체가 제휴한 편의점, PC방, 주유소, 지하철 등의 사업장까지만 배송하고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형태인 offline 제휴 배송이 6.3%, 자체 배송이 2.6%로 나타났다. 특히 offline 제휴 배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결제·배송 수단을 찾는 것도 사이버쇼핑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9] 사이버쇼핑몰 사업체수



<표 9-8> 사이버쇼핑몰 운영형태 및 취급상품 범위별 거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
합 계	3,347	6,030	7,055	7,768	10,676	13,460	15,766	18,146	100.0
<운영형태별>									
Online몰	1,391	1,974	2,401	3,825	5,913	8,285	10,007	12,061	66.5
On/Offline병행몰	1,956	4,056	4,654	3,943	4,762	5,174	5,759	6,084	33.5
<취급상품범위별>									
종합몰	2,260	4,389	5,108	5,621	7,415	9,571	11,122	12,964	71.4
전문몰	1,087	1,641	1,947	2,147	3,261	3,889	4,644	5,181	28.6

자료 : 통계청 「사이버쇼핑몰동향조사」

<표 9-9> 사이버쇼핑몰 취급상품군별 거래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
합 계	3,347	6,030	7,055	7,768	10,676	13,460	15,766	18,146	100.0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176	537	730	934	1,583	2,372	2,714	2,996	16.5
여행 및 예약서비스	215	371	524	752	1,604	2,019	2,416	2,857	15.8
가전·전자·통신기기	704	1,114	1,291	1,442	1,786	2,011	2,326	2,466	13.6
생활·자동차용품	232	710	818	820	1,056	1,300	1,485	1,710	9.4
컴퓨터 및 주변기기	846	877	913	909	1,027	1,261	1,542	1,636	9.0
아동·유아용품	85	135	192	272	406	652	868	1,027	5.7
음·식료품	80	210	281	371	531	625	731	1,009	5.6
화장품	80	278	466	515	587	699	793	917	5.1
서적	183	296	344	374	496	628	744	875	4.8
스포츠·레저용품	88	199	289	321	396	502	536	614	3.4
농수산물	101	307	295	280	285	312	393	493	2.7
사무·문구	45	62	66	72	106	131	181	262	1.4
소프트웨어	74	76	74	69	98	86	110	112	0.6
음반·비디오·악기	54	88	99	103	95	81	93	111	0.6
각종서비스	69	79	88	79	70	75	70	56	0.3
꽃	22	33	36	37	41	42	51	51	0.3
기 타	273	659	550	417	509	665	712	951	5.2

자료 : 통계청 「사이버쇼핑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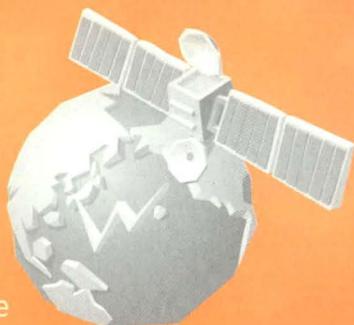
# 10장

## 교통 및 정보통신

- 10-1 육상운수업 개황
- 10-2 수상운수업 개황
- 10-3 국내 여객수송
- 10-4 지하철수송
- 10-5 국내 화물수송
- 10-6 국제여객 및 화물수송
- 10-7 자동차 등록대수
- 10-8 항만하역능력
- 10-9 정보통신사업 현황
- 10-10 인터넷 기반
- 10-11 우체국 및 우편물 현황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육상운송업이 운수업의 중심

국내 운수업체는 1990년 13만5,486개에서 2008년 33만9,982개로 2.5배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8년간 매년 1만1,400개씩 증가한 비율이다. 1980년과 1990년 사이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사방법을 변경<sup>1)</sup>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종사자 수는 105만2,052명으로 1976년의 4.7배로 늘었는데, 이는 지난 32년간 매년 2만5,900명씩 늘어난 비율이다. 2007년과 비교하면 운수업체 수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1,806개)했지만, 종사자 수는 저가 항공사 신규운항 개시 등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

운수업의 중심은 육상운송업이다. 2008년 기준 기업체의 94.6%, 종사자의 84.5%를 육상운송업이 차지하고 있다. 매출의 경우 육상운송업의 비중이 36.2%로 기업체나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는데, 육상운송업의 매출은 수상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육상운송업체 수는 32만1,561개로 1990년에 비해 약 2.4배로, 1년 전에 비해서는 0.4%(1,305개) 늘었다. 2000년에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운수업체의 4분의 1을 점유하는 개별 화물과 개별용달 화물 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9년 7월 1일)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종사자수는 88만9,338명으로 1976년의 4.3배로 늘어났다. 이는 매년 2만1,400명씩 증가한 것과 동일한 비율이다.

운송업 매출액은 2007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데 이어 2008년 현재 127조6,110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육상운송업 매출액이 46조1,420억 원이다. 육상운송업의 매출은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육상운송업의 핵심 장비인 운송수단(차량)은 2008년 71만9,367대로 집계됐다. 육상운송 업체당 2.2대, 종사자 1인당 0.8대 꼴이다.

1) 1988년까지는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별용달의 시·도별 조합을 1개 업체로 조사하였는데 1989년부터 각각을 1개의 업체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

## 택시 인구 1천명당 5.2대, 화물운송업은 택배업 매출 신장세 뚜렷

육상운송업에서 비중이 큰 업종은 택시운송업과 화물자동차운송업이다. 1980년 육상운송업에서 택시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 47.7%, 운송장비 기준 42.9%였다. 종사자수로 본 비중은 45.2%, 매출액 비중은 30.4%였다. 그 이후 지하철 및 전철 신규노선 확장, 자가용 자동차 보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08년에는 종사자와 운송장비 비중은 30%대로, 매출액 비중은 18.4%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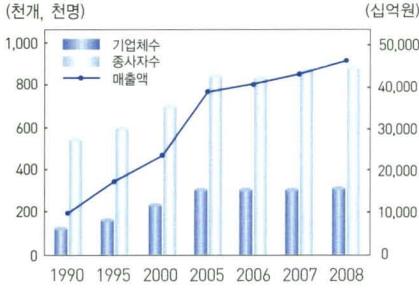
택시 운행대수는 1980년 6만2,687대의 약 4배 규모인 25만642대로 증가했다. 이를 인구 1천명 당 운행대수로 비교해보면 1980년 1.6대였던 것이 1990년 두 배가 넘는 3.6대로 늘어난 데 이어 2001년 5대를 넘어섰으며 2008년 말 기준 5.2대로 증가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업<sup>2)</sup>은 2008년 기준 기업체수(48.2%), 매출액(46.0%), 운송장비수(47.0%)의 육상운송업 내 비중이 모두 45% 이상인 데 비해 종사자 비중은 40%에도 못 미치는 39.3%로 나타났다. 1990년과 비교하면 업체와 장비, 매출액 비중은 12~13%포인트 높아진 데 비해 종사자 비중은 16.9% 포인트 상승(1990년 22.4%)한 것이다.

특히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에 따른 배달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업의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택배업의 2008년 매출액은 2007년보다 11.9% 증가한 1조8,535억 원을 기록했다. 택배업체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은 전년(22.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등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혜업종인 택배업의 매출 증가세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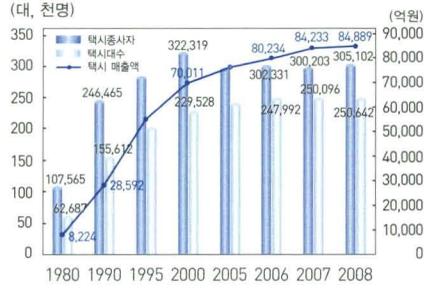
2)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합계

[그림 10-1] 육상운송업 현황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각 호(2008년 자료는 잠정치)

[그림 10-2] 택시운송업 현황



<표 10-1> 육상운송업 현황

(단위 : 개, %, 명, 십억원, 대)

구분	1976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기업체수	운수업 계	2,129	5,188	135,486	246,962	329,518	337,837	341,788	339,982
	(전년 증감률)	-	[ 0.1]	[11.5]	[13.2]	[ 1.4]	[ 2.5]	[1.2]	[-0.5]
	육상운송업	1,916	3,246	132,364	240,721	309,231	311,082	320,256	321,561
총사자수	운수업 계	224,344	416,949	652,486	832,336	1,014,794	1,035,099	1,050,255	1,052,052
	(전년 증감률)	-	[ 3.2]	[ 2.6]	[ 5.2]	[ 0.7]	[ 2.0]	[ 1.5]	[0.2]
	육상운송업	205,333	346,706	544,915	702,333	848,368	844,784	879,173	889,338
매출액	운수업 계	927	4,754	541	54,634	87,764	91,416	102,430	127,611
	(전년 증감률)	-	[46.1]	[15.7]	[10.0]	[ 7.5]	[ 4.2]	[12.0]	[24.6]
	육상운송업	698	2,707	9,501	23,624	38,829	40,426	43,098	46,142
장비수	운수업 계	183	822	2,859	7,001	7,670	8,023	8,423	8,489
	(전년 증감률)	-	[32.7]	[16.2]	[ 6.4]	[13.1]	[ 4.1]	[ 6.6]	[ 7.1]
	택시운송업	-	146,242	303,649	502,237	655,414	665,123	700,539	719,367
장비수	운수업 계	-	62,687	155,612	229,528	244,572	247,992	250,096	250,642
	(전년 증감률)	-	[42.9]	[51.2]	[45.7]	[37.3]	[37.3]	[35.7]	[34.8]
	택시운송업	-	146,242	303,649	502,237	655,414	665,123	700,539	719,367
장비수	운수업 계	-	146,242	303,649	502,237	655,414	665,123	700,539	719,367
	(전년 증감률)	-	[42.9]	[51.2]	[45.7]	[37.3]	[37.3]	[35.7]	[34.8]
	택시운송업	-	146,242	303,649	502,237	655,414	665,123	700,539	719,367

주 : 구성비는 육상운송업에서 택시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각 호(2008년 자료는 잠정치)

<표 10-2> 인구 천 명당 택시 운행대수<sup>1)</sup>

(단위 : 대)

연도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대수	1.64	3.63	4.53	4.88	5.08	5.13	5.16	5.16

주 : 1) (택시장비 수/해당연도 추계인구)×1,000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각 호

## 수상운송업 매출은 외항화물 운송업이 좌우

국내 수상운송업체는 1976년 213개에서 2008년 466개로 2.2배 증가했다. 종사자는 2008년 말 현재 2만6,262명으로 1976년에 비해 약 7천명 증가했다. 육상운송업에 비해 기업체와 종사자 증가폭이 적은 것은 수상운송업의 특성상 선박 구입 등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해 기업의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매출은 1976년 2,290억 원에서 2008년 약 230배 규모인 52조4,25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수상운송업 매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수상운송업 매출의 96.6%(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외항화물 운송업이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6년 5,575만7천t이었던 국제 해운수송 실적은 2007년 8억6,252만3천t으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수상운송업의 성장은 1996년 이후 수상운송업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항화물운송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 외항화물운송 매출 업체당 3,698억 원

외항화물운송업체는 2008년 현재 137개로 1976년에 비해 73개 늘었다. 이는 전체 수상운송업체의 약 29%에 해당한다. 종사자는 1만8,33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종사자 비중은 69.8%로 기업체 비중(29.4%)보다 높다. 매출은 50조6,580억 원으로 1976년 매출(2,05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50배로 늘었으며, 업체당 평균 3,698억 원꼴이다. 업체당 매출은 1976년만 해도 32억 원에 불과했는데 1980년 165억 원, 1990년 795억 원, 1995년 2,32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1년 전에 비해서는 수출입 물량 증가, 고유가 여파로 인한 국제 해운운임 인상, 높은 환율 유지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6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수상운송업 전체로 보면 2008년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12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지만, 외항화물운송업체 평균보다는 적다. 이는 그만큼 국내 수상운송업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그래도 1976년(평균 매출 11억 원)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며,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함께 이러한 매출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수상운송업의 중심 장비인 선박은 2007년<sup>4)</sup> 말 현재 454개 기업이 2,383척을 보유하고 있다. 1980년(보유량 957척)에 비해서는 약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매해 53척씩 증가한 셈이다. 한편, 수상운송업 중 외항화물운송업이 1,362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수상운송업 전체 보유량의 약 57%에 해당된다. 1980년에 비해서 827척이 증가하여 매년 30척씩 증가한 셈이며, 전년에 비해서는 203척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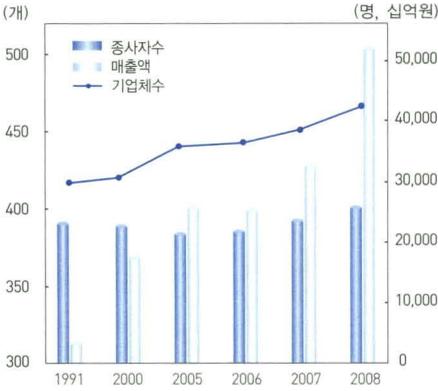
### 외항화물운송 매출 선박 1척당 231억 원

외항화물운송업체의 보유선박 1척당 매출액은 2007년 말 기준 약 231억 원으로 1980년(20억 원)과 비교하면 11.6배로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보유 선박이 대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항화물운송업의 성장 발판인 대형 선박은 1976년 대형 유조선 운항 개시와 함께 본격화하였으며,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전용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114개 외항화물운송업체 중 총 수송능력이 백만t 이상인 업체는 11개이며, 이들 11개 업체(9.6%)가 외항화물운송업 전체 선박의 44.6%에 해당하는 608척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11개 업체 매출액이 외항화물운송업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외항화물운송업의 급성장에는 수출입 물동량 확대와 함께 세계 1위의 선박 건조 능력 보유 국가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

4) 2009년 10월 현재 2008년 자료는 잠정자료만 공표된 상태이므로 2008년 선박 보유대수는 미 집계

[그림 10-3] 수상운송업 현황



[그림 10-4] 외항화물운송업 현황



[표 10-3] 수상운송업 현황

(단위 : 개, %, 명, 십억원, 대)

구분	1976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기업체 수	운수업 계 (전년증감률)	2,129	5,188	135,486	246,962	329,518	337,837	341,788	339,982
				(0.1)	(11.5)	(13.2)	(1.4)	(2.5)	(-0.5)
	수상운송업 (전년증감률)	213	321	484	424	443	443	454	466
			(8.1)	(-8.0)	(11.3)	(0.7)	(0.0)	(2.5)	(2.6)
종사자 수	외항화물운송 (구성비)	64	66	34	56	85	101	114	137
		(30.0)	(20.6)	(7.0)	(13.2)	(19.2)	(22.8)	(25.1)	(29.4)
	운수업 계 (전년증감률)	224,344	416,949	652,486	832,336	1,014,794	1,035,099	1,050,255	1,052,052
			(3.2)	(2.6)	(5.2)	(0.7)	(2.0)	(1.5)	(0.2)
매출액	수상운송업 (전년증감률)	19,011	47,456	53,846	22,955	21,830	22,312	23,889	26,262
			(5.8)	(3.8)	(3.7)	(3.5)	(3.2)	(7.1)	(9.9)
	외항화물운송 (구성비)	14,463	19,605	14,809	14,777	13,411	14,045	15,326	18,334
		(76.1)	(41.3)	(27.5)	(64.4)	(61.4)	(62.9)	(64.2)	(69.8)
장비수	운수업 계 (전년증감률)	927	4,754	15,541	54,634	87,764	91,416	102,430	127,611
			(46.1)	(15.7)	(10.0)	(7.5)	(4.2)	(12.0)	(24.6)
	수상운송업 (전년증감률)	229	1,247	3,504	17,713	26,219	25,794	33,043	52,425
			(79.7)	(14.5)	(10.1)	(0.4)	(-1.6)	(28.1)	(58.7)
외항화물운송	외항화물운송 (구성비)	205	1,059	2,704	16,604	24,916	24,433	31,499	50,658
		(89.4)	(84.9)	(77.2)	(93.7)	(95.0)	(94.7)	(95.3)	(96.6)
	수상운송업	-	957	1,455	1,636	2,261	2,203	2,383	-
			(55.9)	(34.0)	(39.7)	(48.8)	(52.6)	(57.2)	
외항화물운송	외항화물운송	-	535	495	649	1,103	1,159	1,362	-
	외항화물운송 (구성비)	-	-	-	-	-	-	-	-

주 : 구성비는 수상운송업에서 외항화물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율,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각 호(2008년 자료는 잠정치)

[표 10-4] 외항화물수송 운송업 매출액과 해운수송량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1977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sup>P</sup>
매출액 전년증감률	57.4	89.8	-0.81	6.92	6.0	9.6	0.1	-1.9	28.9	60.8
해운수송량 전년증감률	22.5	3.5	5.8	7.8	14.4	7.0	3.0	7.3	6.5	-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각 호(2008년 자료는 잠정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지하철 수송 분담률 지속 확대

2007년 기준 국내 수송 여객 수는 126억2,800만 명으로 1960년에 비해 20.4배로 증가했다. 수송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1960년에는 철도 분담률이 12.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개발 초기인 1970년대 들어 고속도로 개통과 자동차 보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공로(公路)<sup>5)</sup>부문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졌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하철 노선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 들어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했으며, 도로의 여객수송 분담률을 빠른 속도로 떨어뜨렸다. 2004년 세계에서 8번째로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서울에 이어 광주·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잇따라 지하철이 신설되거나 증설됨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의 여객수송 분담률이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기준 수송수단별 여객수를 보면 영업용 자동차가 여객을 수송하는 형태인 공로가 75.4%로 95억1,900만 명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하철이 16.6%로 20억9천만 명, 철도가 7.8%로 9억8,900만 명을 수송하였다. 항공과 해운은 각각 약 0.1%에 해당하는 1,700만 명, 1,300만 명을 수송하였다.

2006년과 비교하면 수송 여객이 4억4,100만 명(3.6%) 늘었다. 수송수단별로는 공로가 가장 많은 4억1천만 명(4.5%) 증가함으로써 수송 분담률도 0.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그해 높은 기름값의 여파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도가 2천만 명(2.1%), 지하철은 1천만 명(0.5%) 증가했으나 항공 여객은 줄었다.

## 도로 수송분담률 1965년 철도 추월

하루 평균 수송수단별 여객은 3,500만 명(중복이동 포함)으로 총인구의 71.4%에 해당한다. 수송 인원에 수송 거리를 곱한 개념(인-km)으로 보면 단순 수송인원 분담률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0년에는 철도 분담률이 52.2%, 공로 분담률이

5) 버스(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택시가 여객을 수송하는 형태

46%로 철도가 높았다. 1965년 공로 분담률에 추월당한 철도 분담률은 1980년대 20%대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교통체증으로 인한 철도 선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07년 현재 17.3% 수준이다. 철도가 장거리 수송수단인데 비해 지하철은 단거리 수송수단에 해당되므로 연도별 분담률 추세가 단순 수송인원 분담률과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공로 분담률은 2001년 50%대로 떨어졌다가 2002년 이후 상승세로 바뀌어 2007년 현재 65.5%를 기록해 여전히 중요한 수송수단임을 보여주었다. 항공의 수송 분담률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수송수단이란 특징이 반영돼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60년 0.2%에 불과했으나, 1990년 1.1%로 높아졌다. 1995년 5.9%로 급속히 높아진 후 1997년 7.4%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후 낮아져 2007년 현재 3% 수준이다. 항공의 분담률이 낮아진 것은 2004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고속철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를 통해 여객을 수송하는 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는 국내 여객 수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운송수단별로 보면 시내버스의 분담률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준공영제 도입, 환승할인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확대 등에 힘입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늘어났다. 시내버스에 이어 택시가 40%대의 분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분담률이 낮아지는 한편 전세버스는 1993년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높아지는 추세다.

〈표 10-5〉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단위 : 백만명, %, %p)

연 도	여객수	수송인원					분담률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1960	618	76	-	538	4	0	12.2	-	87.1	0.7	0.0	
1970	2,88	2131	-	2,744	6	1	4.6	0.0	95.2	0.2	0.0	
1975	4,805	221	34	4,543	6	1	4.6	0.7	94.5	0.1	0.0	
1980	8,545	431	65	8,039	9	1	5.0	0.8	94.1	0.1	0.0	
1985	11,441	503	325	10,601	9	3	4.4	2.8	92.7	0.1	0.0	
1990	14,488	645	1,102	12,722	8	11	4.5	7.6	87.8	0.1	0.1	
1995	13,803	790	1,693	11,290	9	21	5.7	12.2	81.8	0.1	0.2	
2000	13,515	837	2,235	10,411	10	23	6.2	16.5	77.0	0.1	0.2	
2005	11,801	951	2,020	8,802	11	17	8.1	17.1	74.6	0.1	0.1	
2006	12,187	969	2,080	9,109	12	17	8.0	17.1	74.7	0.1	0.1	
2007	12,628	989	2,090	9,519	13	17	7.8	16.6	75.4	0.1	0.1	
증감 (률)	'07/'06	3.6	2.1	0.5	4.5	9.2	-1.9	-0.2	-0.5	0.7	0.0	0.0
	'07/'60	1,943.4	1,207.2	-	1,669.2	212.3	-	-4.4	16.6	-11.7	-0.6	0.1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6〉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인-거리)

(단위 : 백만명-km, %, %p)

연 도	여객수	수송인원					분담률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1960	9,447	4,935	-	4,344	147	21	52.2	-	46.0	1.6	0.2	
1970	30,362	9,819	-	20,045	241	257	32.3	-	66.0	0.8	0.8	
1975	52,686	12,296	343	38,865	252	300	24.5	0.7	73.8	0.5	0.6	
1980	87,626	21,640	926	64,131	401	528	24.7	1.1	73.2	0.5	0.6	
1985	106,849	22,595	4,4777	8,025	570	1,182	21.1	4.2	73.0	0.5	0.6	
1990	135,536	29,864	11,229	89,712	520	4,011	22.1	8.3	66.3	0.4	1.1	
1995	125,233	29,292	15,709	72,324	502	7,406	23.4	12.5	57.8	0.4	5.9	
2000	132,840	28,527	21,030	74,572	672	8,039	21.5	15.8	56.1	0.5	6.1	
2005	153,568	31,014	23,637	91,665	668	6,594	20.2	15.4	59.7	0.4	4.6	
2006	161,281	31,416	24,651	97,854	709	6,651	19.5	15.3	60.7	0.4	4.1	
2007	182,622	31,596	24,166	119,569	765	6,526	17.3	13.2	65.5	0.4	3.6	
증감 (률)	'07/'60	13.2	5.7	-2.0	22.2	7.9	-1.9	-2.2	-2.1	4.8	0.0	-0.5
	'07/'60	1,833.1	540.2	-	2,652.5	420.4	-	-34.9	13.2	19.5	-1.2	3.4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7〉 국내 수송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단위 : 백만명, %)

연 도	여객수	수송인원					분담률				
		고속	시내	시외	전세	택시	고속	시내	시외	전세	택시
1990	12,722	77	7,188	880	74	4,503	0.6	56.5	6.9	0.6	35.4
1995	11,290	54	5,688	533	95	4,920	0.5	50.4	4.7	0.8	43.6
2000	10,411	43	4,824	374	131	5,039	0.4	46.3	3.6	1.3	48.4
2005	8,802	38	4,537	246	158	3,824	0.4	51.5	2.8	1.8	43.4
2006	9,109	39	4,616	246	160	4,048	0.4	50.7	2.7	1.8	44.4
2007	9,519	38	4,989	237	203	4,052	0.4	52.4	2.5	2.1	42.6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1974년 1개 노선 7.8km에서 17개 노선 529.4km로 확대

1863년 1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운행을 시작한 지 111년 만인 1974년 광복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역~청량리간 지하철 1호선<sup>6)</sup>(7.8km)이 개통돼 지하철 시대를 맞았다. 개통 첫째 1,600만 명을 수송한 이래 지하철 노선 신설과 연장이 계속 이뤄졌다. 그 결과 2009년 8월 현재 서울에는 금년 7월 개통한 김포공항~신논현 구간을 포함, 모두 9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전체 노선 연장은 312.4km에 이른다.

한편 지방에서도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어, 1981년 6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방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이 첫 개통된 지 11년만인 1985년 7월 부산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하였고, 이를 시초로 지방지하철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후 추가로 지하철이 건설되어, 부산에서 3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대구에서 1997년 11월 1호선이 개통된 이후 2개 노선, 인천에서는 1999년 10월 개통된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 대전 등에서도 각각 2004년 4월, 2007년 4월에 1개 노선씩 개통 운행함으로써 지방에서 노선 연장 195.2km에 걸쳐 총 8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총 17개 노선 529.4km<sup>7)</sup>로 노선 연장이 1974년 첫 개통 시점의 68배에 이른다.

## 하루 평균 587만명 이용, 시간당 24만4천명 꼴

지하철 개통 첫째 이용승객은 1,600만 명으로 여객수송 분담률이 0.4%에 불과했다. 서울 지하철 3·4호선 1단계와 부산 지하철 1호선 1단계 노선이 개통된 1985년에는 수송인원이 3억2,500만 명(수송 분담률 2.8%)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이 개통된 1999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이용승객을 포함한 전체 수송여객이 20억 명을 초과하였으며, 수송 분담률도 15.1%로 높아졌다.

6) 개통 당시에는 종로선이라는 명칭으로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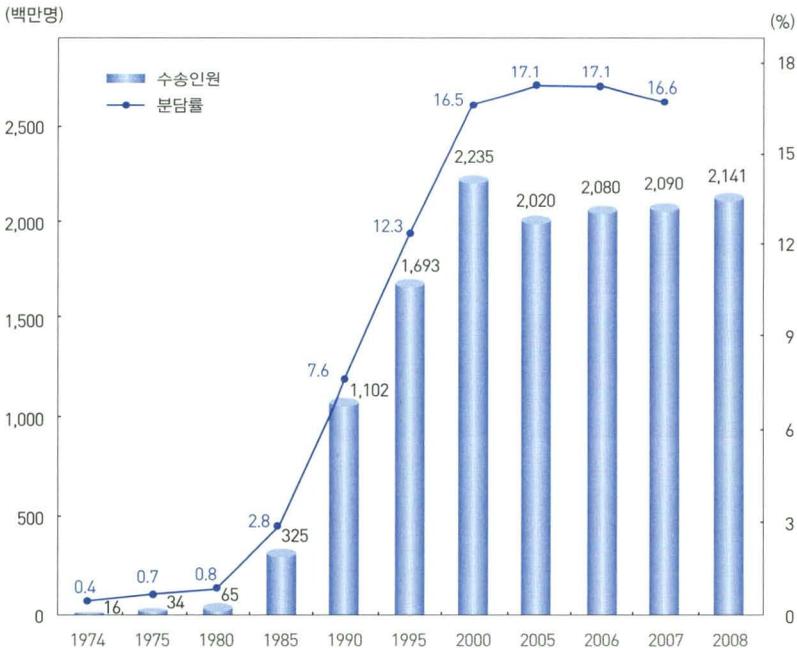
7) 2009년 7월 24일 개통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김포공항~신논현 구간 25.5km 포함,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국철 6개 노선은 제외.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의 여파로 수송여객이 2002년보다 3천만 명 줄어 19억8,2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하철 노선의 신·증설과 지하철·버스 환승요금 할인제도 시행 등에 힘입어 지하철 이용승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수송인원은 20억9천만 명, 여객수송 분담률은 16.6%로 집계됐다.

2008년 1년 동안 지하철 이용승객은 연인원 21억4,100만 명<sup>8)</sup>으로 지하철 개통 첫해 1974년 이용승객의 134배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587만 명, 시간당 24만 4천명이 이용한 셈이다.

이를 지방 지하철별로 비교해보면 부산 지하철 이용승객이 2억5,700만 명으로 전체 이용승객의 12.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 지하철이 1억1천만 명으로 5.1%를 차지했다. 이어서 인천, 대전, 광주 순으로 이용승객이 많았는데, 광주 지하철 운행이 대전보다 3년이나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승객은 대전이 더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전정부청사를 비롯한 각종 기관의 대전 소재와 이들 기관 방문객의 지하철 이용이 많았음에도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본다.

[그림 10-5] 지하철 수송인원 추이



8) 서울지하철 환승객이 이종 집계(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동일 환승객 이종집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단일 집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대비 5억1500만 명이 감소하였음.

〈표 10-8〉 지하철 수송실적 현황

(단위 : 백만명, %)

연 도	계	수송인원						
		분담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1974	16	0.4	16	-	-	-	-	-
1975	34	0.7	34	-	-	-	-	-
1980	65	0.8	65	-	-	-	-	-
1990	1,102	7.6	1,102	-	-	-	-	-
1995	1,693	12.3	1,479	214	-	-	-	-
2000	2,235	16.5	1,889	241	56	49	-	-
2005	2,020	17.1	1,657	242	51	60	10	-
2006	2,080	17.1	1,655	243	53	108	11	10
2007	2,090	16.6	1,654	238	54	107	14	23
2008	2,141	-	1,675	257	54	110	16	29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9〉 지하철 건설 연장 및 역수

(단위 : 개)

지역	구분	구간	건설연장 (km)	착공	착공(개통)	역수
합계			507.6			484
서울	1호선	서울역-청량리	7.8	'71.4.12.	'74.8.15.	10
	2호선	당산-합정	60.2	'78.3.9.	'96.3.20.	50
	3호선	지축-수서	35.2	'80.2.29.	'93.10.30.	31
	4호선	당고개-남태령	31.7	'80.2.9.	'94.4.1.	26
	5호선	방화-상일동	52.3	'90.7.11.	'96.12.30.	51
	6호선	상월곡-봉화산	35.1	'94.1.8.	'00.12.15.	38
	7호선	장암-온수	46.9	'90.12.30.	'00.8.1.	42
	8호선	암사-모란	17.7	'90.12.30.	'99.7.2.	17
	9호선	김포공항-신논현	25.5	'02.4.3.	'09.7.24.	25

지역	구분	구간	건설연장 (km)	착공	착공(개통)	역수
부산	1호선	노포동 - 신평	32.5	'81.6.23.	'94.6.23.	34
	2호선	호포 - 서면	38.0	'91.11.28.	'02.8.29.	39
	3호선	대서 - 수영	18.3	'97.11.25.	'05.11.28.	17
대구	1호선	대곡 - 안심	28.3	'91.12.7.	'97.11.26.	30
	2호선	문양 - 사월	29.0	'97.1.16.	'05.10.18.	26
인천	1호선	굴현 - 동막	24.6	'93.7.5.	'99.10.6.	22
광주	1호선	녹동 - 상무	12.1	'96.8.28.	'04.4.28.	14
대전	1호선	판암 - 반석	12.4	'96.10.30.	'07.4.17.	12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철도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변화

경제발전예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수송수단별 화물 수송도 달라졌다. 1960년 국내 화물 물동량 2,497만t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42만3천t을 철도가 수송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로<sup>9)</sup>, 해운, 항공 등의 순서였다. 화물수송 분담률은 철도 57.8%, 공로 41.2%로 철도와 도로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운의 분담률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 중심 기능이 여객수송으로 바뀌면서 화물수송의 접근 편의성도 떨어지는 바람에 화물수송 분담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2007년 화물의 철도 수송 분담률은 6.2%로 1960년에 비해 무려 51.6%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로의 화물수송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1997년 수송 분담률이 70%를 넘어섰다. 2007년 공로의 화물수송 분담률은 76.9%로 1960년에 비해 35.7% 포인트 높아졌다.

해운을 통한 화물수송은 인천, 부산,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하역능력이 개선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 1990년 철도의 화물 수송량을 추월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화물수송 분담률은 16.8%로 1960년에 비해 15.8%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항공을 통한 화물수송 분담률은 비싼 이용요금과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1990년 이후 0.1% 수준을 맴돌고 있다.

## 2007년 국내화물 수송량 7억t, 1960년의 29배

2007년 국내 화물 수송량은 7억1,522만t으로 1960년의 28.6배로 커졌다. 이는 지난 47년 동안 매해 7.4%씩, 수송량 기준으로는 1,469만t씩 증가한 것과 동일한 비율이다. 수송수단별로는 공로가 가장 많은 5억5,026만t으로 1960년의 53.8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해운 화물 수송량은 1억2,008만t으로 공로 다음으로 많은 화물을 수송했는데, 1960년과 비교하면 무려 484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철도의 화물

9)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해 화물을 수송하는 형태

수송량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07년 4,456만t을 수송하는데 그쳐 1960년의 3배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난방 연료로 쓰이던 연탄이 석유나 도시가스로 대체되면서 무연탄 수송이 급감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한편 항공의 화물 수송량은 32만t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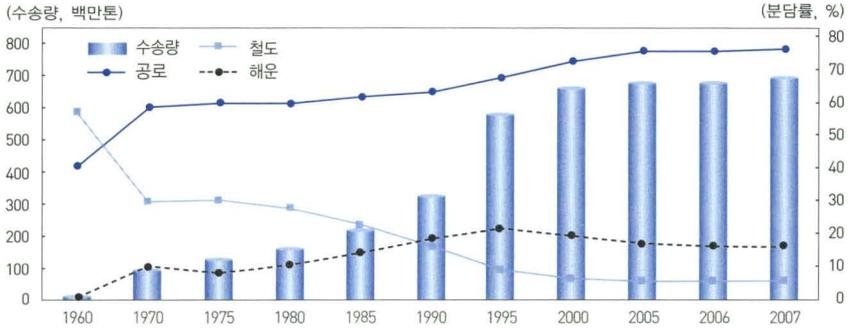
화물수송 물동량의 지난 47년간 연평균 증가량을 기준으로 보면 공로가 1,149만t, 해운이 255만t, 철도가 64만t씩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 화물수송은 1만t에도 못 미치는 7천t 증가에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항공 15.1%, 해운 14.1%, 공로 8.8%, 철도 2.4%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화물수송을 수송량에 거리를 곱해서 환산한 누적거리(백만톤-km) 개념의 분담률로 보면 단순 화물 수송량의 분담률과는 다르게 해운, 공로, 철도, 항공의 순서로 나타났다.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의 경우 1960년 89.5%에서 2000년<sup>10)</sup> 17.8%로 급락했다. 이와는 달리 해운은 1960년 0.6%에서 2000년 63.1%로 급상승했다. 공로의 분담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정체의 여파로 낮아져 2000년 18.8%로 나타났다. 항공의 분담률은 1998년 이후 0.3%를 유지하고 있다.

---

10) 수송량에 수송거리를 누적한 수송량은 2000년까지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2001년 이후는 자료가 없음

[그림 10-6] 국내 화물수송량 물동량 및 분담률 추이



[표 10-10] 국내 수송수단별 화물수송 분담률

(단위: 천톤, %, %p)

연도	수송수단별					분담률			
	물동량	철도	공로	해운	항공	철도	공로	해운	항공
1960	24,970	14,423	10,299	248	0	57.8	41.2	1.0	0.0
1970	104,219	31,551	61,775	10,888	5	30.3	59.3	10.4	0.0
1975	139,103	42,758	84,527	11,812	6	30.7	60.8	8.5	0.0
1980	172,777	49,008	104,526	19,230	13	28.4	60.5	11.1	0.0
1985	238,292	55,346	148,700	34,179	67	23.2	62.4	14.4	0.0
1990	337,145	57,922	215,125	63,915	183	17.2	63.8	19.0	0.1
1995	595,272	57,469	408,368	129,112	323	9.7	68.6	21.7	0.1
2000	676,315	45,240	496,174	134,467	434	6.7	73.4	19.9	0.1
2005	687,451	41,669	526,000	119,410	372	6.1	76.5	17.4	0.1
2006	690,779	43,341	529,278	117,805	355	6.3	76.6	17.0	0.1
2007	715,221	44,562	550,264	120,079	316	6.2	76.9	16.8	0.1
증감 '07/'06	3.5	2.8	4.0	1.9	-11.0	-0.1	0.3	-0.2	0.0
(률) '07/'60	2,764.3	209.0	5,242.9	-	-	-51.6	35.7	15.8	0.1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11] 국내 수송수단별 화물수송 분담률(무게-거리)

(단위: 백만톤-km, %, %p)

연도	수송수단별					분담률			
	물동량	철도	공로	해운	항공	철도	공로	해운	항공
1960	3,669	3,283	362	24	0	89.5	9.9	0.6	0.0
1970	13,383	7,709	1,441	4,232	1	57.6	10.8	31.6	0.0
1975	17,872	9,293	3,845	4,732	2	52.0	21.5	26.5	0.0
1980	23,185	10,798	4,920	7,463	5	46.6	21.2	32.2	0.0
1985	31,029	12,296	7,068	11,640	26	39.6	22.8	37.5	0.1
1990	44,187	13,663	9,325	21,127	72	30.9	21.1	47.8	0.2
1995	76,110	13,838	18,213	43,936	123	18.2	23.9	57.7	0.2
1999	53,149	10,072	9,227	33,699	151	18.9	17.4	63.4	0.3
2000	60,680	10,803	11,412	38,298	167	17.8	18.8	63.1	0.3
증감 '00/'99	14.2	7.3	23.7	13.6	-1.9	-1.1	1.4	-0.3	0.0
(률) '00/'60	1,553.9	229.1	3,052.5	-	-	-71.7	8.9	62.5	0.3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2007년 국제 항공여객 3,685만 명, 1966년의 281배

정부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편 결과 수출입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항공 수송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대형 제트여객기의 개발로 단시간 내 장거리·고속 운항이 가능해졌고, 항공 수송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항공 수요도 급증했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6년 13만1천명에 불과했던 국제항공 여객은 1973년 100만 명, 1976년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운송 사업 참여로 국제항공 여객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991년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년 만인 2001년 2천만 명을 넘어섰다. 다시 5년만인 2006년 3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7년 현재 3,68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1966년과 비교하면 41년 사이 281배로 커졌다.

1966년 1만2천명이었던 해운을 통한 국제여객 수송 인원도 1990년대 후반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2001년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4년만인 2005년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1966년의 213배 규모인 255만 명을 수송하였다. 바다길 수송은 전체 국제 여객의 6.5%로 주로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를 오고가는 여객이라서 수송 거리를 누적한 개념의 여객 분담률로 보면 0.9%로 더 낮아졌다.

국제항공 여객의 수송 지역도 변화가 많았다. 1998년 43%였던 일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이 1998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만 해도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동남아 지역은 관광객이 늘어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 국제여객은 항공, 국제화물은 해운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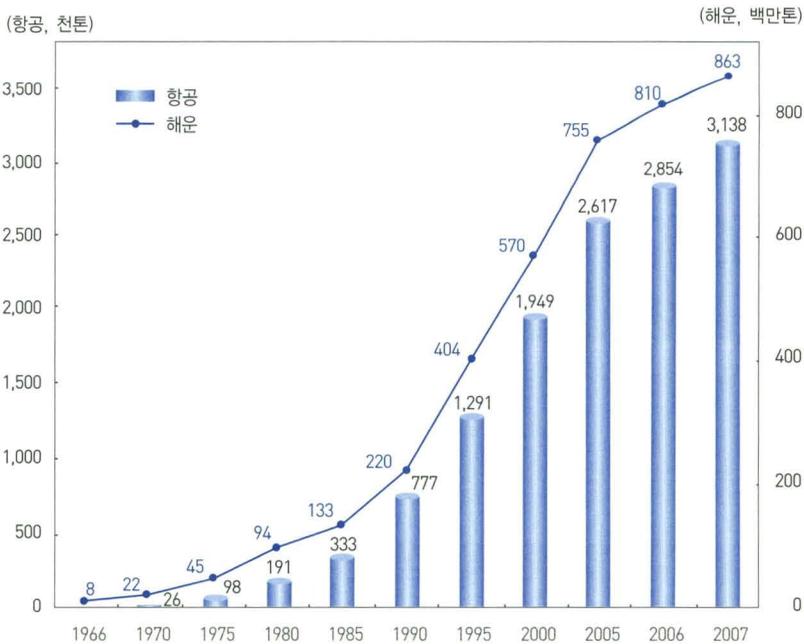
한국이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입 물동량도 크게 확대되었다. 1966년 844만2천t을 수송했던 화물 수송량은 1981년 1억t을 넘어섰다. 1990년 이후 5년마다 2억t씩 증가해 2007년에는 1966년의 103배에 이르는 8억6,566만t을

수송하였다. 1966년 이후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수송 수단별로 보면 국제화물 대부분을 해운이 담당하고 있다. 부피가 작으면서 가격이 비싼 제품은 항공으로, 중량이 나가거나 부피가 큰 제품은 선박으로 수송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항공의 수송 분담률은 1966년 0.1%에서 2007년 0.4%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제화물 항공 수송량은 1966년 7천t에서 2007년 313만8천t으로 늘어났다. 국제화물 해운 수송량은 같은 기간 843만5천t에서 2007년 8억6,252만t으로 증가하였다.

<표 10-12>와 <표 10-14>에서 보듯이 국제여객 수송은 항공이, 국제화물 수송은 해운이 그 대부분을 맡고 있다. 항공운송 산업은 대한항공과 1988년에 설립된 아시아나항공 등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국제 항공화물 수송 실적은 2004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다. 국제 해운화물 수송량은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다.

[그림 10-7] 국제화물 수송량 추이



〈표 10-12〉 국제여객 수송인원 및 분담률

(단위: 천명, 백만인-km, %, %p)

연 도	여객수	해운		항공		여객수 (인-km)	해운		항공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1966	143	12	8.4	131	91.6	158	6	3.8	152	96.2
1970	422	24	5.7	398	94.3	470	12	2.6	458	97.4
1980	2,962	41	1.4	2,922	98.6	10,520	9	0.1	10,511	99.9
1985	4,447	65	1.5	4,382	98.5	17,944	15	0.1	17,930	99.9
1990	9,862	236	2.4	9,626	97.6	36,490	84	0.2	36,405	99.8
1995	14,998	395	2.6	14,603	97.4	61,749	136	0.2	61,613	99.8
2000	20,451	999	4.9	19,452	95.1	76,314	398	0.5	75,916	99.5
2005	31,789	2,105	6.6	29,684	93.4	95,928	857	0.9	95,071	99.1
2006	35,092	2,385	6.8	32,707	93.2	105,132	992	0.9	104,140	99.1
2007	39,406	2,550	6.5	36,856	93.5	115,790	1,019	0.9	114,771	99.1
증감률['07/'06]	12.3	6.9	-0.3	12.7	0.3	10.1	2.7	0.0	10.2	0.0
연평균증가율['66~'07]	14.7	14.0	-1.9	14.7	1.9	17.5	13.3	-2.9	17.5	2.9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13〉 지역별 항공 국제여객 수송실적

(단위: 천명)

지 역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간별 증가		
								'98~'07	'98~'02	'03~'07
합 계	14,104	22,717	21,459	26,930	29,684	32,707	37,035	29,062	7,065	22,449
일 본	6,131	7,679	6,873	8,210	8,592	9,137	9,621	3,490	1,548	2,748
중 국	1,058	3,979	3,614	5,288	6,573	7,321	9,384	8,326	2,921	5,770
동남아	3,340	5,946	5,802	7,600	8,426	9,750	10,926	7,586	2,606	5,124
미 주	2,342	2,543	2,549	2,951	3,011	3,144	3,397	1,055	201	848
유 럽	650	1,188	1,235	1,396	1,490	1,160	1,892	1,242	538	657
기 타	583	1,382	1,386	1,485	1,592	1,745	1,815	1,232	799	429

자료: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표 10-14〉 국제화물 수송량 및 분담률

(단위: 천톤, %, %p)

연 도	수송량	해운		항공	
		분담률		분담률	
1966	8,442	8,435	99.9	7	0.1
1970	22,310	22,284	99.9	26	0.1
1980	94,226	94,035	99.8	191	0.2
1985	133,344	133,010	99.8	333	0.2
1990	220,588	219,781	99.6	777	0.4
1995	405,714	404,424	99.7	1,291	0.3
2000	571,548	569,599	99.7	1,949	0.3
2005	757,553	754,936	99.7	2,617	0.3
2006	812,684	809,830	99.6	2,854	0.4
2007	865,661	862,523	99.6	3,138	0.4
증감률['07/'06]	6.5	6.5	0.0	10.0	0.0
연평균증가율 ['66~'07]	12.0	11.9	-0.3	16.1	0.3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10-7 자동차 등록대수

10장 교통 및 정보통신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자동차 등록대수 1679만 대, 승용차가 4분의 3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8년 1만2,300대에 불과했으며, 그 중 승용차는 전체 차량의 16.4%인 2천대뿐이었다. 이마저 6·25전쟁을 겪으면서 8천여대로 줄었다. 1966년까지만 해도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더 많았는데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승용차가 늘기 시작하여 1967년부터 승용차 등록대수가 화물차를 앞서기 시작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승용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74년 기아자동차가 '브리사'를 생산하고, 1975년 현대자동차가 국산 첫 모델 '포니'를 만들면서 '마이카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

1970년 10만 대 수준이었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5년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200만 대를 돌파했다. 1990년 이후에는 매년 100만 대씩 늘어났다. 1990년 300만 대 수준에서 7년만인 1997년 1천만 대를 돌파해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열었다. 2008년 말 현재 등록대수는 1,679만4천대로 1966년(4만9천대)의 344배로 증가하였다. 이 중 승용차는 1,248만4천대로 1966년(1만8천대)의 713배로 늘어났다.

승용차가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948년 16.4%, 1966년 35.8%, 2008년 74.3%로 빠른 속도로 커졌다. 승용차 중 자가용은 1,202만6천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71.6%에 이른다. 15.3%였던 1966년과 비교하면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편 승합차는 2000년 143만 대에서 조금씩 줄어 2008년 109만7천대로 전체 차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는 2003년 300만 대를 넘어선 뒤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말 현재 등록대수는 316만 대로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이다.

## 자동차 가구당 1대 이상 보유, 자가용 승용차는 10가구당 7.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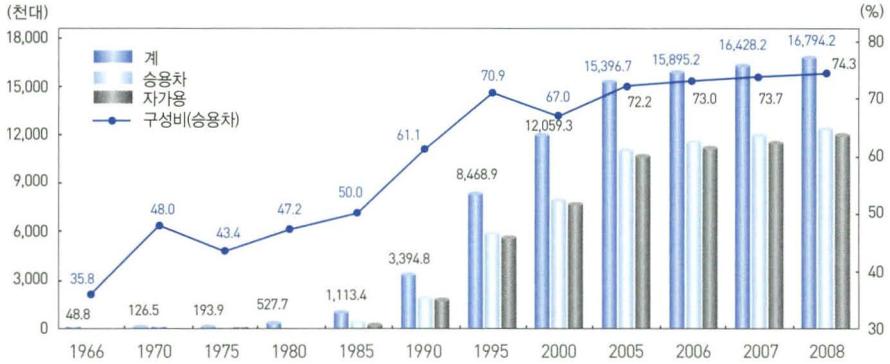
10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1966년에는 0.1대로 가구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1% 미만이었다. 1980년에도 0.7대로 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10%를

넘어서지 못했다. 1985년 10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대를 넘었다. 2008년에는 10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0.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1966년의 10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0.01대로 1천가구당 1대 꼴이었다. 100가구당 보유대수 기준으로도 1975년까지 1대를 넘지 못했다. 1980년에 가서야 1대를 넘어 100가구당 약 2가구가 자가용 승용차를 갖게 되었고, 1985년에는 100가구 중 약 5가구가 자가용 승용차를 갖게 되었다. 1990년 10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68로 드디어 1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00년에 5대를 넘었다. 2008년 말 현재 10가구당 보유대수는 7.21대로 전체 가구 중 72.1%가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인구수로 보면 1948년에는 1만 명이 넘었는데, 1966년에는 약 600명으로 줄었다. 1980년 100명 미만, 1992년 10명 미만으로 낮아진 뒤 2008년 현재 2.9명으로 세계 14위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966년에는 1대당 약 4천명 수준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1995년 한자리수인 7.8명을 기록했다. 2008년 현재 4.0명으로 경제 성장 및 자동차 생산 기반을 고려할 때, 성인 1인당 자가용 승용차 1대 보유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8]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및 승용차 구성비 추이



[표 10-15]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연도	계	승용차	구성비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년대비	
			승용차	자가용				증가	증가율
1948	12,294	2,012	16.4	-	-	-	-	-	-
1966	48,838	17,502	35.8	7,481	10,888	19,432	1,016	-	-
1970	126,506	60,677	48.0	28,687	15,831	48,901	1,097	20,368	19.2
1975	193,927	84,212	43.4	50,093	21,818	82,862	5,035	16,422	9.3
1980	527,729	249,102	47.2	178,513	42,463	226,940	9,224	33,351	6.7
1985	1,113,430	556,659	50.0	449,062	128,309	412,739	15,723	165,111	17.4
1990	3,394,803	2,074,922	61.1	1,902,067	383,738	924,647	11,496	734,591	27.6
1995	8,468,901	6,006,290	70.9	5,777,957	612,584	1,816,582	33,445	1,064,554	14.4
2000	12,059,276	8,083,926	67.0	7,798,452	1,427,221	2,510,992	37,137	895,548	8.0
2005	15,396,715	11,122,199	72.2	10,759,393	1,124,645	3,102,171	47,700	462,623	3.1
2006	15,895,234	11,606,971	73.0	11,219,436	1,105,636	3,133,201	49,426	498,519	3.2
2007	16,428,177	12,099,779	73.7	11,674,085	1,104,949	3,171,351	52,098	532,943	3.4
2008	16,794,219	12,483,809	74.3	12,025,715	1,096,698	3,160,338	53,374	366,042	2.2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16] 가구당 자동차 대수 및 자동차 1대당 인구수 추이

(단위 : 대, 명)

연도	10가구당 자동차 대수			1대당 인구수		연도	10가구당 자동차 대수			1대당 인구수	
	자동차	승용차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승용차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1966	0.10	0.03	0.01	597.1	3,897.8	1995	6.54	4.64	4.46	5.3	7.8
1970	0.23	0.11	0.05	254.9	1,123.9	2000	8.43	5.65	5.45	3.9	6.0
1975	0.29	0.12	0.07	181.9	704.3	2005	9.69	7.00	6.77	3.1	4.5
1980	0.66	0.31	0.22	72.2	213.6	2006	9.84	7.18	6.94	3.0	4.3
1985	1.16	0.58	0.47	36.3	90.0	2007	10.01	7.37	7.11	2.9	4.2
1990	2.99	1.83	1.68	12.6	22.5	2008	10.07	7.49	7.21	2.9	4.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항만하역능력 7억6천만t, 1961년의 84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행과 함께 경제 구조가 수출주도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해운 항만 부문도 발전하였다. 수출품 등 화물을 제때 수송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대하였다. 3면이 바다인데다 유일한 육로는 북한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교역은 해운이나 항공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과 수송능력의 한계 때문에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수송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61년 902만t이었던 항만 하역능력은 1970년대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항만의 집중 개발에 힘입어 늘어났다. 삼일, 옥포, 미포, 창원, 온산, 동해 등 6대 공업항이 건설됨으로써 1980년 하역능력이 8,226만t으로 증가한 데 이어 1985년에는 1억t을 넘어섰다.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2003년 5억t을 돌파하였고, 2008년 현재 7억5,862만t의 하역능력을 갖췄다. 이를 1961년과 비교하면 84배 규모다. 이는 1961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47년 동안 해마다 1,595만t씩 증가한 것과 같다. 증가율로는 매년 빠짐없이 9.9%씩 증가했을 때 가능한 수준이다.

〈표 10-17〉에서 보듯이 항만하역능력의 대부분은 무역항 몫이다. 무역항의 비중은 1990년 97.7%에서 2008년 99.0%로 높아졌다. 1985년에 비교할 때 등록 선박 수는 1.9배 증가한 데 비해 등록 선박 톤수는 2.3배 증가하였다. 이는 물동량 증가와 함께 이를 수송하는 선박도 대형화하였음을 보여준다.

## 수출입 물동량이 전체의 78.5%

2008년 말 현재 국내에는 28개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이 있다. 이들 항만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sup>1)</sup>, 환적 물동량<sup>2)</sup>, 연안 물동량<sup>3)</sup>으로 나뉜다. 전체 물동량은 2008년 현재 11억 3,909만t으로 2000년에 비해 36.7% 증가하였

1) 외국과 수출입한 물동량

2)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에 하역한 후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다른 배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물동량

3) 국내항간에 이동한 물동량

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4.2% 증가했다.

2008년 현재 전체의 3분의 2가 수출입 물동량이며, 환적 물동량까지 포함하면 수출입 관련 물동량이 78.5%에 이른다. 연안 물동량은 21.5%인데,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환적 물동량의 비중은 12%대인데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의 물동량이 2억 1,790만t으로 세계 10위, 광양이 2억 240만t으로 14위, 울산 1억 6,110만t으로 21위, 인천 1억 2,960만t으로 25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0위권 항만이 네 곳이다<sup>14)</sup>. 정부는 서해, 남해의 주요 항구를 동북아 물류 허브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인데,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6개 항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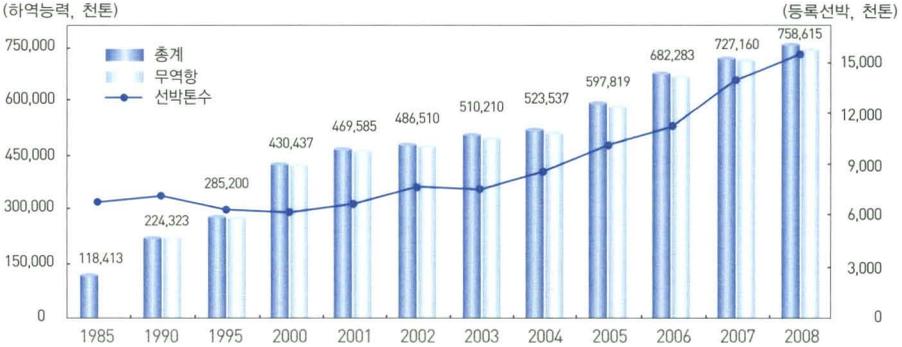
### 전국 무역항의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은 91.0%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하역능력은 1997년 2억9,500만t에서 2008년 7억 2,800만t으로 확대되었다. 수출입 물량 증가로 연간 물동량도 늘어 1997년 4억 6,200만t에서 2008년 8억100만t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확보율도 63.8%에서 91.0%로 개선됐다. 항만시설 확보율은 1999년 이후 2003년 71.9%까지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항만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6년 부두하역능력 조정과 신 항만의 시설 확충 등에 힘입어 항만시설 확보율이 90.3%로 대폭 증가했다. 무역항별로는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의 시설 부족현상이 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 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간 물동량의 90%를 넘는 하역능력을 갖추게 됐다.

---

14) ISL Port Data Base, Bremen 2007, 2006년 기준임

[그림 10-9] 항만하역능력 및 등록선박 톤수 추이



[표 10-17] 항만하역능력 및 등록선박 현황 추이

(단위: 천톤, %)

연도	항만하역능력					등록선박		
	계	전년비	무역항	구성비	연안항	선박톤수	선박톤수	전년비
1980	82,261	9.7	-	-	-	3,897	-	-
1985	118,413	5.0	-	-	-	4,174	6,662	-
1990	224,323	18.1	219,054	97.7	5,269	4,711	7,115	2.2
1995	285,200	3.3	278,675	97.7	6,525	4,968	6,332	-2.5
2000	430,437	3.1	422,642	98.2	7,795	6,494	6,153	1.3
2005	597,819	14.2	588,622	98.5	9,197	7,119	10,068	18.3
2006	682,283	14.1	672,299	98.5	9,984	7,292	11,128	10.5
2007	727,160	6.6	719,987	99.0	7,173	7,484	13,927	25.2
2008	758,615	4.3	751,097	99.0	7,518	8,088	15,454	11.0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표 10-18] 항만 물동량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천톤[R/T],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833,579	886,373	910,867	951,134	956,150	984,534	1,036,843	1,093,480	1,139,087
(증감률)	(-)	(6.3)	(2.8)	(4.4)	(0.5)	(3.0)	(5.3)	(5.5)	(4.2)
수출입계	569,599	554,261	565,226	580,604	625,609	642,500	683,748	722,831	752,920
(증감률)	(-)	(-2.7)	(2.0)	(2.7)	(7.8)	(2.7)	(6.4)	(5.7)	(4.2)
환적계	0	56,649	70,320	87,004	107,768	112,436	126,082	139,692	141,773
(증감률)	(-)	(-)	(24.1)	(23.7)	(23.9)	(4.3)	(12.1)	(10.8)	(1.5)
연안	263,980	275,463	275,321	283,526	222,773	229,598	227,014	230,956	244,394

자료: 국토해양부(Port-MIS: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표 10-19]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확보율 추이

(단위: 백만톤,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하역능력	409	410	423	462	478	501	514	641	672	728
물동량	473	517	578	623	665	662	676	710	760	801
시설확보율	86.5	79.3	73.1	74.1	71.9	75.8	76.1	90.3	88.6	91.0

주: 시설확보율(%) = (하역능력/물동량)×100, 하역능력은 전년도 능력을 적용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호

## 정보통신기기와 SW·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체 급증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통한다. 1990년 3,579개였던 정보통신 사업체는 5년만인 1995년 두 배로 늘었으며, 2005년에는 네 배로 증가했다<sup>15)</sup>. 2007년 현재 1만 4,957개로 1990년과 비교하면 4.2배 규모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가 2000년 4,153개에서 2007년 6,358개로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4%에서 42.5%로 높아졌다. 소프트웨어(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2000년 4,025개에서 2007년 5,620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업은 방송서비스업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2000년 5,037개에서 2007년 2,979개로 40.9%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는 1990년 약 12만 명에서 2005년 70만 명 수준<sup>16)</sup>으로 증가했다. 2007년 현재 71만7천명으로 1990년의 5.9배 규모다. 1990년 이후 매년 3만5천명씩 늘어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업종별 종사자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이 45만6천명(63.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3만4천명(18.6%), 정보통신 서비스업 12만8천명(17.9%)이다.

## 2008년 생산액 288조원, 1990년의 18.8배

2008년 정보통신산업 부문 생산액은 288조1,843억 원<sup>17)</sup>으로 1990년(15조2,990억 원)에 비해 18.8배 규모로 커져 지난 18년 동안 연평균 17.7%의 성장세를 보였다<sup>18)</sup>. 증가액이 273조 원으로 18년 동안 연평균 15조1,600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

- 
- 15) 2000년부터 정보통신기기의 작성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도별로 1,700개~5천개 사업체가 적어진 것을 감안해야 함
  - 16) 2000년부터 정보통신기기의 작성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도별로 1,400명~16,800명의 종사자수가 적어진 것을 감안해야 함
  - 17) 잠정치로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8) 2000년부터 정보통신기기의 작성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도별로 약 9천억원~2조 4천억원의 생산액이 적어진 것을 감안해야 함

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컸다. 특히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1990년의 77.4배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액을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정보통신서비스업이 2008년 IT산업 전체 생산액의 20.2%인 58조1,584억 원을 생산했다. 1990년에 비해서는 약 53조원이 늘었는데, 이동통신과 인터넷포털 및 콘텐츠서비스가 생산 증가를 주도했다. 이를 반영하여 1990년 1.2%에 불과했던 총인구 대비 이동통신 가입률이 2007년 90%를 넘어섰고, 2008년 현재 94.8%에 이르렀다.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2008년 생산액은 전체의 71.4%인 205조 6,464억 원으로 1990년에 비해서 약 195조원이 늘었다. 2000년 생산액이 100조원을 달성한 이후 8년 만에 200조원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휴대폰, DTV,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등에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주효하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1996년 5,30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무려 100배 이상으로 늘어 53조2,851억 원의 생산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는 2008년 141조4,634억 원으로 정보통신기기 생산액의 68.8%를 차지했는데, 1990년(88.3%) 이후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08년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무역수지를 보면, 1,262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고, 680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5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2008년 생산액은 전체의 8.5%인 24조3,795억 원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18년 동안 연평균 27.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컨설팅 및 기획·시스템통합부문을 중심으로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가장 활발하여 SW 전체 시장을 선도했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말 이후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0-20〉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및 상시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천명)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합 계	3,579	7,226	13,215	14,088	14,738	14,957	121	395	539	701	728	717
정보통신서비스	808	1,858	5,037	2,877	2,985	2,979	33	108	98	120	128	128
기간통신	4	14	32	27	46	49	-	67	57	44	43	41
별정통신	-	-	62	162	202	215	-	-	3	6	7	7
부가통신	33	875	3,923	2,165	2,242	2,237	21	22	14	43	51	52
방송서비스	771	969	1,020	523	495	478	12	19	24	27	27	29
정보통신기기	2,466	3,917	4,153	5,901	6,196	6,358	-	256	351	460	472	456
통신기기	218	632	1,040	1,607	1,741	1,811	-	61	69	117	116	118
정보기기	201	413	543	659	682	675	-	41	60	40	39	29
방송기기	127	367	666	816	801	802	-	29	46	41	40	37
부품	1,920	2,505	1,904	2,819	2,972	3,070	-	125	177	263	277	272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305	1,451	4,025	5,310	5,557	5,620	88	32	90	120	128	134
패키지 S/W	239	943	1,574	2,080	2,035	1,980	39	17	25	29	30	32
컴퓨터관련서비스	66	508	2,154	2,678	2,966	3,112	49	15	61	82	88	92
디지털콘텐츠개발·제작	-	-	297	552	556	528	-	-	4	9	9	10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표 10-21〉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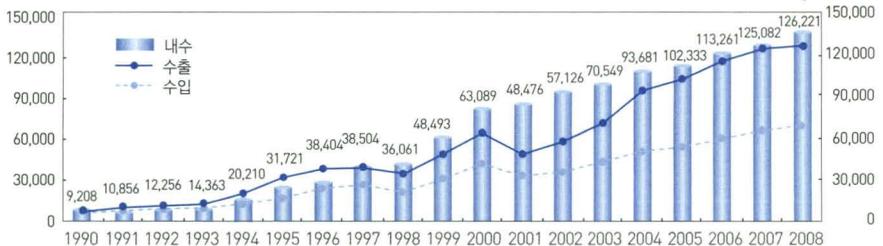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sup>9</sup>
합 계	152,990	514,526	1,522,907	2,356,430	2,532,072	2,676,721	2,881,843
정보통신서비스	43,440	111,518	315,980	490,831	518,655	551,589	581,584
기간통신	36,248	80,280	234,569	317,767	329,617	340,253	355,660
별정통신	-	-	8,267	18,872	19,891	22,616	23,463
부가통신	299	3,683	24,414	67,834	77,930	90,168	104,169
방송서비스	6,893	27,555	48,730	86,358	91,215	98,552	98,292
정보통신기기	106,400	386,256	1,099,611	1,664,772	1,793,737	1,894,564	2,056,464
통신기기	16,792	46,266	263,686	472,859	499,325	556,404	653,578
정보기기	35,156	80,804	276,744	154,104	142,453	112,240	106,626
방송기기	1,593	13,811	121,930	142,201	153,201	136,460	143,393
부품	52,859	245,375	437,251	895,608	998,758	1,089,460	1,152,867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3,150	16,752	107,316	200,827	219,680	230,568	243,795
패키지 S/W	1,418	6,912	20,173	31,805	32,148	33,284	33,428
컴퓨터관련서비스	1,732	9,476	82,448	160,033	178,468	188,039	201,150
디지털콘텐츠개발·제작	-	364	4,695	8,990	9,064	9,244	9,218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호

[그림 10-10] 정보통신기기 내수, 수출 및 수입액 추이

(내수, 십억원)

(수출/수입, 백만달러)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구 100명당 가입자 31.8명, 세계 7위

인터넷은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1990년대 이전에는 문자정보 위주로 운영되었다. 1990년대에 월드와이드웹(www) 방식이 일반화하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대중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94년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접속 불량과 느린 속도 때문에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이후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검색 및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고 통신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과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98년 6월이다. 그 이듬해 27만8천명의 가입자로 출발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2000년 387만 명으로 늘었다. 상용 서비스 4년만인 2002년 가입자는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에는 2000년의 4배 규모인 1,54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0명당 가입자는 1999년 0.6명, 2000년 8.2명을 거쳐 2008년 31.8명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말 기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덴마크(35.1), 네덜란드(34.8), 아이슬란드(32.2), 노르웨이(31.2), 스위스(31.0), 핀란드(30.7)에 이어 7위다<sup>19)</sup>. 한편 광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2.2명(2008년 6월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가 실시되는 16개 국가를 놓고 볼 때 OECD 회원국 중 1위다.<sup>20)</sup>

## 인터넷 이용자 3천만명 넘어, 인구 100명당 77명 이용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sup>21)</sup>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1994년 이후 10년만인 2004년 3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초고속인터넷 가입과 함께 인터넷 이용자도 크게 증가하여 2008년 현재 3,536만명으로 2000년(1,904만 명)과 비교할 때 8년 사이 1.9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50%를 밑도는 44.7% 수준이었던 인터넷

19) OECD, Broadband, 2007년 12월 기준

20) 연합뉴스, 2008. 10. 26.

21) 용어 정의를 만 6세 이상 인구 중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2000년~2003년)에서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2004년~현재)로 변경

이용률이 2008년 77.1%로 높아졌다. 이를 외국과 비교하면 노르웨이(85.0%), 네덜란드(84.0%), 덴마크(81.0%), 스웨덴(80.0%), 핀란드(79.0%), 스위스(77.0%)에 이어 7위(2007년 말 기준)다.

가구 단위 인터넷 이용률이 개인 단위 인터넷 이용률보다 높는데 그 추세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00년 49.8%에서 2001년 63.2%로 높아졌으며, 2008년 말 현재 80.6%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 컴퓨터 보유율 가구 80.9%, 사업체 42.7%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을 2000년 71.0%에서 2008년 80.9%로 높아졌다.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으로써 컴퓨터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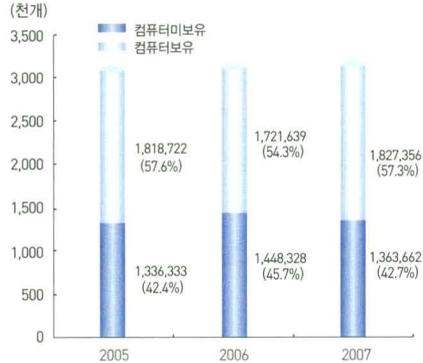
사업체 단위의 컴퓨터 보급은 자료의 한계 때문에 2005년부터 비교할 수 있는데 가구와는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컴퓨터를 보유한 사업체는 2005년 133만 6,333개로 전체 사업체의 42.4%였는데, 2007년 말 기준으로 136만 3,662개, 42.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전체 사업체 중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은 2005년 39.8%인 125만 개에서 2007년 40.9%인 131만 개로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고유 기호인 .kr을 주소에 포함한 도메인은 1993년 61개에 불과했던 것이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 20만 개를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 현재 100만개를 돌파한 100만 1,206개가 등록되어 있다.

[그림 10-1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추이



[그림 10-12] 컴퓨터 보유사업체 현황



<표 10-22>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가입자수	278	3,870	7,806	10,405	11,178	11,921	12,190	14,043	14,710	15,475
(전년비)	[-]	[1,292.1]	[101.7]	[33.3]	[7.4]	[6.6]	[2.3]	[15.2]	[4.7]	[5.2]
100명당 가입자수	0.6	8.2	16.5	21.8	23.3	24.7	25.4	29.1	30.4	31.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e-나라지표

<표 10-23>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이용자수	1,904	2,438	2,627	2,922	3,168	3,301	3,412	3,482	3,536
(전년비)	[-]	[28.0]	[7.8]	[11.2]	[8.4]	[4.2]	[3.4]	[2.1]	[1.6]
인터넷이용률	44.7	56.6	59.4	65.5	70.2	72.8	74.8	76.3	77.1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호

<표 10-24>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구 인터넷 보급률	49.8	63.2	70.2	68.8	72.2	74.8	78.4	79.8	80.6
가구 컴퓨터 보유율	71.0	76.9	78.6	-	77.8	78.9	79.6	80.4	80.9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호

<표 10-25> KR 도메인 등록건수 추이

(단위: 개)

연도	KR도메인수	증감	연도	KR도메인수	증감	연도	KR도메인수	증감
1993	61	61	1999	206,973	180,807	2005	642,770	51,970
1994	192	129	2000	517,354	310,381	2006	705,775	63,005
1995	436	244	2001	457,450	-59,904	2007	930,485	224,710
1996	2,664	2,228	2002	515,200	57,750	2008	1,001,206	70,721
1997	8,045	5,381	2003	611,548	96,348	2009	1,004,115	2,909
1998	26,166	18,121	2004	590,800	-20,748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백서」 각 호

## 우편물 2002년 55억 통, 사상 최대 기록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편지가 가장 친숙한 의사전달 수단이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을 비롯하여 위문편지, 편팔, 연애편지, 안부편지 등 희로애락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도맡았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변화에 따라 이메일, 휴대전화 등이 이를 대체하였고, 우편물의 주된 기능은 광고, 안내장 등 사업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1950년 4,210만 통에 불과했던 우편물은 1970년 약 13.5배인 5억 7천만 통으로 늘어났다. 우편물의 증가에 따라 우체국은 1,842개, 우체통 설치도 15,948개로 늘어났다. 이는 1950년의 약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우체통은 그 뒤에도 계속 늘어 1993년 57,599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체국은 1987년 3천개소를 넘어섰으며, 2002년 3,709개소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우편물은 1970년 이후 10년마다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개인 우편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업용 우편물이 급증한 결과 2002년에는 사상 최대인 55억 3,700만 통을 기록했다. 2008년 현재 1950년의 약 116배 규모인 48억 8,400만 통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2007년에 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5,800만 통(-1.2%) 감소하였다. 우편물 중 약 3분의 2는 기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업용 우편물이며, 앞으로도 경제규모 확대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업용 우편물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 우체통은 1993년 57,599개 이후 감소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지자 개인 우편물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체통 수도 199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4만개 이하, 2005년 3만개 이하로 줄었다. 2008년 말 현재 23,76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1970년대 말과 비슷한 규모다.

우체국 또한 2002년 이후 개인 우편물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말 현재 3,658개로 우체국이 가장 많았던 2002년에 비해서는 51개(-1.4%) 줄어든 것이다. 우체통이 대폭 줄었음에도 우체국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사업용 우편물이 늘어나면서 총 우편물은 2002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전용 우편물함인 사서함은 1950년 약 3천개에 불과했던 것이 1970년 1만 개, 1978년 2만 개, 1987년 3만 개를 각각 넘어섰다. 1996년 3만 5,734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 현재 2만 7,657개가 이용되고 있다.

우체국 대비 인구수를 보면 1949년에는 우체국당 인구가 3만 2,199명이었는데 1960년에는 3만 6,197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1961년부터 우체국이 계속 증설되자 1999년 1만 2,730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후 우체국 증설이 정체 되고, 2003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한 탓으로 우체국 당 인구수는 다시 늘어 2008년 현재 1만 3,28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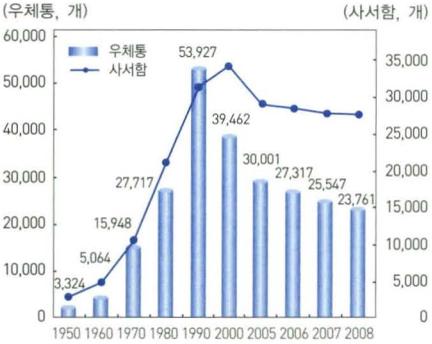
### 1인당 우편물 2002년 116.3통으로 최대 기록한 뒤 감소

1인당 우편물은 1949년 3.4통이었던 것이 1970년 그 5배인 17.7통으로 늘어났다. 2001년 100통을 넘어선 데 이어 2002년 사상 최대인 116.3통을 기록했다. 그 뒤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8년 현재 100.5통 수준이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일본(193.3통), 호주(206.3통)의 절반에 불과하고, 독일(261.5통), 프랑스(279.0통), 영국(335.0통), 미국(664.1통) 등<sup>22)</sup>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2) 2007년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2008년 우편통계편람, 2009. 5월 발행

[그림 10-13] 우체통 및 사서함 추이



[그림 10-14] 우편물 접수 추이



<표 10-26> 우체국 및 우편물 접수현황 추이

(단위 : 개, 백만통, %)

연도	우체국		우체통		사서함		우편물 접수		일반 (국내)	소포 (국내)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1950	627	0.0	3,324	32.2	3,200	2.7	42	-37.9	41.0	-
1960	691	3.8	5,064	21.4	4,902	4.2	167	22.8	157.0	0.8
1970	1,842	1.1	15,948	-2.5	10,648	11.7	570	3.1	540.0	3.8
1980	2,085	1.9	27,717	9.2	21,371	1.3	1,075	5.5	1,004.0	7.0
1990	3,246	0.9	53,927	3.6	31,585	1.4	2,358	11.0	2,235.0	13.8
2000	3,688	0.7	39,462	-3.5	34,205	0.5	4,517	18.2	4,257.8	29.9
2005	3,596	-2.6	30,001	-10.6	29,301	-2.3	4,777	-4.0	4,441.8	75.2
2006	3,583	-0.4	27,317	-8.9	28,662	-2.2	4,842	1.4	4,476.7	94.7
2007	3,669	2.4	25,547	-6.5	27,968	-2.4	4,942	2.1	4,548.4	111.0
2008	3,658	-0.3	23,761	-7.0	27,657	-1.1	4,884	-1.2	4,450.6	129.4

자료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한국우정백서 및 연차보고서」 각 호

<표 10-27> 우체국 및 우편물 접수현황 추이

(단위 : 천명, 명, 통)

연도	추계인구	우체국당 인구수	우체통당 인구수	1인당 우편 이용물량
1949	20,189	32,199	8,027	3.4
1960	25,012	36,197	4,939	6.7
1970	32,241	17,503	2,022	17.7
1980	38,124	18,285	1,375	28.2
1990	42,869	13,207	795	55.0
2000	47,008	12,746	1,191	96.1
2005	48,138	13,387	1,605	99.2
2006	48,297	13,480	1,768	100.3
2007	48,456	13,207	1,897	102.0
2008	48,607	13,288	2,046	100.5

주 : 1949년의 추계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임

자료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한국우정백서 및 연차보고서」 각 호

# 11장

## 에너지

- 11-1 원유 도입
- 11-2 석유제품 수출입
- 11-3 에너지수급
- 11-4 1차 에너지 소비
- 11-5 발전설비 및 발전량
- 11-6 전력 소비 및 도시가스 공급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2007년부터 원유 도입량 감소

2008년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은 8억6,490만 배럴로 1980년(1억 8,290만 배럴)의 4.7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초 전년 대비 증가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원유 도입량이 급증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 직후로 경기가 침체되어 석유 수요가 줄고 일부 정유사의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원유 도입량이 전년보다 6.2% 줄기도 하였다. 2000년 8억9,39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07년부터 감소했다. 원유 도입량은 2007년에 전년 대비 1.8% 줄었고, 2008년에도 0.9% 감소했다.

2007년 원유 도입액은 592억7백만 달러로 2006년 대비 9.1% 증가하였다. 2007년 원유 도입액은 1980년의 11.9배로 원유 도입량(4.8배)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석유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평균 원유도입 단가는 1980년 배럴당 29.41달러에서 2007년 67.86달러로 2.3배 상승하였다. 1980년 제2석유파동으로 원유도입 가격이 73.0% 상승했으며, 2005년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 2008년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95.82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 원유 중동 의존도 86.3%

원유는 중동을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온다. 중동산 원유 도입량은 1981년 1억6,590만 배럴이던 것이 2008년 7억4,650만 배럴로 4.5배 증가하였다. 중동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수입하며, 도입량은 2008년 1억850만 배럴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량은 2008년 990만 배럴로 전체의 1.1%에 불과한데, 2000년 7.6%에 달하던 것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선 1981년 1,030만 배럴(5.6%), 2000년에는 2,660만 배럴(3.0%)을 수입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원유도입 실적이 거의 없다.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도입 비중은 1981년 90.7%를 기록했는데, 1980년대 중반 정부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985년에는 57.0%까지 내려갔다. 이후 중동 산유국들이 증산 경쟁을 벌이면서 물동량이 늘어나 중동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고, 1990년 74.3%로 상승하였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0년 중동 의존도는 76.8%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86.3%로 더 높아졌다.

## 1일 석유정제 능력 세계 6위

국내 정유사의 연간 원유 처리량은 1980년 1억7,990만 배럴에서 2008년 8억 6,570만 배럴로 높아졌다. 원유 도입량이 많았던 2000년에 8억9,030만 배럴까지 처리하다가 2006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였다.

원유처리 가동률은 2007년 85.9%로 2006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정제시설은 국내 석유소비 대비 약 31%(2007년 기준)의 시설 여유가 있다. 2007년 말 정부의 석유 비축량은 1억5,400만 배럴로 135일분이며 전년도 수요량의 20%에 해당한다.

2008년의 1일 정제능력은 285만5천 BPSD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매일 27.6ℓ (1.5ℓ 패트병 18병)씩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전 세계 석유정제 능력의 3.1%에 해당한다.

일일 정제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9.9%를, 2위는 중국으로 8.7%, 3위는 러시아로 세계 석유 정제능력의 6.3%를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5.3%로 4위, 5위는 인도로 3.4%, 그 다음 6위가 한국(3.1%)이다.

〈표 11-1〉 원유도입 물량 및 도입액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원유도입량(백만Bbl)	182.9	308.4	893.9	843.2	888.8	872.5	864.9
증감률(%)	-1.4	4.0	2.3	2.1	5.4	-1.8	-0.9
원유도입액(FOB, 백만\$)	4,955	6,164	24,174	41,266	54,289	59,207	-
증감률(%)	57.1	33.4	71.5	44.9	31.6	9.1	-
원유도입단가(\$/Bbl)	29.41	19.99	27.04	48.94	61.08	67.86	95.82
증감률(%)	73.0	26.5	67.6	41.9	24.8	11.1	41.2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표 11-2〉 지역별 원유도입

구 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원유도입량(백만Bbl)	182.8	308.4	893.9	843.2	888.8	872.5	864.9
중동	165.9	229.0	686.9	689.4	730.8	704.0	746.5
아시아	5.1	62.5	112.7	111.9	110.3	131.2	108.5
아프리카	1.5	9.7	67.7	34.4	42.8	35.6	9.9
중남미	10.3	7.1	26.6	7.5	4.8	1.7	-
중동의존도(%)	90.7	74.3	76.8	81.6	82.2	80.7	86.3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그림 11-1〉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표 11-3〉 원유처리 현황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원유처리량(백만Bbl)	179.9	307.3	890.3	852.4	878.4	882.1	865.7
1일 정제능력(천BPSD <sup>1)</sup> )	640	840	2,438	2,735	2,772	2,812	2,855
가동률(%)	77.0	100.2	99.8	85.4	86.8	85.9	82.8

주 : 1) BPSD [Barrel per Stream Day] 연간 총 처리물량을 연간 설치 가동일수로 나눈 값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 휘발유 경유 등유 수출 계속 증가세

석유제품 수출은 1981년 308만 배럴에서 2008년 3억3,205만 배럴로 108배 증가했다. 1990년과 비교하면 12배의 수출 규모를 보일 정도로 석유제품 생산능력이 커졌다. 석유제품 수출은 대부분 휘발유, 경유, 병커C유, 항공유 등 에너지유로 2008년 기준 83.3%의 비중을 차지했고, 나프타(납사), 아스팔트 등 비에너지유가 16.6%, LPG 수출량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에너지유는 2008년 2억7,667만 배럴을 수출하였다. 에너지유의 수출 비중을 보면 항공유가 27.8%로 가장 많고, 병커C유 12.8%, 휘발유 11.2%의 순서다. 2000년 이전에는 등유, 경유, 병커C유의 비중이 높았는데 2005년 이후 항공유와 휘발유의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에너지유 수출은 2008년 5,502만 배럴로 1981년(143만 배럴)에 비해 38배 증가하였다. 1981년만 해도 비에너지유가 전체 에너지 수출의 46.4%를 차지했는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16%대로 낮아졌다. 비에너지유 수출 중 41.6%가 나프타인데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아스팔트는 28.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PG 수출은 2008년 37만 배럴로 전체 석유제품 수출의 0.1%로 미미하다. LPG 수출은 프로판과 부탄가스의 비중이 약 7 대 3이다.

## 석유제품 수입의 68.3%는 나프타

석유제품 수입량은 1981년 1,316만 배럴에서 2008년 2억2,493만 배럴로 17배 증가했다. 2000년 이후 한동안 수입이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기준 1억5,369만 배럴이 수입된 나프타가 전체 석유제품 수입의 68.3%를 차지했으며, LPG가 28.0%, 에너지유는 3.6%로 적었다.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35~220℃ 범위에서 끓어 나오는 탄화수소의 혼합체인 나프타(naphtha)는 석유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다. 나프타를 분해할 때 생기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탄·부틸렌 유분·방향족 등에서 많은 석유화학 반응을 거쳐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섬유 등을 제조한다. 나프타는 또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

질소비료의 원료가 되며, 도시가스 제조 원료로 이용된다.

에너지유 수입 비중은 1981년 전체 석유제품 수입의 81.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는데, 2000년 이후 국내 정유사의 에너지유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그 비중이 3.6%로 낮아졌다. 수입 유종도 벙커C유가 가장 많고 경유와 등유는 비슷한 수준이며 휘발유는 아주 적다.

### 석유제품 소비 산업 부분이 54%

석유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량은 2007년 기준 7억 9,455만 배럴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전남, 울산, 충남, 경기 지역의 소비가 많다. 여천 공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선 전남 지역이 2007년 기준 1억 5,260만 배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울산으로 1억 4,904만 배럴을 소비했다.

각종 석유화학공업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3억 1,686만 배럴)는 여천공단이 위치한 전남 지역에서 대량 활용되고, 공장에서 각종 기계를 가동하거나 화물 자동차 연료 등으로 쓰이는 경유(1억 4,533만 배럴) 소비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경남, 경북, 서울, 전남의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벙커C유(8,903만 배럴)는 울산과 경기 지역에서, LPG(9,714만 배럴)는 경기, 서울, 울산 지역의 순서로 많이 소비되었다.

부분별 석유제품 소비량을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산업 부문에서 54.0%인 4억 2,953만 배럴을 소화했다. 나프타가 주종으로 그 대부분이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데 원료로 쓰였다. 수송 부문에 쓰인 것이 전체의 33.8%인데 주로 육상 운수업에서 경유 소비가 많았다. 이밖에 가정 부문 4.5%, 상업 부문은 2.9%를 차지하였다.

〈표 11-4〉 석유제품 수출

(단위 : 천배럴)

구 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수출 총계	3,084	27,184	306,293	262,647	289,070	292,072	332,052	
에너지유	계	1,654	22,670	241,250	215,458	236,876	234,609	276,666
	휘발유	-	30	14,869	14,515	19,928	15,336	30,974
	등유	704	97	19,874	4,455	4,763	1,250	2,441
	경유	950	10,453	96,675	85,890	91,520	102,974	13,094
	B-C유	-	12,091	72,157	56,065	58,266	42,699	35,446
	항공유	-	-	37,675	54,533	62,309	72,350	76,869
LPG	계	-	1,098	8,131	715	762	533	372
	프로판	-	593	5,287	295	393	329	258
	부탄	-	505	2,844	419	369	204	115
비에너지유	계	1,430	3,416	56,912	46,475	51,432	56,930	55,015
	납사	1,368	3,325	48,849	25,793	27,991	29,423	22,902
	아스팔트	44	29	3,184	9,181	10,250	13,009	15,58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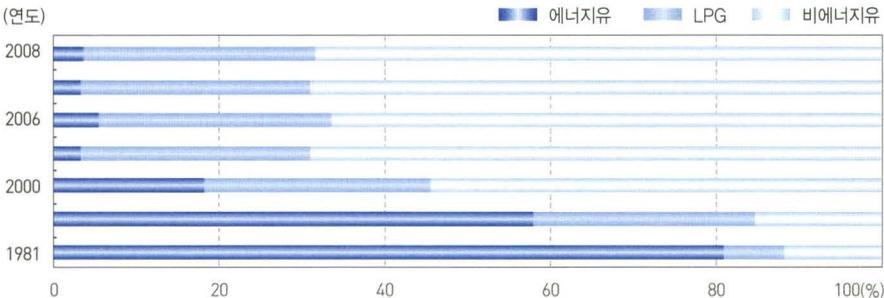
〈표 11-5〉 석유제품 수입

(단위 : 천배럴)

구 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수출 총계	13,161	101,248	204,301	179,354	191,560	209,130	224,926	
에너지유	계	10,670	58,714	37,231	6,372	10,581	7,191	8,193
	휘발유	-	-	740	78	-	-	-
	등유	-	17,465	6,870	360	259	514	379
	경유	132	13,586	2,818	1,912	1,582	765	369
	B-C유	10,538	27,658	25,107	4,021	8,737	5,910	7,193
	항공유	-	6	1,696	1	1	2	2
LPG	계	932	27,124	55,763	49,689	54,003	58,172	63,041
	프로판	874	22,127	40,209	32,469	32,062	32,691	31,074
	부탄	58	4,998	15,554	17,220	21,941	25,481	31,967
비에너지유	계	1,559	15,409	111,307	123,293	126,976	143,766	153,692
	납사	1,559	15,409	111,283	123,292	126,964	143,766	153,69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그림 11-2] 석유제품 수입 비중



## 에너지 수입액의 60.7%는 원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대표적인 수입 의존 품목이다. 에너지 수입에 들어가는 돈은 2008년 기준 1,415억 달러에 이른다. 1981년 78억 달러에 불과했던 에너지 수입액이 1990년 약 109억 달러, 2000년 376억 달러였으며, 2005년 66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에너지 수입액은 2003년 이후 지속된 고유가의 여파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석탄, 수력과 같은 에너지원이 국내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환경 상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08년 기준 원유 수입액은 859억 달러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의 60.7%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석유제품 수입으로 전체 수입액의 15.7%(22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LNG) 14.0%(198억 달러), 유연탄 8.4%(118억 달러) 등이다.

에너지 수출은 주로 석유제품인데 2008년에는 전년보다 56.2% 상승한 376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990년 6억5천만 달러, 2000년 93억 달러, 2005년 15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석유 수입량은 전체 에너지의 62.1%

에너지원별 수입 물량을 보면 2008년 전체 에너지 수입물량은 2억 5,610만3천 TOE이다. 이는 1981년의 7.3배, 1990년의 3.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8년 에너지 수입량 중에서 석유 비중이 6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석탄 24.1%, 천연가스 13.8%의 순서다. 1990년에 비하여 석유의 수입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은 늘어났다. 석탄의 수입 비중은 1981년 21.1%, 1990년 20.7%, 2000년 19.0%, 2008년 24.1%로 20%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석유 수입물량의 비중은 1981년 78.9%, 1990년 75.4%, 2000년 72.2%, 2008년 6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

〈표 11-6〉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구조를 보면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에너지 소비량의 76.4%를 수입하였던 것이 1990년에는 소비량의 81.6%를 수입할 정도로 갈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2000년 이후에는 전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및 수입 증가 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꾸려가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되었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여 1970년대 말부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국은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도 산업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오히려 1988년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바람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근접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도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여러 에너지원 중에서도 석유 의존도가 높다는 게 취약점이다.

둘째, 선진국에 비하여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같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국은 2005년 기준 일본의 3.2배, 영국의 2.9배, 프랑스의 1.7배에 이르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셋째,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원유도입 단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우리는 원유 수입에 연간 12억 달러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도 0.15%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구조를 극복하는 데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한 공급 안정이 급선무다. 이와 함께 21세기 지구촌의 과제인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발맞춰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행태와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11-6〉 에너지 수급

(단위 : 천TOE)

구 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생 산	13,031	23,356	32,641	43,745	44,582	38,338	40,548
소 비	45,718	93,192	192,887	228,622	233,372	236,454	239,757
수 입	34,907	76,072	213,810	228,340	238,702	246,773	256,103
수 출	420	3,997	43,577	37,886	41,574	41,709	47,22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표 11-7〉 에너지원별 수출입액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수입	계	7,765	10,926	37,584	66,697	85,566	94,978	141,475
	무연탄	295	52	72	429	407	448	991
	유연탄	484	1,217	2,033	5,014	4,911	5,998	11,819
	원유	6,091	6,462	25,227	42,606	55,865	60,324	85,855
	석유제품	842	2,547	6,189	9,716	12,119	15,066	22,275
	LNG	-	481	3,785	8,646	11,925	12,653	19,806
	원자력원료	53	167	278	286	339	489	729
수출	석유제품	146	650	9,257	15,444	20,505	24,060	37,573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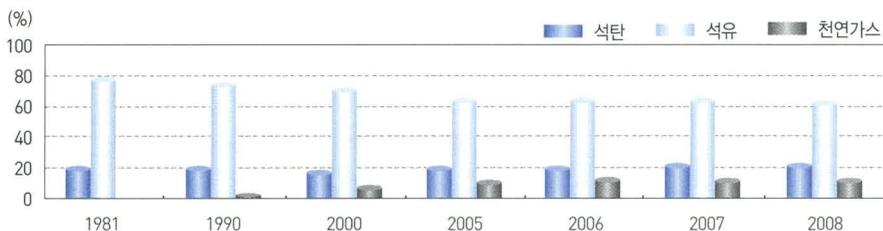
〈표 11-8〉 에너지원별 수출입

(단위 : 천TOE)

구 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수입	계	34,907	76,072	213,810	228,340	238,702	246,773	256,103
	석탄	7,358	15,752	40,559	48,498	49,854	54,237	61,665
	석유	27,550	57,345	154,300	150,798	156,060	159,298	159,002
	LNG	-	2,974	18,951	29,044	32,788	33,239	35,436
수출	석유	420	3,997	43,577	37,886	41,574	41,709	47,22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그림 11-3〕 에너지원별 수입 비중



## 2007년 1차 에너지 소비 1980년의 5.5배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80년 4,391만TOE에서 2007년 2억 4,287만 TOE로 5.5배 증가하였다. 1982년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에너지 소비가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0%대의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8.1% 감소했으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에너지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980년의 5.5배, 1990년의 2.6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 소비 비중 감소, 천연가스(LNG), 원자력이 대체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를 보면 2007년 기준 석유의 비중이 43.4%로 가장 높다. 석유의 비중은 1970년 47.2%에서 1980년 61.1%로 높아졌다가 1990년 53.8%로 낮아진 뒤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2000년 52.0%를 2007년 43.4%를 기록했지만 석유는 여전히 에너지원별 소비량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의 비중은 1980년 30.1%에서 2000년 22.2%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에는 다시 25.1%까지 높아졌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자 석유 가격에 부담을 느낀 계층이 다시 석탄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원자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07년 현재 14.7%로 비중이 커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활용된 천연가스는 2000년 9.8%, 2007년 14.2%로 원자력과 함께 점차 1차 에너지의 중요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소비 부문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산업 부문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58.4%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상업 부문 20.1%, 수송 부문 19.3%의 순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가정·상업 부문, 공공·기타 부문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비중은 확대됐다.

사실상 석유의 절반 정도는 산업 부문에 사용되며, 수송 부문과 가정·상업 부문이 그 뒤를 잇는다. 10년 전에 비하여 가정·상업 부문과 공공·기타 부문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비중은 커졌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수입 의존도 또한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외 경기 흐름이나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1차 에너지원 소비 비중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나 원자력 비중 증가에서 보듯 석유 대체재로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0.304TOE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에너지 소비량은 1980년 1.15TOE에서 2007년 5.01TOE로 높아졌다. 1990년 2.17TOE, 2000년 4.1TOE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00만 원을 창출하는데 0.304TOE의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6]에서 보듯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기에는 에너지 소비량 또한 많아 에너지 소비와 경제 성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DP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단위당 총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중화학공업과 같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산업이 발달했던 시기에도 GDP 단위당 총에너지 소비량이 많았다.

###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 전 세계의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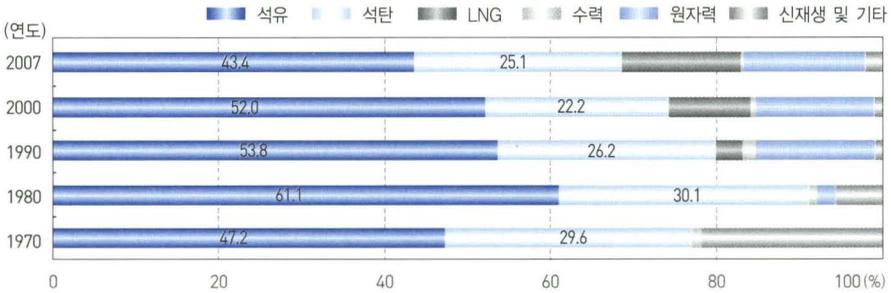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2007년 1차 에너지 소비량(2억 3,400만TOE, 상업용 연료만 포함)은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110억 9,930만TOE)의 2.1%에 해당한다. 석유의 전 세계 소비량은 39억 5,280만TOE인데 한국이 그 중 2.7%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은 1.9%, 천연가스는 1.3%, 원자력은 5.2%씩을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총에너지 소비 비중은 전 세계 소비량의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국으로 16.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일본(4.7%), 캐나다(2.9%), 독일(2.8%), 프랑스(2.3%) 등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국에 전체 에너지의 64.8%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4] 1차 에너지 소비량 추이



[그림 11-5] 1차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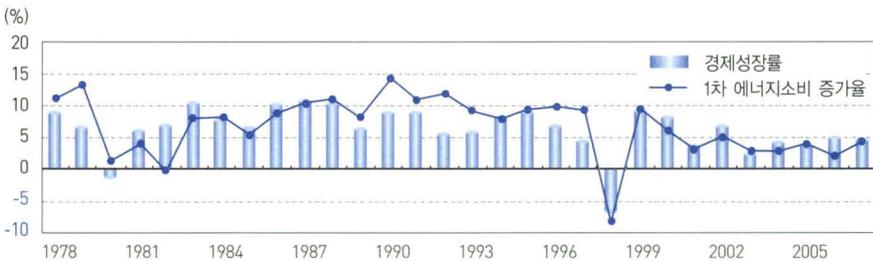
[표 11-9] 1인당 총에너지 소비량

(단위 : TOE)

연도	1980	1990	2000	2007
1인당 총에너지 소비량	1.15	2.17	4.1	5.0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월보」

[그림 11-6]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월보」

## 2007년 발전설비 용량 6,827만kW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은 6,826만8천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1980년 발전설비 용량의 7.3배, 1990년의 3.2배에 해당한다.

발전설비는 화력이 63.5%로 가장 많고, 원자력이 26.0%로 그 뒤를 잇는다. 화력 설비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력 설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비중이 급격히 커져 1990년 36.2%까지 높아졌으나 화력 설비의 비중이 커진 탓에 점차 비중이 조금씩 낮아졌다.

화력발전 설비 중 석탄연소 설비가 30.3%로 가장 많고, 복합화력이 24.2%, 석유화력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연소와 복합화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화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2.3% 차지

2007년 연간 발전량은 40만3,125GWh로 1980년의 10.8배, 1990년의 3.7배에 이른다. 발전설비 용량이 가장 큰 화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전체의 6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 35.5%, 수력 1.3%의 순서다.

화력과 원자력 설비에 의한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면 수력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1990년 이후로는 정체 상태다. 화력발전의 비중은 1980년 85.3%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1990년까지 감소하다가 1991년부터 다시 비중이 커졌다.

원자력 설비에 의한 발전량은 1980년대에 꾸준히 늘어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49.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가 그 위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다.

전기 생산량의 3분의 2 가까이를 책임지는 화력발전 설비 중 석탄연소가 2007년 발전량의 38.8%로 가장 많고, 복합화력 19.0%, 석유화력 3.9%의 순서로 나타났다. 1980년 72.5%를 차지했던 석유화력의 비중은 1980년대에 급격히 비중이 감소

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한자리수 비중을 지키는 상태다.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석유화력 대신 복합화력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 화력 발전의 주 에너지원은 석탄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을 보면 석탄이 62.8%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LNG가 31.2%로 그 다음이다.(2007년 기준) 1980년에는 중유가 90.9%로 화력발전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석탄 사용을 늘리면서 중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7년 현재 중유를 에너지원으로 한 발전량의 비중은 7.1%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유의 대체 에너지로 석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1990년 석탄 비중이 41.2%로 높아졌고, 2000년 이후에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LNG도 서서히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30%를 넘어섰다.

### 인구 1인당 8,319kWh 전력생산

1인당 전력 생산량은 1980년 877kW에서 1990년 2,516kWh, 2000년 5,635kWh로 급증했다. 1990년에는 전년 대비 12.9%, 2000년은 10.3% 증가하는 등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이후 증가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8,319k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표 11-10〉 설비별 발전 전력량

(단위 : GWh, %)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계	37,239	107,670	266,400	364,639	381,181	403,1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력	1,984 (5.3)	6,361 (5.9)	5,610 (2.1)	5,189 (1.4)	5,219 (1.4)	5,042 (1.3)
원자력	3,477 (9.4)	52,887 (49.1)	108,964 (40.9)	146,779 (40.3)	148,749 (39.0)	142,937 (35.5)
화력	31,778 (85.3)	48,422 (45.0)	151,826 (57.0)	209,508 (57.5)	224,105 (58.8)	251,230 (62.3)
석탄연소	4,353 (11.7)	22,445 (20.8)	99,427 (37.3)	135,161 (37.1)	140,725 (36.9)	156,517 (38.8)
석유화력	27,003 (72.5)	12,878 (12.0)	18,888 (7.1)	15,529 (4.2)	14,307 (3.8)	15,703 (3.9)
복합화력	369 (1.0)	619 (0.6)	26,863 (10.1)	57,457 (15.8)	67,138 (17.6)	76,405 (19.0)

자료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백서」

〈표 11-11〉 발전설비 현황

(단위 : 천kW, %)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계	9,391	21,021	48,451	62,258	65,514	68,26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력	12.3	11.1	6.5	6.2	8.4	8.0
원자력	6.3	36.2	28.3	28.4	27.0	26.0
화력	81.4	52.6	65.2	63.0	62.1	63.5
석탄연소	8.0	17.6	29.0	29.1	28.2	30.3
석유화력	58.9	17.4	9.3	6.9	6.7	6.6
복합화력	9.8	4.0	23.2	24.1	24.4	24.2

자료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백서」

〈표 11-12〉 화력발전 에너지원별 발전량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화력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석탄	7.8	41.2	64.2	63.8	62.1	62.8
중유	90.9	37.0	16.8	8.3	7.1	7.1
경유	1.3	1.9	0.4	0.2	0.3	0.2
LNG	0.0	19.8	18.5	27.7	30.5	31.2

자료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백서」

# 11-6 전력 소비 및 도시가스 공급

## 1인당 전력소비량 7,607kWh

매년 증가하는 전력소비는 2007년 현재 인구 1인당 7,607kWh 꼴이다. 1980년에는 1인당 859kWh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1980년 중반 이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1990년 2,202kWh, 2000년 5,067kWh로 많아졌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일시적으로 4.6% 감소하기도 했지만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1980년의 8.9배, 1990년의 3.5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소비했다. 이러한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마라톤을 2,423회(1일 기준 5.7회) 완주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한다.

## 전력소비 절반은 산업용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반은 산업용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상업용이다.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은 38만 8,070GWh이며, 그 중 산업용이 19만 4,630GWh로 전체의 50.2%다. 그 다음 상업용이 10만 8,229GWh로 27.9%, 가정용이 5만 9,228GWh로 15.3%다.

산업용은 1981년 68.6%를 차지했는데 점점 비중이 감소하여 2000년 이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업용은 1981년 5.9%에 불과하던 것이 점점 증가하여 1990년 10%를 넘어섰고, 2005년 이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력소비 증감률을 보면 산업용은 1985년 이후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해가 많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5%)을 제외한 2000년까지 그 추세가 이어졌다. 2000년 이후 산업용 전력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06년에 4.7%, 2007년에는 6.6%, 2008년에는 4.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상업용은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06년 6.5%, 2007년 5.8%, 2008년 5.1% 증가율로 산업용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가정용은 부문별 전력소비량이 모두 감소한 1998년에도 1.2% 증가하는 등 1981년 이후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다양화, 전력소비 효율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도시가스 사용 가구 1980년의 129배

2007년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1,272만 2,339개로 1980년(9만 9,800개)에 비해 127.5배, 1990년에 비해선 10.4배 증가한 규모이다. 도시가스 보급은 1980년 이후 급증해 1990년 121만 9,984개, 2000년 792만 6,604개를 거쳐 2003년에 1천만 개를 넘어섰다. 수요 가수의 대부분은 가정용(취사)으로 2007년 전체 수요가수의 94.6%다.

이 밖에 일반용이 35만 8,483개(2.8%), 업무용이 31만 4,944개(2.5%)이다. 수요 가수는 1980년 132.1%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20~30%의 높은 증가세를 1995년까지 유지해왔다. 1992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한자리수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에 전년 대비 5.2%, 2007년에는 4.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도시가스 공급량의 40.8%는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공급량은 2007년 현재 181억 9천만 $m^3$ 으로 1980년(1,400만 $m^3$ )의 1,299배, 1990년(9억 6,300만 $m^3$ )의 18.9배에 이른다. 도시가스 공급량은 가정용(난방)이 74억 2,900만 $m^3$ 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산업용이 27.2%인 49억 5,200만 $m^3$ , 일반용은 17억 5,200만 $m^3$ 으로 9.6%를 차지한다.

가정용(난방용) 도시가스는 1980년 후반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전체 공급량의 30.4%, 2000년에는 50.1%까지 차지하였다. 산업용은 1990년 이후 20% 중반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량은 수요 가수가 급격히 늘어난 1980년에 공급량도 85.6%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5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중반 까지도 3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99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2006년에 1.9%, 2007년에는 3.3%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은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공급은 1990년대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다. 2000년에 15.7% 증가했던 것이 2005년 9.0%를 증가율을 마지막으로 2006년(-2.2%), 2007년(-1.5%) 이태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산업용과 일반용도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2007년에 산업용은 7.3%, 일반용은 4.5% 증가하였다.

〈표 11-13〉 부문별 전력소비량

(단위 : GWh)

구분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계	35,424	94,383	239,535	332,413	348,720	368,605	388,070
산업용	24,295	59,248	132,260	166,813	174,661	186,252	194,630
수송용	462	1,012	2,037	2,601	2,534	2,433	2,277
가정용	5,934	17,735	37,102	50,873	52,522	54,174	59,228
상업용	2,099	10,412	24,651	91,375	97,277	102,957	108,229
기 타	2,634	5,976	13,486	20,751	21,725	22,790	23,706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용	68.6	62.8	55.2	50.2	50.1	50.5
	수송용	1.3	1.1	0.9	0.8	0.7	0.6
	가정용	16.8	18.8	15.5	15.3	15.1	14.7
	상업용	5.9	11.0	10.3	27.5	27.9	27.9
	기 타	7.4	6.3	5.6	6.2	6.2	6.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표 11-14〉 도시가스 수요가수

(단위 : 개)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합 계	99,800	1,219,984	7,926,604	11,543,363	12,141,179	12,722,339
가정용(취사)	-	1,199,358	7,733,607	10,966,459	11,511,445	12,037,675
가정용(난방)	-	422,106	5,599,270	8,699,521	9,101,970	9,701,367
일반용	-	16,779	128,309	314,754	333,643	358,483
업무용	-	3,049	59,9372	52,264	285,634	314,944
산업용	-	798	4,729	9,624	10,098	10,796
열병합	-	-	22	193	279	337
수송용	-	-	-	69	80	104

자료 :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통계」

〈표 11-15〉 도시가스 공급량

(단위 : 백만m<sup>3</sup>)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합 계	14	963	12,180	17,295	17,615	18,190
가정용(취사)	-	140	903	1,193	1,256	1,321
일반용	-	48	686	1,576	1,677	1,752
업무용	-	260	1,074	1,598	1,569	1,597
산업용	-	223	3,151	4,434	4,616	4,952
열병합	-	-	266	464	503	556
수송용	-	-	-	323	453	583
가정용(난방)	-	293	6,100	7,706	7,540	7,429

자료 :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통계」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12장

## 무역 및 국제수지

- 12-1 무역 현황
- 12-2 수출 및 수입
- 12-3 국제수지
- 12-4 교역조건과 환율동향
- 12-5 외환거래와 국제투자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무역규모 8천억 달러 시대 진입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1980년 39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85년 614억 달러로 1.5배 늘어났다. 수출 지상주의로 경제 발전을 꾀한 결과 무역규모는 1990년 1,349억 달러, 1995년 2,60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5,457억 달러로 늘어나 1980년의 14배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수출과 수입 규모가 각각 4천억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연간 무역규모 8천억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다. 2008년 수출상품 총액은 4,2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3.6%, 수입상품 총액은 4,353억 달러로 전년보다 22.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합친 총 무역거래액은 8,5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0년대비 약 21배로 증가한 규모다.

## 수출 매년 10% 이상씩 증가

우리나라 수출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8%)과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반도체 쇼크)한 2001년(-12.7%)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1,250억 달러)년 대망의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주춤했다가 2004년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2년 뒤인 2006년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시 2년 뒤인 2008년에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액은 2004년 3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거래방식 L/C에서 송금으로 전환

수출거래 방식은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였다. 1990년 전체 수출액의 68.7%를 차지했던 신용장(L/C) 방식 수출은 1995년 49.1%로 축소되었다. 은행이 보증을 서는 이러한 L/C방식 수출 비중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위축돼 2000년 27.3%로 떨어졌고, 2008년(18.8%)에는 20% 미만에 머물렀다.

L/C방식 대신 수출입 당사자끼리 직접 대금을 주고받는 송금(T/T) 방식 수출 비중은 꾸준히 높아졌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전체 수출 중 5.6%를 차지하였던 비중이 1995년 14.9%로 확대되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전자거래가 활성화

화되면서 송금 방식 수출은 크게 늘어나 2000년 37.9%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56.9%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수출거래가 1990년대에 유행하였던 L/C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추심에 의한 수출거래는 1990년대 중반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 수입도 성장 뒷받침, 큰 폭 증가

수입규모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80년 223억 달러였던 것이 1990년 698억 달러로 3배 증가했다. 수입 규모 역시 수출 규모와 비슷한 추세로 늘어났다. 수출액보다 한 해 빠르게 1994년에 1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천억 달러와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돌파는 각각 수출액이 넘어선 시점과 같은 2004년과 2006년, 2008년에 이뤄졌다.

외환위기 이후 수입 동향을 보면, 1998년 933억 달러로 4년 만에 다시 1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으나 2008년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시 말하면, 10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중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이 활발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내수용 수입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내수용 수입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수출을 위한 각종 원부자재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30%에 머물렀던 수출 용도의 수입 비중이 2000년대 들어 40%대로 높아졌다.

### 무역수지 흑자 지속, 무역의존도 100% 상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수출입 차)는 1980년대 후반(1986~1989년)에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1997년까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를 지속하다가 2008년에는 고유가와 고회환의 여파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의존도는 수출입 규모가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1980년대에 80% 수준이었으나 소비와 투자 등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90년에는 60% 내외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2000년대에 다시 80%대를 회복하였으며, 2008년에는 110.6%까지 올라가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표 12-1〉 무역규모 및 무역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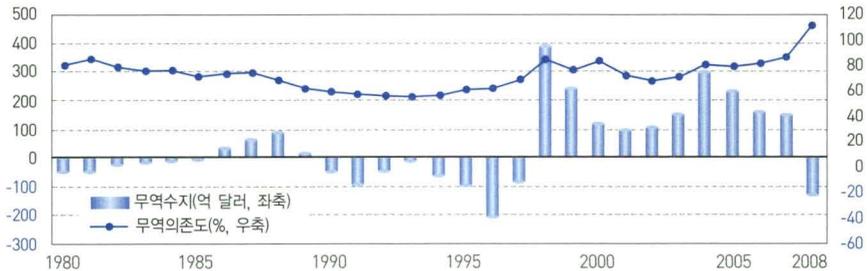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

연도	무역규모 (X+M)		수출 (X)		수입 (M)		무역수지 (X-M)	무역의존도 <sup>3)</sup>
		배율 <sup>1)</sup>		배율 <sup>1)</sup>		배율 <sup>1)</sup>		
1980	39.8	1.0	17.5	1.0	22.3	1.0	△4.8	80.1
1985	61.4	1.5	30.3	1.7	31.1	1.4	△0.9	70.9
1990	134.9	3.4	65.0	3.7	69.8	3.1	△4.8	59.3
1995	260.2	6.5	125.1	7.1	135.1	6.1	△10.1	60.7
2000	332.7	8.4	172.3	9.8	160.5	7.2	11.9	81.9
2005	545.7	13.7	284.4	16.2	261.2	11.7	23.2	78.6
2008 <sup>2)</sup>	857.3 (17.7)	21.5	422.0 (13.6)	24.1	435.3 (22.0)	19.5	△13.3	110.6

주 : 1) 1980년 대비 배율, 2) ( )은 전년대비 증가율, 3) GNI 대비 수출입의 비중 (자료 : 국민계정)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그림 12-1] 무역수지 및 무역의존도 추이



[그림 12-2] 수출 및 증가율 추이



[그림 12-3] 수입 및 증가율 추이



〈표 12-2〉 거래방식별 수출 및 용도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

연도	거래방식별 수출 비중				용도별 수입 비중	
	L/C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	기타	내수용	수출용
1990	68.7	13.0	5.6	12.8	67.9	32.1
1995	49.1	24.2	14.9	11.8	66.9	33.1
2000	27.3	21.9	37.9	12.9	55.0	45.0
2005	19.8	11.2	52.3	16.7	59.3	40.7
2008	18.8	6.9	56.9	17.5	59.2	40.8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 ■ 수출

### 수출상품은 대부분 중화학공업제품

우리나라 수출 품목으로는 화공품, 철강, 기계류,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8년 수출 총액에서 이들 제품의 수출은 81.6%를 차지하였다. 또 석유제품이 대부분인 원료 및 연료 수출도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비중이 10.5%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물과 의류, 고무타이어와 종이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 비중은 7.0%에 머물렀다. 2007~2008년 중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이상의 8대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무선통신기기, 화공품, 석유제품이다.

### 8대 품목 중 반도체·자동차 부진, 선박 호황

2008년에는 원유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8대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 석유제품과 화공품은 원유가격 상승의 여파로 각각 전년 대비 56.2%, 13.8%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요가 부진하여 각각 16.0%, 9.3% 감소하였다. 그런가 하면 선박(53.8%), 기계류 및 정밀기기(20.7%), 철강제품(20.4%) 수출은 2008년 상반기까지의 호황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8대 수출품목 중 2007년에 1위였던 반도체는 2008년 328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쳐 7위로 밀렸다. 4위였던 자동차도 전년보다 32억 달러 적은 313억 달러를 수출해 8위로 밀려났다. 이와는 달리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전년보다 75억 달러 많은 437억 달러를 수출해 2008년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이 되었으며, 선박은 전년보다 144억 달러 증가한 413억 달러를 수출하여 8위에서 3위로 5계단 뛰어 올랐다.

### 수출 지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상품은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08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68.9%로 전년도(65.9%)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이 18.7% 증가한 반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3.8%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2,269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에서 절반 이상인 53.8%를 차지하였다.

## ■ 수입

### 수입 품목은 대부분 원자재와 자본재

우리나라 수입 품목은 대부분 원자재와 자본재이다. 2008년에는 수입금액 4,353억 달러 중 원자재가 2,686억 달러로 61.7%, 자본재는 1,267억 달러로 29.1%를 차지하였다. 이들 품목들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수출과 국내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들로 전체 수입의 90.8%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의 원자재 수입은 고유가와 원자재(철광석, 알루미늄, 동, 니켈, 아연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33.2% 증가한 데 비해 자본재와 소비재는 글로벌 경기 부진의 여파로 각각 7.2%, 8.1% 증가에 그쳤다.

### 원자재 수입 급증,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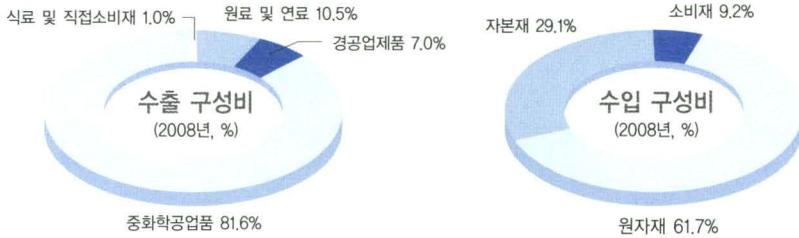
2008년 품목별 수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재 품목인 원유(전년 대비 증가율 42.3%), 철강재(54.0%), 곡물(44.4%)의 수입은 고유가와 국제 상품가격 상승의 여파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자본재에 해당하는 기계류(3.8%)와 승용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4.4%)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수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 수입 지역도 대부분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수입 품목은 원유, 철강재, 알루미늄, 동, 니켈, 아연 등 대부분 원자재라서 이를 생산하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2008년 중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691억 달러이었으며, 전체 수입액(4,353억 달러)의 61.8%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2008년의 개발도상국 수입 비중은 2007년(57.7%)에 비해 4.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30.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전년대비 증가율 50.5%), 중남미(21.5%)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3.1%), 일본(8.4%), EU(8.6%)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림 12-4] 수출 및 수입의 품목별 구성비



〈표 12-3〉 8대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8대 품목	2007년			2008년			
		비중	순위	전년비	비중	순위	
반도체	39,046	10.5	1	32,792	-16.0	7.8	7
화공품	36,822	9.9	2	41,920	13.8	9.9	2
기계류와 정밀기기	36,164	9.7	3	43,650	20.7	10.3	1
승용자동차	34,483	9.3	4	31,288	-9.3	7.4	8
철강제품	31,594	8.5	5	38,053	20.4	9.0	4
무선통신기기	29,192	7.9	6	34,486	18.1	8.2	6
선박	26,855	7.2	7	41,294	53.8	9.8	3
석유제품	24,212	6.5	8	37,825	56.2	9.0	5
소 계	258,368	69.5	-	301,308	16.6	71.4	-

자료 : 관세청

〈표 12-4〉 지역별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 : 2008년 기준, 백만 달러, %)

지 역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수입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선진국	131,432	3.8	31.1	166,192	10.2	38.2		
개발도상국	290,575	18.7	68.9	269,083	30.6	61.8		
미국	46,377	1.3	11.0	38,365	3.1	8.8		
일본	28,252	7.1	6.7	60,956	8.4	14.0		
EU	58,375	4.3	13.8	39,981	8.6	9.2		
동남아	80,517	14.3	19.1	53,783	18.9	12.4		
중동	26,647	35.1	6.3	101,645	50.5	23.4		
중국	91,389	11.5	21.7	76,930	22.1	17.7		
중남미	33,267	29.0	7.9	13,756	21.5	3.2		
CIS 및 동구권	25,936	13.6	6.1	11,300	23.0	2.6		
기타 지역	31,247	38.1	7.4	38,559	27.4	8.9		
합 계	422,007	13.6	100.0	435,275	22.0	100.0		

자료 : 관세청

## 2008년 경상수지 수출 둔화로 적자 전환

대외 상품거래의 수지차인 경상수지는 수출지향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흑자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상품수지는 2001년 세계 반도체 쇼크 이후 2007년까지 매년 200억~300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상품수지의 흑자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계속된 데다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이 크게 늘어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

##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소폭 축소

2008년 경상수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수출은 전년보다 544억 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은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수출 증가폭보다 많은 766억 달러 늘어나 상품수지는 전년의 282억 달러 흑자에서 222억 달러 축소된 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수지는 전년의 198억 달러 적자에서 167억 달러 적자로 소폭 줄었다. 이는 여행수지가 환율 상승의 여파로 전년의 거의 절반 수준인 8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사업서비스수지가 기업활동 관련 해외경비 지급 증가로 전년의 거의 두 배인 145억 달러 적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수지는 이자수지 흑자가 늘고 배당수지 적자가 줄어들어 흑자규모가 10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경상이전수지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의 35억 달러 적자에서 8억 달러 적자로 축소되었다.

## 2008년 자본수지 큰 폭 유출초 기록

대외 자본거래의 수지차인 자본수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충격이 있었던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유입초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6~2007년에는 직접투자과 증권투자로 자본이 순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투자로의 순유입 규모가 커 자본수지는 유입초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기타투자 부문에서도 순유출이 발

생하여 509억 달러의 큰 폭의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또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파생금융상품에서도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유출초 지속

2008년 자본수지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순유입분보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순유출분이 더 많아 106억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증권투자 부문에서는 해외증권에 대한 내국인의 순회수가 이뤄진 반면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매도가 급증하여 154억 달러 유출초를 보였다. 직접투자 유출초는 3년째, 증권투자 유출초는 4년째 계속되었다. 기타투자 부문에서는 2006~2007년에 급증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에 대해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상황이 크게 늘어나면서 106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부문에서는 환율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파생금융 거래로 실현된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아 처음으로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 경상수지는 미국, 중국, 동남아에서 흑자, 일본과 중동에선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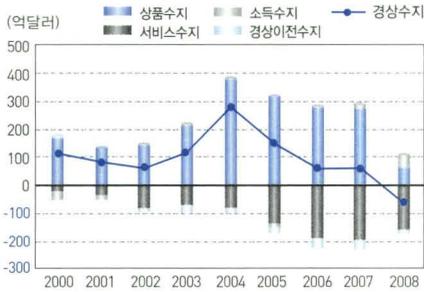
지역별 상품거래 수지차인 지역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중국, EU, 동남아, 중남미 등에 대한 경상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중동 지역에 대한 경상수지는 자본재와 원유의 수입거래가 많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8년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로 중동에 대한 적자가 전년 대비 226억 달러 커졌으나 일본에 대한 적자는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35억 달러 축소됐다. 미국, 동남아, 중남미에 대한 흑자 규모는 각각 18억, 47억, 40억 달러씩 늘어난 반면 EU에 대한 흑자 규모는 45억 달러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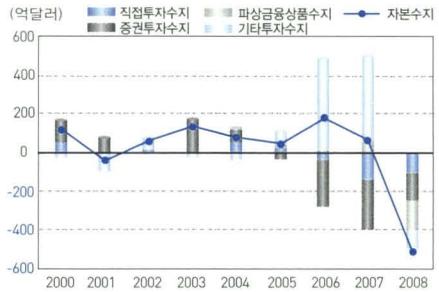
### 자본수지는 미국, EU,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적자

지역별 자본거래 수지차인 지역 자본수지(기타자본수지는 제외)를 살펴보면, 중국 지역으로는 직접투자 요인에 의해 27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미국과 EU 지역으로는 증권투자와 파생금융상품 거래 요인에 의해 각각 169억 달러, 94억 달러에 이르는 큰 폭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동남아 지역으로는 직접투자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요인에 의해 47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중동과 일본 지역으로부터는 각각 48억 달러, 4억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그림 12-5] 경상수지 추이



[그림 12-6] 자본수지 추이



[표 12-5]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항 목	2007년	2008년	증감	항 목	2007년	2008년	증감
경상수지	5,876	-6,406	-12,282	자본수지	7,128	-50,933	-58,062
상품수지	28,168	5,994	-22,174	투자수지	9,516	-50,895	-60,411
수출(FOB)	379,045	433,427	54,382	직접투자수지	-13,836	-10,595	3,241
수입(FOB)	350,877	427,433	76,556	증권투자수지	-26,058	-15,368	10,690
서비스수지	-19,768	-16,734	3,034	파생상품수지	5,445	-14,333	-19,778
소득수지	1,003	5,107	4,104	기타투자수지	43,965	-10,600	-54,565
경상이전수지	-3,527	-773	2,754	기타자본수지	-2,388	-39	2,349

자료: 한국은행

[표 12-6] 지역별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 역	경 상 수 지			자 본 수 지 <sup>1)</sup>		
	2007년	2008년	증감	2007년	2008년	증감
미 국	9,850	11,626	1,777	-38,637	-16,898	21,738
일 본	-28,812	-25,309	3,503	-580	353	933
중 국	21,611	21,006	-606	-10,964	-2,704	8,260
E U	16,185	11,692	-4,493	40,545	-9,391	-49,936
동 남아	18,499	23,152	4,653	-16,602	-4,719	11,883
중 동	-44,979	-67,538	-22,559	-728	4,786	5,514
중 남미	11,405	15,371	3,966	-4,460	-824	3,636
기 타	2,118	3,593	1,476	-5,411	-10,936	-5,525
소 계	5,876	-6,406	-12,282	-36,837	-40,334	-3,497

주: 1) 기타 자본수지 제외

자료: 한국은행

## ■ 교역조건

### 수출단가 상승세 확대, 수출물량 증가세는 둔화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2007년에 3.2% 상승한 수출단가는 2008년에 4.4% 상승하여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약 80%의 비중을 갖는 중화학공업제품의 평균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38.2% 오르고 경공업제품의 평균 가격도 7.0% 올랐기 때문이다.

수출물량은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까지 수출이 늘어난 데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이 반영됨에 따라 연중 수출물량은 6.4%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7년의 10.4% 증가율보다는 낮아져 수출물량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주력 상품인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물량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에서 늘어나 7.5% 증가하였다.

### 수입단가 상승세 확산, 수입물량 증가세는 둔화

수입단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7년에 5.8% 상승한 수입단가는 2008년에는 21.1% 상승하여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자본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원자재가 32.9% 급등하고 곡물 등 소비재가 11.1%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 수입단가는 44.6% 상승하였으며, 철강재와 경공업 원료는 각각 33.8%, 13.8% 상승하였다.

수입물량은 그동안의 수출과 국내 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0.9%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전년(9.0%)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원자재 수입이 0.2% 증가에 그쳤고 소비재 수입 또한 0.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입단가가 하락한 자본재의 경우 가격하락에 힘입어 수입물량이 9.1% 늘었다.

### 순상품교역조건 및 소득교역조건 2008년에 모두 악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수입단가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이 전년에 비해 무려 13.8% 악화되었다.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에는 원유 수입단가의 급등이 크게 작용했다.

총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은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물량의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소득교역조건은 8.3% 악화되었다.

## ■ 환율 동향

###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급등한 뒤 진정세

원/달러 환율은 2008년 말 1,259.5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323.4원 상승하였다.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25.7% 평가 절하된 셈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1,80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진정되어 2006년에는 9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최근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상승해 2008년 11월에는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2008년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이 컸다. 1~2월 중 930~95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8월 초까지 1천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외화 조달의 어려움, 국내 경기 하강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환시장이 동요하면서 원/달러환율이 급등하였다. 11월 24일에는 1,513원까지 상승하였는데 그 이후 통화스왑자금 공급,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화자금의 공급이 늘어나 내림세로 돌아섰다.

2008년 중 환율 변동 폭이 커진 것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8년 중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3.4원으로 전년 대비 174.2원 올랐다. 특히 10월 중 1,326.9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196.5원 오름으로써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에 458.5원 상승한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08년 일중 평균 변동 폭은 18.3원으로 2007년(3.0원)의 6배에 이르렀고, 전일 대비 평균 변동 폭도 12.0원으로 2007년(2.1원)의 6배 규모였다.

원/엔 환율도 미국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확산되면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 2008년 9월부터 급상승하였다. 12월 5일에는 100엔 당 1,598.1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차 진정되면서 2008년 말에는 1,396.3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7년 말(828.3원)보다 무려 568원 상승한 것으로 엔화대비 원화 가치가 40.7% 절하된 셈이다.

〈표 12-7〉 무역지수 동향

(단위 : 2005=100, %)

구분	2006	전년비	2007	전년비	2008	전년비	
단 가 지 수	수출단가지수	100.6	0.6	103.8	3.2	108.4	4.4
	석유제품	120.4	20.4	133.1	10.5	184.0	38.2
	중화학공업제품	98.2	-1.8	100.2	2.0	100.0	-0.2
	경공업제품	105.3	5.3	112.4	6.7	120.3	7.0
	수입단가지수	107.7	7.7	114.0	5.8	138.1	21.1
	원자재	115.0	15.0	125.7	9.3	167.1	32.9
	자본재	95.8	-4.2	93.5	-2.4	90.1	-3.6
	소비재	101.2	1.2	107.9	6.6	119.9	11.1
물 량 지 수	수출물량지수	113.2	13.2	125.0	10.4	133.0	6.4
	석유제품	110.2	10.2	117.2	6.4	132.5	13.1
	중화학공업제품	115.9	15.9	130.5	12.6	140.3	7.5
	경공업제품	96.9	-3.1	92.8	-4.2	92.9	0.1
	수입물량지수	110.5	10.5	120.5	9.0	121.6	0.9
	원자재	107.0	7.0	113.6	6.2	113.8	0.2
	자본재	117.5	17.5	135.6	15.4	147.9	9.1
	소비재	115.7	15.7	131.0	13.2	129.9	-0.8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2-7]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그림 12-8] 소득교역조건 추이



[그림 12-9] 원/달러, 원/엔 월별 추이



[그림 12-10] 원/달러, 원/엔 일별 추이



## ■ 외환거래

### 외환보유액 축소, 그래도 2천억 달러 이상 유지

외환보유액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수출 증가에 힘입어 거의 매년 200억 달러 이상씩 보유 외환이 늘어난 덕분이다. 그러나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보다 610억 달러가 줄어든 2,012억 달러에 머물렀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데다 자본거래에서도 유출초가 발생함에 따라 대외 준비자산이 566억 달러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 들어서는 고유가 및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다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 2009년 6월 말 외환보유액은 2,317억 달러로 2008년 말보다 305억 달러 증가하였다.

### 은행간 외환스왑 및 파생상품 거래 급증

2008년 중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외국환증개사 경유분 기준) 규모는 231억 달러로 2007년(197억 달러)보다 17.2%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외환스왑 거래가 전년 대비 37.7% 증가하였고, 통화스왑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와 선물환 거래도 각각 20% 이상씩 늘어났다. 반면 2007년 중 41.9%를 차지하여 가장 규모가 컸던 현물환 거래는 오히려 5.3% 감소하였다.

2008년 중 외환 유형별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외환스왑이 39.9%를 차지하여 은행간 거래 중 가장 큰 외환상품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현물환이 33.8%, 파생상품이 22.3%를 차지하였다.

## ■ 국제투자

### 2008년 내국인 해외투자, 외국인 국내투자 모두 감소

2008년 말 내국인의 해외투자 잔액은 4,915억 달러로 2007년 말(5,968억 달러)에 비해 1,053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손실,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증권투자와 준비자산의 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분형식의 투자가 늘어나 2008년 중 208억 달러 증가하였다. 파생금융상품 투자도 약 68억 달러 늘었다. 대출금, 무역신용 등의 기타투자도 2008년 중 114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준비자산은 2,01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 말보다 610억 달러 줄어든 규모이다.

2008년 말 외국인의 국내투자 잔액은 6,013억 달러로 2007년 말(8,263억 달러)에 비해 2,250억 달러 감소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원화가치 절하 및 국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 평가손실과 외국인 투자자금 회수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절하와 주가하락의 여파로 평가잔액이 크게 줄어들어 367억 달러 감소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도 국내 주가 하락과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절하 등으로 주식투자 평가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49억 달러 줄어들었다. 이와는 달리 외국인의 파생금융상품 투자와 무역신용, 차입금 등의 기타투자 잔액은 각각 94억 달러, 72억 달러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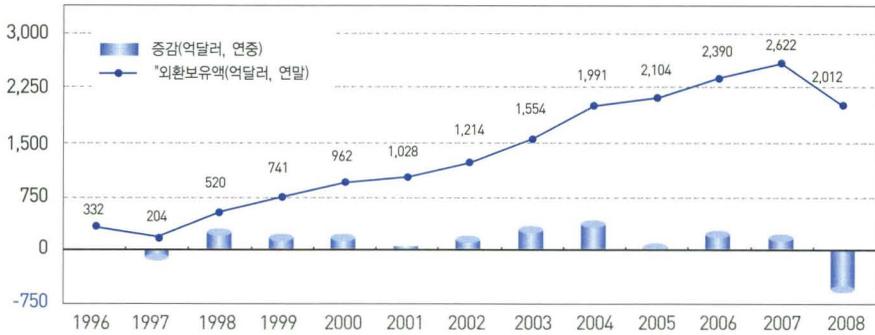
### 대외채무 감소보다 더 큰 대외채권 감소

2008년 말 대외채권은 3,4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7년 말(4,206억 달러)에 비해 724억 달러 감소한 수준인데, 이는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준비자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은행 부문의 대외채권은 67억 달러 증가한 반면, 일반 정부와 기타 부문(기업 및 개인)의 대외채권은 각각 106억 달러, 66억 달러씩 줄었다. 한편 대외채권 중 단기 채권은 535억 달러, 장기 채권은 189억 달러 감소했다.

2008년 말 대외채무(외국인투자에서 직접 지분투자, 주식, 파생금융상품을 제외)는 3,80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7억 달러 줄어들면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타 부문(기업 및 개인)에서 210억 달러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부와 은행 부문에서 각각 106억 달러, 212억 달러씩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외채무 중 단기 채무는 92억 달러 감소한 데 반해 장기 채무는 65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차감한 순대외채권은 2008년 말 기준 마이너스 3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 상태에서 순대외채무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대외채권 중 단기 채권의 비중이 80.3%로 높은 데 비해 대외채무 중 단기 채무의 비중이 39.7%로 낮아 단기적으로는 1,285억 달러의 순대외채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2-11] 외환보유액 추이



<표 12-8>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단위: 일평균기준, 억달러, %)

외환 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전년비	금액	전년비
현 물 환	63.6	56.9	82.5	29.7	78.1	-5.3
선 물 환	4.0	3.6	7.5	87.5	9.1	21.8
외환스왑	27.1	24.2	67.0	147.2	92.3	37.7
파생상품 <sup>1)</sup>	17.1	15.3	40.1	134.5	51.6	28.5
소 계	111.8	100.0	197.1	76.3	231.1	17.2

자료: 한국은행

<표 12-9> 국제투자 및 대외 채권/채무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07년 말 <sup>1)</sup>	2008년 말 <sup>2)</sup>	증감	구분	2007년 말 <sup>1)</sup>	2008년 말 <sup>2)</sup>	증감
대외투자	5,967.9	4,914.8	-1,053.1	외국인투자	8,263.3	6,013.2	-2,250.1
직접투자	747.8	955.4	207.6	직접투자	1,219.6	852.9	△366.7
증권투자	1,586.1	753.8	-832.2	증권투자	4,566.5	2,517.4	-2,049.1
파생금융상품	23.4	91.4	68.0	파생금융상품	49.1	143.1	94.0
기타투자	988.5	1,101.9	113.5	기타투자	2,428.1	2,499.8	71.7
준비자산	2,622.2	2,012.2	-610.0				
대외채권 <sup>1)</sup>	4,205.6	3,481.6	-724.0	대외채무 <sup>1)</sup>	3,831.5	3,804.9	-26.6
단기	3,331.1	2,795.9	-535.2	단기	1,602.5	1,510.6	-91.9
(단기비중)	[79.2]	[80.3]	[1.1]	(단기비중)	[41.8]	[39.7]	[-2.1]
장기	874.5	685.7	-188.8	장기	2,229.0	2,294.4	65.4

주: 1) 직접투자(지분투자), 주식투자, 파생금융상품(자산/부채)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 13장

## 재정 및 금융

- 13-1 재정 및 조세
- 13-2 세입 및 세출
- 13-3 통화량
- 13-4 은행 예금상품과 대출금
- 13-5 어음 교환 및 금리
- 13-6 증권시장
- 13-7 보험시장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 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지속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재정수입은 2008년에 약 25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보다 60조원 줄어든 규모이다. 이 중 경상수입은 약 249조원으로 전년보다 55조원 줄었고, 자본수입도 약 5조원 감소하였다.

반면 2008년 정부지출 및 순융자는 23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268조원)보다 약 30조원 줄어든 규모다. 이 중 경상지출이 약 197조원으로 82.4%를 차지하였으며, 자본지출과 순융자는 각각 37조원, 6조원으로 15.3%, 2.3%를 차지하였다. 경상지출은 2007년에 비해 약 12조원 증가한 반면, 자본수입과 순융자는 각각 36조원, 5조원씩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문 수입에서 정부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에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7년(42조원 흑자)보다 흑자폭이 30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후인 1997~1999년에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흑자를 지속하였다. 특히 2002년 22조원의 큰 폭 흑자를 제외하고는 매해 3~7조원의 흑자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흑자 규모가 커진 모습이다.

한편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의 흑자를 제외한 개념의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전년도 흑자에서 2008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즉 2008년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의 12조원 흑자 중 28조원의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약 16조원의 적자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의 흑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약 3조원 감소한데 그친 반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30조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출 및 순융자 개념으로 파악한 재정규모는 2000년 129조원에서 2008년 239

조원으로 8년 사이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규모는 2002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 이상씩 증가하여 왔다. 2003년에는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0.8% 증가하여 150조원을 넘었으며, 그 뒤에도 2004~2006년 사이 매년 5~9%씩 늘어 2006년에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규모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 비중은 2000년에 21.4%였는데, 2005년 이후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2008년에는 23.3%로 높아졌다.

## ■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

### 조세 3.9% 증가, 조세부담률은 0.2%포인트 낮아져

조세총액은 2000년 114조원에서 2008년 213조원으로 약 2배 확대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조세총액이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조세총액은 2007년(205조원)에 비해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의 증가율은 2004년(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8년 조세총액(결산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국세는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조세총액에서 62.9%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내국세 비중은 2000년(59.2%)보다 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국세 비중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2001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내국세가 매년 9% 이상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 지방세는 46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조세총액에서는 21.5%를 차지하였다. 지방세 비중 역시 2000년(18.1%)보다 3.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각각 12조원, 9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3.9%, 5.5%씩 증가하였다. 이들 세금이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 4.2%이다.

2008년 조세총액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이며, 이와 같은 직접세 비중은 2000년(51.2%)에 비해 7.2%포인트 높아졌다. 대신 간접세 비중은 2000년 48.8%에서 2008년 41.6%로 낮아졌다.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가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08년에 20.8%이었다. 이는 2007년(21.0%)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2000년(18.8%)보다는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표 13-1〉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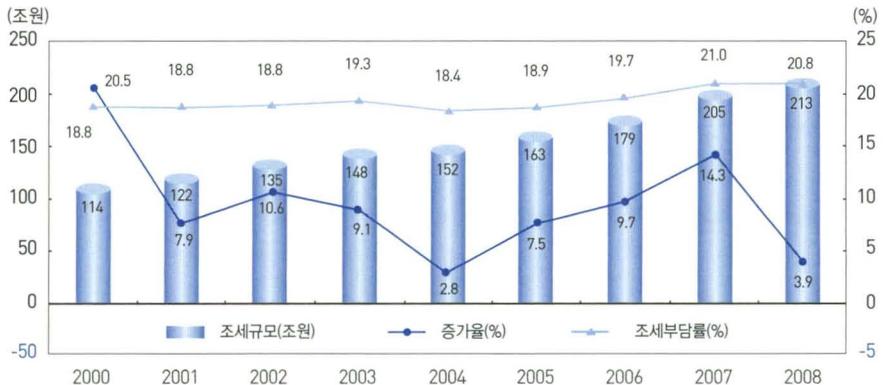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
수 입 ( A )	310,659	250,713	-59,946	지출·순운자(B)	268,320	238,834	-29,486
경 상 수 입	304,063	248,809	-55,254	경상지출	185,303	196,879	11,576
자 본 수 입	6,596	1,904	-4,692	자본지출	72,656	36,475	-36,181
통합재정수지 (A-B)	42,338	11,880	-30,458	순운자	10,362	5,480	-4,882
관리대상수지 (A-B-C)	12,094	-15,631	-27,725	사회보장성기금수지(C)	30,244	27,510	-2,734

주 : 사회보장성기금(4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13-1〕 재정규모 추이



〔그림 13-2〕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 추이



## ■ 세입

### 국세 수입 연평균 10%씩 증가

중앙정부의 세입(결산 기준)은 2008년에 18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171조원)에 비해 6.1% 증가한 규모이다. 2002년 이후 세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2년, 2005년, 2007년은 10% 이상씩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경기 침체기였던 2003년에는 5.8% 증가에 그쳤으며, 2004년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2006년에는 세입이 거의 평균 수준인 8.4% 증가하였다.

2008년 중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목에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였다. 먼저 소득세로는 전년에 비해 6.4% 감소한 36조 3,550억원을 걷어 전년도(25.3%)에 크게 못 미쳤다. 법인세 또한 10.6% 늘어난 39조 1,540억원을 걷었지만 증가율은 전년도(20.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43조 8,200억원이 걷혀 7.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율은 전년도(7.5%)와 비슷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도 각각 3.9%, 8.2%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세로는 고유가와 고환율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4% 증가한 8조 7,760억원을 걷었다. 이와 같은 관세 증가율은 2007년(8.1%)보다 약 1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총 세입의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순서로 많았다. 이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1%, 21.6%, 20.0%이며, 이들을 모두 합하면 65.7%로 총 세입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 세입에서 27.9%를 차지하였는데, 그 이후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아졌다. 이는 2006년까지 3~5%의 낮은 증가율로 보인 데다 2007~2008년에도 7%대의 증가율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법인세와 소득세는 2002년 당시 총 세입 대비 비중이 각각 17.0%, 16.9%였다. 그 이후 4년에 걸쳐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으며, 2007~2008년에는 20%를 넘어서었다. 이밖에 2008년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 9,090억원으로 6.6%의 비중을, 관세는 8조 7,760억원으로 4.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 세 출

### 교육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명목의 세출 크게 증가

2008년 중앙정부 세출 총액은 약 180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157조원) 대비 14.7% 증가한 규모다. 2001년, 2002년, 2005년, 2008년의 세출 증가율은 10%를 상회하였으며, 경기 침체기인 2004년 이외의 연도에서는 6~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세출은 2000년(88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한 나라 세출 규모의 수준은 세출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GDP 대비 세출총액의 비율은 2000년 14.5%에서 2001년에는 15%를 넘어섰고, 세출이 점점 늘어나 2006년에는 16%를 상회하였다. 이 비율은 2008년에는 17.5%이었으나 2009년에는 세출예산 기준을 적용하면 19.1%로 높아질 전망이다.

2008년 중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비로 약 36조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개발(32.5조원), 지방재정교부금(28.9조원), 방위비(27.8조원) 순으로 지출되었다. 교육비와 사회개발비는 전년에 비해 각각 17.5%, 17.8%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 증가율(14.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방위비는 전년 대비 8.8% 증가하여 2007년 증가율(9.0%)과 비슷했지만 세출총액 증가율보다는 낮았다. 2007년에 감소하였던 경제개발비와 일반행정비는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은 9.6%, 10.6%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하였으며, 2007년(14.2%)에 이어 연속 10% 이상 증가하였다.

총 세출에서 지출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2000년(27.3%)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줄었다. 2001~2003년 사이의 경제개발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 후반 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에는 그 비중이 21%로 축소되었다. 이는 2004년과 2005년에 경제개발비 지출이 각각 5.4%, 8.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에도 경제개발비 지출이 0.3% 감소하여 그 비중이 18%대로 축소되었다.

이와는 달리 2008년 세출에서 교육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지원 강화, 복지사업 확대, 지방자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00년 14.5%, 12.1%, 9.5% 수준에서 각각 19.9%, 14.6%, 16.1%로 높아졌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은 2000년 약 8조원에서 2008년에 29조원으로 늘어나 8년 동안 3.5배 증가하였으며, 교육비도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36조원으로 2.8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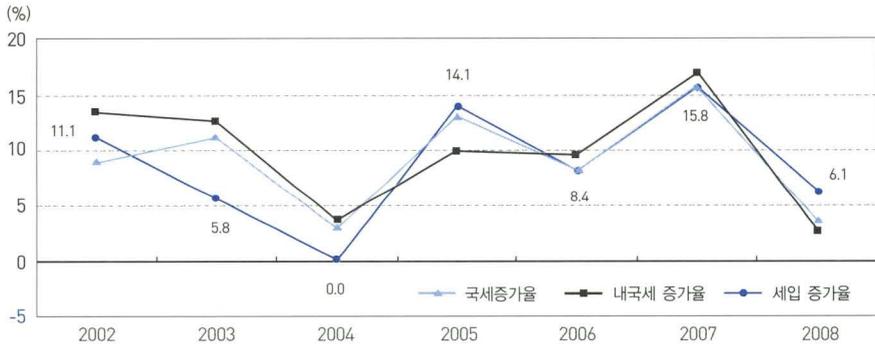
〈표 13-2〉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세입 결산 기준, 십억원, %)

구 분	2007년	2007년		2008년	2008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국 세	155,390	17.1	90.8	160,720	3.4	88.5
내국세	130,240	16.8	76.1	133,725	2.7	73.6
소득세	38,856	25.3	2.7	36,355	-6.4	20.0
법인세	35,417	20.6	0.7	39,154	10.6	21.6
부가가치세	40,942	7.5	23.9	43,820	7.0	24.1
기타 내국세	15,025	15.5	8.8	14,396	-4.2	7.9
교통·에너지·환경세	11,464	19.5	6.7	11,909	3.9	6.6
관 세	7,411	8.1	4.3	8,776	18.4	4.8
교육 세	3,861	12.8	2.3	4,180	8.2	2.3
기 타 세	2,415	81.8	1.4	2,130	-11.8	1.2
세 외 수 입	7,126	42.9	4.2	7,102	-0.3	3.9
전 년 도 이 월 금	1,941	-11.5	1.1	6,364	227.9	3.5
공 자 기 금 예 수 금	6,715	-15.5	3.9	7,400	10.2	4.1
세 입 총 계	171,172	15.8	100.0	181,586	6.1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림 13-3〕 세입 및 국세(내국세) 증가율 추이



〈표 13-3〉 세출 현황

(단위 : 세출 결산 기준, 십억원, %)

구 분	2000년	2007년		2008년 <sup>1)</sup>	2008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방 위 비	15,479	17.7	25,633	16.4	27,883	8.8	15.5
교 육 비	12,704	14.5	30,486	19.5	35,815	17.5	19.9
사 회 개 발	10,600	12.1	22,231	14.2	26,184	17.8	14.6
경 제 개 발	23,879	27.3	29,734	19.0	32,586	9.6	18.1
일 반 행 정	8,164	9.3	16,382	10.5	18,114	10.6	10.1
지방재정교부금	8,267	9.5	24,513	15.7	28,957	18.1	16.1
채무상환·기타	8,371	9.6	7,538	4.8	10,014	32.9	5.6
세 출 총 계	87,465	100.0	156,518	100.0	179,554	14.7	100.0

주 : 1) 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 본원통화 2000년 대비 2배 증가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지만,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낡고 훼손된 화폐를 소각하기도 한다. 2008년 중 화폐발행 평균잔액은 29조 3,330억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28조1,190억원)에 비해 약 1조원, 2000년(18조원)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발행된 화폐는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 상품거래 및 금융거래에 활용되는데, 각 경제주체들이 보유하는 화폐량은 금융기관을 통해 기록되며, 이렇게 집계된 화폐량을 통화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민간이 보유한 현금을 현금통화라고 하는데, 2008년 평균잔액은 22조원 규모이다. 현금통화도 화폐발행액과 비슷하게 전년에 비해서는 약 1조원 늘었고, 2000년과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하였다.

현금통화에 중앙은행의 예금은행 부채를 합한 것이 본원통화인데, 이것이 각종 금융기관과 경제주체들 간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기본이 된다. 2008년 본원통화 평균잔액은 약 52조원 규모로 2007년(49조원) 대비 7.7% 증가하였다. 2000년(26조원)과 비교하면 약 2배 많아졌다.

## 협의통화 M1 307조원 규모

협의의 통화인 M1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구성된다. 2008년 평균잔액은 307조원 규모로 2000년(183조원)과 비교하면 약 1.7배 증가하였다. 협의통화 M1의 2008년 내역을 살펴보면, 요구불예금이 25%, 현금통화가 7%,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8%를 차지했다.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각각 5.2%포인트, 1.3%포인트 커진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비중은 3.5%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08년 M1은 전년보다 1.8% 감소하였다.

## 광의통화 M2 1,368조원, M1의 4.5배 수준

협의통화 M1에 정기예금·적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금융채, 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과 같은 2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합한 것이 광의통화인 M2이다. M2의 2008년 평균잔액은 1,368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14.3% 증가했다. 이는 협의통화인 M1의 4.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8년 중 M2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자율이 낮아 결제를 위한 준비금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위축되어 M1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보다 높은 2년 미만 금융상품이 전년 대비 19.9%(176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M2의 38.2%를 차지하는 2년 미만 정기예금이 전년 대비 약 60조원 늘었다. 그 다음으로 M2의 14.4%를 차지하는 수익증권 또한 전년 대비 약 62조원 증가하였다. 수익증권은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17조원, 37조원씩 늘어나 M2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M2의 6.1%를 차지하는 양도성예금도 전년에 비해 26조원 증가하였다. 이밖에도 2년 미만 금융상품인 금전신탁, 금융채, 외화예수금 등이 전년에 비해 각각 12조원, 8조원, 5조원씩 증가하였다.

### 금융기관 유동성은 1,795조원

금융기관 유동성은 광의통화인 M2에 모든 금융기관(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의 기타 예수금을 합한 통화량 개념이다. 여기에는 2년 이상 정기예금·적금과 금융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기관 유동성의 2008년 평균잔액은 1,795조원 규모이며, 2007년(1,604조원)에 비해 11.9% 증가하였다. 2000년(883조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로 늘어난 규모이다.

### M1은 감소세, M2와 금융기관 유동성은 증가세 확대

통화지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본원통화는 2000~2002년 사이 10% 이상 증가하다가 경기 침체기인 2003~2006년에는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7년에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뒤 2008년에는 7.7% 증가하였다. 화폐발행액과 현금통화는 2000~2002년에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협의통화 M1은 2000~2002년 사이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3~2005년에는 6~8%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6~2008년에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광의통화인 M2는 2000~2002년 사이 M1의 급증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경기 침체기인 2003~2004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서서히 확대되었는데, 이는 2년 미만 금융상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기관 유동성은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5~10% 정도씩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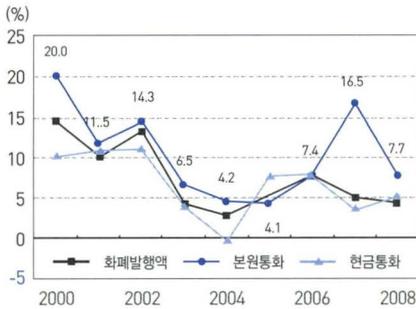
〈표 13-4〉 주요 통화지표

(단위 : 평잔, 10억원, %)

통 화 지 표	2000년		2007년		2008년		
	구성비	전년비	구성비	전년비	구성비	전년비	
화폐발행액	17,967	-	28,119	5.2	-	29,333	4.3
본원통화	26,357	-	48,544	16.5	-	52,273	7.7
현금통화	13,756	1.6	21,032	3.4	1.3	22,115	5.2
요구불예금	33,615	3.8	76,371	7.2	4.8	77,356	1.3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135,979	15.4	215,430	-9.7	13.4	207,802	-3.5
M1(협의통화)	183,350	20.8	312,832	-5.2	19.5	307,274	-1.8
2년미만 금융상품	508,044	57.6	884,263	18.4	55.1	1,060,440	19.9
M2(광의통화)	691,394	78.3	1,197,095	11.2	74.7	1,367,713	14.3
금융기관 기타예수금	191,371	21.7	406,421	7.5	25.3	427,128	5.1
LF(금융기관유동성)	882,764	100.0	1,603,516	10.2	100.0	1,794,841	11.9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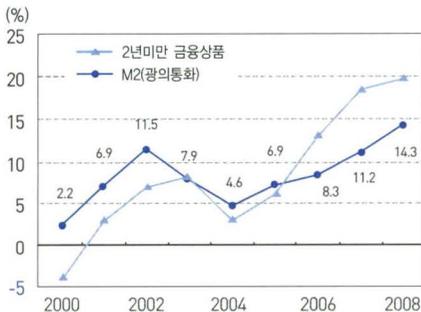
〔그림 13-4〕 화폐발행액/본원통화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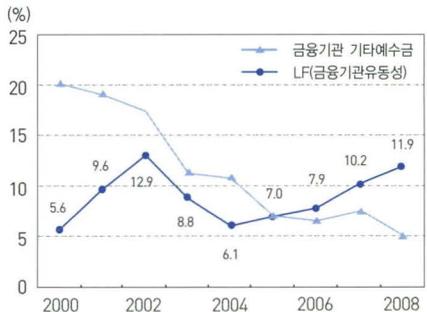
〔그림 13-5〕 M1(협의통화) 증가율 추이



〔그림 13-6〕 M2(광의통화) 증가율 추이



〔그림 13-7〕 LF(금융기관유동성) 증가율 추이



## 2008년 예금은행 수신 112조원 증가

2008년 말 현재 예금은행에서 수신한 금융상품 잔액은 1,132조원으로 2007년(1,020조원)에 비해 약 112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정기예금이 71조원, 기업자유예금이 13조원 늘어난 데다 금융채 또한 36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상품들은 전년 대비 각각 23.9%, 14.8%, 1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예금은행이 수신한 금융상품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58.9%를 차지했다. 예금의 비중은 2007년(57.2%)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예금의 대부분은 저축성예금인데, 정기예금이 369조원(32.6%), 저축예금 90조원(8.0%), 기업자유예금 98조원(8.6%) 등이다.

순수한 결제준비금인 요구불예금은 67조원으로 5.9%를 차지하였다. 예금 이외의 수신상품으로는 금융채가 249조원(22.0%),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RP)을 포함하는 시장형상품은 144조원(12.7%), 금전신탁이 73조원(6.4%) 규모이다. 2008년 중 금융채는 증가한 반면 시장형상품과 금전신탁은 각각 4.0%, 1.3% 감소하였다. 이처럼 시장형상품이 감소한 것은 CD의 발행 증가세가 둔화되고 RP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금의 대표 상품인 정기예금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정기예금은 137조원으로 2008년 전체 정기예금 369조원의 37.0%를 차지하였다. 1억~10억원 사이 정기예금은 68조원으로 18.4%, 10억원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은 164조원으로 44.4%를 차지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업자유예금은 10억원 초과 예금이 74조원으로 전체 기업자유예금 중 75.2%를 차지하였다. 1억~10억원 예금이 8조원(8.3%), 1억원 이하 예금이 16조원(16.5%)으로 집계되었다.

정기예금을 계약만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정기예금이 79조원으로 전체 정기예금의 21.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7년(17.8%)보다 3.6%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정기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2년짜리 정기예금은 265조원(71.8%), 2년 이상 정기예금은 25조원(6.8%) 규모이다.

## 2008년 예금은행 대출금 113조원 증가

2008년 말 예금은행에서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917조원으로 2007년(804조원)에 비해 113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대출이 약 88조원 늘어난 데다 가계대출도 25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말 기준 산업대출금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하였다. 산업대출금은 2007년에도 2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대출금은 전체 대출금의 57.6%를 차지하였으며, 가계대출금은 389조원 규모로 42.4%를 차지하였다.

산업별 대출금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에서 40조원, 제조업에서 37조원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도 9조원 증가하였다. 2008년 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대출이 49.8%, 제조업 대출이 35.4%, 건설업 대출은 10.0%를 차지하였다. 산업대출 규모가 큰 8대 업종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대출이 12조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종합건설업, 금속가공/기계장비 제조업 등으로 대출이 각각 7조원 이상 늘어났다. 금융보험업, 운수업, 자동차제조업 등으로의 대출도 4조~5조원 증가하였다.

자금 용도별로는 살펴보면, 2008년 중 운전자금 대출이 61조원(증가율 18.2%), 시설자금 대출은 28조원(26.1%) 증가하였다. 2008년 말 기준 운전자금은 394조원 규모로 전체 산업대출금 중 74.5%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는 시설자금은 135조원 규모(25.5%)이다.

## 2008년 가계신용 688조원, 1년 사이 58조원 증가

금융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에다 여신전문기관 및 판매회사가 제공한 판매신용을 더하면 가계가 받은 전체 신용이 된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2008년 말 잔액기준으로 688조원에 이른다. 이는 2007년에 비해 약 58조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신용 전체의 94.2%를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64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53조원(8.9%) 늘어났다.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은 25조원, 비예금은행 대출은 28조원 증가하였다. 특히 신용협동기구(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대출이 12조원, 보험기관 대출도 6조원 증가하였다. 이 밖에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약 5조원 증가하였다. 주거생활을 위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2008년 중 약 9조원 늘어났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18조원 증가하였다.

재화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 신용거래인 판매신용은 2008년 말 현재 약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조원(13.1%) 증가하였다. 이 중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한 신용이 3.4조원 늘어났고, 할부금융 회사가 제공한 신용도 1.4조원 증가하였다.

〈표 13-5〉 예금은행 금융상품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7년	구성비	증감액	2008년	구성비	증감액
예금 <sup>1)</sup>	583,170	57.2	2,467(0.4)	666,268	58.9	83,098(14.2)
요구불예금	66,936	6.6	692(1.0)	66,792	5.9	-144(-0.2)
저축성예금	516,234	50.6	1,776(0.3)	599,477	53.0	83,243(16.1)
(정기예금)	297,773	29.2	17,823(6.4)	368,922	32.6	71,149(23.9)
금전신탁	73,553	7.2	10,264(16.2)	72,593	6.4	-960(-1.3)
시장형상품	150,290	14.8	30,443(25.4)	144,242	12.7	-6,048(-4.0)
금융채	212,447	20.8	44,652(26.6)	248,563	22.0	36,116(17.0)
총수신	1,019,460	100.0	87,825(9.4)	1,131,666	100.0	112,206(11.0)

주 : 1) 은행간 거래분 제외 2) ( )내는 전년말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표 13-6〉 예금은행 대출금 증가액 및 잔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7년 증가액		2008년 증가액		2008.12말 잔액	구성비
	2007년 증가액	전년비	2008년 증가액	전년비		
산업대출금	86,835.2	24.6	88,493.8	20.1	528,536.9	57.6
제조업	22,365.7	17.5	37,414.1	25.0	187,250.7	35.4
건설업	11,786.2	36.2	8,576.3	19.4	52,876.5	10.0
서비스업	50,372.2	29.1	39,499.5	17.7	263,153.0	49.8
기타 <sup>1)</sup>	2,311.1	11.6	3,003.9	13.5	25,256.7	4.8
공공	56,727.0	20.5	60,573.6	18.2	393,775.2	74.5
시설자금	30,108.2	39.2	27,920.2	26.1	134,761.8	25.5
가계대출금	17,458.6	5.0	24,892.2	6.8	388,573.2	42.4
합계	104,293.8	14.9	113,386.0	14.1	917,110.1	100.0

자료 : 한국은행

〈표 13-7〉 가계신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7. 12말			2008. 12말		
	2007. 12말	증가액	증가율	2008. 12말	증가액	증가율
가계신용잔액 (A+B)	630,678.6	48,715.1	8.4	688,246.3	57,567.7	9.1
가계대출잔액 (A)	595,397.2	44,965.9	8.2	648,327.2	52,930.0	8.9
예금은행	363,680.9	17,458.6	5.0	388,573.2	24,892.3	6.8
<주택대출 <sup>1)</sup> >	245,763.5	4,812.1	2.0	254,735.7	8,972.2	3.7
(주택담보대출)	221,640.0	4,523.7	2.1	239,688.3	18,048.3	8.1
예금은행 이외	231,716.3	27,507.3	13.5	259,754.0	28,037.7	12.1
판매신용잔액(B)	35,281.4	3,749.2	11.9	39,919.1	4,637.7	13.1

주 : 1) 주택담보대출 +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

자료 : 한국은행

## ■ 어음교환

### 2008년 비현금 지급결제 하루 평균 230조원

2008년 중 비현금 지급수단(어음, 수표, 계좌이체, 카드, 전자화폐 등)에 의한 지급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230조원 규모로 2007년(199조원)보다 15.7% 증가하였다. 그 중 어음과 수표에 의한 결제는 하루 평균 약 32조원으로 2007년(27조원)에 비해 16.0% 증가하였다. 이는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등 약속어음이 전년 대비 약 3조원(증가율 17.6%)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감소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5.9% 줄었다.

지급결제의 약 85%를 차지하는 계좌이체 방식 결제는 2008년 하루 평균 197조원으로 2007년(171조원)에 비해 15.6%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주로 취급하는 한은금융망(거액결제시스템)과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 전자금융 공동망(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인터넷뱅킹과 펌뱅킹을 통한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7.1%, 31.4% 증가하였으며, 두 방식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약 18조원 규모다.

### 2008년 어음 교환액 17.4% 증가, 어음부도율 0.15%

2008년 중 교환된 어음은 7억4천만장, 이러한 어음으로 교환된 금액은 5,122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어음교환액은 2007년(4,361조원) 대비 약 761조원(17.4%) 증가했다. 어음 1장당 평균 교환금액이 694만원인 셈이다. 하루 평균 어음교환 장수는 299만장, 어음교환 금액은 21조원 규모이다. 어음교환 장수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어음교환액은 16.8% 증가하였다.

한편 2008년 중 부도 처리된 어음 장수는 17만 6천장에 이르며, 부도금액은 7조 6천억원 규모이다. 2007년 부도 금액이 4조 9천억원에 불과하였으므로 1년 사이 57.1%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액기준 어음부도율은 0.15%로 2007년(0.11%)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어음 교환의 45.8%를 차지하는 약속어음에서 약 6조원의 부도가 발생해 전체 부도금액의 78.9%를 차지하였다. 어음교환의 32.8%를 차지하는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는 부도 발생액이 1조원 미만(전체 부도금액의 9.8%)에 머물렀다.

## ■ 금 리

### 콜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큰 폭 하락

대표적인 정책 금리인 콜금리는 2008년 9월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동요하는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연거푸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평균 5.22%이던 콜금리는 2009년 2월 2.06%로 5개월 만에 3.16%포인트 하락하였다.

콜금리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국고채(3년물) 수익률도 같은 기간 6.03%, 5.09%에서 2.70%, 3.78%로 각각 3.33%포인트, 1.3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3년물, AA+등급) 유통수익률은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2008년 11월 8.56%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 6월에는 5.21%로 3.35%포인트 떨어졌다.

### 수신/대출 금리 2008년 중 소폭 하락, 2009년 상반기 큰 폭 하락

예금은행의 신규 수신상품에 대한 평균금리는 2008년 10월 6.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던 2005년 1월(3.40%)보다 2.9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미국 금융기관 파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 뒤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수신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 6월 저축성예금(신규 기준)에 대한 수신금리는 2.96%까지 하락하여 8개월 만에 3.35%포인트 낮아졌다. 정기예금·적금, 상호·주택 부금 등의 순수 저축성예금은 2008년 10월 6.27%에서 2009년 6월 2.88%까지 하락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채, 표지어음,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수신금리는 2008년 10월 6.38%에서 2009년 6월 3.06%까지 떨어졌다. 특히 2008년 10월에는 2년 이상 정기예금과 금융채의 경우 7% 이상의 수신금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예금은행의 신규 대출상품에 대한 평균금리도 2008년 10월에 7.79%로 가장 높았다. 이때 저축성 수신금리와의 격차는 1.48%포인트였다. 평균 대출금리는 수신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2009년 6월에는 5.47%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하락 폭은 2.32%포인트에 그쳐 수신금리 하락 폭보다 작았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간 격차는 2.51%포인트로 2008년 10월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표 13-8〉 지급결제 규모(일평균)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음·수표	4,738	24,045	4,804	27,176	4,435	31,537	-7.7	16.0
계좌이체	11,062	146,918	12,251	170,603	12,696	197,263	3.6	15.6
카드 <sup>1)</sup>	9,524	1,052	10,971	1,160	13,421	1,323	22.3	14.1
전자화폐	438	0.309	352	0.288	306	0.262	-13.1	-9.0
합 계	25,762	172,016	28,378	198,939	30,858	230,123	8.7	15.7

주 :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자료 : 한국은행

〈표 13-9〉 어음교환 및 부도 규모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률 <sup>2)</sup>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어음교환 <sup>1)</sup> (교환장수 기준)	805,077	3,718,469	799,670	4,360,723	740,234	5,121,638	-7.4	17.4
(일평균)	3,246	14,994	3,244	17,674	2,992	20,644	-7.8	16.8
부도 (부도장수 기준)	191	4,051	166	4,861	176	7,638	6.0	57.1
부도율	0.02	0.11	0.02	0.11	0.02	0.15	0.0	0.04

주 : 1) 약속어음,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포함 2) 부도율의 경우 전년대비 차이  
 자료 : 한국은행

〈표 13-10〉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추이

(단위 : 연%, %p)

구 분	2007.12	2008.10	2008.12	2009.6	증감률 <sup>3)</sup>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sup>1)</sup> (A)	5.84	6.31	5.58	2.96	-3.35	
순수저축성예금	5.74	6.27	5.66	2.88	-3.39	
시장형금융상품	6.01	6.38	5.39	3.06	-3.32	
대출 평균금리 <sup>2)</sup> (B)	7.08	7.79	6.89	5.47	-2.32	
기업 대출	7.16	7.80	6.87	5.53	-2.27	
가계 대출	6.99	7.77	7.01	5.47	-2.30	
대출 수신 금리차(B-A)	1.24	1.48	1.31	2.51	1.03	
시장금리 (유통수익률)	콜금리(무담보)	4.99	4.88	3.27	1.93	-2.95
	CD(91일)	5.73	6.03	4.68	2.41	-3.62
	국고채(3년)	5.89	5.09	3.97	4.09	-1.00

주 : 1)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3) 2008.10월 대비 증감  
 자료 : 한국은행

##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2008년 주가지수 급락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벤처투자 활성화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호황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2001년 500포인트였던 KOSPI 주가지수도 2007년 10월 2000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2003~2004년에는 카드 사태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KOSPI 지수가 다소 주춤하였고, KOSDAQ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데다 2006~2007년의 수출 호황과 내수의 완만한 성장에 힘입어 KOSPI 및 KOSDAQ 지수는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가격 상승과 미국 주택시장 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2/4분기까지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2008년 9월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의 파산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KOSPI와 KOSDAQ 주가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KOSPI 지수가 1000포인트 대까지, KOSDAQ 지수도 300포인트 대까지 하락하였다. 그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에 힘입어 2009년 6월 현재 KOSPI 지수는 1300포인트 대, KOSDAQ 지수는 500포인트 대까지 회복되었다.

## 주식 시가총액 감소, 증권시장 규모 축소

증권시장은 상장 기업의 주식, 기업과 정부가 발행한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이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총액(시가총액+잔액)은 2008년 말 1,48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1,883조원)보다 약 395조원 줄어든 것이다.

이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이 KOSPI시장에서 952조원에서 577조원으로 39.4%(375조원), KOSDAQ시장에서는 100조원에서 46조원으로 무려 53.8%(54조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유가증권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5.9%에서 41.9%로 14.0%포인트 축소되었다.

이와는 달리 2008년 말 상장채권 잔액은 공채가 767조원, 사채가 97조원으로 2007년 말(736조원과 95조원)에 비해 각각 31조원(4.2%), 2조원(2.5%)씩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유가증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공채는 39.1%에서 51.6%로,

사채는 5.0%에서 6.5%로 확대되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분포를 보면 개인이 186조원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인이 176조원, 외국인이 169조원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기관투자가 73조원, 정부 및 정부기업이 17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소유 비중은 개인과 일반법인이 2007년 각각 25.3%, 21.0%에서 2008년에 30.0%, 28.3%로 확대되었으며,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2007년 각각 30.9%, 20.0%에서 2008년에 27.3%, 11.7%로 축소되었다.

### 2008년 증권시장 통해 조달한 자금 145조원

증권시장을 통해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신규 주식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회사채와 국공채 발행이다. 2008년 중 이렇게 증권시장을 통해 발행된 유가증권은 145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147조원)에 비해 약 2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가 하락으로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 신규 주식은 5조원 발행에 그쳤으며 발행 규모는 2007년(17조원)보다 12조원이나 줄었다. 그 중 공모로 발행한 주식은 미미하였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약 4조원 규모다. 회사채와 국공채의 발행액은 각각 53조원과 87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3조원씩 증가하였다.

### 유가증권 거래액 1,969조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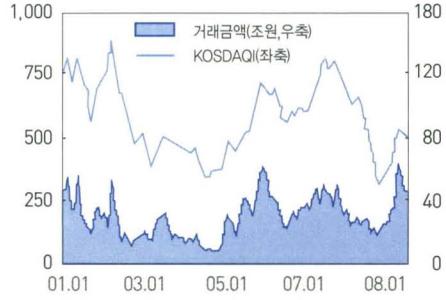
경기침체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2008년 중 주식거래는 크게 위축되었다. 2008년 1년 동안 KOSPI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은 약 881억 주, KOSDAQ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은 1,250억 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거래량보다 각각 1.6%, 17.2% 줄어든 수준이다.

2008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유가증권 거래총액은 1,96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2,214조원)보다 245조원 줄어든 규모다. 2008년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보면 KOSPI시장의 주식거래 금액은 1,287조원으로 2007년(1,363조원)에 비해 5.6% 감소하였다. KOSDAQ시장의 주식거래대금은 308조원으로 2007년(500조원)에 비해 무려 38.3%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권거래 금액은 374조원을 기록하여 2007년(351조원) 대비 6.5% 증가하였다.

[그림 13-8] KOSPI시장 지표 추이



[그림 13-9] KOSDAQ시장 지표 추이



<표 13-11> 증권시장 규모

(단위 : 십억원, %)

증권 유형		2007년	구성비	증가율	2008년	구성비	증가율
상장주식	KOSPI	951,900	50.6	35.1	576,888	38.8	-39.4
	시가총액	KOSDAQ	99,876	5.3	38.5	46,125	3.1
상장채권	공채	736,060	39.1	8.6	767,237	51.6	4.2
	사채	94,777	5.0	-6.2	97,165	6.5	2.5
총 계		1,882,613	100.0	21.0	1,487,415	100.0	-21.0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표 13-12> 유가증권 발행 규모

(단위 : 십억원, %)

증권 유형		2007년	구성비	증가율	2008년	구성비	증가율
주	식 <sup>1)</sup>	17,243	11.7	10,820	5,080	3.5	△12,163
회	사 채	45,160	30.7	4,237	52,759	36.3	7,599
국	공 채 <sup>2)</sup>	84,513	57.5	△11,925	87,406	60.2	2,893
총 계		146,915	100.0	3,132	145,244	100.0	△1,671

주 : 1) 공모분 + 유상증자분 2) 통화안정증권 제외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표 13-13> 증권지표 및 거래규모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6	증가율	2007	증가율	2008	증가율	
주가 지수	KOSPI	1,352.2	26.0	1,712.5	26.6	1,529.5	-10.7	
	KOSDAQ	622.0	17.8	718.5	15.5	525.6	-26.8	
주식 거래액	주	KOSPI	68,937	-40.8	89,478	29.8	88,091	-1.6
	수	KOSDAQ	134,051	-10.0	151,001	12.6	125,021	-17.2
	금	KOSPI	848,490	7.9	1,362,739	60.6	1,287,032	-5.6
	액	KOSDAQ	427,516	-4.2	499,516	16.8	308,077	-38.3
채권 거래 금액		294,933	-18.7	351,299	19.1	373,978	6.5	
유가증권 거래액		1,570,939	-1.5	2,213,554	40.9	1,969,087	-11.0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증가세 둔화

우리나라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2009년 3월 말 기준 1,67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인 2008년 3월 말(1,626조원)보다 44조원 증가한 것이며, 1996년 3월말(429조원)의 약 4배 수준이다. 그러나 보유계약액의 연간 증가 규모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113조원)보다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1996년 429조원 규모에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여 5년 뒤 2001년에 거의 두 배인 822조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09년 3월말 보유계약액 중 보장성 생명보험은 1,349조원(보유계약액의80.8%), 저축성 생명보험은 321조원(19.2%) 규모다. 생명보험의 8할 이상이 보장성 보험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새로 계약한 생명보험은 390조원으로 전년 대비 0.9%에 그쳤다. 그러나 신계약 규모는 2006년부터 30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신계약액을 보유계약으로 나눈 신계약률은 2001년 42.4%에서 2009년 24.0%로 낮아졌다. 이처럼 신계약률은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해약이나 효력상실 등으로 감소한 계약액이 251조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했다. 2006~2007회계연도 사이 효력상실 및 해약 금액은 연평균 190조원 내외의 규모였다. 이에 따라 효력상실 및 해약 금액을 보유계약액으로 나눈 효력상실 및 해약률은 2008회계연도에 12.4%로 2007회계연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효력상실 및 해약률은 경기 침체기인 1997~1999년, 2003~2004년에도 소폭 상승하였다.

## 생명보험 지급률 상승, 운용자산 대비 이익률은 하락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액은 2009년 3월말 245조원 규모로 직전 회계연도인 2008년 3월말(227조원)보다 약 18조원 증가하였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축적해 운용하는 운용자산은 1996년 약 66조원 규모에서 10년 후인 2006년 186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운용자산은 2006년부터 연평균 20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1년간 보험료 수익은 51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손익은 같은 기간 1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운용자산 대비 이익률은 4.8% 수준이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같은 기간 3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지급보험금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보험금 지급률은 같은 기간 69.4%를 기록하였다.

보험금 지급률은 과거 5~6년 동안 안정적인 60%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외환위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는 시기에는 생명보험금 지급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2000년에는 90.7%까지 상승하였다. 운용자산 대비 이익률은 이처럼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하면 하락한다.

운용자산 대비 이익률은 1998년 3월까지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6% 내외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다.

### 손해보험 경과보험과 발생손해액 계속 증가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2009년 3월말 59조원 규모로 직전 회계연도인 2008년 3월 말(53조원)보다 약 6조원(11.3%) 증가하였다. 이는 1996년 3월말(10조원)보다 약 6배 증가한 수준이다. 손해보험사의 운용자산은 가입자들의 납부 보험료로 축적한 자산이며, 2006년 이후 연평균 3조~6조원씩 늘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가입자들로부터 수취한 손해보험사의 경과보험료는 약 36조원 규모로 2007년 회계연도(31조원)보다 약 5조원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투자영업이익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되어 운용자산 대비 이익률은 4.8%로 나타났다. 각종 상해사고 등으로부터 집계된 발생손해액은 같은 기간 중 14조원을 기록하였다. 발생손해액은 2001년에 6조원 규모이었는데 2006년 이후 거의 매해 2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2009년 76.4%를 기록하였다. 경과보험료가 23조원 규모인 화재, 해상, 자동차 등의 단기 상해보험은 경과손해율이 61.2%인데 반면 경과보험료가 11조원인 장기 상해보험과 개인연금의 경과손해율은 100%를 넘었다.

경과손해율은 생명보험 지급률과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크게 높아졌다. 2000년에는 무려 109.1%까지 높아졌으나 그 이후 바로 80%대로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70%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경과손해율이 높으면 손해보험회사의 운영자산 이익률은 낮아진다. 실제로 1998년까지 10% 내외를 유지하였던 운영자산 이익률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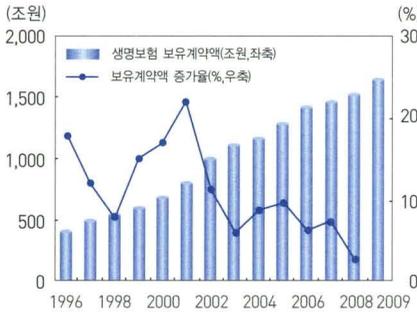
〈표 13-14〉 생명보험시장 규모 및 지표

(단위 : 3월말 기준,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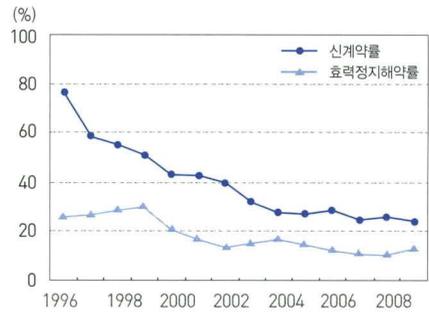
연도	보유액	증감		신계약		효력상실·해약	
		증감	증가율	신계약	신계약률	효력상실·해약	효력상실·해약률
1996. 3월	429.0	102.2	31.3	250.9	76.7	149.8	25.9
2001. 3월	821.8	119.9	17.1	297.7	42.4	159.6	16.0
2006. 3월	1,422.6	127.3	9.8	362.0	27.9	195.6	11.8
2007. 3월	1,513.4	90.8	6.4	348.9	24.5	187.4	10.6
2008. 3월	1,625.9	112.5	7.4	385.9	25.5	192.9	10.2
2009. 3월	1,670.1	44.2	2.7	389.5	24.0	250.5	12.4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13-10〕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그림 13-11〕 신계약률 및 해약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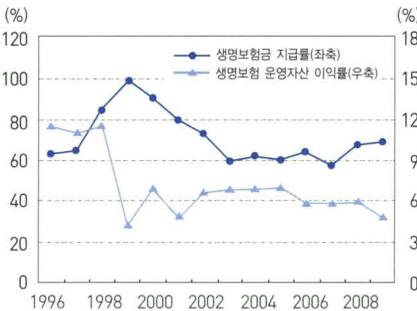
〈표 13-15〉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지표

(단위 :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기준,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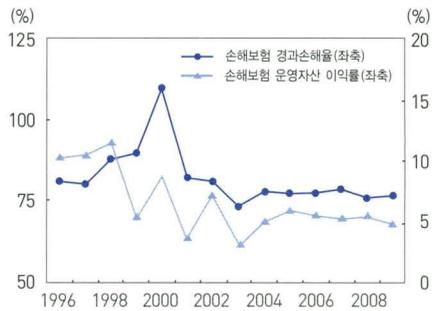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운용 자산	이익률	보험료 수입	지급 보험금	지급률	운용 자산	이익률	경과 보험료	발생 손해액	손해율
1996. 3월	65.5	11.5	35.3	22.4	63.4	10.4	10.3	9.8	8.0	80.9
2001. 3월	99.8	4.7	46.7	37.4	80.1	22.1	3.7	15.0	6.3	82.5
2006. 3월	186.1	6.0	47.8	30.4	63.6	40.5	5.6	23.2	9.1	77.5
2007. 3월	206.9	5.8	49.6	28.1	56.6	46.2	5.3	26.6	10.7	78.3
2008. 3월	226.7	5.9	51.7	34.4	66.6	53.4	5.5	31.2	12.0	76.0
2009. 3월	245.0	4.8	51.2	35.5	69.4	59.3	4.8	35.7	14.4	76.4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13-12〕 생명보험 경영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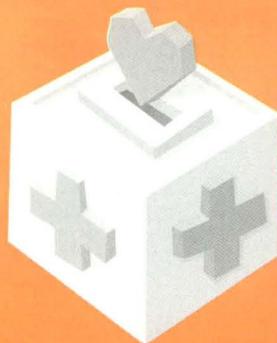
〔그림 13-13〕 손해보험 경영지표 추이



# 14장

## 보건 및 사회보장

- 14-1 의료기관
- 14-2 의료인력
- 14-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 14-4 초·중·고등학생의 신장
- 14-5 초·중·고등학생의 체중
- 14-6 장애인 복지시설
- 14-7 노인복지 생활시설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1975년 보다 종합병원 4.9배, 병원 7.1배 증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혜원으로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정부 후원을 받아 세운 국립병원이다. 양반집을 개조하여 만든 병원으로 외래 진찰소, 수술실, 약국, 병실 등을 갖춘 국립 의료기관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학실습 교육도 하였다. 의료진으로는 미국인 의사인 알렌을 초빙해 환자 진료를 실시하였다. 광혜원은 제중원(濟衆院)으로, 다시 세브란스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 세브란스병원의 모태가 되었다.

1975년 종합병원은 37개로 인구 10만 명당 0.1개꼴이었다. 병원은 133개(인구 10만 명당 0.4개), 의원 6,087개(인구 10만 명당 17.3개), 치과병의원은 1,614개(인구 10만 명당 4.6개), 한방병의원은 2,382개(인구 10만 명당 6.8개), 보건기관은 1,536개(인구 10만 명당 4.4개)였다.

1975년 37개에 불과했던 종합병원은 10년 뒤인 1985년 183개, 1995년 266개, 2007년에는 302개로 꾸준히 증가하여 1975년의 4.9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수도 1975년 0.1개에서 1995년 0.59개, 2007년에는 0.62개로 증가했다. 병원 수가 늘어난 데 비해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가 더디게 증가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이비붐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75년 133개였던 병원은 1985년에 2.4배 증가한 317개, 1995년 398개, 2007년에는 945개로 1975년보다 812개 늘어 1975년의 7.1배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는 1975년 0.38개에서 1995년 0.88개, 2007년에는 1.95개로 인구 10만 명당 거의 2개꼴이다.

## 1975년 보다 의원 4.3배, 치과병의원 8.3배, 한방병의원 4.6배 증가

의원은 1975년 6,087개에서 1995년에 2.4배 증가한 1만4천개, 2007년에는 2만 6천개로 1975년보다 2만 개 이상 증가하여 4.3배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는

1975년 17개에서 1995년 32개, 2007년에는 54개로 1975년의 3.1배로 늘어났다.

치과병원은 1975년 1,614개에서 1995년에 5.1배인 8,304개, 2005년과 2007년에는 거의 비슷한 1만3천개로 1975년의 8.3배에 해당된다. 인구 10만 명당 치과병원의 수는 1975년 4.6개에서 1995년에 18.4개로 4배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8개다.

한방병원의원도 1975년 2,382개에서 1995년 5,997개, 2007년 1만1천개까지 늘어나 1975년의 4.6배다.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원의원 수는 1975년 6.8개에서 1995년 13.3개, 2007년에는 23개로 1975년보다 16개 증가하였다.

보건기관은 1975년 1,536개에서 1995년 3,604개, 2007년에는 1975년의 2.3배로 증가한 3,473개다. 보건기관은 1990년 3,616개소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는 2006년보다 31개 증가하였다.

### 요양병원 2005년부터 급증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1980년까지 거의 없었던 특수병원인 정신병원이 1985년 8개에서 2000년 79개, 2005년 102개, 2007년에는 107개에 이르렀다.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2008년부터 실시) 도입 등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늘어나 2005년 177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30개가 늘어난 593개로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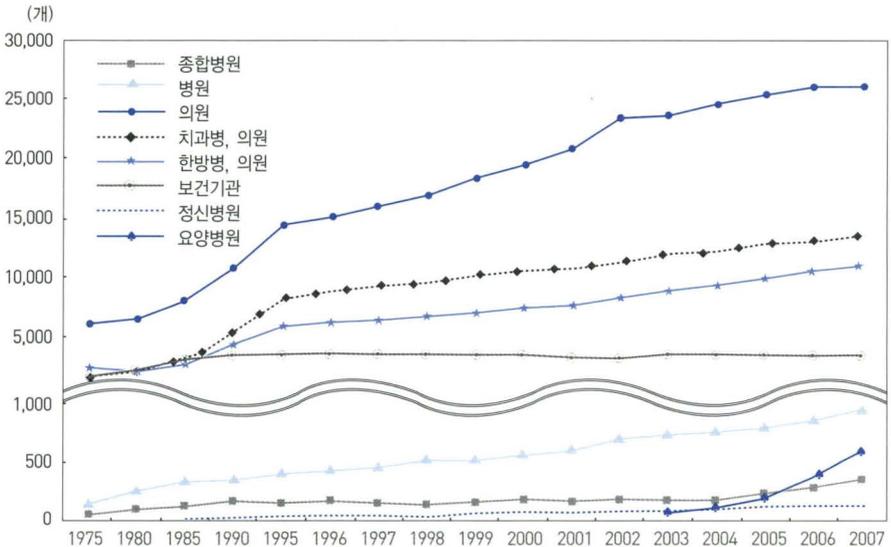
〈표 14-1〉 의료기관 및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수

(단위 : 개)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sup>1)</sup>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sup>2)</sup>		정신병원	요양병원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0만명당			
1975	37	0.10	133	0.38	6,087	17.25	1,614	4.57	2,382	6.75	1,536	4.35	-	-
1980	82	0.22	240	0.63	6,344	16.64	2,028	5.32	2,328	6.11	1,535	4.03	-	-
1985	183	0.45	317	0.78	8,069	19.77	2,998	7.35	2,791	6.84	3,168	7.76	8	-
1990	228	0.53	328	0.77	10,935	25.51	5,292	12.34	4,294	10.02	3,616	8.43	26	-
1995	266	0.59	398	0.88	14,343	31.81	8,304	18.42	5,997	13.30	3,604	7.99	37	-
1996	271	0.60	421	0.92	15,002	32.95	8,775	19.28	6,253	13.74	3,603	7.91	45	-
1997	262	0.57	456	0.99	15,876	34.55	9,243	20.11	6,446	14.03	3,594	7.51	45	-
1998	255	0.55	517	1.12	17,041	36.82	9,684	20.92	6,697	14.47	3,450	7.40	42	-
1999	277	0.59	517	1.11	18,507	39.70	10,149	21.77	6,962	14.93	3,424	7.33	76	-
2000	285	0.61	581	1.24	19,472	41.42	10,527	22.39	7,412	15.77	3,417	7.23	79	-
2001	268	0.57	599	1.26	20,819	43.97	10,616	22.42	7,630	16.11	3,401	7.18	70	-
2002	284	0.60	691	1.45	23,299	48.93	11,200	23.52	8,232	17.29	3,401	7.17	75	-
2003	283	0.59	730	1.53	23,502	49.12	11,989	25.06	8,885	18.57	3,416	7.14	88	68
2004	282	0.59	763	1.59	24,491	50.94	12,075	25.11	9,350	19.45	3,420	7.11	95	92
2005	290	0.60	794	1.64	25,412	52.62	12,643	26.18	9,911	20.52	3,433	7.11	102	177
2006	295	0.61	850	1.76	26,078	54.00	12,942	26.80	10,436	21.61	3,442	7.13	107	363
2007	302	0.62	945	1.95	26,265	54.20	13,431	27.72	11,033	22.77	3,473	7.17	107	593

주 : 1) 회사내 부속의원, 조산원 제외 2)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996, 2006, 2008

〈그림 14-1〉 의료기관 추이



## 의사 9만 1천명, 75년 대비 5.5배 증가

1970년대 이후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료 인력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1975년 당시 의사는 1만 7천명으로 의사 1명이 인구 2,100명의 진료를 맡는 셈이었다. 치과의사는 2,595명으로 치과의 1명에 인구 1만 4천명, 간호사 6만 7천명에 간호사 1인당 인구는 500명, 한의사 2,800명에 한의사 1인당 인구 1만 3천명, 약사 2만 명으로 약사 1인당 인구는 1,800명꼴로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1995년 의사 수는 1975년의 3.4배인 5만 7천명, 2007년에는 그 5.5배인 9만 1천명까지 의사 인력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 1인당 해당 인구는 1975년 2,100명에서 1995년 789명, 2007년 530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치과의사는 1975년 2,595명에서 20년 뒤 1995년에는 1975년의 5.3배로 증가한 1만 4천명, 2007년에는 2만 3천명으로 늘어났다. 치과의사 1인당 해당 인구는 1975년 1만 4천명에서 1만 명 정도 줄어든 3,300명(1995년)이었으며, 2007년에는 2,100명으로 1975년보다 1만 2천명 감소하여 치과는 의료기술 측면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간호사는 1975년 6만 7천명에서 1995년에 그 4.6배로 증가한 31만 명, 1999년에는 39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그 결과 간호사 1인당 해당 인구는 1975년 526명, 1995년 146명을 거쳐 1999년에는 120명으로 줄었다. 이때까지의 통계는 간호 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간호 인력은 1999년 39만 명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결과 2000년에는 16만 명으로 낮아졌다. 이를 보면<sup>1)</sup> 간호인력의 60%는 조무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2007년에는 2000년(16만명)보다 7만 5천명 증가한 23만 6천명으로 간호사 1인당 해당 인구도 293명에서 206명으로 낮아져 간호인력이 크게 증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의사는 1975년 2,788명, 1995년에는 1975년의 3.1배인 8,714명, 2007년에는 그 6배로 증가한 1만 7천명이다. 한의사 1인당 해당되는 인구는 1만 3천명(1975년)에서 1995년 5,175명, 2007년에는 2,896명까지 감소했다.

1) 1999년까지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었음

약사의 경우 1975년 2만 명에서 1995년에 1975년의 두 배를 넘는 4만 3천명, 2007년에는 거의 3배 정도인 5만 7천명이다. 약사 1인당 해당 인구도 1,786명(1975년)에서 847명(2007년)으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6명

보건복지가족부 발표<sup>2)</sup>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적다. OECD 회원국 평균 3.0명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의사 인력이 빠르게 늘어나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1인당 의사 수가 두 배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신설된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 수의 증가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1인당 간호사 수 역시 대부분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2004년 인구 1천명 당 1.9명으로 OECD 평균(8.6명)보다 낮으나 지난 10년간 1인당 간호사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의료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6.8회)보다 많다. 2005년 외래진찰 회수는 1999년(8.8회)보다 3회 늘었는데 OECD 회원국은 거의 변화가 없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이 수월함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2.5회(2004년), 스웨덴 2.8회, 터키 3.1회(2004년)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일본 13.8회(2004년), 체코 13.2회, 헝가리 12.6회 등은 OECD 평균 진료회수보다 많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OECD 국가에서 CT스캐너와 MRA 같은 진단기술이 빠르게 보급됐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인구 100만 명당 CT스캐너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 12.2대에서 2005년 32.2대로 늘어났다. 이와 유사하게 인구 100만 명당 MRA 장비 수도 1990년 1.4대에서 2005년 12.1대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일본은 CT 및 MRA 장비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100만 명당 CT 스캐너가 93대, MRA 장비가 40대다.

---

2)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실태 분석 결과—OECD Health Data 2007년을 중심으로(2008.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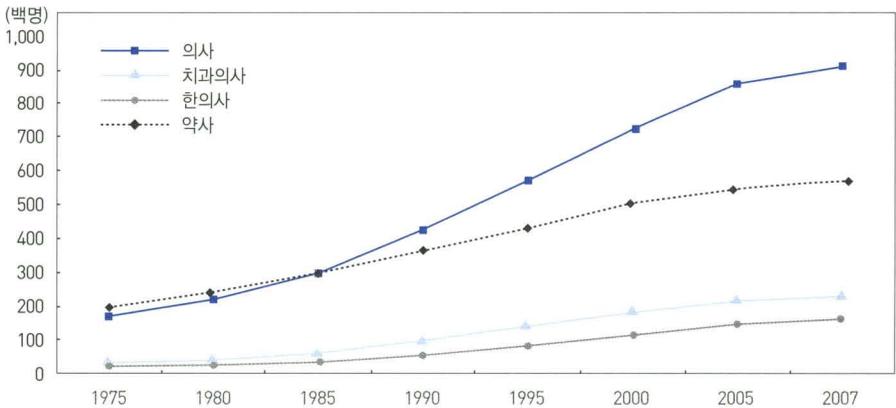
〈표 14-2〉 의료인력 및 인력 1인당 인구

(단위 : 명)

연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sup>1)</sup>		한 의사		약사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975	16,800	2,100	2,595	13,596	67,065	526	2,788	12,654	19,750	1,786
1980	22,564	1,690	3,620	10,531	101,445	376	3,015	12,645	24,366	1,565
1985	29,596	1,379	5,436	7,507	165,444	247	3,789	10,770	29,866	1,366
1990	42,554	1,007	9,619	4,457	224,746	191	5,792	7,401	37,118	1,155
1995	57,188	789	13,681	3,296	309,129	146	8,714	5,175	43,269	1,042
1996	59,399	766	14,371	3,168	324,933	140	9,299	4,896	44,577	1,021
1997	62,609	734	15,383	2,987	341,404	135	9,289	4,947	45,820	1,003
1998	65,431	707	16,126	2,870	359,812	129	9,914	4,669	46,998	985
1999	69,724	669	17,276	2,698	389,807	120	11,345	4,109	49,214	947
2000	72,503	648	18,039	2,606	160,295	293	12,108	3,911	50,623	929
2001	75,295	629	18,887	2,507	170,845	277	12,794	3,700	51,872	913
2002	78,609	606	19,672	2,422	181,800	262	13,662	3,487	53,168	896
2003	81,328	589	20,446	2,344	192,480	249	14,553	3,293	54,381	881
2004	81,998	586	20,742	2,318	202,012	238	14,421	3,334	53,492	899
2005	85,369	564	21,581	2,231	213,644	225	15,271	3,152	54,829	878
2006	88,214	548	22,267	2,169	223,781	216	15,918	3,034	55,845	865
2007	91,475	530	23,126	2,095	235,687	206	16,732	2,896	57,176	847

주 : 1) 1999년까지는 간호조무사 포함, 2000년 이후 제외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996, 2006, 2008

[그림 14-2] 의료인력 추이



주 : 각 연도는 감안하지 않음

## 3대 사망원인-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사망자의 절반

우리나라 사람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이들 환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33.2%에서 2008년 48.1%로 커졌다. 특히 암은 1988년 전체 사망자의 15.0%를 차지했던 것이 2008년 28.0%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 이는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부족, 음주, 흡연, 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고령화된 인구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심장질환 사망자는 관련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의 유병률 증가로 사망자 구성비가 7.1%에서 8.7%로 높아졌다. 자살은 급격한 경제 사회 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사회 안전망 부족, 가족 유대관계 약화로 크게 늘어 1988년 1.3%에서 2008년에는 5.2%로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뇌혈관질환은 2002년(15.1%)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비율이 향상된 덕분에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다.

## 10대 사인 대부분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 높아

2008년 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남자는 자살, 간질환, 운수사고, 당뇨병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여자는 당뇨병, 자살, 고혈압성질환, 만성하기도질환의 순서였다. 10대 사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사인에서 사망률이 높았다.

1988년과 2008년의 사망원인 순위를 비교하면 남자는 1~2위(암, 뇌혈관질환)에서, 여자는 1~3위(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그 밖의 사망원인 순위에서 남자는 심장질환(4위→3위), 자살(9위→4위)이 높아졌고, 간질환(3위→5위), 운수사고는 6위 그대로, 고혈압성질환(5위→11위)은 낮아졌다. 이와는 달리 여자는 폐렴이 10위로 그대로, 고혈압성질환(4위→6위), 간질환(5위→10위), 운수사고(6위→9위) 등은 낮아졌다.

2007년을 기준으로 특정 사인을 제거하면 늘어나는 기대수명은 암의 경우 남자 5.0년, 여자 2.7년이며, 뇌혈관질환은 남자 1.6년, 여자 1.6년, 심장질환은 남자 1.2년, 여자 1.1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 10대 이하 운수사고, 20~30대 자살, 40대 이상 암이 사망원인 1위

2008년 원인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보면 1~9세와 10대는 운수사고, 20~30대는 자살, 40대 이상은 암이 사망원인 1위였다. 암은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2~3위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장 주된 사망원인이었다.

자살은 20~30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10대와 40대에서도 2위를 차지하여 젊은 연령층의 가장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40대는 간질환, 50대는 뇌혈관질환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였으며, 60대 이상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각각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 영아사망률 3.4명, 알코올 관련 사망자 하루 평균 12.7명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영아 사망자는 1,580명으로 2007년보다 123명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명당)은 3.4명으로 1.8%포인트 낮아졌고, 남아(3.5명)가 여아(3.3명) 보다 높고 전체 영아 사망의 54.3%가 신생아기(출생 후 28일 미만)에 발생한다.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호흡곤란, 심장 선천기형으로 전체 영아 사망의 23.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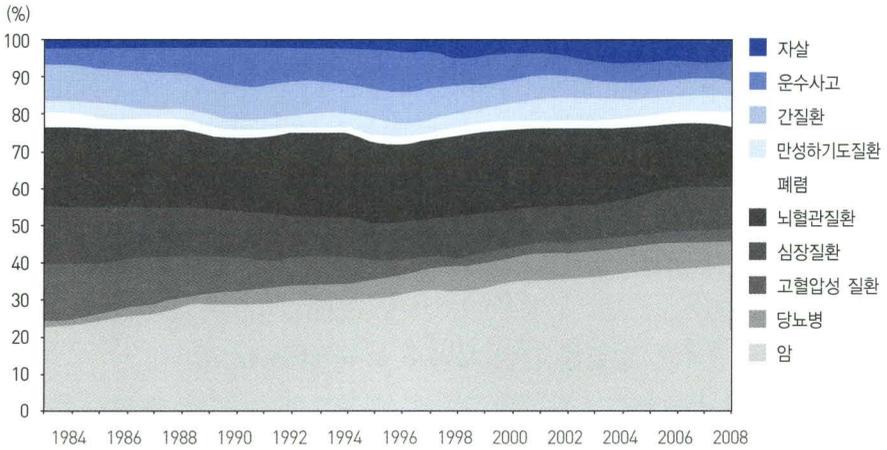
2008년 알코올을 관련 사망자는 하루 평균 12.7명, 알코올 관련 사망률(인구10만 명당)은 9.4명으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하였다. 남자(17.1명)가 여자(1.6명)의 10.6배나 되며, 알코올을 관련 연령별 사망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5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하면 50대, 70대 연령층에서 증가하였고 그 외 연령층은 모두 감소하였다.

## 인구 10만명 당 암 사망률 153.5명

암에 의한 사망률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보건복지가족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2008년 7월) 2006년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153.5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암사망률(162.0명)보다 8.5명 적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한국의 남자 암 사망률은 242.3명으로 여자 95.2명보다 약 2.5배 많다.

OECD 국가의 평균 암 사망률은 남자는 10만 명당 214.3명, 여자는 125.1명이다. 모든 OECD 회원국의 암 사망률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2006년 OECD 회원국 암 사망률의 성별 차이(남자-여자)는 슬로바키아(149.6명), 한국(147.1명), 헝가리(146.7명)가 특히 높았는데 남자 사망률이 여자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그림 14-3]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분포 추이



〈표 14-3〉 한국인의 성별 사망률 순위 (1988, 1998, 2008년)

(단위 : 명)

순 위	1988				1998				2008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1	암	107.0	암	61.4	암	138.6	암	78.3	암	176.9	암	101.9
2	뇌혈관질환	64.9	뇌혈관질환	59.9	뇌혈관질환	70.4	뇌혈관질환	76.8	뇌혈관질환	54.7	뇌혈관질환	58.3
3	간질환	45.7	심장질환	35.3	심장질환	41.2	심장질환	35.7	심장질환	43.1	심장질환	43.6
4	심장질환	43.9	고혈압성질환	30.0	간질환	39.5	당뇨병	20.6	자살	33.4	당뇨병	20.5
5	고혈압성질환	37.7	간질환	11.2	운수사고	38.3	운수사고	12.8	간질환	23.3	자살	18.7
6	운수사고	30.6	운수사고	9.9	자살	26.5	만성하기도	11.4	운수사고	21.8	고혈압성질환	12.7
7	호흡기결핵	16.8	만성하기도	6.9	당뇨병	21.3	자살	10.3	당뇨병	20.9	만성하기도	11.5
8	추락	11.7	폐렴	6.5	만성하기도	13.9	고혈압성질환	9.7	만성하기도	18.2	폐렴	10.8
9	자살	10.4	호흡기결핵	6.1	호흡기결핵	10.4	간질환	9.6	폐렴	11.3	운수사고	7.7
10	익사	8.5	당뇨병	5.6	폐렴	7.7	폐렴	5.3	추락	6.7	간질환	5.7

주 :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1cm 더 커

국민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목 GNI(Gross Nation Income)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100만원에서 10년 동안 그 4.3배인 435만원(1990년)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0년의 4배 수준인 1,226만원, 2007년은 1,863만원으로 2000년보다 55% 증가하였다.

연 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sub>p</sub>
만원(명목)	100	201	435	881	1,226	1,681	1,863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신장도 1970년 이후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7세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17.9cm였다. 이를 기준으로 1980년에는 120.0cm로 10년 사이 2.1cm 커졌고, 1990년은 123.8cm로 5.9cm, 2000년은 125.7cm로 7.8cm, 2007년은 127.4cm로 1970년에 비해 9.5cm나 커졌다. 7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15.4cm에서 1980년은 4.2cm 커진 119.6cm, 1990년은 122.7cm로 7.3cm, 2000년은 124.3cm로 8.9cm, 2007년은 126.1cm로 1970년에 비해 10.7cm 커졌다.

7세 아동의 남녀 신장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크며, 그 차이는 1970년 2.5cm에서 1975년과 1980년에는 각각 0.5cm, 0.4cm 남자가 크고 이 밖의 연도에는 1.1cm~1.4cm의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10세 남학생 평균 신장은 1970년 130.3cm에서 1990년에 138.6cm로 8.3cm, 2000년은 141.6cm로 11.3cm, 2007년에는 143.7cm로 13.4cm 커졌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29.6cm에서 1980년은 5.2cm 커진 134.8cm, 1990년은 139.3cm로 9.7cm, 2000년은 142.4cm로 12.8cm, 2007년에는 144.8cm로 15.2cm 커졌다.

10세 아동의 남녀 신장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70년과 1975년을 제외하고 1980년부터 남자보다 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는 대체로 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한계가 있으며, 2007년에는 여자가 1.1cm 커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이 9.5cm 커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남학생 12세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43.7cm에서 1990년은 150.1cm로 6.4cm, 2000년은 154.3cm로 10.6cm, 2007년에는 158.3cm로 1970년에 비해 14.6cm 커졌다. 12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44.2cm에서 1990년은 159.9cm로 15.7cm, 2007년에는 156.1cm로 70년에 비해 11.9cm 커졌다.

12세 중학교 1학년생의 남녀 신장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70년~1995년까지는 여자가 컸는데, 2000년 이후 남자가 더 큰 것으로 바뀌었으며 2007년에는 2.2cm의 차이가 났다.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남학생 14세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52.0cm였고, 이를 기준으로 1990년은 162.5cm로 10.5cm, 2007년에는 169.2cm로 1970년에 비해 17.2cm 커졌다. 14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51.0cm에서 1990년은 156.6cm로 5.6cm, 2007년에는 159.7cm로 1970년에 비해 8.7cm 커졌다.

14세 중학교 3학년생의 남녀 신장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전부 남자가 크게 나타나 14세 이상에서는 거의 남자가 여자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1970년 1.0cm 차이에서 2007년에는 9.5cm나 남자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3cm 커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남학생 15세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60.8cm에서 1980년은 1.4cm 커진 162.2cm, 1990년은 166.8cm로 6.0cm, 2000은 170.3cm로 9.5cm, 2007년에는 172.0cm로 1970년에 비해 11.2cm 커졌다. 15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53.4cm에서 1980년은 2.3cm 커진 155.7cm, 1990년은 157.6cm로 4.2cm, 2000년은 159.6cm로 6.2cm, 2007년에는 160.4cm로 7.0cm 커졌다.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의 남녀 신장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매년 남자가 크고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각 11.4cm, 11.6cm나 남학생이 컸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남학생 17세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65.9cm에서 1980년은 1.5cm 커진 167.4cm, 1990년은 170.1cm로 4.2cm, 2000년은 172.7cm로 6.8cm, 2007년에는 173.9cm로 1970년에 비해 8.0cm 커졌다. 17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970년 156.5cm에서 1980년은 0.7cm 커진 157.2cm, 1990년은 158.6cm로 2.1cm, 2000년은 160.6cm로 4.1cm, 2007년은 160.9cm로 1970년에 비해 4.4cm 커졌다.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생의 남녀 신장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70년에는 남자가 9.4cm 컸는데, 그 이후 10cm이상으로 벌어져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각 12.6cm, 13.0cm에 이르렀다.

〈표 14-4〉 초등학교 학생 신장 현황

(단위 : cm)

연도	초 등 학 생											
	7세			8세			10세			11세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1970	117.9	115.4	2.5	121.9	119.9	2.0	130.3	129.6	0.7	134.4	133.2	1.2
1975	118.3	117.8	0.5	120.8	121.9	-1.1	132.5	132.2	0.3	136.8	137.6	-0.8
1980	120.0	119.6	0.4	125.1	124.5	0.6	134.4	134.8	-0.4	139.3	140.3	-1.0
1985	122.1	120.9	1.2	126.9	125.9	1.0	136.6	136.8	-0.2	141.4	143.2	-1.8
1990	123.8	122.7	1.1	128.8	128.1	0.7	138.6	139.3	-0.7	144.1	145.8	-1.7
1995	125.2	123.9	1.3	130.7	129.3	1.4	140.6	141.4	-0.8	146.3	147.9	-1.6
2000	125.7	124.3	1.4	131.0	129.8	1.2	141.6	142.4	-0.8	147.5	149.1	-1.6
2005	126.5	125.3	1.2	132.0	131.0	1.0	143.0	143.7	-0.7	149.1	150.3	-1.2
2007	127.4	126.1	1.3	132.9	131.8	1.1	143.7	144.8	-1.1	150.4	151.1	-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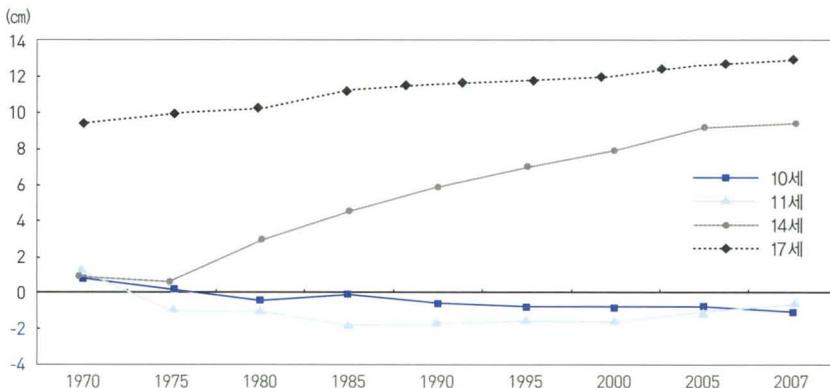
〈표 14-5〉 중·고등학교 학생 신장 현황

(단위 : cm)

연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12세			14세			15세			17세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1970	143.7	144.2	-0.5	152.0	151.0	1.0	160.8	153.4	7.4	165.9	156.5	9.4
1975	143.4	145.2	-1.8	153.9	153.4	0.5	161.6	154.9	6.7	166.8	156.8	10.0
1980	144.2	146.5	-2.3	156.8	153.8	3.0	162.2	155.7	6.5	167.4	157.2	10.2
1985	147.4	149.7	-2.3	160.2	155.5	4.7	164.8	156.7	8.1	169.1	157.7	11.4
1990	150.1	159.9	-9.8	162.5	156.6	5.9	166.8	157.6	9.2	170.1	158.6	11.5
1995	152.6	153.2	-0.6	165.3	158.2	7.1	168.8	158.9	9.9	171.5	159.8	11.7
2000	154.3	153.9	0.4	166.6	158.7	7.9	170.3	159.6	10.7	172.7	160.6	12.1
2005	156.4	154.9	1.5	168.5	159.3	9.2	171.6	160.2	11.4	173.6	161.0	12.6
2007	158.3	156.1	2.2	169.2	159.7	9.5	172.0	160.4	11.6	173.9	160.9	13.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그림 14-4] 남녀학생 신장차이



## 70년 대비 초등 6학년생 체중 약 15kg 증가

1인당 열량 공급량을 보면 1980년 2,485Kcal에서 1990년 2,853Kcal로 368Kcal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3,000Kcal를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의 체중도 놀랍게 향상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 7세 남학생 체중은 1970년 21.4kg에서 1990년 24.2kg로 2.8kg 증가, 2000년은 26.1kg로 4.7kg 늘어났고 2007년에는 27.9kg로 6.5kg 증가하였다. 7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20.6kg에서 1990년 23.5kg로 2.9kg, 2000년은 24.9kg로 4.3kg, 2007년에는 26.4kg로 5.8kg 늘어났다.

7세 초등학교 2학년생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70년과 1975년, 1985년은 0.8kg 차이났고, 1995년부터는 차이가 더 벌어져 2007년에는 남학생이 1.5kg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10세 남학생 체중은 1970년 27.1kg에서 1990년에 33.7kg로 6.6kg 증가하였다. 2000년은 36.5kg로 9.4kg 늘어났고, 2007년에는 40.2kg로 13.1kg 증가하였다. 10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26.5kg에서 1990년 33.2kg로 6.7kg, 2000년은 36.1kg로 9.6kg, 2007년에는 38.9kg로 12.4kg 늘어났다.

10세 초등학교 5학년생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80년을 제외하고는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남학생이 1.3kg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크고 체중 또한 여학생이 많았다. 11살 남학생 체중은 1970년 29.6kg에서 1990년 37.3kg로 7.7kg 증가했고, 2000년은 41.0kg로 11.4kg, 2007년에는 45.1kg로 15.5kg 증가하였다.

11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29.2kg에서 1990년 37.9kg로 8.7kg, 2000년은 41.2kg로 12.0kg, 2007년에는 44.0kg로 14.8kg 늘어났다.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70년, 2005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여학생 체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70년 대비 중3 남학생 17.4kg, 여학생 9.4kg 늘어

중학교 1학년인 12세 남학생 체중은 1970년 36.7kg에서 1990년 41.7kg로 5.0kg 증가하였다. 2000년은 46.5kg로 9.8kg, 2007년에는 50.9kg로 14.2kg 증가하였다. 12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37.5kg에서 1990년 42.6kg로

5.1kg, 2000년은 45.7kg로 8.2kg, 2007년에는 48.1kg로 10.6kg 늘어났다.

12세 중학교 1학년생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70년부터 1995년까지는 여자의 체중이 많았는데, 2000년부터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남자가 2.8kg 많았다.

중학교 3학년인 14세 남학생 체중은 1970년 43.7kg, 1990년 51.9kg로 1970년보다 8.2kg 증가하였다. 2000년은 56.6kg로 12.9kg 늘어났고, 2007년에는 61.1kg로 1970년에 비해 17.4kg 증가하였다. 14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43.8kg에서 1990년 49.6kg로 5.8kg, 2000년은 52.0kg로 8.2kg, 2007년에는 53.2kg로 1970년에 비해 9.4kg 늘어났다.

14세의 중학교 3학년생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1980년까지는 여학생이 많았는데, 1985년부터는 남학생이 많아졌으며 2007년에는 남녀 차이가 7.9kg으로 벌어졌다.

### 고3 남녀 학생 체중 차이 12.9kg

고등학생 1학년 15세 남학생 체중은 1970년 51.1kg에서 1990년 56.3kg로 1970년보다 5.2kg 증가하였다. 2000년은 60.1kg로 9.0kg 늘어났고, 2007년에는 64.0kg로 1970년에 비해 12.9kg 증가하였다. 15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48.7kg에서 1990년 51.5kg로 2.8kg, 2000년은 53.4kg로 4.7kg, 2007년에는 54.0kg로 5.3kg 늘어났다. 그 결과 15세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2007년의 남녀 차이는 10.0kg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3학년 17세의 경우 남학생의 체중은 1970년 56.6kg에서 1990년 61.3kg로 1970년보다 4.7kg 증가하였다. 2000년은 64.6kg로 8.0kg 늘어났고, 2007년에는 68.3kg로 1970년에 비해 11.7kg 늘어났다. 17세 여학생의 평균 체중은 1970년 52.2kg에서 1990년 53.5kg로 1.3kg, 2000년은 54.5kg로 2.3kg, 2007년에는 55.4kg로 1970년에 비해 3.2kg 늘어났다. 17세의 남녀 몸무게 차이(남자-여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2007년 남녀 차이는 12.9kg까지 확대되었다.

표준체중을 구하는 방법으로 키 150cm 미만이면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값, 키가 151~160cm인 사람은 자신의 키에서 150을 뺀 후 0.5를 곱한 값에 50을 더하고, 키가 161cm 이상이면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후 0.9를 곱한다.

비만도는 자신의 현재 체중/표준체중에 100을 곱하여 이 값이 80 미만이면 극심한 저체중, 80~90이면 저체중, 90~110이면 표준체중으로 의견상 보기에 좋고, 110~120이면 과체중이며, 120 이상이면 비만이다.

〈표 14-6〉 초등학교 학생 체중 현황

(단위 : kg)

연도	초등학교 학생											
	7세			8세			10세			11세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남	여	차이
1970	21.4	20.6	0.8	22.7	22.4	0.3	27.1	26.5	0.6	29.6	29.2	0.4
1975	21.1	20.3	0.8	23.1	22.4	0.7	27.9	27.8	0.1	31.0	31.2	-0.2
1980	22.2	21.4	0.8	24.5	23.7	0.8	29.3	29.4	-0.1	32.3	32.9	-0.6
1985	22.8	21.9	0.9	25.2	24.3	0.9	30.8	30.5	0.3	33.9	34.8	-0.9
1990	24.2	23.5	0.7	27.0	26.3	0.7	33.7	33.2	0.5	37.3	37.9	-0.6
1995	25.7	24.6	1.1	28.9	27.7	1.2	35.5	35.3	0.2	39.7	40.5	-0.8
2000	26.1	24.9	1.2	29.3	28.0	1.3	36.5	36.1	0.4	41.0	41.2	-0.2
2005	27.3	26.0	1.3	31.0	29.4	1.6	39.4	38.1	1.3	44.5	43.6	0.9
2007	27.9	26.4	1.5	31.7	29.9	1.8	40.2	38.9	1.3	45.1	44.0	1.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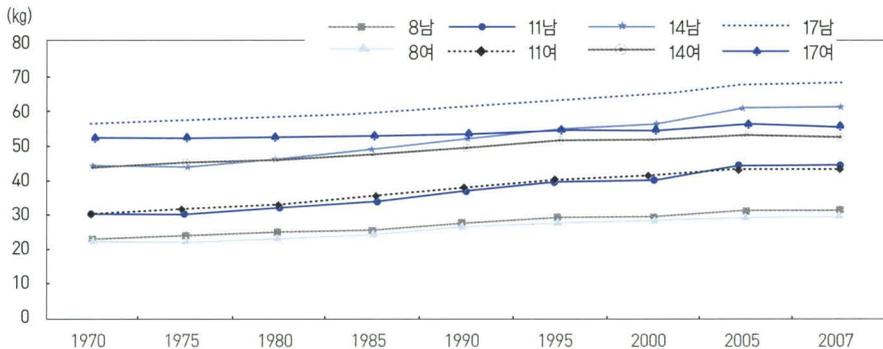
〈표 14-7〉 중·고등학교 학생 체중 현황

(단위 : kg)

연도	중학생						고등학생					
	12세			14세			15세			17세		
	남	여	차이									
1970	36.7	37.5	-0.8	43.7	43.8	-0.1	51.1	48.7	2.4	56.6	52.2	4.4
1975	35.0	36.9	-1.9	43.9	45.0	-1.1	51.1	49.0	2.1	57.5	52.1	5.4
1980	35.6	38.1	-2.5	45.9	46.3	-0.4	51.9	49.4	2.5	58.5	52.5	6.0
1985	37.9	40.0	-2.1	48.7	47.8	0.9	53.9	50.2	3.7	59.8	52.9	6.9
1990	41.7	42.6	-0.9	51.9	49.6	2.3	56.3	51.5	4.8	61.3	53.5	7.8
1995	44.6	45.4	-0.8	54.8	51.9	2.9	59.1	52.8	6.3	63.4	54.4	9.0
2000	46.5	45.7	0.8	56.6	52.0	4.6	60.1	53.4	6.7	64.6	54.5	10.1
2005	50.2	47.8	2.4	61.0	53.1	7.9	64.1	54.4	9.7	68.1	56.1	12.0
2007	50.9	48.1	2.8	61.1	53.2	7.9	64.0	54.0	10.0	68.3	55.4	12.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그림 14-5] 남녀학생 체중 추이



## 1989년 장애복지법 제정, 장애인 복지정책 본격 시행

장애인 복지란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198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부터 취업 알선과 저소득층에게 보장구 교부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심신장애인복지법은 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장애인 복지 정책은 미미하였다.

19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계의 욕구가 분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1989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의료비 지급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었다.

또한 장애의 범주가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면서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3년 2단계 범주 확대, 2007년에는 여성장애 인권익보호,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등의 내용이 삽입되어 개정되었다.<sup>3)</sup>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2008년 8월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표명하였듯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 등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의 실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2008, 장애인 실태조사)

3) 오남주, 지방 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장애인 시설 이용자 2만2천명

장애인 시설 이용 연중 입소자는 증가하고, 퇴소자는 감소하여 연말 현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1985년 90개, 연중 입소자는 2,803명, 퇴소자는 1,869명으로 연말 현원은 9,326명이었다. 10년 뒤인 1995년 시설은 1985년의 두 배인 174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중 입소자는 1,937명으로 866명 감소하였고, 퇴소자도 836명 감소한 1,033명이었다. 그 결과 연말 현원은 1만5천명으로 5,500명 정도 증가하였다.

2005년에 시설은 265개로 늘었는데 입·퇴소자는 대폭 감소하여 500명 이하로 떨어져 현원은 1만9,700명으로 2000년보다 2천명 정도 늘었다. 시설은 꾸준히 늘어 2007년 314개로 증가했으며, 연 중 입소자는 2005년보다 1,486명 늘어난 1,965명, 퇴소자는 849명 늘어난 1,224명으로 연말 현원은 2천명 증가하여 2만 2천명이 시설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 통계작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b>작성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방법 :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을 통해 시군구로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취합 및 작성하여 회신</li> <li>○ 조사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li> <li>○ 조사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의 종류, 성별, 입·퇴소 원인 및 종사자 현황 등</li> <li>○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li> <li>○ 조사시기 : 연보고로 작성</li> </ul>
<b>용어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관련으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 있다.</li> <li>○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lt;별표5&gt;</li> <li>- 주요내용 :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등</li> </ul> </li> </ul>
<b>비 고</b>	<p>&lt;통계 이용시 주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지관을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입소외에 따라 입소가 가능 하고 사회복지(퇴소)는 자유임</li> </ul> </li> </ul>

〈표 14-8〉 장애인 생활시설 및 연말 현원

(단위 : 명)

연 도	시설수(개)	연중입소자	연중퇴소자	연말현원
1985	90	2,803	1,869	9,326
1990	118	2,498	1,767	12,759
1995	174	1,937	1,033	14,840
2000	195	2,512	1,452	17,215
2005	265	479	375	19,668
2007	314	1,965	1,224	21,70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996, 2006, 2008

〈표 14-9〉 장애인의 범주 국제비교

국 가	장애인 범주
<b>한 국</b>	신체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정신장애 :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자폐증)장애 내부장애 : 신장·심신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b>미 국</b>	신체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외형적추형, 신경계, 근골육계, 감각기관장애 정신장애 :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내부장애 :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내분비계, 암, AIDS
<b>일 본</b>	신체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 정신지체, 정신장애 내부장애 :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소장기능장애
<b>독 일</b>	신체장애 : 머리와 얼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추형 정신장애 : 신경계통과 정신 내부장애 : 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b>호 주</b>	신체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기형 정신장애 : 정신지체,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내부장애 : 심장·심신 호흡기, 당뇨, 암, AIDS

자료 : 장은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범주의 국제비교 요약보고서(2008, 10)」  
<http://cafe.naver.com/sangin1357/307>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노인복지 관심 증대

농경사회에서는 1차적인 경제주체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대가족제가 유지되었고, 가족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중세 산업사회 이전에는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부양해 줄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산업기술의 발달은 도시화·핵가족화를 야기하였고,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했는데 대가족 제도에서 이뤄지던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의 대상은 특정소수 노인이 아닌 다수의 노인으로 바뀌었으며,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스스로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주거 및 의료 부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 정책의 산물이 곧 노인복지시설이다. 즉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문적인 치료·교육 훈련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제헌 헌법 제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화하였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양로시설이 기존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극빈 노인을 양로시설에 수용하여 생계보호 중심으로 제공하고, 형식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1980년에 48개에 불과하던 노인복지생활시설 수는 1990년 89개소로 증가하였다. 한편 1988년 이전까지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에만 국한하였으나, 1989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생활시설이 세분화되어 저소득 계층 가구의 노인을 위한 설비와 노인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다.

##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소득 건강 여가 문제 대처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노인복지생활시설 설립을 인가하고, 생활시설의 운영을 민간기업 및 개인에게도 허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단순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소득과 건강뿐만 아니라 여가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그동안 혼재돼 운영되어 왔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사업이 점차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개정에서는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설을 추가하여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의무 및 절차, 응급조치 의무,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노인 학대 예방방지 등을 명문화하였다.

2007년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치매의 예방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정하였으며(2007년 1월3일), 제2장에 규정하였던 노령연금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기초노령연금법(2007년 4월25일)'이 탄생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2007년 8월3일).<sup>4)</sup>

## 2007년 노인복지요양시설 1,498개

노인요양시설은 1975년 45개로 현원은 2,441명이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가능해진 1990년에는 양로시설 71개, 요양시설 18개로 총 89개로 늘어났으며 현원도 6,409명으로 1975년보다 4천명 정도 증가했다. 2000년에는 전문요양시설 통계가 집계되면서 시설 247개 중 양로시설 119개, 요양시설 103개, 전문요양시설 25개로 나타났다. 시설 인원도 양로시설 5,694명,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5,759명으로 양로시설보다 65명 많았다.

2005년에는 시설 813개 중 양로시설 270개, 노인요양시설 356개, 전문요양시설 187개로 시설 수는 노인요양, 양로, 전문요양의 순서였다. 2007년에는 전체 시설이 1,498개로 이 중 양로 384개, 노인요양 675개, 전문요양 439개로 기존 양로시설의 수가 가장 적어졌다. 생활자는 노인요양시설 2만 2천명, 전문요양시설 1만 9천명, 양로시설 9천명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인원 비중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4) 홍성역,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표 14-10〉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연말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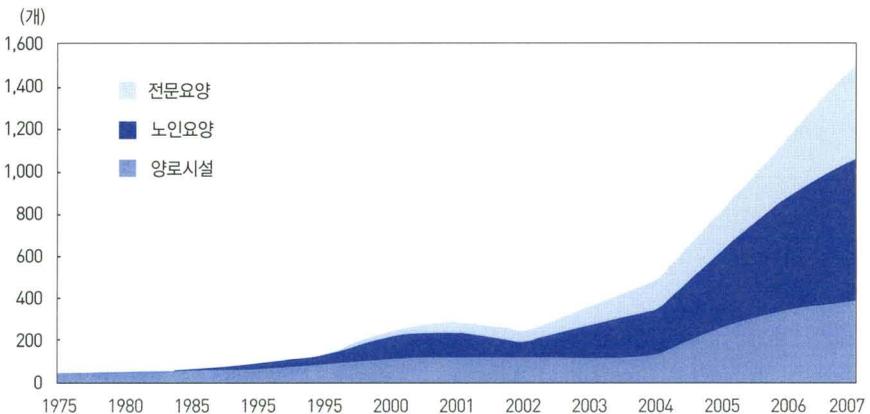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연도	시설수	연중 입소자	연중 퇴소자	현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계	현원	계	현원	계	현원
1975	45	891	1,013	2,441	45	2,441	-	-	-	-
1980	48	1,069	831	3,158	48	3,158	-	-	-	-
1985	67	1,700	1,426	5,059	67	5,059	-	-	-	-
1990	89	1,781	1,658	6,409	71	4,962	18	1,447	-	-
1995	146	2,517	2,156	8,396	84	4,806	41	2,784	-	-
2000	247	-	-	13,558	119	5,694	103	5,759	25	2,105
2001	284	-	-	16,261	122	6,114	114	6,650	48	3,497
2002	240	-	-	14,627	120	5,997	69	4,774	51	3,856
2003	351	-	-	19,641	119	5,887	151	8,357	81	5,397
2004	488	-	-	24,094	131	6,024	214	10,018	143	8,052
2005	813	-	-	32,228	270	8,033	356	13,613	187	10,582
2006	1,166	-	-	41,143	351	8,829	537	18,281	278	14,033
2007	1,498	-	-	50,032	384	9,402	675	22,004	439	18,62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996, 2006, 2008

- 1) 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 2)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 3)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그림 14-6] 양로, 노인, 전문요양시설 추이



# 15장

## 환 경

- 15-1 대기 오염
- 15-2 수질 오염
- 15-3 해수 오염
- 15-4 오염배출 시설
- 15-5 생활폐기물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도시 아황산가스(SO<sub>2</sub>) 오염도 감소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 물질로 아황산가스(SO<sub>2</sub>),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sub>2</sub>) 등 가스상 물질(악취 물질 포함)과 먼지 등 입자상 물질을 포함한 총 52종으로 정하고 있다. 대기 오염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의 자동 측정망을 통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측정한다.

전국 7대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 연평균 오염도는 0.004~0.008ppm 범위를 나타냈다. 2007년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보면 인천과 울산이 0.008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부산 대구가 각각 0.006ppm, 대전 0.005ppm, 광주 0.004ppm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1>

승용차 화물차 등 자동차 등록대수와 무연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아황산가스 농도가 꾸준히 낮아지는 것은 저황유와 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 배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속적인 연료 사용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황산화물(SO<sub>x</sub>) 배출량 1999년부터 감소

황산화물(SO<sub>x</sub>) 배출량을 보면 1999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출원별로 보면 에너지산업연소 부문이 가장 많은데 2003년 이후 줄어들다가 2006년에 소폭 늘어났다. 제조업연소 부문에서는 199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 사업장에서 황산화물 배출이 줄어든 것은 황산화물 배출 방지 시설을 개량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에는 연료의 황 함량이 높아짐(전년 대비 7.3% 상승)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도로이동 오염원 부문의 경우 2003년 이후 감소 추세인데 특히 2006년의 배출량 감소폭이 컸다. 이는 2005년 10월부터 차량 연료를 저황경유(0.043%)에서 초저황경유(0.003%)로 바꿨기 때문이다. <표 15-2>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B-C)의 황 함유량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황 함유량이 1.0%인 중유(B-C)를 사용하는 지역은 0.5%, 0.5%를 사용하는 지역은 0.3%로 공급·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저황유 보급이 확대되면 2012년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21.4%, 미세먼지 배출량은 12.6% 감축이 가능해져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도권지역 사업장총량제 실시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 5대 광역시 대기 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실시, 주유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및 도로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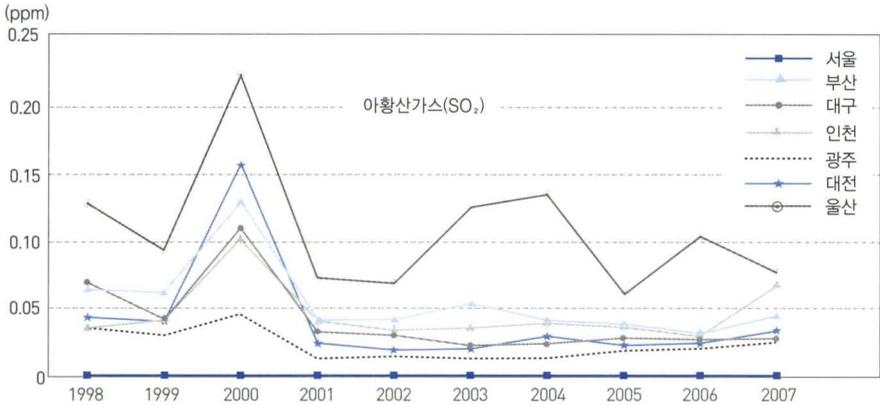
사업장총량제는 배출 농도를 사후에 관리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배출 총량을 기준으로 사전에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예방적인 것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총량관리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형 시설(1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30t, 황산화물 20t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인데, 2009년 7월부터 1~2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의 대기 오염도를 방문객이 많은 가을철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두 공원의 대기 오염도는 모든 항목에서 대기환경 기준<sup>1)</sup>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환경기준에 비하여 아황산가스가 2.0%, 일산화탄소는 3.3% 정도로 상당히 낮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대기환경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 공원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녹지비율이 높아 오염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아황산가스 대기환경기준(SO<sub>2</sub>)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그림 15-1] 주요 도시별 대기오염도 추이



[표 15-1]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SO<sub>2</sub>) 오염도

(단위 : ppm)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최고														
1998	0.009	0.008	0.039	0.015	0.064	0.014	0.070	0.009	0.035	0.008	0.035	0.009	0.043	0.015	0.015	0.128
1999	0.009	0.007	0.032	0.014	0.061	0.011	0.042	0.008	0.040	0.007	0.030	0.009	0.040	0.017	0.094	0.094
2000	0.008	0.006	0.053	0.010	0.130	0.009	0.109	0.008	0.102	0.006	0.046	0.007	0.157	0.013	0.224	0.224
2001	0.007	0.005	0.030	0.008	0.041	0.008	0.033	0.007	0.040	0.004	0.013	0.006	0.024	0.012	0.073	0.073
2002	0.006	0.005	0.021	0.007	0.041	0.006	0.030	0.006	0.034	0.004	0.014	0.004	0.019	0.010	0.069	0.069
2003	0.006	0.005	0.022	0.006	0.053	0.006	0.023	0.007	0.035	0.004	0.013	0.004	0.020	0.011	0.125	0.125
2004	0.006	0.005	0.023	0.007	0.041	0.006	0.024	0.007	0.039	0.004	0.013	0.005	0.029	0.010	0.135	0.135
2005	0.006	0.005	0.024	0.006	0.038	0.006	0.028	0.007	0.036	0.004	0.019	0.005	0.022	0.008	0.061	0.061
2006	0.006	0.005	0.021	0.006	0.031	0.006	0.027	0.007	0.029	0.004	0.021	0.004	0.024	0.007	0.104	0.104
2007	0.006	0.006	0.026	0.006	0.044	0.006	0.028	0.008	0.067	0.004	0.025	0.005	0.033	0.008	0.077	0.077

주 : 1) 최고는 24시간 평균 최고값임. 도시별 연평균치는 월별평균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2) 측정방법 : 자외선형광법(Pulse U.V.Florescence Method)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표 15-2] 배출원 대분류별 황산화물(SO<sub>x</sub>) 배출량

(단위 : 톤/년)

연도	총계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1999	484,716	165,723	65,123	139,230	67,981	5,742	39,755	1,161
2000	490,761	192,180	60,231	115,880	71,648	6,441	43,111	1,269
2001	487,734	197,579	56,529	110,171	73,449	7,209	41,537	1,259
2002	474,084	191,750	54,748	100,834	74,807	6,309	44,210	1,426
2003	469,145	194,516	56,087	90,324	74,028	6,654	45,998	1,538
2004	446,804	194,309	54,797	65,681	75,210	6,600	48,718	1,489
2005	408,462	139,064	58,706	68,181	82,371	5,190	53,506	1,444
2006	446,488	152,263	77,504	74,966	84,937	1,213	53,926	1,679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4대강 BOD 오염도 감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 BOD, mg/l 또는 ppm)은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말하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하천의 수질 환경을 평가하는데, 하천수의 수질 현황은 주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표 지점에서 매주 수질을 측정해 온 것의 연평균 수치이다.

하천과 호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의한 수질 등급 기준은 l 당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mg 이하이면 상수원 1급수, 3mg 이하이면 상수원 2급수에 해당한다. 상수원 2급수의 경우 그냥 마시지는 못하지만 맑고 냄새가 나지 않는 수준의 물을 말한다.

최근 10년간 4대강 주요 상수원의 수질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 지점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1.5mg/l 에서 2008년에는 '매우 좋음' 등급에 근접한 수준인 1.3mg/l 를 나타냈다.

상류지역에 도시와 산업단지 등 오염원이 산재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물금 지점도 상류지역의 지속적인 수질개선 대책 추진 결과 BOD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3.0mg/l 에서 2008년에는 '약간 좋음' 등급인 2.4mg/l 로 개선되었다. 금강수계 대청 지점은 목표기준<sup>2)</sup>인 '매우 좋음' 등급인 1.0mg/l 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4대강 주요 상수원 중 수질 오염도가 가장 낮은 주암 지점의 수질도 2008년 0.6mg/l 로 목표기준인 '매우 좋음' 등급 1.0mg/l 이하를 유지하였다.

한강수계의 경우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된 팔당댐 하류(노량진)는 하천 유량이 감소되므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낙동강수계는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공단 폐수가 유입되는 금호강의 합류 이후인 중류(고령)지점에서부터 오염이 심화되었다. 금강수계는 중상류 부근에 대전광역시를 끼고 있어 중류(청원, 공주)부터 오염이 심화

2) BOD 목표기준 : 1.0mg/l 이하 '매우 좋음', 2.0mg/l 이하 ' 좋음', 3.0mg/l 이하 '약간 좋음', 5.0mg/l 이하 '보통', 8.0mg/l 이하 '약간 나쁨', 10.0mg/l 이하 '나쁨', 10.0mg/l 초과 '매우 나쁨'

되고, 인구 대부분이 중상류에 분포한 영산강수계는 중하류(광주, 나주)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었다. <표 15-3>

### 한강·낙동강 주요 상수원 수질관리 비상

한강수계 팔당의 수질이 악화된 것은 수온이 상승한데다 2009년 2월 셋째 주에 비가 내리면서(24.6mm) 그동안 심한 가뭄으로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약 한 달 빨리 조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월 넷째 주에는 둘째 주에 비해 BOD 2.6배, COD 1.5배, Chl-a 4.1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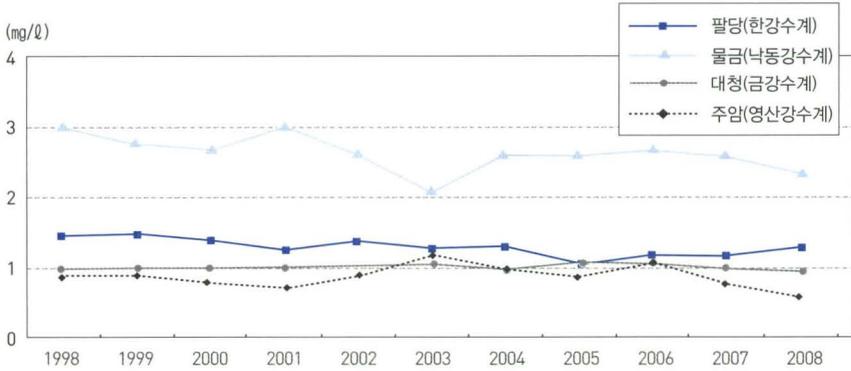
낙동강 수계 물금도 2008년부터 지속된 갈수기에 따른 유량 감소, 영양염류(총인, 총질소) 농도 상승과 하류에서 강물이 정체되는 특성에 따라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서 오염도가 높아졌다. 밀양강 남강 등 주요 지천도 오염도가 높아 본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4>

### 한강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환경부는 그 동안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해온 오염총량 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등 다른 3대강 수계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염총량 관리제는 시행해온 획일적인 배출농도 및 토지이용 규제와 달리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한 뒤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 물질의 허용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농도 규제 및 사후처리 위주의 정책이 양적 규제 및 사전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우리나라 수질보고 정책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1995~2005년)을 시행하면서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고도 처리한 결과 4대강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오염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어 4대강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년)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이다. 안전한 물이용을 위한 맞춤형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 물놀이 지역 등 전국의 주요 물 이용 지점에 대한 용수 목적별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물 이용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림 15-2] 주요 강의 수질오염도(BOD) 추이



<표 15-3> 하천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현황

(단위 : mg/l)

연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수계				
	대성리	구의	팔당댐	노량진	영등포	안동1	달성	고령	함천	물금	구포	대청댐	청원	공주1	강경	우치	광주1	나주	무안1	주암댐
1998	1.1	2.0	1.5	3.6	3.6	0.9	1.5	3.1	3.6	3.0	3.2	1.0	2.3	2.5	2.8	2.3	3.8	5.9	2.0	0.9
1999	1.5	1.8	1.5	3.3	3.2	0.9	1.5	3.1	3.5	2.8	3.1	1.0	2.6	2.6	3.5	2.7	4.1	6.8	2.1	0.9
2000	1.0	1.5	1.4	2.7	3.2	1.0	2.1	4.3	3.4	2.7	2.9	1.0	2.5	2.6	4.5	3.1	4.6	6.5	1.7	0.8
2001	1.2	1.8	1.3	3.4	3.6	1.1	2.4	4.2	3.5	3.0	3.2	1.0	3.0	3.4	5.1	2.8	4.3	6.2	1.9	0.7
2002	1.1	1.8	1.4	3.3	2.9	1.0	2.5	3.6	2.9	2.6	2.5	1.0	2.9	3.1	4.5	2.4	3.9	5.6	1.9	0.9
2003	1.0	1.8	1.3	2.8	2.6	0.9	1.6	2.1	1.8	2.1	2.2	1.1	2.1	2.1	3.3	2.0	3.0	4.8	1.9	1.2
2004	0.9	1.7	1.3	3.4	3.3	0.9	1.8	2.6	2.5	2.6	2.8	1.0	2.6	3.0	3.5	2.6	4.1	6.1	2.0	1.0
2005	0.9	1.3	1.1	3.1	2.9	0.9	2.2	2.9	2.8	2.6	3.0	1.1	2.4	2.8	3.7	2.4	3.5	5.3	1.8	0.9
2006	0.8	1.7	1.2	4.0	2.8	0.9	2.1	2.8	2.8	2.7	2.7	1.1	2.5	3.1	4.2	2.4	2.9	4.8	2.3	1.1
2007	0.7	1.6	1.2	3.5	3.1	0.7	2.2	2.8	2.2	2.6	2.6	1.0	2.4	2.6	3.6	2.9	3.7	5.0	1.7	0.8
2008	1.0	2.1	1.3	4.3	3.3	0.8	2.3	3.1	2.4	2.4	2.4	1.0	2.1	2.9	3.3	2.6	4.5	4.9	1.7	0.6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수질측정자료」

<표 15-4> 팔당, 물금, 대청, 주암지점의 BOD 현황

(단위 : mg/l)

구 분	2008년			2009년					
	연평균	1월	2월	1월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지 면 전 지 점	팔 당	1.3	1.4	1.3	1.0	1.3	0.9	2.0	2.3
	물 금	2.4	3.5	4.0	4.5	4.9	5.4	4.9	5.0
	대 청	1.0	0.8	0.8	0.9	0.9	0.9	0.9	0.9
	주 암	0.6	0.6	0.4	0.6	0.6	0.6	0.5	0.4
팔 당 지 점	BOD(mg/L)	1.3	1.4	1.3	1.0	1.3	0.9	2.0	2.3
	COD(mg/L)	3.8	4.1	3.4	3.4	3.8	3.3	4.2	5.1
	Chl-a(mg/m <sup>3</sup> )	16.2	30.1	14.4	16.8	24.7	10.6	29.8	43.0
물 금 지 점	BOD(mg/L)	2.4	3.5	4.0	4.5	4.9	5.4	4.9	5.0
	COD(mg/L)	5.8	6.8	7.8	9.7	9.6	11.2	10.0	9.4
	Chl-a(mg/m <sup>3</sup> )	47.2	129.6	151.1	167.3	211.2	170.0	157.2	107.9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수질측정자료」

## 연안의 COD 오염도 지속 감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mg/l 또는 ppm)은 물속의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COD<sup>3)</sup>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수환경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오염 지수의 하나로 수체(water body) 유기물 상대 함량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하류와 공업폐수 연구 및 오수 처리장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인천연안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값은 2003년 최대를 기록했는데 연도별로 변화하는 모습은 뚜렷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기에 해역 수질기준<sup>4)</sup>으로 II등급이었다. 목포 연안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값은 2003년에 최대값을 보였다가 2003년 이후 점차 낮아졌으며 2008년에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해역의 수질기준은 II등급이었다.

부산연안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값은 2003년부터 감소하여 2007년 이후 I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연안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값은 2000년 표층에서 해역 수질기준 II등급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I~II등급이었다. 연도별로는 2001년 이후 II등급 이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비교적 높은 행암만과 마산만의 경우 2000년을 경계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해역 수질기준 III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연안과 부산연안은 시기에 따라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해역 수질기준 II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연안 지역에는 유입수의 관리 및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15-5>

## 하수도 정비 이후 연안 수질 좋아져

하수도시설을 정비함에 따라 유입 하수의 수질 농도가 높아져 하수처리장을 운영

3)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생활환경 기준 : 2.0mg/l 이하 '매우 좋음', 3.0mg/l 이하 '좋음', 4.0mg/l 이하 '약간 좋음', 5.0mg/l 이하 '보통', 8.0mg/l 이하 '약간 나쁨', 10.0mg/l 이하 '나쁨', 10.0mg/l 초과 '매우 나쁨'

4) 해역 수질기준 : I등급(1mg/l 이하), II등급(2mg/l 이하), III등급(4mg/l 이하)

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지고 방류 수역의 수질이 개선되었다. 하수도시설(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료된 동해안 연안지역의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하수관거 불량으로 오염된 물이 대부분 자연 생태계로 직접 방류되어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켰던 것이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된 이후에는 가정 오수가 하수관거로 직접 유입됨으로써 처리장의 처리 효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방류수역에 미치는 오염 부하는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감포처리구역)의 경우, 정비된 하수관에 차집된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되어 방류됨으로써 감포항 해역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농도가 정비 전의 22%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해역의 수질이 개선(Ⅲ등급→Ⅰ등급 해역 해당 COD수질)되었으며 연안 생태계의 복원에 따라 청정 항구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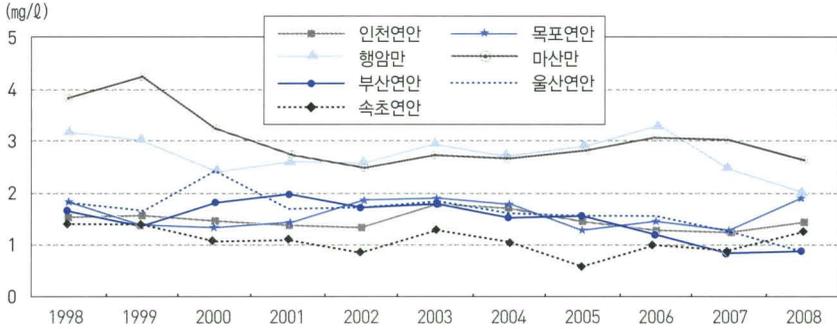
### 낙동강 유역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 총량은 385억 $m^3$ 이다. 이 가운데 실제 이용량은 90억 $m^3$ 으로 전체 수자원 총량의 24%만 하천수, 댐, 지하수 등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전체의 32%는 바다로 유실되므로 적극적인 담수능력 확충이 시급하다. 홍수 관리 측면에서도 낙동강 유역 주요 댐의 홍수조절 용량은 6억 $m^3$  정도로 한강 유역의 3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역 평균 홍수 조절고도 2.6cm에 지나지 않아 홍수 방어 능력이 상당히 열악하다. 경상남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 본류를 비롯해 지류인 남강, 황강 등 다른 지역보다 많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어 수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경상남도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설치 중에 있다. 각종 수질개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수질 오염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많이 개선됐지만 공장 폐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오염원 증가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등의 지표는 4대 강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본류의 지역별 2008년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창녕 6.0mg/l, 합천 5.8mg/l, 남지 5.8mg/l, 삼랑진 5.8mg/l 로 조사됐다. 6년 전인 2002년 창녕 6.6mg/l, 합천 7.1mg/l, 남지 6.0mg/l, 삼랑진 6.2mg/l 에 비하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었다. 낙동강 지류인 남강의 수질은 겨우 2급수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표 15-6>

[그림 15-3] 주요 연안의 수질오염도(COD) 추이



<표 15-5> 주요 연안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현황

(단위 : mg/l)

연도	인천연안	아산연안	목포연안	행암만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연안	삼척연안	속초연안
1998	1.54	1.01	1.81	3.14	3.85	1.66	1.84	0.72	1.37
1999	1.58	1.59	1.37	3.02	4.22	1.38	1.63	0.89	1.42
2000	1.48	1.29	1.32	2.42	3.21	1.84	2.42	0.83	1.09
2001	1.38	1.21	1.37	2.62	2.72	1.99	1.71	0.84	1.12
2002	1.31	1.01	1.86	2.60	2.49	1.72	1.71	0.99	0.85
2003	1.75	1.68	1.89	2.94	2.71	1.85	1.80	1.08	1.29
2004	1.71	1.63	1.77	2.74	2.64	1.54	1.61	1.02	1.04
2005	1.53	1.44	1.29	2.96	2.80	1.44	1.54	0.99	0.58
2006	1.24	1.13	1.44	3.30	3.04	1.45	1.51	0.87	0.99
2007	1.22	0.99	1.29	2.48	2.99	0.87	1.26	1.02	0.89
2008	1.44	1.18	1.90	1.96	2.64	0.89	0.88	1.13	1.25

주 : COD는 표층수의 평균값임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

<표 15-6>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현황

(단위 : mg/l)

연도	창녕	합천	남지	삼랑진	남강기	황강기
1998	6.7	6.1	6.2	6.0	3.8	3.8
1999	7.5	7.1	6.2	6.1	4.1	3.1
2000	7.5	7.4	6.9	6.5	4.0	3.5
2001	7.7	7.7	6.4	6.1	3.9	4.2
2002	6.6	7.1	6.0	6.2	3.3	3.2
2003	5.3	5.1	5.1	4.8	3.2	2.6
2004	6.2	5.7	5.7	5.5	3.7	3.1
2005	6.6	6.3	6.5	6.7	3.7	2.8
2006	6.3	5.7	6.1	6.2	3.3	3.2
2007	6.2	5.8	5.8	5.8	3.4	2.7
2008	6.0	5.8	5.8	5.8	4.0	3.1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측정망 측정자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증가 추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순수한 대기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장 수를 말하는데, 배출업소 규모(1~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한다.

2004년 5종 사업장 수가 2만3,985개소로 감소한 것은 200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중 규모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5종 사업장<sup>5)</sup>이 2종 또는 3종 사업장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형 사업장 수가 줄어든 것이다.

2004년 전체 사업장 수가 4만2,367개소로 감소한 원인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보일러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 연료를 벙커 c유에서 LNG로 교체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고, 보일러 운영이 수반되는 제조업종 중 피혁, 도금, 섬유 등 이른바 3D업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이다. 철강, 석유, 시멘트, 발전 등 3종 이상의 대형 사업장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현재 4만2,534개소로 1년 전에 비해 240개 줄었는데 이는 경기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강화되는 배출 허용기준과 대기환경개선대책(저NOx 버너 설치 등) 시행에 따라 보일러 설치 사업장 등 소형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폐수 배출시설 증가

2006년 폐수 배출시설 수는 4만5,163개소로 2005년(4만409개소)보다 4,754개소 증가했다. 이는 오류 검증 과정에서 경기,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이 누락된 점을 발견해 반영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3,872개소, 인천 지역에서 1,006개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폐수 배출량이 50m<sup>3</sup>/일 이하인 5종 사업장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표 15-7>

5) 1종은 80t 이상, 2종은 20~80t, 3종은 10~20t, 4종은 2~10t, 5종은 2t 미만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태독성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의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 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의 건강성과 위해성까지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 대상 물벼룩<sup>6)</sup>에 미치는 급성(24시간)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통해 산업 수질을 관리하게 된다.

### 소음·진동 배출시설 매년 증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규제법령상 소음과 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소음·진동 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한다. 소음배출의 종류는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등 36종이 있으며, 진동 배출시설은 8종이 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전국에 3만6,938 개소가 있다. 2003년 대비 17.3%, 2006년 대비 3% 증가한 규모다.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소음 진동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교, 병원 인근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의 배출업소는 2003년 1,621개소에서 2007년 1,153 개소로 5년 사이 28.9%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공업지역 등 정온지역 외에서의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3년 2만9,867개소에서 2007년 3만5,785개소로 5년 사이 19.8% 증가했다. <표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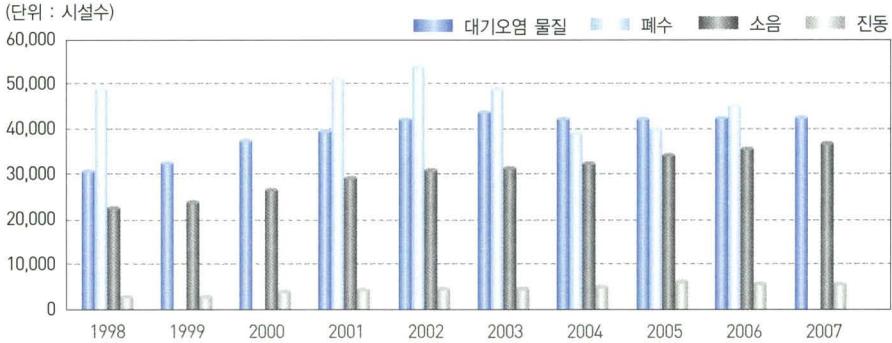
### 소음 관련 민원 지속 증가

2006년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3만5,877개소로 2001년(2만9,184개소)에 비해 22.9% 증가했다. 2005년 잠시 주춤했던 소음·진동 민원은 2006년 3만 2,800건으로 다시 늘어나 급속한 증가세(2001~2006년 사이 증가율 170%)를 보였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증가율보다 민원 증가율이 6배 이상 높았다.

2006년 당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전체 환경 관련 민원은 13만5,230건이며 이 중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24.3%를 차지했다. 특히 동일건물 사업장 소음, 동물울음 소리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음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게 늘었다.

6) 물벼룩은 조류 및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1차 소비자이며, 유해물질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5-4]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화 추이



<표 15-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현황

(단위 : 시설수)

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sup>1)</sup>					폐수 배출시설 현황 <sup>2)</sup>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1998	30,865	669	1,178	1,245	4,814	22,959	48,876	297	458	1,125	1,823	45,173
1999	32,437	681	1,201	1,235	5,036	24,284	-	-	-	-	-	-
2000	37,462	655	1,177	1,180	5,027	29,423	-	-	-	-	-	-
2001	39,874	637	1,144	1,162	5,022	31,909	51,469	303	540	1,128	1,834	47,664
2002	42,323	648	1,188	1,171	5,011	34,305	53,851	306	555	1,117	1,829	50,044
2003	43,737	627	1,151	1,144	4,943	35,872	55,405	307	558	1,135	1,889	51,516
2004	42,367	992	1,559	2,594	13,237	23,985	39,012	317	480	979	1,686	35,550
2005	42,308	998	1,605	2,683	14,026	22,996	40,409	318	477	1,071	1,764	36,779
2006	42,608	960	1,544	2,556	13,828	23,719	45,163	324	508	1,220	2,054	41,057
2007	42,774	911	1,468	2,304	14,004	24,087	-	-	-	-	-	-
2008	42,534	952	1,407	2,158	13,887	24,130	-	-	-	-	-	-

주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은 제외

2) 상기자료는 자료수집, 검증과정을 거쳐 조사기준연도 익년 12월말에 생산됨. 조사기준연도 1999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의 조사자료는 전산망 오류로 통계자료 생성하지 못함

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표 15-8>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단위 : 시설수)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음	22,889	24,109	26,667	29,184	30,989	31,488	32,499	34,262	35,877	36,938
정온지역 배출	-	-	1,720	2,425	1,656	1,621	1,361	1,317	1,212	1,153
정온지역 외 배출	-	-	24,947	26,759	29,333	29,867	31,138	32,945	34,665	35,785
진동	3,168	3,410	3,986	4,426	4,851	5,051	5,336	6,625	6,081	5,979

주 : 진동배출업소는 반드시 소음배출업소에 해당되므로 소음배출업소가 전체 소음·진동 배출업소수임

정온지역 :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근지역, 주거지역 등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 생활폐기물 발생 지속 증가

폐기물 발생량은 시·군·구 단위의 가정,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비가연성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매년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조사한다. 유해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크게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누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

2007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 폐기물 제외)은 하루 평균 33만7,158t으로 전년도(31만8,928t)에 비해 약 5.7%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5만346t으로 전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4만8,844t)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은 2003년까지 늘어났다가 2004년 이후 감소세로 바뀌었는데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총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비중은 15.0%이다. <표 15-9>

## 생활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계속 증가

2007년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2kg으로서 2006년(0.99kg)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수거한 양 제외)은 가연성이 89.4%, 불연성이 10.6%의 비중이다. 분리배출·수거한 양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채소류의 구성비는 28.7%이다. <표 15-9>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소득 및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된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1995~2004년)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 이전(1994년) 대비 23% 감소(하루 평균 1.33→0.99kg)했고, 재활용은 175% 증가하였다. 그 결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 동안 약 8조 4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재활용률은 57.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소각율 또한 18.6%로 2006년(17.0%) 대비 1.6%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와는 달리 2007년 매립율은 23.6%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낮아지는 등 매해 감소 추세다. <표 15-10>

###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에너지로 재활용

환경부는 2008년 생활(45개소) 및 사업장(33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78개소의 여열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여열 총 964만4,000Gcal 중 86.6%인 835만3,000Gcal가 회수·이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회수·이용된 여열은 약 27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 또는 약 76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열량<sup>7)</sup>에 해당된다. <표 15-11>

835만3,000Gcal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원유 90만1,000kl를 사용해야 가능하므로 여열 이용은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크다. 화석 에너지 사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CO<sub>2</sub> 기준) 감축량은 약 254만t, 탄소배출권으로 환산 시 43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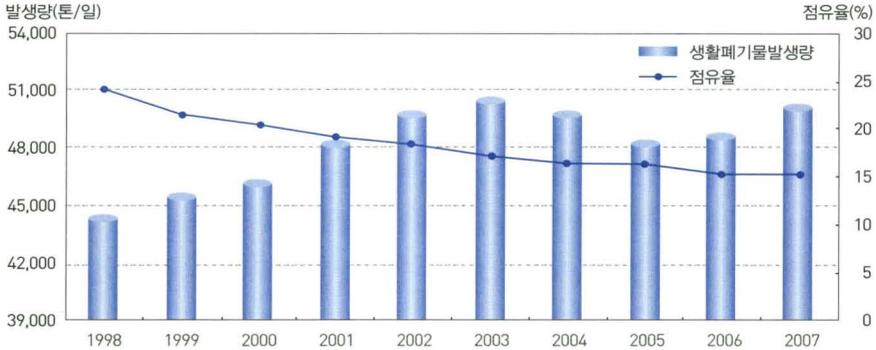
폐기물 소각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아닌 폐기물에서 에너지 자원을 회수하는 시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 폐기물 고형 연료제품(RDF : Refuse Derived Fuel)<sup>9)</sup>의 제조·생산·보급 확대 등 폐기물을 적극 에너지화할 계획이다. 남은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은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를 생산하여 연료 및 전기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7) 세대 당 전기 사용량은 3.6Mw/년, 열 사용량 11Gcal/년 기준(한국지역난방공사)

8) 1TOE=10Gcal, 원유의 탄소배출계수 0.829t/TOE, 탄소배출권 가격 11유로/t(=18,700원/톤) 적용, 원유의 평균 열량 9,267kcal/l

9) RDF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제조한 고형 연료를 말한다.

[그림 15-5]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표 15-9>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연도	일 반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일)	생 활 폐기물 발생량	증량제 배출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기 타	연탄재	금속·조자류		기 타
1998	184,989	0.96	44,583	11,798	5,620	1,848	7,169	918	1,074	3,340	12,816
1999	211,728	0.97	45,614	11,577	5,786	1,862	8,087	746	1,034	3,302	13,220
2000	226,668	0.98	46,438	11,434	5,577	1,965	8,700	649	982	3,427	13,704
2001	252,927	1.01	48,499	11,237	5,746	2,400	9,281	601	954	4,028	14,252
2002	269,548	1.04	49,902	11,397	5,641	2,400	10,641	535	886	3,802	14,600
2003	295,047	1.05	50,736	11,398	5,624	2,454	10,642	595	896	4,177	14,950
2004	303,514	1.03	50,007	11,464	5,735	2,421	9,819	574	845	4,284	14,865
2005	295,426	0.99	48,398	12,977	5,473	2,262	8,501	611	705	3,141	14,728
2006	318,928	0.99	48,844	13,372	5,165	2,308	8,911	563	711	2,944	14,645
2007	337,158	1.02	50,346	14,452	5,586	2,425	9,450	405	570	2,803	14,656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15-10> 처리방법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연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	매립 비율	소각 비율	재활용 비율				
1998	44,583	100	25,074	56.2	3,943	8.8	15,566	34.9
1999	45,614	100	23,544	51.6	4,676	10.3	17,394	38.1
2000	46,438	100	21,831	47.0	5,441	11.7	19,166	41.3
2001	48,499	100	21,000	43.3	6,577	13.6	20,922	43.1
2002	49,902	100	20,724	41.5	7,229	14.5	21,949	44.0
2003	50,736	100	20,450	40.3	7,348	14.5	22,938	45.2
2004	50,007	100	18,195	36.4	7,224	14.4	24,588	49.2
2005	48,398	100	13,402	27.7	7,753	16.0	27,243	56.3
2006	48,844	100	12,601	25.8	8,327	17.0	27,920	57.2
2007	50,346	100	11,882	23.6	9,348	18.6	29,116	57.8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15-11> '08년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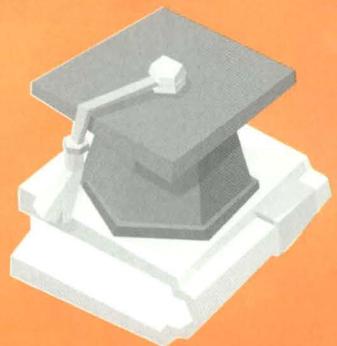
구분	시설 개요		여열발생량 (Gcal/년)	여열이용량(Gcal/년)			여열이용률
	개 소	용량(톤/일)		계	발전	열공급	
계	78	17,501	9,644,311	8,353,441	1,320,871	7,032,570	86.6%
생활	45	13,016	6,976,727	6,330,363	1,253,112	5,077,251	90.7%
사업장	33	4,485	2,667,584	2,023,078	67,759	1,955,319	75.8%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16장

## 교육 및 과학기술

- 16-1 유치원 현황
- 16-2 초등학교 현황
- 16-3 중·고등학교 현황
- 16-4 대학교 현황
- 16-5 학력별 졸업생 취업률
- 16-6 학원 현황
- 16-7 가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
- 16-8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
- 16-9 과학기술 성과



## 1968년 탁아소를 어린이 집으로 개칭

세계적으로 유치원은 1837년 독일의 프리벨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국내 최초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인이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세운 부산 유치원이며, 1914년 미국 선교사 브라운 리가 이화유치원을 세우고 1916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박희도가 중앙유치원을 세운 것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시작이었다.

유아교육은 1980년 이후부터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부는 제5차 5개년계획에서 아동 및 청소년 인력자원 개발을 주요한 사회정책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1981년 대통령 연두교서는 조기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거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부가 유아교육에 개입하였다.

보육시설로서 어린이 집의 전신인 탁아소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자녀의 양육을 대행해 줄 시설로 주로 보호와 양육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968년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개칭(아동복지법)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점차 늘어나자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유치원 취원율 65년 1%→2008년 55.7%

1965년 유치원 수는 423개로 4~5세 아동 196만 명 중 유치원에 다닌 아동은 2만 명에 불과해 취원율은 1.0%에 머물렀다. 교원은 1,40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4명인 것은 당시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취원율은 1980년까지 이어지다가 1981년 유치원이 2,958개로 대폭 증가하며 취원율이 9.8%로 크게 높아졌다. 1980년 901개였던 유치원은 1년 사이 2천개 이상 늘어났다. 교원 1인당 아동 수는 1965년 대비 25명 많은 39명이었다. 당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의 유아교육 증진 정책에 따라 유치원이 급증했다.

1983년 4,276개, 1985년 6,242개, 1988년에는 8천개를 넘어서는 등 1980년대에 7,500여 개의 유치원이 새로 설립되었다. 유치원은 1997년 9,005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어 2008년 현재 8,344개가 운영되고 있다.

## 1997년 유치원 수도, 아동 수도 최대 기록

유치원 아동 수도 1997년 57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취원율은 2000년대 들어 40%대를 초과하면서 2008년 55.7%를 기록했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1970년대부터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으로 개편하고 무상교육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이제는 90% 이상 회원국들이 유아교육을 무상교육화했으며, 취원율은 한때 출산율이 최하위였던 프랑스가 100%, 일본 80%, 미국 70% 정도.

1965년 1,400명이었던 유치원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6년 1만 명을 넘었고 1992년 2만1천명에 이어 2003년 3만 명 초과했으며, 2008년 현재 3만4,601명다.

교원 1인당 아동 수는 1965년 14명에서 1981년과 1982년 39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가 1983년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1989년 28명, 2000년 20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2008년 현재 16명이다.

이와 같이 유치원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유치원 아동 수는 증가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취원율이 55.7% 수준이다. 이는 유아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무상이나 낮은 비용으로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공급이 수요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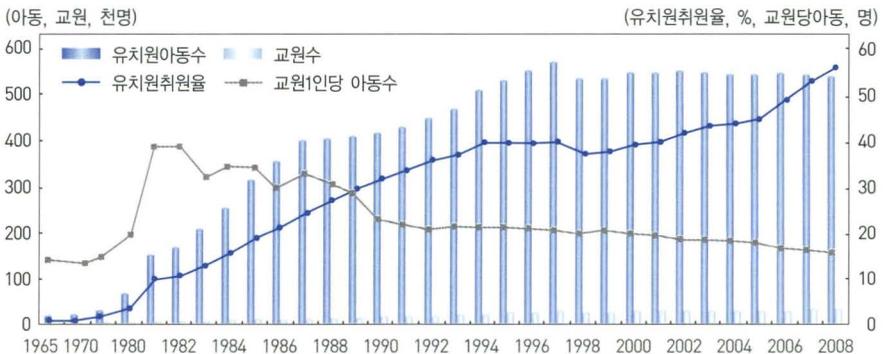
〈표 16-1〉 유치원 현황

(단위 : 개, 명, %)

연 도	유치원수	유치원아동수	유치원취원율	교원수	교원1인당 아동수
1965	423	19,566	1.0	1,402	14.0
1970	484	22,271	1.3	1,660	13.4
1975	611	32,032	1.7	2,153	14.9
1980	901	66,433	4.1	3,339	19.9
1985	6,242	314,692	18.9	9,281	33.9
1990	8,354	414,532	31.6	18,511	22.4
1991	8,421	425,535	33.4	19,706	21.6
1992	8,498	450,882	35.8	21,107	21.4
1993	8,515	469,380	37.2	22,207	21.1
1994	8,910	510,100	39.8	24,288	21.0
1995	8,960	529,265	39.9	25,576	20.7
1996	8,939	551,770	39.8	26,621	20.7
1997	9,005	568,096	39.8	27,586	20.6
1998	8,973	533,912	37.1	26,721	20.0
1999	8,790	534,166	37.4	26,164	20.4
2000	8,494	545,263	38.8	28,012	19.5
2001	8,407	545,142	39.9	28,975	18.9
2002	8,343	550,256	41.9	29,673	18.5
2003	8,292	546,531	43.2	30,290	18.0
2004	8,246	541,713	43.8	30,206	17.9
2005	8,275	541,603	44.8	31,033	17.5
2006	8,290	545,812	49.3	32,096	17.0
2007	8,294	541,550	53.2	33,504	16.2
2008	8,344	537,822	55.7	34,601	15.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그림 16-1] 유치원 아동·교원추이



## 1980년 이후 초등학생 연평균 7만1천명씩 감소

우리나라의 최초 초등학교는 1894년 설립된 서울 교동초등학교(관립 교동소학교)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에는 한국어 사용 금지 등 일제의 강압에 따라 민족교육은 거의 불가능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교육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다. 1945년 11월에 교육심의회가 발족돼 6-6-4제와 6-3-3-4제를 병행시킨 새로운 학제를 마련하였다. 6-3-3-4제의 단선형 학제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행 학제의 근간이 되었다. (김신영, 2007. 2)

초등학교 수는 1965년 5,125개에서 2008년 5,813개로, 교원은 7만9천명에서 17만2천명으로 각각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학생은 494만1천명에서 367만2천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2.4명에서 21.3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학교 수는 1986년 6,535개로 최대를 기록했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1995년 5,772개를 거쳐 2008년 현재 5,813개다. 1965년 대비 688개 늘어난 것으로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수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늘어난 학교 수가 적었다.

학생 수는 1965년 494만1천명에서 1980년 565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이룬 뒤 1985년 485만7천명, 1995년 390만5천명, 2000년 402만 명을 거쳐 2008년에는 367만2천명으로 1980년 이후 매년 평균 7만1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교원은 1965년 7만9천명에서 1985년 12만7천명으로 20년 사이 4만8천명 증가하였다. 그 뒤에도 꾸준히 늘어나 1995년 13만8천명을 거쳐 2008년에는 17만2천명으로 많아져 1965년 대비 9만3천명 증가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62.4명에서 1985년 38.3명으로 24.1명 감소하였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5년 28.2명을 거쳐 2008년에는 21.3명으로 1965년보다 41.1명 줄었다.

학령 학생수를 취학적령 인구수로 나눈 취학률은 1990년대에 100% 수준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83년 98.6%, 1985년부터는 99%대를 유지하고 있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전 정착되었으며, 2004년에는 전 국민 9년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

## 학급당 학생 수 70년 62.1명→2008년 29.2명

재적학생 수를 학급 수로 나누어 작성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1970년 평균 62.1명이었다. 이를 국립·공립·사립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56.5명, 62.2명, 53.8명으로 사립이 가장 적었다.

10년 뒤 1980년 평균 51.5명으로 줄었다. 국립이 62.4명, 공립은 51.4명, 사립이 58.0명으로 국립 다음으로 사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는데 이는 학부모의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에 평균 41.4명으로 낮아졌는데, 학급당 학생은 1980년과 같은 국립, 사립, 공립의 순서였다.

2000년에는 사립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6.3명으로 가장 많고 공립 35.8명, 국립 32.8명 순서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평균 29.2명인 가운데 사립이 30.8명, 공립 29.1명, 국립 27.6명의 순서로 2000년 이후 순위는 같았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았고 인구증가율은 높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6명 정도였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성장과 인구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산아를 제한하는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당시 학교에는 냉방시설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시설이 부족해 교실마다 수용 인원이 많아 '콩나물교실'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교육 자치제가 처음 시작된 때라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했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 차이는 있지만 재정은 부족한 상황에서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자 일단 입학한 뒤 생활고나 여러 사유로 무단 전출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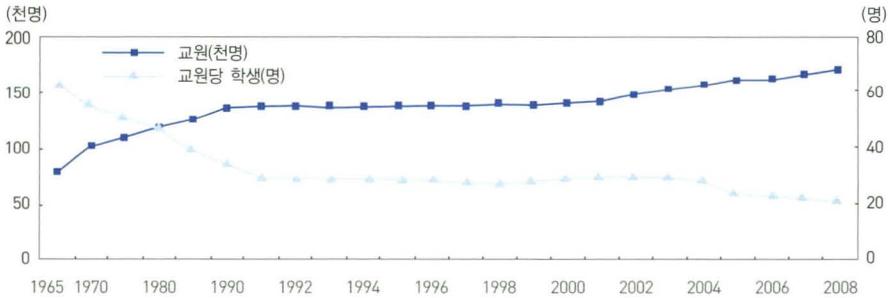
콩나물교실의 원인으로는 취학을 상승과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이 꼽히며, 출석부상 인원은 많지만 실제 인원이 적어 두 학급을 한 학급으로 편성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장영, 콩나물 교실)

〈표16-2〉 초등학교 현황

연도	초등학교(개)	학생(천명)	중학교진학률(%)	교원수(천명)	교원1인당 학생(명)
1965	5,125	4,941.3	-	79.2	62.4
1970	5,961	5,749.3	-	101.1	56.9
1975	6,367	5,599.1	-	108.1	51.8
1980	6,487	5,658.0	95.8	119.1	47.5
1985	6,519	4,856.8	99.2	126.8	38.3
1990	6,335	4,868.5	99.8	136.9	35.6
1995	5,772	3,905.2	99.9	138.4	28.2
1996	5,732	3,800.5	99.9	137.9	27.6
1997	5,721	3,784.0	99.9	138.7	27.3
1998	5,688	3,834.6	99.9	140.1	27.4
1999	5,544	3,935.5	99.9	137.6	28.6
2000	5,267	4,020.0	99.9	140.0	28.7
2001	5,322	4,089.4	99.9	142.7	28.7
2002	5,384	4,138.4	99.9	147.5	28.1
2003	5,463	4,175.6	99.9	154.1	27.1
2004	5,541	4,116.2	99.9	157.4	26.2
2005	5,646	4,022.8	99.9	160.1	25.1
2006	5,733	3,925.0	99.9	163.6	24.0
2007	5,756	3,830.0	99.9	167.2	22.9
2008	5,813	3,672.2	99.9	172.2	21.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그림 16-2] 교원 및 교원당 학생수



〈표 16-3〉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평균	국립	공립	사립
1970	62.1	56.5	62.2	53.8
1980	51.5	62.4	51.4	58.0
1990	41.4	50.0	41.3	48.1
2000	35.8	32.8	35.8	36.3
2005	31.8	29.9	31.8	32.2
2008	29.2	27.6	29.1	30.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1971년 전국 확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구분이 비교적 잘되어 있었던 학교는 배재학당이다. 1885년 8월 미국 선교사 H.G.아펜젤러가 세웠다. 오늘날 배재중·고등학교, 배재대학교의 전신이다. 정부에 의한 최초 중·고등학교는 1899년 '중학교관제'에 의해 설립한 한성중학교다. 1900년 한성고등학교와 한성고등여학교가 세워졌다.

해방 이후 6-3-3-4제의 단선형 학제가 우선적으로 채택되었고,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는 정부의 폐지 방침 발표(1968년 7월 15일)에 이어 1970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등 5개 도시에서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되었고 197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의 목적으로 과열된 입시경쟁과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과외수업 풍조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까운 시일 내 예상되는 중학교까지의 9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점을 내세웠다. 초등학교의 과외교육과 과외 공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돼 전국 대도시로 확대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배경은 중학교 무시험 제도 도입 이유와 비슷하였으며, 명문 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40명→19명

중학교는 1965년 1,208개에서 2008년 3,077개로, 학생은 75만1천명에서 203만 9천명으로, 교원은 1만9천명에서 10만9천명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9.4명에서 18.8명으로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중학교 수는 1965년 1,208개에서 1985년 2,371개로 20년 사이 1,163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2,683개로, 2008년에는 3,077개로 1965년 대비 1,869개 늘어났다.

중학교 학생 수는 1965년 75만1천명에서 1985년 278만2천명으로 203만1천명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248만2천명으로 1965년 대비 173만1천명 증가하였으나 1985년과 비교하면 30만 명 감소한 것이다. 2000년 전후 중학생 수는 200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가 2005년에 200만 명대를 초과하였다. 2008년 현재 204만명이지만 앞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 감소 현상과 마찬가지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교 진학률은 1980년 84.5%에서 90년 95.7%, 96년 이후에는 99.0% 이상으로 높아졌다.

교원 수는 1965년 1만9천명에서 1985년 6만9천명으로 20년 사이 5만 명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10만 명, 2005년 10만4천명을 거쳐 2008년 현재 10만9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더욱 빠르게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9.4명에서 198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많아져 1985년 40명으로 늘어났다가 2005년 19.4명을 거쳐 2008년 현재 18.8명으로 1965년보다 21명 줄어들었다.

### 고교 졸업자 100명 중 84명 상급학교 진학

고등학교 수는 1965년 701개에서 2008년에는 2,190개, 학생은 42만7천명에서 190만7천명, 교원 수는 1만4천명에서 12만3천명으로 각각 증가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0.2명에서 15.5명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고등학교 수는 1965년 701개에서 1985년 1,602개, 1995년 1,830개를 거쳐 2008년 현재 2,190개로 1965년보다 1,489개 증가하였다.

학생 수는 1965년 42만7천명에서 1985년 215만3천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한 뒤 1995년 215만8천명을 거쳐 2008년 현재 190만7천명으로 1965년 대비 4.5배 정도인데, 학생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3.7%로 졸업생 100명 당 24명만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1985년에는 36.4명, 1995년 51.4명, 2008년 현재 83.8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학생수를 취학적령 인구수로 나눈 취학률은 중학교의 경우 2000년 이후 95% 내외, 고등학교는 90% 내외, 고등교육기관은 2008년 현재 67.2%다.

###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30명→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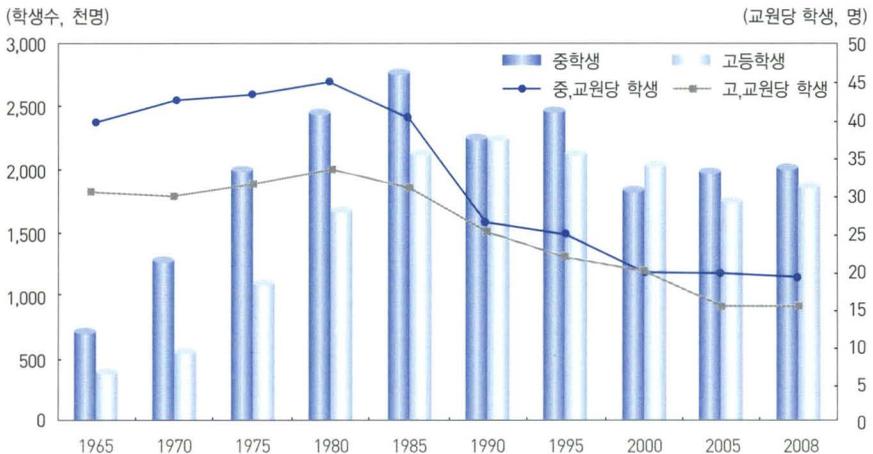
교원은 1965년 1만4천명에서 1985년 7만 명으로 20년 사이 5만6천명 증가하였다. 1995년 9만9천명을 거쳐 2008년 현재 12만3천명으로 1965년 대비 8.8배로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0.2명에서 1985년 31.0명으로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87년(29.4명) 30명 미만으로 내려갔으며, 1995년 21.8명을 거쳐 2008년 현재 15.5명으로 1965년의 절반 수준이다.

〈표 16-4〉 중·고등학교 학교 수, 교원 수

구 분	연 도	학교수(개)	학생수(천명)	진학률(%)	교원수(천명)	교원1인당 학생(명)
중 학 교	1965	1,208	751.3	-	19.1	39.4
	1970	1,608	1,318.8	-	31.2	42.3
	1975	1,967	2,026.8	-	46.9	43.2
	1980	2,174	2,471.4	84.5	54.9	45.1
	1985	2,371	2,782.2	90.7	69.6	40.0
	1990	2,474	2,275.8	95.7	89.7	25.4
	1995	2,683	2,481.8	98.5	99.9	24.8
	2000	2,731	1,860.5	99.6	92.6	20.1
	2005	2,935	2,010.7	99.7	103.8	19.4
	2008	3,077	2,038.6	99.7	108.7	18.8
고 등 학 교	1965	701	426.5	-	14.1	30.2
	1970	889	590.4	-	19.9	29.7
	1975	1,152	1,123.0	-	35.8	31.4
	1980	1,353	1,696.8	23.7	50.9	33.3
	1985	1,602	2,152.8	36.4	69.5	31.0
	1990	1,683	2,283.8	33.2	92.7	24.6
	1995	1,830	2,157.9	51.4	99.1	21.8
	2000	1,957	2,071.5	68.0	104.4	19.9
	2005	2,095	1,762.9	82.1	116.4	15.1
	2008	2,190	1,907.0	83.8	122.9	15.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

[그림 16-3] 중·고교생 및 교원당 학생 수



## 2008년 대학교 학생 194만명, 전문대 77만명, 방통대 27만명

한국의 대학교육 역사는 1938년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의 전신은 고려 시대의 국립대학 국자감이고, 성균관은 현재의 사립 종합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이다. 최초의 교육대학은 한성사범학교로 1895년 신학제 관학학교로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1923년 대학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일제가 반포한 ‘경성제국 대학 설치에 관한 법령’이다. 그 후 1926년 8월 15일 처음으로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전문학교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같은 해 8월 22일 국립종합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발족되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6.기술대학 7.각종학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수를 구분하면 대학은 2000년 166만5천명에서 2008년 194만3천명으로 27만8천명 증가하였고, 교육대학은 2만1천명에서 2만4천명으로 3천명 증가한 반면 전문대 학생은 2000년 91만3천명에서 2008년 77만2천명으로 14만1천명 감소, 산업대학은 17만1천명에서 16만2천명으로 9천명 감소, 방송통신대학은 36만 명에서 27만2천명으로 8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생은 감소, 대학교 학생은 증가 추세

대학 수는 1980년 85개에서 1990년에는 22개 증가한 107개, 2000년은 76개 늘어난 161개, 2008년에는 89개 늘어난 174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에 2007년보다 1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원은 1980년 1만5천명에서 1990년 3만3천명, 2000년 4만2천명을 거쳐, 2008년 현재 5만4천명으로 28년 사이 3만9천명 증가하였다. 교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만3천명 줄었다가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대 수는 1980년 128개에서 1990년에는 117개로 11개 감소하였다가 2000년

158개로 다시 늘어났다. 2008년 현재 147개로 1980년보다는 19개 많지만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문대 학생 수는 1980년 16만5천명에서 1990년 32만4천명으로 15만9천명 증가했고, 2000년에는 91만3천명으로 74만8천명이 많았다. 2008년 현재 77만2천명으로 1980년보다는 60만7천명 많지만 2000년에 비해서는 14만1천명 줄어든 것으로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대 교원 수는 1980년 6천명에서 1990년 7천명을 거쳐 2000년 이후에는 1만 2천명 선으로 약 6천명 증가하였다.

### 휴학을 산업대생 36.2%, 전문대 학생 34.8%

2008년 현재 휴학생이 재적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대생의 경우 재적 16만2천명, 휴학생 5만9천명으로 휴학률 36.2%, 전문대학생은 재적 77만2천명, 휴학 26만8천명으로 휴학률 34.8%, 대학생은 재적 194만3천명에 휴학 61만3천명으로 휴학률 31.6%, 방송통신대생은 재적 27만3천명에 휴학 9만 명으로 휴학률 33.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산업대학생의 휴학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방송통신대, 일반 대학의 순서다. 휴학사유로는 군 입대와 경제적 사정 등이 많다.

### 유치원 제외, 총인구의 22%가 학생

2008년 모두 1,065만9천명이 학생(유치원 제외)으로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다. 이 중 초등학생이 34.5%인 367만 명, 중학생이 19.1%인 204만 명, 고등학생은 17.9%인 191만 명, 대학 이상은 28.5%인 304만 명이다. 학생 수는 대학 이상이 초등학생 다음으로 많은데 이는 대학생에는 많은 휴학생이 재적학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표 16-5〉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단위 : 명)

연 도	계	전문대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	각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
2000	3,133,038	913,273	1,665,398	170,622	360,051	2,687	20,907	100
2004	3,238,596	897,589	1,836,649	189,035	290,728	1,064	23,335	196
2005	3,209,928	853,089	1,859,639	188,753	282,023	1,094	25,141	189
2008	3,175,218	771,854	1,943,437	161,876	272,550	1,214	24,116	17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표 16-6〉 전문대 및 대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연 도	전 문 대			대 학 교		
	학교(개)	학생(천명)	교원수(천명)	학교(개)	학생(천명)	교원수(천명)
1980	128	165.1	5.5	85	403.0	14.5
1985	120	242.1	6.4	100	931.9	26.5
1990	117	323.8	7.4	107	1,040.2	33.3
1995	145	569.8	10.4	131	1,187.7	45.1
2000	158	913.3	11.7	161	1,665.4	41.9
2005	158	853.1	12.0	173	1,859.6	49.2
2006	152	818.0	11.9	175	1,888.4	51.9
2007	148	795.5	11.7	175	1,919.5	52.8
2008	147	771.9	12.1	174	1,943.4	54.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표 16-7〉 2008년 고등교육기관 학생 휴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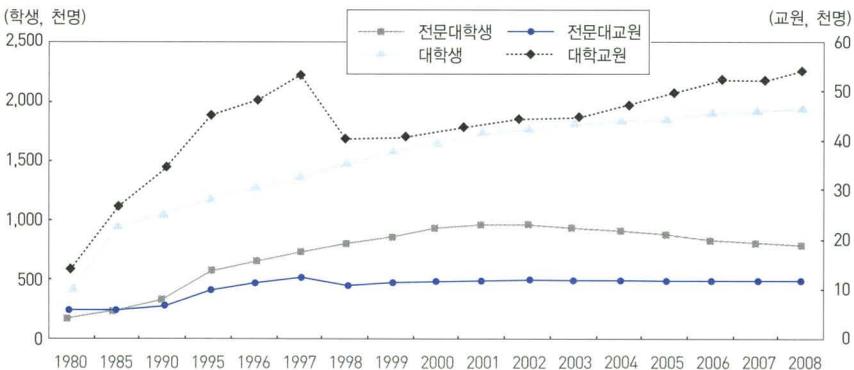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재적학생(a)	재학생	휴학생(b)	휴학률(b)/(a)*100
계	3,174,004	2,142,395	1,031,609	32.5
전문대	771,854	503,397	268,457	34.8
대학	1,943,437	1,330,080	613,357	31.6
산업대	161,876	103,233	58,643	36.2
방송통신대	272,550	182,068	90,482	33.2
교육대학	24,116	23,452	664	2.8
기술대	171	165	6	3.5

주 : 각종 대학 등은 제외하고 산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그림 16-4] 전문대·대학생수 및 교원수



##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 가장 높아

교육 단계별 취업률<sup>1)</sup>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70년 38.3%, 전문대학 72.6%, 대학 70.6%로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2008년에는 고등학교 35.9%, 전문대학 85.2%, 대학 68.3%로 역시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실업계고교 취업률 71.4%

고교 졸업생 취업률은 1970년 38.3%에서 1990년 51.0%, 1995년 69.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8년에는 1970년보다 2.4%포인트 낮은 35.9%에 머물렀다.

계열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1970년 17.3%에서 점차 높아져 1990년 18.7%를 거쳐 1995년 26.4%로 정점을 이뤘다가 점점 낮아져 2008년 현재 1970년보다 10.6%포인트 낮은 6.7%로 집계됐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1970년 56.4%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져 1990년 84.0%, 1995년에 90.9%로 절정을 이루다가 서서히 낮아졌지만 2008년 현재 71.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 직업기술 교육체제 개편 사업이 시행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학생 수 증가와 더불어 취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 2008년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 85.2%, 대학은 68.3%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1970년 72.6%에서 1980년 50.3%로 22.3%포인트 낮아졌다가 1990년 71.8%를 기록한 뒤 꾸준히 높아졌다. 2008년 현재 85.2%로 1970년보다 12.6%포인트 상승하였다.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이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높은 취업률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1970년 70.6%에서 조금 높아지다가 1985~2004년 사이 50~60%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한 뒤 2005년부터 꾸준히 높아져 2008년 현재 68.3%를 나타냈다.

1)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이 아니라 진학 및 입대를 하지 않은 졸업자로 취업을 원하는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연도별 남녀 취업률을 보면 1970년에는 여자 고교 졸업생이 32.4%로 고등학생 전체 취업률(38.3%)보다 낮았다. 여자 전문대학 졸업생은 65.3%로 전문대 전체(72.6%)보다 7.3%포인트, 여자 대학 졸업생은 50.5%로 대학 전체(70.6%)보다 20.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1990년에는 고교 졸업생 취업률이 1970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져 고등학생 전체로는 51.0%, 여학생은 60.2%로 여학생이 9.2%포인트 높아 1970년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에서는 여전히 여학생의 취업률이 전체보다 낮았다. 전문대 전체로는 71.8%, 여학생은 68.2%로 여학생이 3.6%포인트 낮았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1970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져 전체 55.0%, 여학생 39.7%로 여학생이 15.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고교 전체로는 35.9%, 여학생이 41.5%로 5.6%포인트 높았지만 1980년 이후 여학생 취업률이 전체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 전문대의 경우 전체가 85.2%, 여학생이 85.0%로 비슷했고, 대학은 전체 68.3%, 여학생 65.9%로 2.4%포인트만의 차이를 보여 머지않아 여학생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 OECD 평균보다 낮아

OECD 교육 지표에서 사용하는 취업률은 학력 수준별로 25~64세 인구 대비 25~64세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국제 조사 결과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1997년 84.2%에서 2006년 현재 84.4%로 약간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은 1997년 80.2%에서 2006년 77.2%로 다소 낮아졌다.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다소 낮지만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취업률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역할, 각급 학교 졸업자 규모와 그들의 진로 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970년대 대학의 취업률 상승은 다분히 노동 시장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고용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도 넓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대학졸업자 절대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반면 1980년대 후반에는 대학졸업자의 팽창과 경기 둔화에 따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의 취업률 하락은 IMF 체제에 돌입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4-3)

〈표 16-8〉 학력별 졸업생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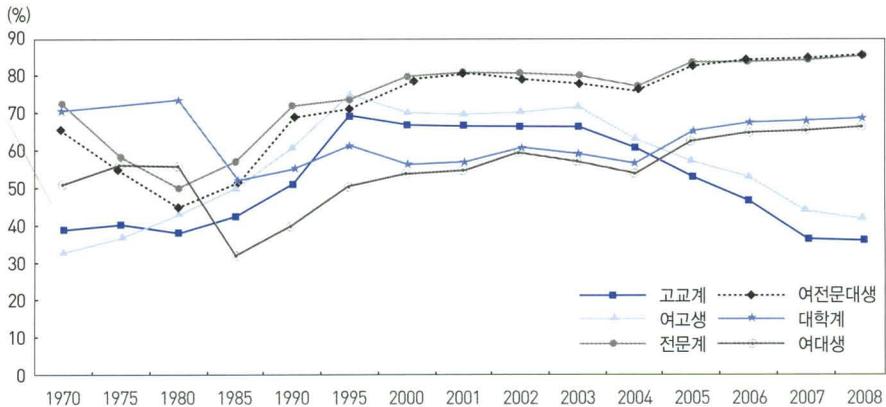
(단위 : %)

연 도	고등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전문대학		대학	
	전체	여								
1970	38.3	32.4	17.3	17.9	56.4	55.2	72.6	65.3	70.6	50.5
1975	39.9	36.6	16.9	18.7	56.1	53.5	58.3	53.3	71.8	55.4
1980	37.9	42.4	15.7	21.3	58.2	62.8	50.3	44.5	73.0	55.2
1985	42.1	49.4	16.2	24.2	60.4	65.6	57.2	49.9	52.1	31.7
1990	51.0	60.2	18.7	27.1	84.0	86.7	71.8	68.2	55.0	39.7
1995	69.3	74.3	26.4	28.5	90.9	91.1	74.2	70.9	60.9	50.0
2000	66.1	69.7	15.5	16.8	88.8	89.3	79.4	78.2	56.0	53.4
2001	66.4	69.4	18.9	19.4	88.2	89.6	81.0	79.8	56.7	54.1
2002	66.3	69.7	18.1	18.5	90.0	91.1	80.7	79.2	60.7	59.1
2003	66.3	71.1	17.6	19.1	90.2	92.0	79.7	77.7	59.2	56.7
2004	60.1	63.0	14.0	14.3	87.6	88.6	77.2	75.6	56.4	53.5
2005	52.3	57.0	12.1	12.5	86.3	87.7	83.5	82.6	65.0	62.3
2006	46.6	52.8	9.8	11.0	83.3	87.3	83.9	83.8	67.1	64.4
2007	36.5	43.5	6.8	7.1	71.6	78.7	84.8	84.5	67.6	64.8
2008	35.9	41.5	6.7	6.6	71.4	77.5	85.2	85.0	68.3	65.9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교육통계분석자료집」

[그림 16-5] 학교급별 졸업생 취업률 추이



## 전체 학원 7만개, 입시검정·보충학습학원이 3만3천개

우리나라에서 학원은 사설학원, 사설교습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89년 사설이란 명칭이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 때 제외되었다. 이러한 학원은 크게 학교 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분야와 계열은 학원의 교습과정과 같다.

학원의 교습 분야에서 시계열 통계 작성이 가능한 예능 분야는 1970년 253개에서 1990년 9,615개로 9,362개 증가했다. 2000년에는 2만6,160개로 10년 사이 1만 6,545개 늘어났는데 2008년에는 2만3,578개로 2000년보다 2,582개 감소하였다.

2005년 전체 학원 6만4,591개에서 예능 분야가 40.0%인 2만5,758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입시검정·보충학습이 38.5%인 2만4,890개, 외국어인 국제실무가 8.5%인 5,500개, 직업기술이 7.4%인 4,789개의 순서다.

그런데 2008년에는 전체 학원 7만213개 중 입시검정·보충학습이 가장 많은 3만3,011개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입시검정·보충학습 학원이 2005년 대비 32.7% 증가한 사이 예능 분야는 2만3,578개로 2005년보다 8.5% 감소하였다.

## 학원 수 70년 1,421개→2008년 7만개

우리나라 학원 수는 1970년 1,421개에서 20년 뒤인 1990년 2만9천개, 2000년 5만8천개를 거쳐 2008년 현재 7만 개로 급증했다. 학원은 특히 1990년~1995년 5년 사이 2만3천개가 불어났다. 2000년 이후 학원은 연평균 1,500개 이상 늘어나 학원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여자 수강자 비율 50%, 여성 강사는 65.1%

수강자 수는 1970년 12만 명에서 1990년 179만4천명으로 20년 사이 15배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341만2천명을 거쳐 2008년 현재 468만9천명으로 2000년 대비 1.4배 규모로 많아졌다. 수강자 수는 2005년 이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자 수강자는 1970년 전체 12만 명 중 5만3천명으로 44.3%를 차지하였다. 1990년에는 전체 179만4천명 중 85만6천명으로 47.8%, 2000년에는 341만2천명 중

173만3천명으로 50.8%를, 2008년에는 468만9천명 중 237만8천명으로 50.7%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여자 수강생 비율 50%대를 유지하였다.

강사 수는 1970년 6천명에서 1990년 5만5천명으로 9.2배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13만6천명을 거쳐 2008년 현재 18만7천명으로 2000년 대비 5만1천명이 늘어난 상태다. 이 같은 학원 강사 수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원(17만2천명) 보다도 많은 것이다.

1970년 전체 6천명의 강사 중 여성은 1,388명으로 25.1%를 차지했다. 1990년에는 전체 5만5천명 중 여성이 3만3천명으로 59.2%로 여성 강사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00년에는 전체 13만6천명 중 여성이 8만7천명으로 63.9%, 2008년 현재 18만7천명 중 여성이 12만2천명으로 65.1%를 차지하는 등 여성강사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학원의 교습과정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 통 교 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국 제 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독 서 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기 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 업 기 반 기 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컴 퓨 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 화 관 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 문 사 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꽂이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 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율령	
독 서 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자료 :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표 16-9〉 분야별 학원 수

(단위 : 개)

연도	계	기술	문리	예능	가정	사무	체육기타
1970	1,421	299	230	253	306	242	91
1975	2,977	408	253	561	160	517	1,078
1980	5,023	651	381	1,485	162	1,367	977
1985	11,196	1,250	544	4,293	129	3,428	1,552
연도	계	기술	문리	예능	가정	사무	
1990	28,862	4,629	2,359	9,615	80	12,179	
1995	52,058	6,770	5,630	18,385	180	21,093	
연도	계	기술	문리	예능	경영실무		
2000	57,935	6,703	14,043	26,160	11,029		
연도	계	직업기술	국제실무	예능	경영실무	인문사회	입시검정 보충학습
2005	64,591	4,789	5,500	25,758	2,984	670	24,890
2008	70,213	3,880	7,408	23,578	1,641	695	33,01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mest.go.kr>

〈표 16-10〉 학원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학원 수	수강자 수		이수자 수		강사 수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1,421	119,681	52,992	460,590	172,985	5,541	1,388
1975	2,977	248,517	87,267	1,976,030	470,816	7,740	1,652
1980	5,023	411,162	183,748	444,974	690,279	13,332	3,583
1985	11,196	657,039	292,967	2,079,806	922,172	22,559	9,266
1990	28,862	1,793,583	856,457	5,865,085	2,676,331	55,409	32,781
1995	52,058	3,230,275	1,606,536	9,037,971	4,354,060	96,591	63,668
2000	57,935	3,412,430	1,733,043	7,772,909	3,877,223	135,637	86,633
2001	58,951	3,620,147	1,830,105	8,309,777	4,150,067	146,547	93,162
2002	60,206	4,220,437	2,153,481	7,635,489	3,798,229	167,153	105,466
2003	63,724	4,411,753	2,245,112	7,410,299	3,689,859	171,001	110,302
2004	62,764	4,801,016	2,448,318	9,241,098	4,607,913	184,107	120,203
2005	64,591	4,479,681	2,276,002	9,281,245	4,715,993	177,795	113,283
2006	66,841	4,714,812	2,399,798	9,088,728	4,587,790	182,096	119,999
2007	67,649	4,585,670	2,320,746	9,009,979	4,502,007	180,913	117,613
2008	70,213	4,689,053	2,378,284	8,274,051	4,147,375	187,020	121,701

주 : 이수자 이수기간은 구분의 해당 연도의 전년도 4월 2일에서 해당 연도 4월 1일까지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통계분석보고서」

## 16-7 가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

16장 교육 및 과학기술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도시가구 가구당 교육비 360만원, 소비지출의 12.6%

통계청 가계조사는 1951년부터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 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가계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가 매일 매일의 가계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조사상의 어려움 때문에 월평균 가계부 회수율은 약 8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시 전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과 교육비,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 연간 소비지출액은 215만1천원인데 이 중 교육비는 13만5천원으로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6.3%를 차지하였다.

1990년 연간 소비지출액은 822만8천원으로 1980년보다 607만7천원 증가하여 3.8배로 늘어났고, 연간 교육비는 66만5천원으로 53만원 늘어나 4.9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1980년보다 1.8%포인트 올라갔다.

2000년에는 연간 소비지출액이 1,958만8천원으로 1990년보다 1,136만원 증가한 2.4배로, 연간 교육비는 213만9천원으로 147만4천원 증가하여 3.3배로 늘어남으로써 교육비 비중은 10.9%로 2.8%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에는 연간 소비지출액이 2,847만7천원으로 2000년보다 888만9천원 증가해 1.5배로, 연간 교육비는 360만1천원으로 146만2천원 많은 1.7배로 늘어남으로써 교육비 비중은 12.6%로 1.7%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소비지출액 증가율보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소비지출액 대비 교육비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 농가가구 가구당 교육비 64만9천원 소비지출의 3.2%

농가경제조사는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농가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연간 소비지출

213만8천원 가운데 교육비는 20만 원으로 교육비 비중은 9.4%를 차지하였다. 1990년 연간 소비지출은 822만7천원으로 1980년보다 608만9천원 증가하여 3.8배에 이르렀고, 교육비는 4.3배 늘어난 86만2천원으로 교육비 비중은 9.4%에서 10.5%로 1.1%포인트 상승하였다.

2000년에는 연간 소비지출이 1,800만3천원으로 1990년보다 977만6천원 증가한 데 비해 교육비는 183만4천원으로 97만2천원 늘어났는데 교육비 비중은 10.2%로 0.3%포인트 낮아졌다. 2008년에는 연간 소비지출이 2,032만8천원으로 2000년보다 232만5천원 증가하였으나 교육비는 64만9천원으로 118만5천원 감소함에 따라 교육비 비중 또한 3.2%로 대폭 내려가 7.0%포인트 낮아졌다. 농가의 교육비 비중은 2002년 9.1%에서 2003년 4.8%로 감소폭이 컸는데 당시 가구조사 표본 개편이 있었던 시기였다.

### 도시가구 교육비, 농가가구 5.5배

연도별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교육비만 살펴보면 도시가구는 1980년 13만5천원, 농가가구는 20만 원으로 농가가구가 오히려 6만5천원 많았다. 1997년 이후 농가가구의 교육비의 비중이 모두 도시가구보다 낮아졌다. 2000년만 해도 도시가구가 213만9천원, 농가는 183만4천원으로 도시가구가 30만5천원 많았다. 2008년에는 도시가구가 360만1천원인데 비해 농가가구는 64만9천원으로 도시가구가 무려 295만 2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육비 비중을 비교하면 1980년에는 도시 전가구 6.3%, 농가가구 9.4%로 농가가구가 3.1%포인트 높았다. 1990년에는 각각 8.1%, 10.5%로 여전히 농가가구가 2.4%포인트 높았다. 이런 추세는 1995년까지 이어지다가 1996년 도시, 농가 똑같이 10.2%를 기록한 뒤 1997년부터 도시 전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농가보다 높아졌다.

이처럼 도시 전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계속 불어나는 것과 달리 농가가구는 2003년<sup>2)</sup> 이후 대폭 감소하면서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농가에 고령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 통계청에서 표본개편이 있었음

〈표 16-11〉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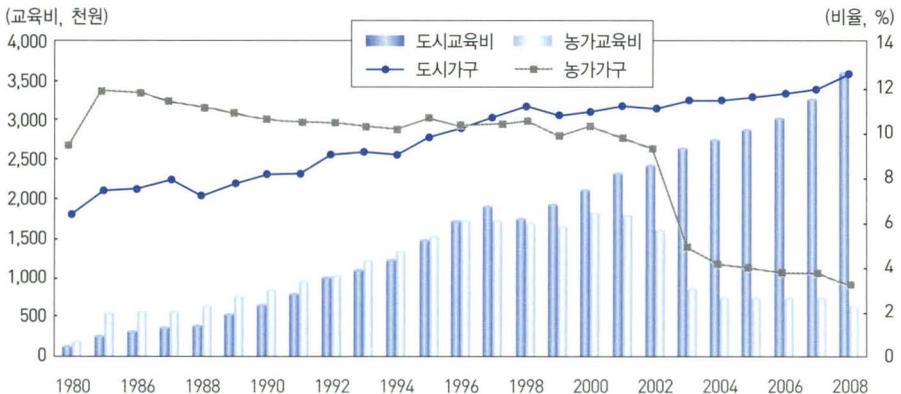
연도	도시전가구			농가가구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비율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비율
1980	2,151	135	6.3	2,138	200	9.4
1985	3,804	280	7.4	4,691	555	11.8
1990	8,228	665	8.1	8,227	862	10.5
1991	9,820	808	8.2	9,417	975	10.4
1992	11,303	1,014	9.0	10,046	1,041	10.4
1993	12,251	1,111	9.1	12,203	1,244	10.2
1994	13,685	1,236	9.0	13,334	1,350	10.1
1995	15,191	1,484	9.8	14,782	1,553	10.5
1996	17,122	1,747	10.2	17,039	1,737	10.2
1997	17,874	1,903	10.6	17,045	1,754	10.3
1998	15,795	1,771	11.2	16,442	1,706	10.4
1999	17,747	1,922	10.8	17,123	1,653	9.7
2000	19,588	2,139	10.9	18,003	1,834	10.2
2001	21,145	2,347	11.1	18,458	1,794	9.7
2002	22,018	2,425	11.0	17,858	1,629	9.1
2003	23,075	2,638	11.4	18,162	874	4.8
2004	24,218	2,783	11.5	18,386	749	4.1
2005	25,102	2,908	11.6	19,378	756	3.9
2006	26,087	3,048	11.7	19,891	740	3.7
2007	27,235	3,269	12.0	20,510	759	3.7
2008	28,477	3,601	12.6	20,328	649	3.2

주 : 1980년 농가소비지출에는 세금 등 비 소비지출 포함됨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80년, 2008년은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농가경제통계」

〔그림 16-6〕 가구당 교육비 추이



##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2008년 3.37%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자본 등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양적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발생하여 이들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기술 진보 및 인적자본 축적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교육투자 등은 현재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sup>3)</sup>는 1971년 107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31%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08년에는 34조 4,981억 원으로 GDP의 3.37%를 차지하였다. 이들 연구개발비는 1970년대에는 주로 정부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 민간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2008년 현재 연구개발 투자의 민간 비중은 72.9%로 높아졌다. <표 16-12>

1인당 연구개발비도 1971년 325원에서 2008년 71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6-12>

주요 국가와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를 비교해보면 2006년 미국은 PPP달러 기준 1,165.3, 일본 1,086.3, 독일 810.0, 중국 66.0 그리고 한국은 743.0으로 중국 보다는 많지만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 여성 연구원 비중 커져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도 1977년 626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 현재 1만1,200개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주로 공공기관과 대학 위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민간 부문인 일반 기업체의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계속 늘어났다. 그 결과 기업체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49.7%(311개)에서 2007년

3) 연구개발비는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로 계산하며, 기관에서 사용한 순수한 연구개발비의 개념임.

95.4%(10,690개)로 높아졌다. 여기서 대부분의 연구개발을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6-7]

연구원 수<sup>4)</su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76년 1만2천명에서 2008년 30만50명으로 26배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 연구원은 1985년 3천명에서 2008년 4만6,677명으로 19배 증가하였다. 전체 연구원에서 여성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0%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5.6%를 나타냈다. 또한 1985년 이후 여성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남성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8.5%)보다 높다.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고학력 여성 연구인력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표 16-13>

### 제조업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 투자

산업별 연구 수행기관 및 연구개발비를 보면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연구 수행기관은 1983년 각각 671개에서 2007년 7,377개로 11배 늘어났고, 연구개발비도 1983년 3,428억 원에서 2007년 21조 3,389억 원으로 62배로 늘어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1983년 연구 수행기관 수 24개, 연구개발비 140억 원에서 2007년 각각 2,451개, 1조 7,21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공별 연구원 수를 보면 1976년에는 공학 전공자가 4,7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농학 2,739명, 이학 1,929명, 의학 1,522명이었다. 2008년 현재 가장 많은 전공은 여전히 공학으로 20만5천명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학 3만6천명, 의학 1만7천명의 순서다. 농학 전공자는 점점 감소하여 2008년 현재 가장 적은 7천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표 16-13>

현재의 연구개발 활동 규모와 수준을 보여주는 경제활동인구 1천명 당 연구원 수도 1997년 4.7명에서 2006년 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2006년 경제활동인구 1천명 당 연구원 수는 일본 10.6명, 미국 9.3명, 독일 6.8명, 영국 6.1명, 중국 1.5명으로 한국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연구원은 새로운 지식, 생산품, 처리 공정, 방법론, 시스템의 고안과 창조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를 말함.

〈표 16-12〉 연구개발비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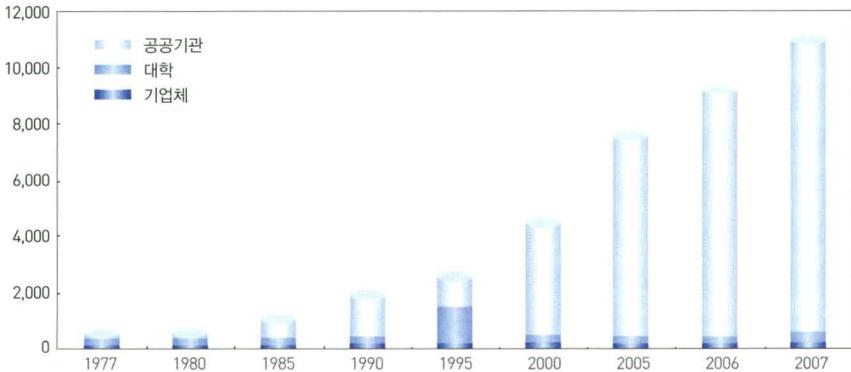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연 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투자 주체별 비중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원)
		정부	민간	외국		
1971	10.7	68.3	27.8	20.7	0.31	325
1975	42.7	66.7	33.3	15.4	0.42	1,210
1980	211.7	49.8	48.4	1.8	0.56	5,553
1985	1,155.2	19.3	80.5	0.2	1.41	28,310
1990	3,210.5	15.9	84.1	0.0	1.72	74,890
1995	9,440.6	24.2	75.7	0.0	2.37	209,359
2000	13,848.5	27.6	72.4	0.1	2.30	294,599
2005	24,155.4	24.3	75.0	0.7	2.79	501,794
2006	27,345.7	24.3	75.4	0.3	3.01	566,197
2007	31,301.4	26.1	73.7	0.2	3.21	645,970
2008	34,498.1	26.8	72.9	0.3	3.37	709,73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그림 16-7〉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

(개)



〈표 16-13〉 성별 및 전공분야별 연구원 수

(단위 : 명)

연 도	계	성		전공분야				
		남	여	이학	공학	의학	농학	기타
1976	11,661	-	-	1,929	4,772	1,522	2,739	699
1980	18,434	-	-	2,892	3,025	8,951	2,766	800
1985	41,473	38,996	2,477	6,158	23,878	5,650	3,853	1,934
1990	70,503	66,314	4,189	10,088	45,751	7,766	4,663	2,235
1995	128,315	118,080	10,235	23,383	78,936	10,343	6,705	8,948
2000	159,973	143,588	16,385	27,040	109,060	12,255	7,264	4,354
2005	234,702	204,528	30,174	33,248	169,145	15,143	6,813	10,353
2006	256,598	222,916	33,682	35,239	184,897	17,391	7,132	11,939
2007	289,098	246,121	42,977	35,443	195,841	16,576	7,326	33,912
2008	300,050	253,373	46,677	35,760	205,478	17,247	6,853	34,712

주 : 기타는 인문학, 사회과학 포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1966년의 45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4개 부문을 총칭하는 말이다. 산업재산권은 산업활동의 독창적 기술 발명에 대한 대가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하므로 기술 진보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1966년 8,40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현재 38만 203건으로 45배 증가하였다. 이 중 특허권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6년 12.6%(1,060건)에서 2007년 현재 45.4%(17만 2천건)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용신안은 1966년 38.7%(3,252건)에서 2007년 5.5%(21,084건)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16-8]

주요국의 특허출원 건수와 비교하면 2005년 일본이 42만7천건, 미국 39만 1천건, 중국 17만3천건, 독일 6만 건, 영국 2만8천건이다. 한국은 16만1천건으로 독일, 영국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삼극특허 건수(triadic patent family)<sup>5)</sup>는 1990년 63건에서 2006년 2,785건으로 45배 증가하였다. [그림 18-2] 인구 100명 당 삼극특허건수는 1995년 7.2건에서 2005년 65.4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43.9건)보다 높은 수치이다. 인구 100명 당 삼극특허건수는 2005년 기준 일본이 119.3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 106.7건, 독일 76.0건, 네덜란드 72.6건, 스웨덴 72.3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 기술 무역적자 지속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 지불액은 1981년 1억 700만 달러에서 2007년 51억 4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기술수출액 또한 1981년 1,200만

5) 삼극특허는 OECD에서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수로 지리적 영향과 자국의 이점을 제거하였다는 측면에서 특허에 기초한 국제비교가 용이하며 우선권 일자(priority date), 발명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달러에서 2007년 21억 7,800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는 1981년 0.11에서 2007년 0.43으로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수입이 기술수출보다 많아 기술무역은 적자 상태인데, 1981년 기술무역수지액은 9,500만 달러에서 2007년 29억 2,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16-9]

2006년 미국의 기술 수출액은 753억 8천만 달러, 기술도입액은 354억 7,900만 달러, 기술무역수지액도 399억 100만 달러 흑자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영국으로 2006년 기술도입액이 304억 600만 달러, 기술수출액은 154억 2,400만 달러로 흑자 규모는 149억 8,100만 달러다. 이어 일본의 2006년 기술 수출액은 204억 4,900만 달러, 기술도입액이 60억 6,500만 달러로 그에 따른 기술 무역수지액은 143억 8,400만 달러다.

###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 증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 241편에서 2008년 3만 5,569편으로 148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등재 논문 세계 순위는 1981년 54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12위를 차지하였다.

주요 국가의 등재 논문 수를 보면 미국이 2007년 29만3,371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국 7만9,784편, 중국 7만9,674편, 독일 7만3,184편, 일본 7만 531편의 순이다. <표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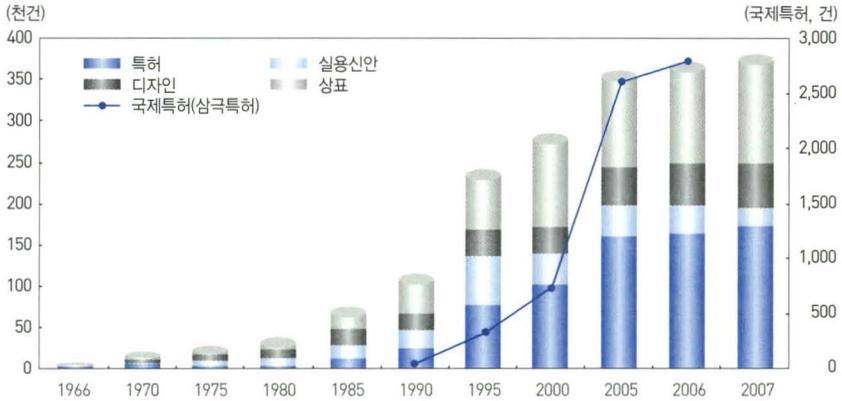
세계 전체 등재 논문 수에 대한 점유율<sup>6)</sup>도 1981년 0.05%에서 2008년 3.07%로 급속히 높아졌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18-3>

논문 1편 당 피인용회수<sup>7)</sup>는 1985년 1.39회에서 2008년 3.28회로 2.4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2008년 세계 순위는 30위다. 세계 3대 저널인 Nature, Science, Cell에 등재된 논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2편에서 2008년 28편으로 14배 증가하였다. <표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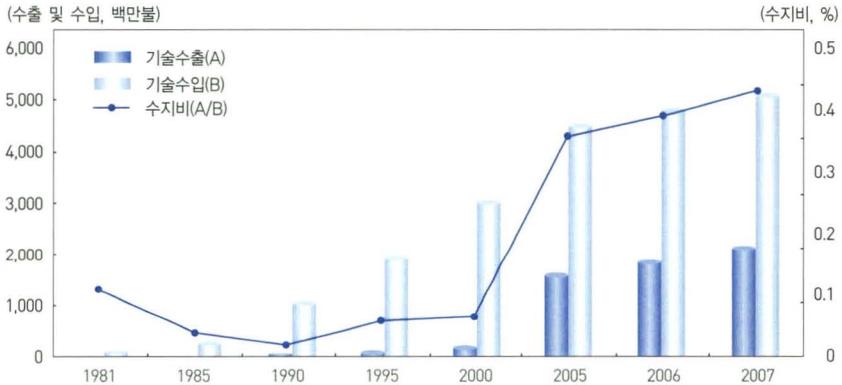
6) 점유율은 각 연도별 국가별 논문 발표수의 합계에 대한 국가별 논문수의 비율임. 논문 1편을 여러 국가의 과학자가 공저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별 논문 발표수의 합계는 세계 총 논문수보다 많음.

7) 2007년의 경우 2003~2007년, 2006년의 경우 2002~2006년 사이에 논문 1편당 피인용된 횟수를 의미함

[그림 16-8]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그림 16-9] 기술무역역



<표 16-14> 논문발표수, 점유율, 피인용 횟수 및 3대저널 논문수 (단위 : 편,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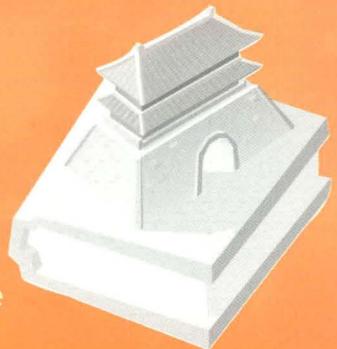
연도	논문수	논문 세계점유율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3대저널 논문수		
				Nature	Science	Cell
1981	241	0.05	-	2	2	-
1985	570	0.11	1.39	1	1	-
1990	1,613	0.27	1.24	1	1	-
1995	5,899	0.82	1.39	2	1	-
2000	13,458	1.73	1.91	11	7	3
2005	27,797	2.83	2.78	29	17	10
2006	28,316	2.88	2.93	28	12	9
2007	27,284	2.79	3.10	27	10	12
2008	35,569	3.07	3.28	28	11	1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논문 분석연구」,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 17장

## 문화·여가

- 17-1 도서관 및 이용자 수
- 17-2 영화극장 및 관객 수
- 17-3 관광호텔 및 객실 수
- 17-4 내국인 출국 현황
- 17-5 외국인 입국자 및 관광수입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도서관 수 2001년 이후 증가

우리나라 도서관 수는 2008년 현재 1만2,013개다. 이 중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이 4곳, 공공도서관 600개, 대학도서관 528개, 학교도서관 1만262개, 전문도서관 619개 등이다. 1994년(7,694개)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것이다. 도서관 수는 1999년(1만37개) 1만 개를 넘어섰다가 2001년 9,337개로 줄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림 17-1]

2001년에 도서관 수가 감소한 것은 학교도서관이 1999년 8,716개에서 2000년 8,060개, 2001년 7,918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279개에서 2008년 600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학도서관은 1994년 343개에서 2006년 438개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2007년 516개로 크게 늘었다. 전문·특수 도서관은 1994년 414개에서 2000년 591개로 단기간에 급증하였는데, 그 뒤 감소하다가 2007에 663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17-1>

## 좌석 수 1999년 이후 큰 변화 없어

도서관 좌석 수는 1994년 88만695석에서 1999년 122만3,813석으로 1.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8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08년 좌석 수는 132만5,322석으로 1994년 대비 약 1.5배 늘어남으로써 도서관 수 증가 추세와 비슷함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수가 2000년, 2001년 감소했다가 200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좌석 수는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무렵 도서관 수에 영향을 미친 곳이 대부분 학교도서관이라서 도서관 수 변화가 좌석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7-1]

## 장서 수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

도서관의 소장 장서 수는 1994년 7,638만6,654권에서 2008년 2억6,851만 4,355권으로 3.5배 증가하였다. 도서관 장서는 도서관의 증감과 관계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2]

도서관별로 보면 2008년 국가도서관이 861만8,889권, 공공도서관 5,092만 9,656권, 대학도서관 1억929만7,580권, 학교도서관 9,043만9,971권, 전문·특수 도서관 922만8,259권 등이다. 도서관수 대비 국가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도서관 이용 책 수는 2008년 4억2,803만3,014권으로 장서 수의 두 배에 이른다. 도서관별로 보면 국가도서관 488만1,404권, 공공도서관 2억5,494만 4,829권, 대학도서관 2,810만9,247권, 학교도서관 1억3,713만3,511권, 전문·특수 도서관 296만4,023권이다. 공공도서관의 이용 책 수가 소장 장서의 5배 로 가장 많은 반면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 도서관의 이용 책 수는 소장 장서 보다 적어 활용도가 공공도서관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 도서관 이용자 수 2006년 이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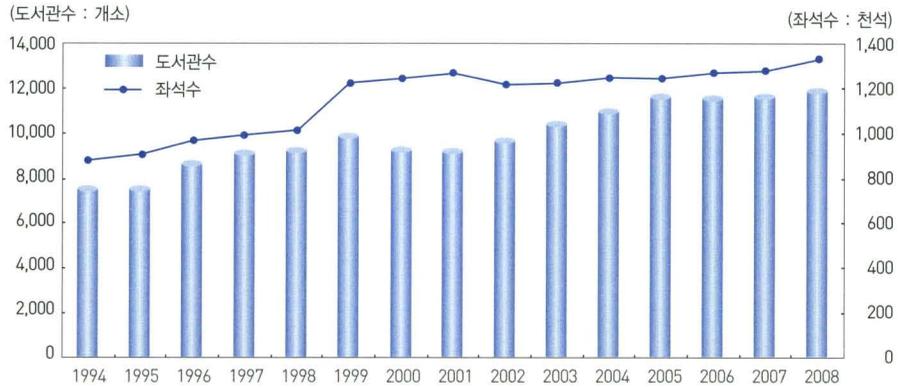
도서관 이용자 수는 1994년 1억4,827만8,055명에서 2008년 4억8,397만188명으로 약 3.2배 증가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는 1996년과 1997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1.8%,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31.8% 증가하였다. [그림 17-2]

2008년 이용자를 도서관별로 보면 공공도서관 2억9,763만3,558명을 비롯해 국가도서관 154만6,134명, 대학도서관 7,543만4,122명, 학교도서관 1억717만 7,143명, 전문·특수 도서관 217만9,231명이다. 2007년과 비교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7년 1억7,383만3,574명에서 1.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문·특수 도서관은 2007년 682만1,048명에서 되레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 이용자는 1994년 9,344만1,125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0년 이용자가 5,684만5,599명으로 줄었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5년에 5,736만 1,64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 7,474만6,555명으로 늘었다.

한편 도서관 예산은 1994년 2,585억원에서 2008년 1억148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2007년(8,459억원) 대비 2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7-1] 연간 도서관 수 및 열람석 수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각 년도

<표 17-1> 연도별 종류별 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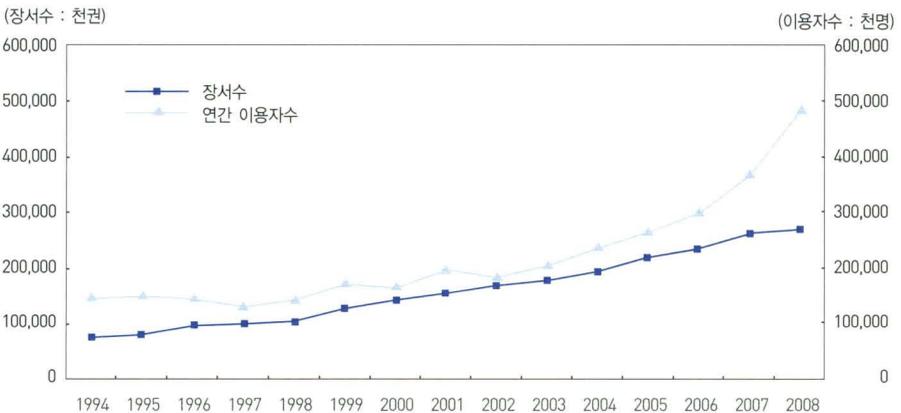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2006	2007	2008
공공도서관	279	330	370	400	420	437	471	514	564	600
대학도서관	343	399	408	416	420	436	435	438	516	528
학교도서관	6,656	8,140	8,716	8,060	7,918	8,426	9,649	10,149	10,010	10,262
전문도서관	414	491	542	591	578	572	548	570	663	619

주 : 국가도서관(국립중앙, 국립어린이청소년, 국회, 법원) 제외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각 년도

[그림 17-2] 연간 도서관장서 수와 이용자 수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각 년도

## 영화관은 줄고, 스크린은 늘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영화관 수는 322개, 스크린 수는 2,081개다. 영화관은 1998년 507개에서 1999년 373개로 급감한 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는 달리 스크린 수는 1998년 507개에서 1999년 588개로 증가한 뒤에도 계속 증가해 2008년 현재 1998년의 4배에 이른다. [그림 17-3]

이는 여러 개의 스크린을 가진 복합영화관, 즉 멀티플렉스(Multi-Flex)가 생겨 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영화관 수는 감소하였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바뀌면서 스크린 수는 꾸준히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스크린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스크린 당 인구는 1997년 9만2,462명에서 2008년 2만3,806명으로 감소하였다. 또 실제 좌석 수는 1998년 18만1,512석에서 2008년 38만2,471석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당 인구는 1998년 256명에서 2008년 130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영화관의 멀티플렉스화로 인해 스크린의 수는 많아졌는데, 상영관의 크기는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스크린 당 평균 300석 이상 좌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현재 스크린 당 평균 좌석은 200개에 못 미친다. 이는 개봉 영화의 다양화와 함께 관객의 영화 선택 폭 또한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7-2>

## 한국영화 점유율 상승

1990년대 초반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20% 정도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높아져 2001년에는 50.1%를 기록했다. 그 뒤에도 2002년(48.3%)과 2008년(42.1%)을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점유율 상승이 곧 상영 편수의 증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점유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었던 2001년의 상영 편수는 2000년보다 오히려 10편이 적었다. 2002년 상영 편수는 82편으로 증가했는데 점유율은 48.3%로 떨어졌다. 즉 일부 영화의 흥행이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외국영화와 한국영화의 상영 편수는 과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점유율은 1990년대 초반 20%에서 2000년 이후 약 50%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영화가 단순히 상영 편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영화 제작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000년 이후 영화관람객 증가

전체 영화 관객 수는 2008년 1억5,083만명으로 1991년 5,220만명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관객 수는 1996년까지는 줄었다가 1996년 이후 조금씩 늘었으며, 2000년 이후 급증했다.

영화 관객은 2000년 6,169만명에서 2001년 8,936만명으로 2,700만명 넘게 늘었다. 2002년에도 1,50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2007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그림 17-4]

1인당 관람 횟수 또한 1998년 평균 1.08회에서 2001년 1.89회, 2005년 2.98회를 거쳐 2008년에는 3.04회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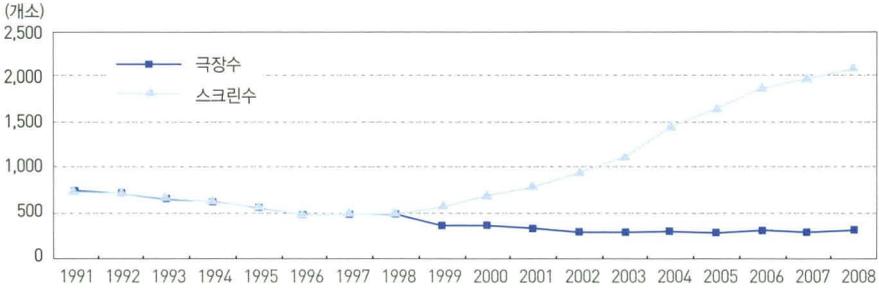
이러한 영화 관객의 변화는 한국영화 관객의 증가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한국영화 관객 증가가 전체 관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외국영화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2002년 이후부터 한국영화 관객 수가 외국영화 관객을 넘어섰으며, 특히 2006년에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관객 차이가 4,242만명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2008년에는 외국영화 관객이 한국영화 관객을 앞질렀다. [그림 17-4]

##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 이상 영화관람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관람은 가장 일반적인 문화활동이다. 2007년 15세 이상 인구 중 85.0%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영화 관람을 하였다고 응답했다. 남성이 85.8%, 여성이 84.4%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4.5%로 가장 높았으며 10대가 91.1%, 30대가 87.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83.6%), 50대(70.1%)에서도 비교적 높았으며, 60세 이상만 43.2%로 낮게 나타나 영화 관람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활동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17-3] 연도별 극장 수와 스크린 수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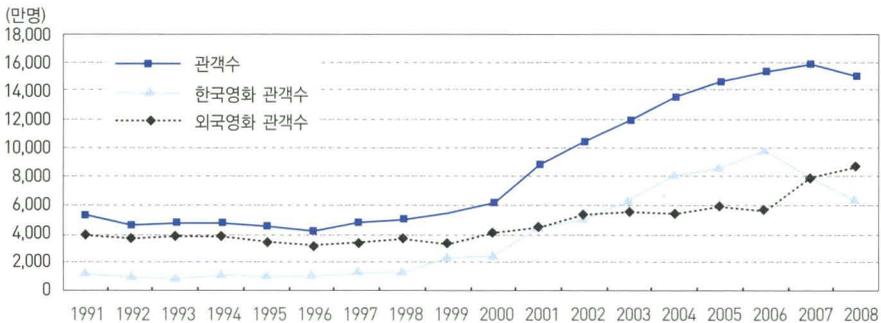
<표 17-2> 연도별 스크린 수 및 좌석 수

(단위 : 개, 명)

연 도	스크린		좌석		스크린당 좌석수
	스크린 수	스크린당 인구수	좌석수	좌석당 인구수	
1997	497	92,462	-	-	-
1998	507	91,578	181,512	256	358
2000	720	65,659	196,928	240	274
2002	977	49,152	240,652	200	246
2004	1,451	33,483	297,584	163	205
2006	1,880	26,059	354,691	138	189
2007	1,975	24,946	365,034	135	185
2008	2,081	23,806	382,471	130	184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년도

[그림 17-4] 연도별 전국 관객 수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년도

## 관광호텔 서울올림픽 전후 급증

2007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596개 관광호텔이 6만2,97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관광호텔은 특1급 호텔 53개(객실 수 1만9,685개), 특2급 호텔 69개(객실 수 1만2,182개), 1급 호텔 185개(객실 수 1만4,964개), 2급 호텔 120개(객실 수 6,166개), 3급 호텔 71개(객실 수 4,514개), 등급 미정 호텔 98개(객실 수 5,464개) 등이다. 등급 별로 1급 호텔이 가장 많으며, 특1급 호텔의 경우는 객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1975년 정부가 관광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급성장하였다.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2008, 최석호).<sup>1)</sup> 이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상업적인 관광 개발을 본격화했다.

관광호텔 수는 1976년 120개에서 198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7년 221개로 전년대비 28.5%의 증가율을 보였다. 1988년 전년대비 24.9%, 1989년 전년대비 33.0%, 1990년 전년대비 1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4년 연속 급성장하였다.

그 결과 1990년 관광호텔은 428개로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히 늘어 2007년 현재 596개로 집계됐다. [그림 17-5] 1987~1989년은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로 올림픽 개최에 맞춰 관광호텔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 1978~1979년 사이 대규모 호텔 설립

객실 수는 1976년 1만1,514개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78년에 전년 대비 31.6%, 1979년에는 20.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했다. 호텔 수가 1978년 14개, 1979년 11개 증가한 것에 비해 객실 수는 1978년 3,683개, 1979년 3,130개 늘어남으로써 이 시기에 규모가 큰 호텔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호텔 수의 증가에 맞춰 객실 수도 1987~1989년 사이 연평균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특히 1988년에는 객실 수가 5,906개 늘어나 21.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7-5]

## 관광호텔 서울에 120개로 가장 많아

2007년 현재 관광호텔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71개, 부산과 경북 지역이 각각 50개, 제주도 49개의 순서다. 반면 울산은 7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전북과 충남 지역도 각각 16개와 17개로 적은 편이다.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20~30여개의 관광호텔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17-6]

등급별로는 다른 지역이 대부분 1급과 2급 호텔의 분포가 많은 것과는 달리 제주도는 특1급 호텔이 12개로 전체 특1급 호텔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호텔이 49개인데 특급 호텔과 1급 호텔의 비중이 높고, 객실 수도 6,573개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많아 규모가 큰 호텔이 다수 영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호텔 수는 71개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데 등급 미정의 호텔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객실 수도 4,598개로 부산보다 적어 작은 규모의 호텔이 많음을 보여준다. <표 17-3> 이는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도시인 제주도와 서울 근교 나들이 지역인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객실 이용률은 인천이 7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 69.5%, 제주도 62.4%의 순서다. 인천에는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호텔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남과 충북 지역은 객실 이용률이 30%대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7-6]

## 8, 10, 11월 객실 이용률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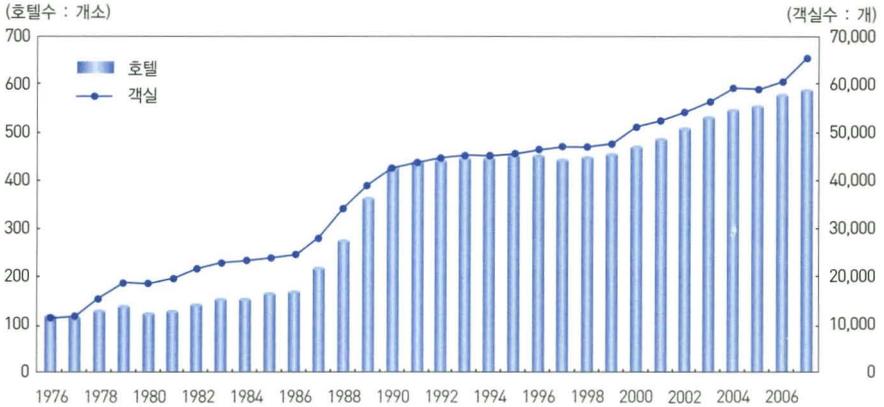
2007년 월별 객실 이용률은 10월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8월 63.8%, 11월 61.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는 여름 휴가철과 나들이를 많이 나가는 가을철이다. 또 월별 외국인 입국자가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아 이 시기에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월은 객실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월은 외국인 입국자 비율도 다른 시기에 비해 낮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계절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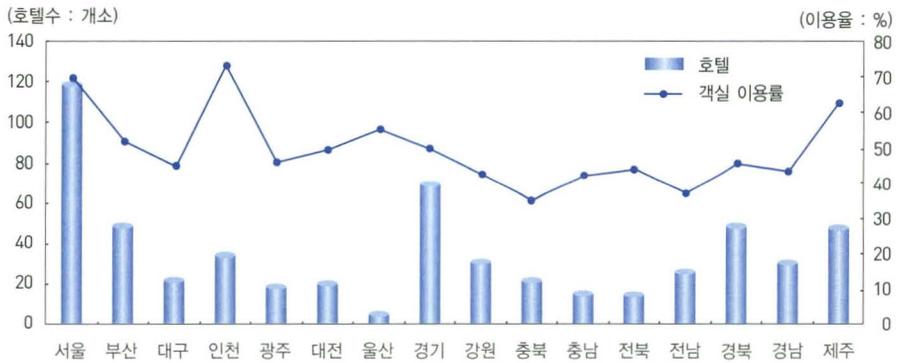
1) 최석호, 2008,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편

[그림 17-5] 연도별 관광호텔 수와 객실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그림 17-6] 2007년 지역별 관광호텔 수 및 객실 이용률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8

<표 17-3> 2007년 상위 5개 지역의 관광호텔 수

(단위 : 개소)

지역	전체		등급별 호텔수					등급미정
	호텔수	(객실수)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서울	120	(21,007)	17	22	34	22	11	14
경기	71	(4,598)	-	4	24	14	8	21
부산	50	(5,539)	4	5	13	13	12	3
경북	50	(4,521)	6	2	12	9	7	14
제주	49	(6,573)	12	5	18	5	3	6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8

## 해외 출국자 2000년 이후 급증

1980년에 시작되어 1989년 1월1일자로 전면 자유화된 해외여행 단계적 자유화 조치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75년 12만9천명이었던 해외 출국자는 1989년 121만3천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2005년에는 1,008만명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7년 1,332만5천명을 기록했다.

특히 1989년은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로 인해 출국자가 전년(1988년 72만 5천 명)대비 67.3%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도별 증감률을 보면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을 빼곤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1998년 이후에도 2003년을 제외하곤 매년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7-7]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한 경험자의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3.9%)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외여행 경험자 비율이 2000년 5.9%에서 2004년 10.2%로 높아 지는 등 2000년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증했다. <표 17-4>

## 해외 출국 목적 관광이 으뜸

2005년 해외 출국자들의 목적을 보면 관광이 54.8%로 으뜸이다. 이어 상용(business) 20.6%, 방문 8.6%, 유학연수 4.3%, 회의참가 0.8%, 공용(official) 0.3%, 기타 10.5% 등이다. 관광 목적 출국은 1987년 2.5%에서 1988년 18.5%로 높아진 데 이어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1989년부터 급상승해 1989년 37.0%, 1996년에는 50.5%로 나타났다<sup>1)</sup>. [그림 17-8]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서 해외여행 경험자의 여행 목적을 보면 '관광'이 7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 21.1%, '가사' 9.9%, '어학연수' 3.5%로 나타났다. <표 17-4>

## 방학 때 해외 출국 비율 가장 높아

2007년 월별 해외 출국자 현황을 보면 방학 기간인 1월, 7월, 8월에 높게 나타났다.

1) 2006년 8월부터 국민의 출국신고서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2006년 이후의 출국 목적에 대한 행정자료는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1월, 7월, 8월 출국자 비율이 매우 두드러져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단기 어학연수와 여행 목적 출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20~40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50대 이상에서는 월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해외여행을 하는데 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출국자 50% 이상 중국과 일본 방문

2007년 내국인 출국자들의 행선지를 보면 중국을 방문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본 19.5%, 태국 8.1%의 순서다. 많이 방문하는 주요 10개국 중 미국(6.5%)과 호주(1.9%)를 제외하면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다. 2006년과 비교하면 마카오 방문객이 38.5%의 증가율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이판도 30.7%의 증가율을 보였다.

### 남성의 해외출국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2007년 해외 출국자 중 남성이 52.6%, 여성은 39.7%로 남성의 비율이 12.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sup>2)</sup>. 이러한 성별 차이는 1981년(남성 82.0%, 여성 18.0%)에 기록한 64%포인트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1981년 이후 해외 출국자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 1997년(남성 60.2%, 여성 39.8%)에는 20.4%포인트로 좁아졌다.

### 지역별, 교육정도별 해외여행 격차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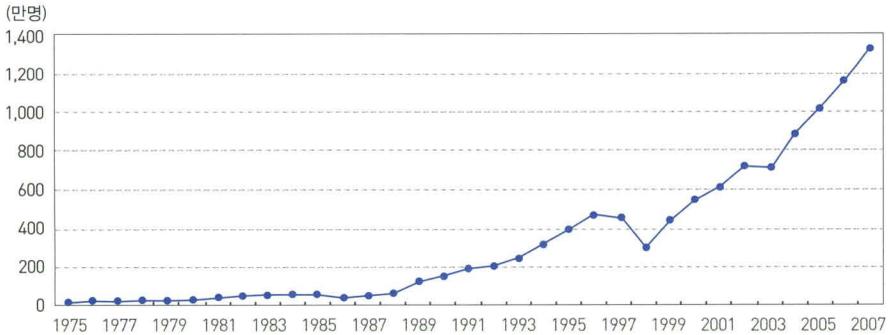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경험 비율은 도시 지역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교육수준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93년 도시 지역의 해외여행 경험 비율은 4.7%, 읍면부 지역은 1.2%로 4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도시 지역 14.7%, 읍면부 지역이 10.1%로 약 1.5배 정도로 차이가 줄었다. <표 17-4>

교육수준에 따른 해외여행 경험 비율을 보면 1993년 초졸 이하 1.6%, 중졸 1.8%, 고졸 3.2%, 대졸 이상 13.1%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각각 6.3%, 8.5%, 11.2%, 25.1%로 높아졌다. 1993년에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졌던 것이 2007년에는 약 4배 정도로 줄었다. <표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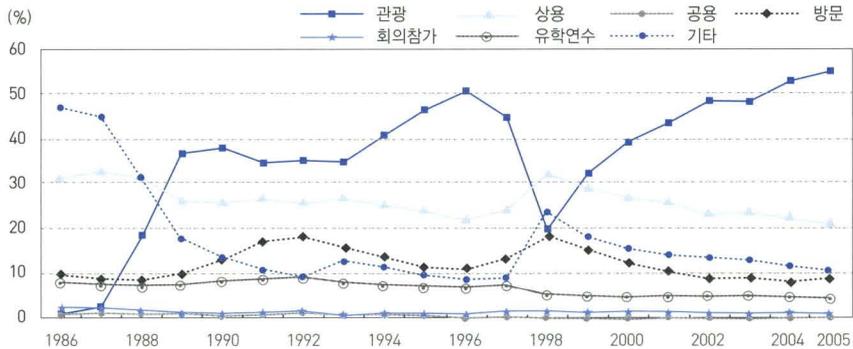
2) 1998년부터 승무원 비율이 집계에 포함되어 2007년 승무원의 비율은 7.7%임

[그림 17-7] 연도별 출국자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그림 17-8] 목적별 출국현황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표 17-4> 연도별 해외여행자 비율

(단위 : %)

구 분	1993	1996	2000	2004	2007	목적별 비율				
						관광	가사	업무	여학연수	
해외여행 비율	3.9	6.5	5.9	10.2	13.9	74.8	9.9	21.1	3.5	
지역	동부	4.7	7.3	6.6	11.0	14.7	73.8	10.1	22.1	3.6
	읍면부	1.2	3.2	3.4	6.2	10.1	81.2	8.8	14.5	2.8
학력	초졸이하	1.6	2.9	2.8	4.4	6.3	85.4	14.0	3.3	2.9
	중졸	1.8	2.5	2.6	6.0	8.5	86.3	13.3	4.2	2.9
	고졸	3.2	5.6	5.1	8.0	11.2	76.2	12.8	13.1	5.0
	대졸이상	13.1	19.5	14.6	20.5	25.1	70.1	6.9	31.9	2.7

주 : 1)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한 사람들의 비율임

2) 목적별 비율은 2007년의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 17-5 외국인 입국자 및 관광수입

17장 문화·여가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외국인 입국자 1980년 후반 이후 급증

외국인 입국자는 1970년대 초반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70년대 후반 들어 주춤해졌다. 그러다가 아시안 게임(1986년)과 서울올림픽(1988년)을 계기로 1980년대 중반부터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971년에는 전년 대비 34.3% 늘어난 23만3천명의 외국인이 입국했다. 1973년 그 3배에 가까운 67만9천명의 외국인이 들어왔다. 1980년에는 신군부 집권 등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입국자가 전년 대비 13.3% 줄기도 했다. 그 뒤 꾸준한 증가율을 보여 아시안게임이 열린 1986년 166만명,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234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644만8천명의 외국인이 입국하였다. [그림 17-9]

## 외국인 국적 일본과 중국이 절반 이상

2007년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을 보면 일본이 34.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16.6%, 미국 9.1%로 일본인과 중국인이 전체 방문객의 51.3%를 차지했다. 이 밖에 상위 10위 외국인 방문객 국적을 보면 대만(5.2%), 필리핀(4.1%), 태국(2.3%), 러시아(2.2%), 홍콩(2.2%), 캐나다(1.5%), 싱가포르(1.5%)의 순서다.

2006년과 비교하면 일본인 방문객은 4.4% 감소한 데 비해 중국인 방문객은 19.2%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국적의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방문객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 일본, 대만, 홍콩 방문객의 90% 이상 관광 목적

2007년 외국인의 방문 목적을 보면 관광 목적이 68.1%로 가장 높다. 상용(business)은 5.0%, 공용(official)은 0.6%, 기타가 26.4%다. 관광 목적의 방문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60% 이하로 비율이 낮았으나, 1995년 이후

높아져 1999년 74.1%를 기록했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상용목적 방문은 1995년 이전에는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특히 1985~1988년에는 15% 이상의 비율을 보이다가 1995년 이후 5% 이하로 낮아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용 목적 방문은 1975년에는 5.8%였으나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1989년 0.9%로 하락한 뒤 1% 미만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방문객의 국적별 입국 목적을 보면 일본인의 경우 96.5%, 대만은 97.3%, 홍콩은 93.0%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인의 경우 관광 목적은 39.3%로 상대적으로 적고, 상용 15.7%, 기타 44.7%로 집계됐다.

미국인의 경우는 관광 목적은 71.5%, 상용 5.2%, 공용 4.5%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공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들은 관광 목적이 18.6%로 매우 낮은 반면, 기타 목적이 80.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나라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5>

### 관광수지 2001년 이후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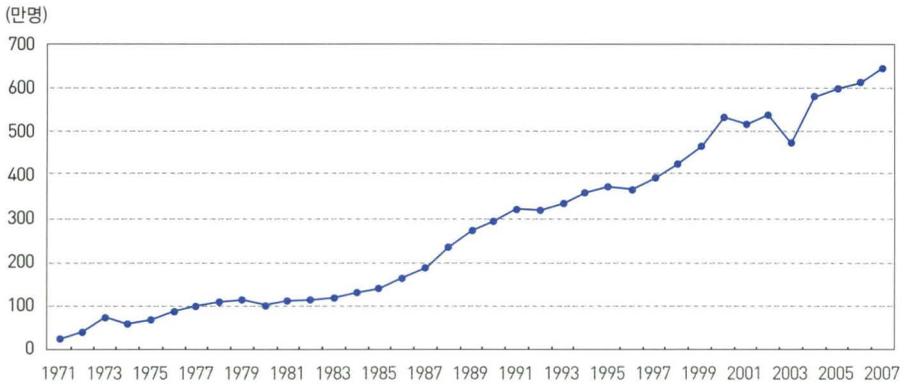
관광수입은 1973년에 전년 대비 224.6% 신장하여 2억6,943만4천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1980~1988년 사이 연평균 1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열린 1986년에는 전년 대비 97.3% 성장한 15억4,75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87년에는 전년 대비 48.6%,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는 전년 대비 42.0%의 성장률을 보여 이 무렵 관광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17-10]

이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의 후방효과로 볼 수 있다. 이후 관광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관광지출은 1977년 전년 대비 122.2%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한 뒤 1988년과 1989년에도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하였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1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7-10]

2007년 관광수입은 60억9,350만 달러, 관광지출은 관광수입의 2.7배인 169억5천만 달러이므로 108억5,6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관광수지는 1990년까지는 대체로 흑자였는데, 1995년 이후 관광수입은 정체 상태인데 관광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1998~2000년을 제외하곤 1994년 이후 계속 적자 상태다.

[그림 17-9] 연도별 입국자 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표 17-5> 2007년 주요 국적별 입국 목적 구성 비율

국적	입국인원(명)	입국목적 (구성비율 %)			
		관광	상용	공용	기타
전체	6,448,240	68.1	5.0	0.6	26.4
일본	2,235,963	96.5	1.0	0.1	2.4
중국	1,068,925	39.3	15.7	0.3	44.7
미국	587,324	71.5	5.2	4.5	18.8
대만	335,224	97.3	0.2	0.0	2.5
필리핀	263,799	18.6	1.0	0.4	80.1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8

[그림 17-10] 연도별 관광수입과 지출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년도

# 18장

## 공공행정 및 기타

- 18-1 행정부 공무원
- 18-2 형사범죄 발생
- 18-3 연령별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
- 18-4 교통사고
- 18-5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
- 18-6 자연재해
- 18-7 화재발생 및 피해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전체 공무원 97만4,830명, 1965년의 3배

2008년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7만4,830명이다. 행정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95만2,846명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한다. 이밖에 입법부 3,469명, 사법부 1만 5,636명, 헌법재판소 231명, 선거관리위원회 2,648명 등이다. 1965년(30만5,316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1965년 이후 공무원 수는 연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대 증가율이 5% 아래로 내려갔지만 증가 추세는 꾸준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1년 사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전년 대비 4만7,425명이 감소(-5.1%)했다. 또 2005년에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면서 전체 공무원 수를 감소시켰다.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에는 전년 대비 44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행정부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은 63.6%인 60만5,924명, 지방공무원은 34만6,922명이다. 국가공무원 중에는 교육공무원이 34만9,280명(57.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公安공무원 12만7,884명(21.1%), 일반행정 공무원은 9만 7,107명(16.0%), 현업기관 공무원 3만1,653명(5.2%)의 순서다.

행정부 공무원은 1965년 30만1,734명에서 2008년 95만2,84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8-1]에서 보듯 1997년 91만9,154명에서 이듬해 5.3% 줄어 87만887명을 기록한 뒤 2003년까지 80만명대에 머물렀다가 2004년 90만명대로 증가하였다.

행정부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1972년까지 14~16%였는데, 1973년 21.4%로 높아진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7년에는 38.9%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비중이 낮아졌으며 2008년 현재 36.4%이다.

## 행정부 공무원 별정직과 기능직은 감소 추세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특정직<sup>1)</sup>이 45만6,404명(75.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한 공무원을 이른다.

일반직이 10만3,637명(17.1%)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이 22만8,499명(65.9%)으로 3분의 2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기능직이 8만1,679명(23.5%)으로 많아 국가공무원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표 18-1>

연도별로 보면 별정직<sup>2)</sup>과 기능직<sup>3)</sup>은 감소 추세, 특정직과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은 1992년 3,676명에서 2008년 1,910명으로, 기능직도 1992년 8만3,630명에서 2008년 4만3,723명으로 둘 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와는 달리 특정직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일반직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은 1992년 1만1,276명에서 2008년 4,263명으로, 기능직도 1997년 10만7,054명에서 2008년 8만1,679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하면 별정직의 감소폭은 크지만 기능직의 감소폭은 적다. 특정직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때에도 꾸준히 증가한 결과 1992년 1만 2,638명에서 2008년 3만2,47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일반직은 IMF 이후 시기인 1998~2001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여성 공무원 비율 국가직 48.3%, 지방직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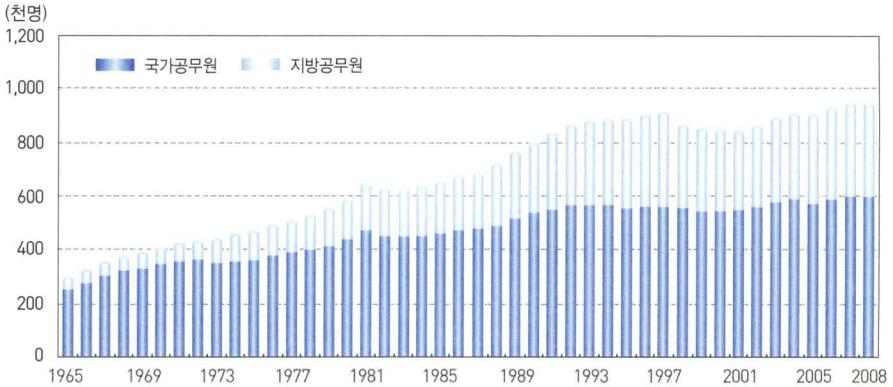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2.0%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42.3%로 가장 높고 헌법재판소 34.7%, 사법부 31.9%, 입법부 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5%의 순서다. <표 18-2>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여성 비율은 국가직이 48.3%인 데 비해 지방직은 29.0%로 낮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8급과 9급에서, 별정직은 6급 상당 이하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 특히 교육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방직은 교육 공무원이라도 여성 비율이 21.5%로 낮게 나타났다.

2)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 정무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3)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철도현업·체신현업·토건·전신·기계·선박·항공·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되며,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통신·전화수리·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항공·선박·선박기관·등대·농림·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렬로 이루어진다.

[그림 18-1] 연도별 행정부 공무원 정원



주 : 매년 12월 31일 현재 기준(2008년은 6월30일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보」 각 년도

<표 18-1> 2008년 행정부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전 체	952,846	124	6,173	132	488,879	332,136	125,402
국가공무원	605,924	120	1,910	130	456,404	103,637	43,723
지방공무원	346,922	4	4,263	2	32,475	228,499	81,679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보」 2008

<표 18-2>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2008년)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국가	지방				
총 원	894,983	599,033	274,626	3,010	15,442	245	2,627
여 성	375,892	289,388	79,746	949	4,923	85	801
비 율	42.0	48.3	29.0	31.5	31.9	34.7	30.5

주 : 일반직 중 지방교육공무원 및 특정직 중 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2008.6.30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보」 2008

## 연간 범죄발생 200만 건 육박

2008년 범죄 발생건수는 218만9,452건이며 검거율은 87.4%, 검거 인원은 총 232만2,822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의 발생상황별로 보면 형법범죄가 89만7,536건, 특별법범죄가 129만1,916건이다. 검거율은 형법범죄가 79.0%, 특별법범죄가 93.3%로 특별법범죄의 검거율이 더 높았다.

[그림 18-2]에서 보듯 범죄 발생건수는 1995년 139만9,085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4년(208만901건) 200만 건을 넘어선 뒤 줄어들다가 2008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다. 형법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를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3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3.1%, 사행심 2.3%, 부주의의 1.6%의 순서다.

## 전체 형법범 중 재산범죄가 56.1%를 차지

형법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로 전체의 56.1%에 이른다. 2008년 재산범죄는 50만3,302건이 발생하였고, 67.6%의 검거율로 43만3,116명을 검거하였다. 재산범죄는 199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99~2003년 사이 크게 늘었다가 그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8-3] 재산범죄 가운데 절도가 4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기(40.8%) 행위다.

## 강력범죄는 2001년 이후 감소 추세

형법범 중 재산범죄 다음으로 강력범죄가 31.7%로 많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2008년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8만4,839건으로 94.4%의 검거율로 42만6,203명을 검거하였다. 재산범죄와 비교할 때 강력범죄가 검거율도 높게 나타났다. 강력범죄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전년대비 14.5% 감소, 2006년에도 전년대비 9.2% 감소하였다. 강력범죄 중 68.4%가 폭행과 상해에 대한 범죄이고, 20.1%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부분 폭력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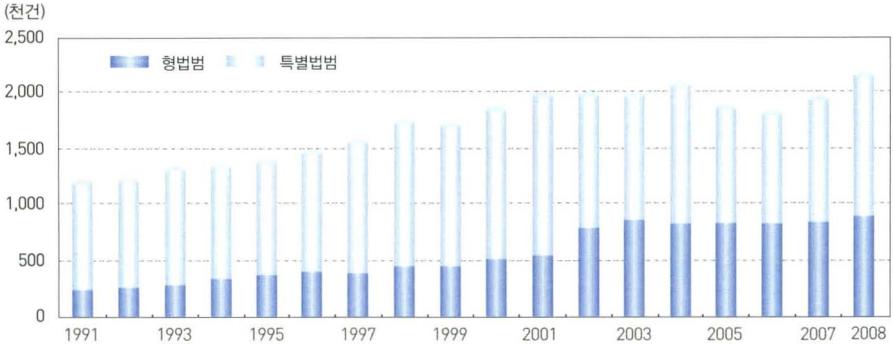
### 흉악범죄 중 강간이 65.2%, 증가 추세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을 흉악범죄로 분류하는데 2008년 흉악범죄 발생건수는 2만2,987건으로 1998년(1만3,546건)의 1.6배로 증가하였다. 살인이 1,120건, 강도 4,827건, 방화 1,946건, 강간 1만5,094건 등으로 흉악범죄 중 강간의 비중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강도는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는 달리 방화와 강간은 늘었는데, 특히 강간은 1998년 6,016건에서 2008년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표 18-3> 그러나 범죄통계는 인지된 범죄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이 많아진 것인지 그전보다 신고 비율이 높아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여성 범죄자 비중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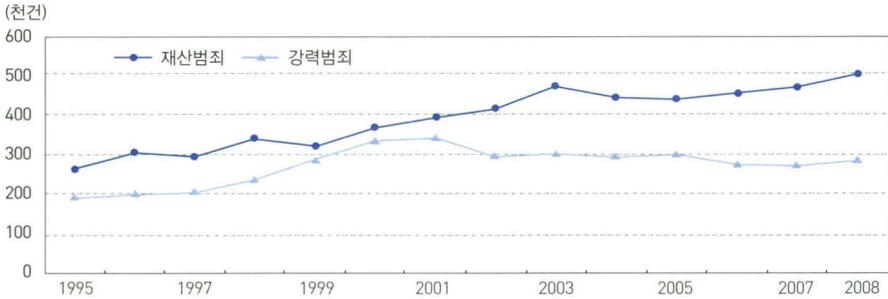
2008년에 검거된 전체 범죄자 247만2,897명 중 여성은 38만1,241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여성 범죄자는 2004년 37만3,883명을 기록한 뒤 줄어들다가 2008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것은 위조범죄, 풍속범죄, 재산범죄 등인데, 특히 재산범죄 중 사기는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21.3%로 월등히 높았다. 한편 흉악범죄의 경우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8-4>

[그림 18-2] 연도별 범죄 발생건수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그림 18-3] 연도별 재산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건수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표 18-3> 연도별 흉악범죄 발생건수

연도	합계(건)	흉악범죄(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1998	13,546	966	5,407	1,157	6,016
2003	20,416	1,011	7,327	1,713	10,365
2005	19,941	1,091	5,266	1,827	11,757
2007	20,922	1,124	4,470	1,694	13,634
2008	22,987	1,120	4,827	1,946	15,09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표 18-4> 2008년 주요 범죄종류별 여성범죄자 수

구분	전체 범죄자	주요 범죄별 여성범죄자				
		재산	흉악	폭력	위조	풍속
전체범죄자수(명)	2,472,897	419,242	19,848	411,709	36,394	46,525
여성범죄자수(명)	381,241	79,410	727	68,506	7,736	9,080
구성 비율 (%)	15.4	18.9	3.7	16.6	21.3	19.5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

## 18-3 연령별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

### 30대 이하 범죄자 비중 하락, 40대 이상은 상승

2008년에 검거된 범죄자를 연령별로 보면 41~50세가 25.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1~40세 22.7%, 20~30세 17.5%, 51~60세 12.0% 순서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연령층 범죄자 비중은 199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인 반면 40대 이상에선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할 때 31~40세와 20~30세 범죄자의 비중은 각각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19세 이하 범죄자 비중도 1995년 6.9%에서 2004년 3.2%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5.5%로 나타났다. 반면 41~50세 범죄자 비중은 1995년 17.8%에서 2008년 25.9%로 높아진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51~60세는 4.9%포인트, 61세 이상은 2.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그림 18-4]

### 연령 낮을수록 강력범죄 비중 높아

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9세 이하의 경우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흉악범죄는 19세 이하가 15.2%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강력범죄에서, 30대는 흉악범죄와 과실범죄에서 각각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강력범죄 중 폭력범죄에서 28.8%를 차지했고, 풍속범죄에서도 39.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50대는 풍속범죄에서 비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위조범죄와 과실범죄를 상대적으로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강력범죄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위조범죄와 풍속범죄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년 범죄자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급증

19세 이하 소년 범죄는 2008년 13만4,992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형법범이 7만 9,765명, 특별법범이 5만5,227명으로 형법범의 비율이 59.1%로 특별법범이 더 많은 일반 범죄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소년 범죄자는 1995년 12만4,244명에서 1997년 15만199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계속 줄었는데 2005년 이후 다시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년대비 5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형법범의 수는 2002년 특별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형법범으로 분류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림 18-5]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원인이 2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 10.3%, 부주의 9.2%의 순서로 나타났다.

### 소년 범죄자 중 절도범이 가장 많아

소년 범죄자들을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절도범죄가 3만3,073명으로 전체의 24.5%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2만4,781명(18.4%)이며 그 밖에도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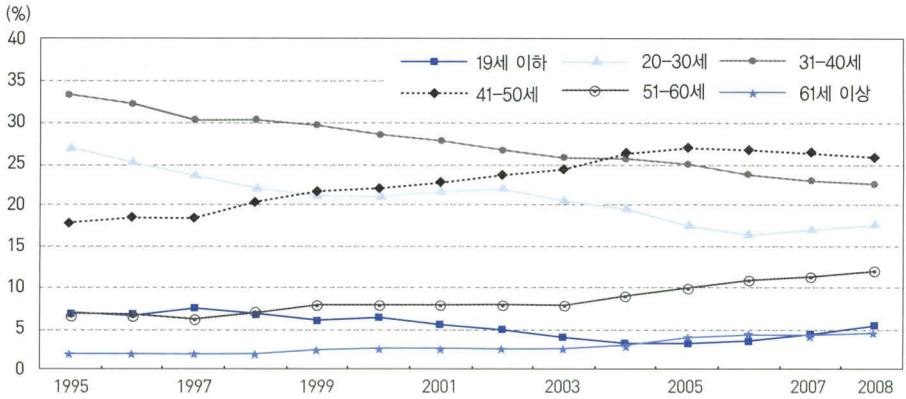
2008년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형법범이 7.8%, 특별법범이 3.8%로 나타났다. 범죄 종류별로는 절도죄에서 전체 범죄대비 소년 범죄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고, 이어 공갈 35.2%, 강도 30.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8-5>

### 소년범 생활형편 하류층이 절반 넘어

소년 범죄자 중 14~15세, 즉 나이가 어릴수록 절도, 방화,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의 비율이 높았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사기, 살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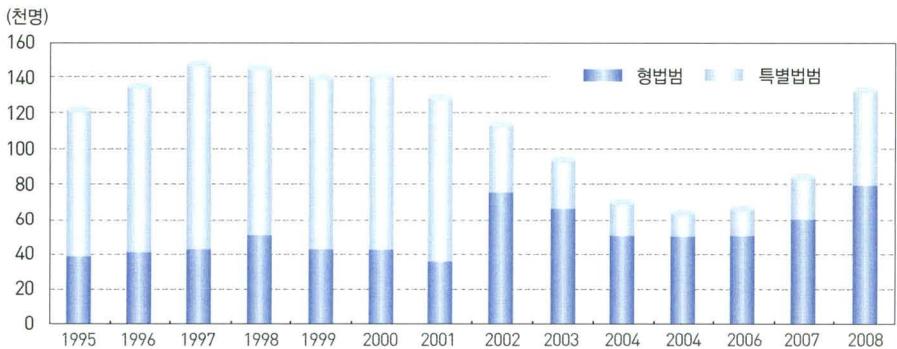
소년 범죄자의 생활 형편을 보면 하류층이 51.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중류층 31.5%, 상류층 0.4%로 가정의 생활 형편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점을 알 수 있다(미상 16.3% 포함). 특히 강도의 경우 1,226명 중 874명이 하류층으로 재산 범죄보다 흉악범죄에서 하류층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18-4] 연령별 범죄자 비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그림 18-5] 연도별 소년범죄 발생건수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표 18-5> 2008년 형법범의 소년 범죄자수와 전체 범죄대비 비율

구분	소 계	절 도	장 물	사 기	횡 령	살 인	강 도	방 화
소년 범죄자수(명)	79,765	33,073	571	4,188	1,128	12	1,226	189
구성비(%)	7.8	38.6	14.5	1.6	3.7	1.2	30.4	13.1
구분	강 간	폭 행	상 해	공 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과실 치사상	기 타	
소년 범죄자수(명)	1,589	4,347	3,749	1,046	24,781	70	3,796	
구성비(%)	11.9	2.9	3.0	35.2	19.5	4.4	1.8	

주 : 구성비는 각 항목별 전체 범죄자수에 대한 소년범죄자수의 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

## 하루평균 교통사고 590건 발생, 16명 사망

2008년 한 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5,822건이며, 이에 따른 사망자가 5,870명, 부상자는 33만8,962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59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동차로 보면 1만대 당 105.9건 꼴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16.1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12.1명에 이른다.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하루 평균 928.7명, 인구 10만명 당 697.4명이다.

##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00년 이후 감소

[그림 18-6]에서 보듯 교통사고 발생은 1975년 5만8,323건에서 5년 뒤인 1980년 12만18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1975년에는 전년 대비 37.3% 증가하였으며, 1976년과 1979년에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0년 뒤인 1990년에는 25만5,303건으로 다시 두 배 넘게 불어났고, 2000년 29만481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교통사고 발생이 2000년까지 증가한 것과 달리 사망자는 1991년 1만3,419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하였다. 199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1년 전년 대비 20.9%의 감소율로 보인 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부상자 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마찬가지로 2000년 42만6,984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 교통사고 원인 안전운전 불이행이 절반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을 넘는 11만8,791건(55.0%)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 2만6,436건(12.2%), 안전거리 미확보 2만1,984건(10.2%),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1만5,617건(7.2%), 중앙선 침범 1만3,653건(6.3%)의 순서다. 2002년을 전환점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반면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발생 비율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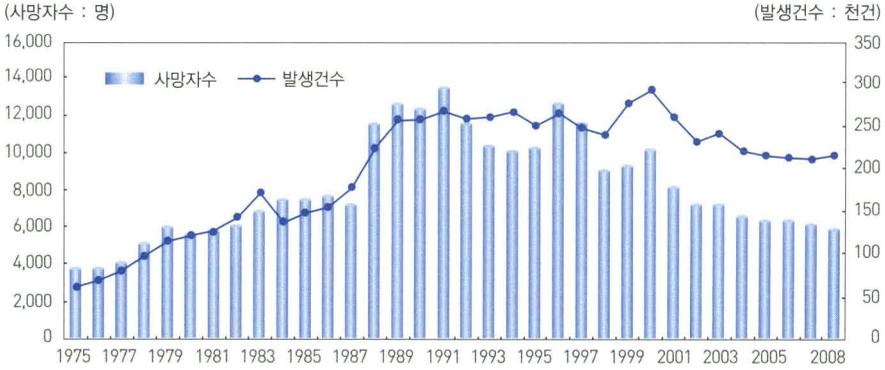
2008년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7,874건으로 사망자가 161명, 부상자도 2만2,364명에 이른다. 이는 1999년 3만809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어린이 사망자도 1997년 753명으로 최대를 나타낸 뒤 꾸준히 감소하였다. 어린이 부상자는 1999년 3만5,360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그림 18-7]

### 5월, 10월에 교통사고 많아

2008년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보면 11월이 1만9,957건(9.2%)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10월이 1만9,926건(9.2%)으로 사고가 많았다.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1만4,176건(6.6%), 1월도 1만4,741건(6.8%)으로 사고가 적은 편이었다. [그림 18-8] 2008년 이전에도 2월 중 사고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고 5월, 10월, 11월에 사고가 많아 나들이 인구가 많은 봄과 가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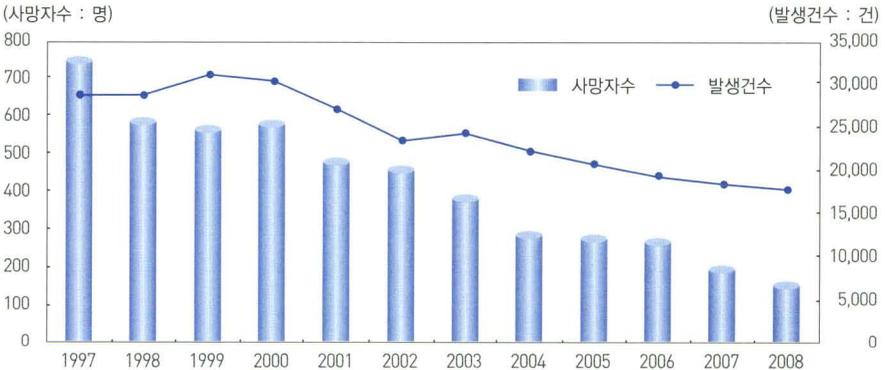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자는 6월과 2월에 각각 423명, 428명으로 가장 적었고, 사고가 많은 10월에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 6월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3월의 경우 사고 발생건수는 16,752건으로 전체의 7.8%이나 사망자수는 50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8]

[그림 18-6]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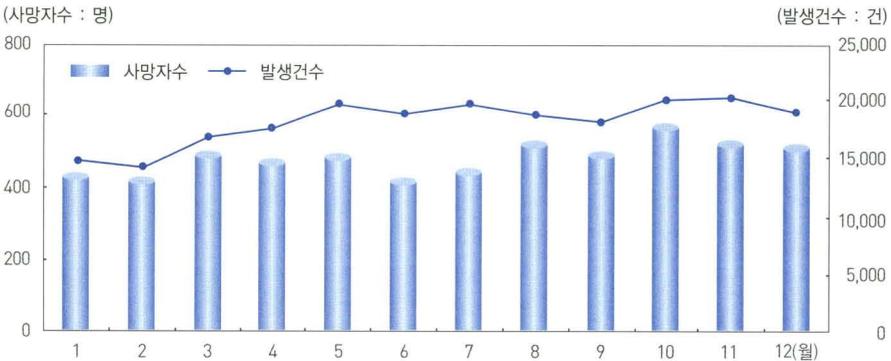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년도

[그림 18-7] 연도별 어린이(14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년도

[그림 18-8] 2008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

## 18-5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

### 200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만6,873건

200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6,87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21만5,822건)의 12.5%에 이르렀다. 혈중 알콜농도가 0.1~0.14%인 경우가 9,4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알콜농도 0.15~0.19%의 음주운전이 7,995건으로 많았다. 알콜농도가 0.3% 이상인 경우도 168건에 이르고, 측정을 불응한 경우도 521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97년 2만2,892건에서 2003년 3만1,22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6년 2만9,990건으로 3만 건에 육박한 뒤 2년째 감소하며 2008년에는 26,87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폭보다 사망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6천 건 미만인데도 사망자가 1천명을 넘었는데, 2008년 음주 사고가 2만6,873건에 이르는데도 사망자는 969명에 그쳤다. [그림 18-9]

### 음주 교통사고 알콜농도 높을수록 사망 많아

200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인 9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발생률이 높았다. 알콜농도 0.2% 미만에서 교통사고 건당 사망자가 0.03명 정도 이던 것이 0.2~0.24%에선 0.06명, 0.25~0.29%에선 0.11명, 0.3~0.34%에선 0.12명, 0.35% 이상에선 0.16명으로 증가하였다.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 운전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건당 0.026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2008년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면 10월이 2,457건으로 가장 많고, 3월이 2,434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와는 달리 1월에는 1,999건, 2월 1,921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밖에 다른 달에는 2,200~2,300건씩 발생했다. [그림 18-10] 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이 10월에 많고 1월과 2월에 적은 것과 비슷하다.

## 무면허 교통사고 15~20세 운전자 많아

2008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1만65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4.9%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가 528명, 부상자는 1만5,722명이었다. 운전자 연령을 보면 15~20세가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의 22.0%인 2,3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1~45세, 46~50세 운전자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자도 15~20세 운전자 사고에서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71세 이상 운전자 무면허 교통사고에서 11.9%인 6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71세 이상 무면허 교통사고가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의 3.7%인 392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55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당 사망자는 0.05명 미만인데 56~60세 무면허 운전자 사고에선 0.07명, 61~64세에선 0.06명, 65~70명에선 0.15명, 71세 이상에선 0.16명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도 높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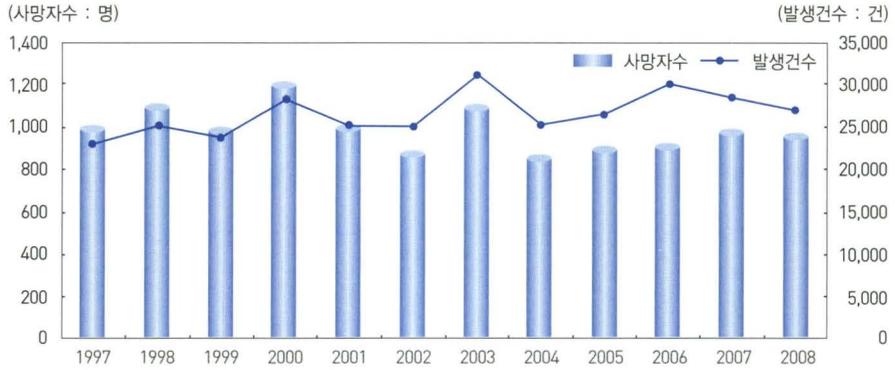
무면허 교통사고는 1997년 1만3,585건에서 점차 줄어 2004년 9,707건으로 1만 건 아래를 기록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났다. 무면허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는 1997년 0.09명에서 2005년 이후 0.05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8-11]

## 전남과 충남의 무면허 사고 비율 높아

무면허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100건으로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의 19.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298건(12.2%)으로 많았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비중이 서울(19.3%), 경기도(18.1%)의 순서인 점과 비교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무면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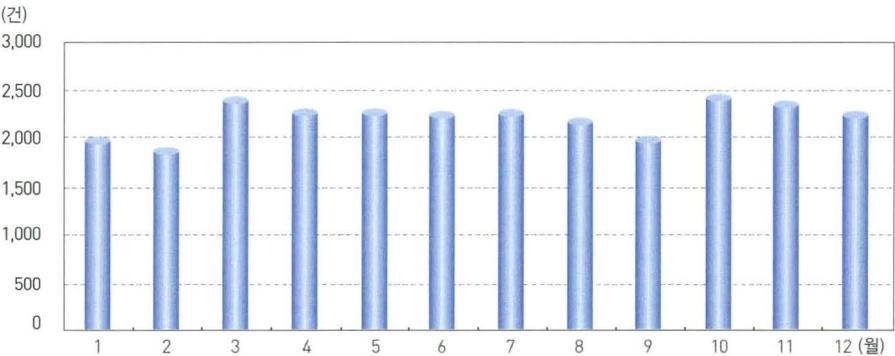
지역별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 대비 무면허 사고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남과 충남 지역이 각각 8.0%, 7.5%로 가장 높다. 이어 경북(7.0%)과 울산(6.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는 각각 3.1%, 4.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8-9]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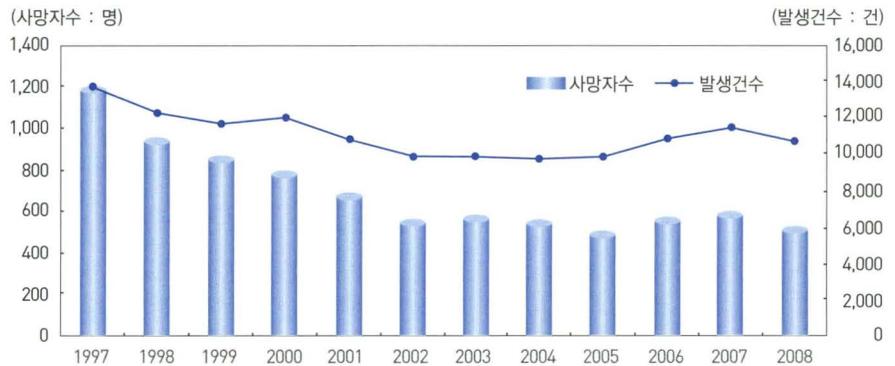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년도

[그림 18-10]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08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

[그림 18-11] 연도별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년도

## 자연재해 태풍 호우 피해가 가장 심각

2007년 자연재해는 14차례 발생해 17명의 사망자와 675명의 이재민, 2,518억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최근 10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연평균 사망자 117명, 이재민 2만4,305명, 피해액 2조 2,262억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액이다.

2007년 자연재해를 원인별로 보면 호우가 7회, 태풍·강풍·풍랑이 각각 2회, 대설이 1회였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63.9%인 1,6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우로 인한 피해 435억원(17.3%), 풍랑에 의한 피해 331억원(13.2%)의 순서였다. 이 중 가장 재산피해가 컸던 것은 9월 13~18일에 발생한 11호 태풍 '나리'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591억원으로 2007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63%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 피해 7~9월에 가장 많아

2007년 자연재해를 월별로 보면 9월에 집중돼 피해액의 64.1%를 차지하였다. 과거 10년간 재해를 보아도 7~9월에 재해가 집중됐으며, 그 피해금액도 커서 전체 피해액의 87.6%에 이르렀다. 이는 7월 장마와 8~9월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 때문으로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월과 11월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은 기간이다. 특히 5월의 피해는 지난 10년간 9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적은 11월(33억원)과 큰 차이를 보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시기임을 보여주었다. <표 18-6>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원인은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10년간 피해액(22조 2,622억원)의 절반을 넘는 12조 1,213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2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6조 325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자연재해는 호우로 6조 2,397억원(전체의 28.0%)의 피해를 입혔

으며, 매년 피해가 발생하였다.

과거 자연재해 피해액이 컸던 경우는 2002년 태풍 ‘루사’가 꼽히는데 사망 및 실종자 246명에 5조 9,886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어 2003년 태풍 ‘매미’는 131명의 인명피해에 4조 8,05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표 18-7>

###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가 피해 가장 커

지역별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면 2007년 전라남도도와 제주도의 피해액이 2007년 전체 피해액의 60.9%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피해를 보면 강원도가 전체 피해액의 28.7%로 가장 컸다. 이어 경상남도 19.2%, 경상북도 14.0%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이 전체 피해액의 0.7%에 그친 것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강도나 기간에 따라 편차가 크다. 따라서 연도별 비교는 의미가 떨어지므로 1960년 이후 5년 간격으로 피해 추세를 살펴보았다. 1960~1989년 사이 자연재해로 인한 5년간 사망자가 1980~1984년을 제외하면 1천명 이상으로 많았다. 특히 1985~1989년 사이 사망자가 1,87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피해액도 과거 5년보다 2.8배 이상 컸다.

1990년대 이후 사망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 데 비해 피해액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함으로써 대조를 이뤘다. 특히 2000~2004년 사이 사망자 563명, 침수 면적 24만2,998ha로 그전에 비해 가장 적었지만, 피해액은 15조 6,522억원으로 과거 5년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이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문으로 역대 피해 순위(<표 18-7>)가 이 기간에 큰 자연재해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표 18-8>

〈표 18-6〉 2007년과 최근 10년간의 월별 자연재해 피해액

(단위 : 억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100	-	322	-	2	-	60	342	1,615	-	-	74
'98-'07	8,320	1,631	7,889	142	9	2,800	56,480	80,596	57,902	1,229	33	5,587

주 : 피해액은 2007년도 가격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8

〈표 18-7〉 과거 주요 호우 및 태풍피해 현황의 우선순위(1위~10위)

피해순위	연도	피해원인	이재민(명)	사망/실종(명)	피해액(억원)
1	2002	태풍(RUSA)	63,085	246	59,886
2	2003	태풍(MAEMI)	61,844	131	48,054
3	2006	집중호우 및 태풍(EWINIAR)	2,790	62	18,833
4	1998	집중호우	24,531	324	14,385
5	1999	집중호우 및 태풍(OLGA)	25,327	67	12,353
6	2002	호우	8,107	23	10,680
7	1990	집중호우	187,265	163	8,433
8	2004	폭설	25,145	-	7,222
9	1987	태풍(HELMA)	99,516	345	6,884
10	1995	집중호우 및 태풍(JANIS)	24,146	65	6,328

주 : 피해액은 2007년도 가격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8

〈표 18-8〉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연도	사망/실종(명)	이재민(명)	침수면적(ha)	피해액(억원)
1960-1964	1,351	107,489	622,421	3,682
1965-1969	1,301	865,196	382,771	7,523
1970-1974	1,757	1,004,568	370,640	8,932
1975-1979	1,546	139,633	318,023	9,420
1980-1984	972	444,366	467,402	12,774
1985-1989	1,878	541,294	652,493	36,506
1990-1994	678	259,483	264,180	22,042
1995-1999	746	112,354	340,752	49,907
2000-2004	563	150,981	242,998	156,522

주 : 1) 피해액은 2007년도 가격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2) 사망자수에는 실종자도 포함된 수치임(64년 이전은 사망자만의 수치임)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8

# 18-7 화재발생 및 피해

18장 공공행정 및 기타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2008년 화재발생 약 5만 건, 피해액은 증가 사망자는 감소

2008년 화재발생 건수는 4만9,631건으로 1년 전보다 3.7% 많았다. 그에 따른 사망자가 468명, 부상자는 2,248명으로 전년대비 10% 넘게 많아 발생 건수와 비교할 때 인명 피해가 더 컸음을 보여준다. 재산피해는 3,831억원으로 전년대비 54.2% 많았다. 건당 피해액도 2007년 519만원에서 2008년 772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1975년 4,259건이었던 화재발생이 1985년 8,1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1987년과 1988년에는 전년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1년(3만6,169건) 이후 주춤하다가 2007년에 전년대비 5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4만7,882건을 기록하였다.

화재에 따른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여 1975년에 142만원이었던 건당 피해액이 2008년 772만원으로 늘어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숫자는 늘었는데 이는 화재발생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화재발생 건당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화재발생 1천건당 사망자는 1975년 51.4명에서 1990년 24.4명을 거쳐 2008년에는 9.4명으로 줄었다. [그림 18-12]

## 화재발생 원인의 절반이 부주의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2008년 부주의로 인한 것이 전체의 48.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22.8%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드러난 경우가 800건(1.6%)인 반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3,441건(6.9%)으로 훨씬 많았다. 특히 방화와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2007년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방화는 전년대비 81.0%,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전년대비 29.5% 늘었다. <표 18-9>

화재 발생 장소는 2008년 주택이 전체의 1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차량 화재가 13.0%로 뒤를 이었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6.0%로 상대적으로 적어 아파트 외에 다른 일반 주택이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주택 화재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2000년 대비 13.2% 감소하였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가 2000년 대비 42.4%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주택 화재의 감소폭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화재 발생 장소로는 음식점(5.5%), 공장(5.4%), 점포(5.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하면 공장, 사찰·교회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작업장에서 화재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로 2000년 대비 50% 감소하였다.

### 화재는 1~3월에 많이 발생

2008년 화재발생을 계절별로 보면 1월, 2월, 12월이 긴 겨울철이 전체의 29.3%로 가장 많다. 이어 봄철(3~5월)의 화재발생 비율도 28.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름철은 19.3%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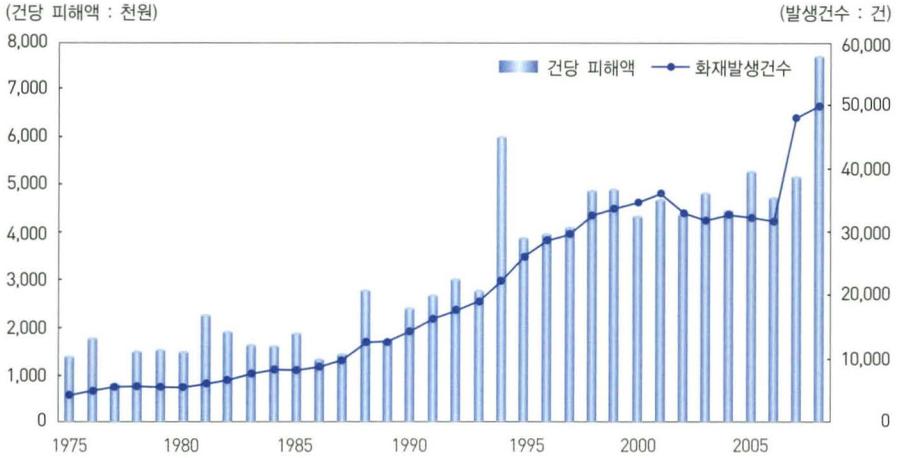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의 화재 발생이 가장 많다. 특히 2월 한 달에 전체 화재의 12.0%가 발생했다. 이 때가 1년 중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라서 그렇다. 2008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1~3월 화재발생 건수가 다른 기간에 비해 많았다. <표 18-10>

### 경기도 지역 화재발생이 전체의 22%

2008년에 발생한 화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20건(전체의 2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서울이 6,731건(13.6%)으로 많았다. 이밖에 경남이 4,389건(8.8%)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다른 지역들은 7% 미만이었다. 특히 대전, 울산, 충북 지역은 3% 정도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주도는 1.3%인 655건으로 화재 발생이 가장 적었다.

서울의 경우 화재발생 건수는 2000년 이후 줄어들다가 2007년에 다시 증가했는데,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0.3%에서 2008년 13.6%로 낮아졌다. 반면 대구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와 비율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졌다. 2007년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143.7% 증가하였고, 전체 화재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6%에서 2007년 5.0%로 높아졌다.

[그림 18-12] 연도별 화재발생과 피해 현황



자료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 년도

<표 18-9> 2008년 원인별 화재발생

구분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피해액 (백만원)
		사망	부상	
합계	49,631	468	2,248	383,137
전기	11,311	44	342	107,476
기계	3,554	9	105	25,271
가스누출	236	13	142	2,044
화학	254	5	36	1,797
교통사고	647	35	48	4,938
부주의	24,048	103	832	114,422
자연	220	-	-	998
미상	4,301	155	397	94,962
방화	800	33	148	13,466
방화 의심	3,441	60	161	12,331
기타	819	11	37	5,432

자료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008

<표 18-10> 2008년 월별 화재발생

월별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피해액 (백만원)
		사망	부상	
합계	49,631	468	2,248	383,137
1월	4,047	88	180	30,499
2월	5,947	176	192	38,050
3월	5,324	52	269	25,580
4월	4,671	32	176	23,853
5월	4,305	19	188	19,054
6월	3,176	21	180	18,928
7월	3,174	30	181	55,490
8월	3,251	20	126	17,194
9월	3,287	42	190	18,798
10월	3,822	31	152	16,438
11월	4,098	37	175	24,169
12월	4,529	45	239	95,082

자료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008

# 19장

## 국제편

- 19-1 인구
- 19-2 출산율
- 19-3 인구구조 및 부양비
- 19-4 경제성장률
- 19-5 국내총생산
- 19-6 1인당 GNI
- 19-7 조세부담률
- 19-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19-9 실업률
- 19-10 조강생산
- 19-11 선박건조량
- 19-12 자동차 생산
- 19-13 전자제품 생산액
- 19-14 수출·수입
- 19-15 무역의존도
- 19-16 이동전화가입자 수
- 19-17 1차 에너지 소비량
- 19-18 전력발전량
- 19-19 주요원인별 사망률(인구10만명당)
- 19-20 교통사고
- 19-21 이산화탄소 배출량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19-1 인구

## 남북한 총 인구 세계 19위

- 2009년 남북한 총 인구는 7,265만3천명(남한 4,874만명, 북한 2,391만명)으로 세계 총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19번째(남한만 26위)로 많음.
- 중국(13억4천6백만명)과 인도(11억9천8백만명)가 세계 총 인구의 37.2%를 차지.
  - 이어서 미국은 3억, 인도네시아는 2억을 웃돌며,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7개 국가가 1억 명 상회.

[그림 19-1] 총 인구 (2009년)



[표 19-1] 총 인구(2009년)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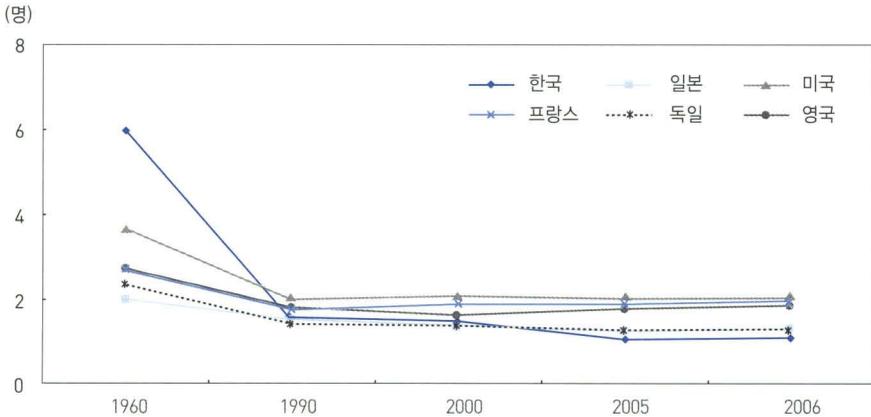
국가명	총 인구			국가명	총 인구		
	구성비	순위	구성비		순위		
세 계	6,829,360	100.0	-	방글라데시	162,221	2.4	7
중 국	1,345,751	19.7	1	나이지리아	154,729	2.3	8
인 도	1,198,003	17.5	2	러 시 아	140,874	2.1	9
미 국	314,659	4.6	3	일 본	127,156	1.9	10
인도네시아	229,965	3.4	4	한 국	48,747	0.7	26
브 라 질	193,734	2.8	5	우크라이나	45,708	0.7	27
파 키 스 탄	180,808	2.6	6	콜 롬 비 아	45,660	0.7	2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UN 「<http://esa.un.org/unpp>」 2009.7

## 출산율 OECD국가 중 최저 수준

- 200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미국(2.10명), 프랑스(1.98명), 영국(1.84명), 일본(1.32명)보다 낮아 OECD국가 중 최저 수준.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65명) 및 세계 평균(2.55명)보다 낮음.
  - 한국(1.13명) 및 일본(1.32명)은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에 소폭 반등함.

[그림 19-2] 합계출산율 (2006년)



<표 19-2> 합계출산율<sup>1)</sup>

(단위 : 명)

국가명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한국	6.00	4.53	2.83	1.59	1.47	1.08	1.13
일본	2.00	2.13	1.75	1.54	1.36	1.26	1.32
미국	3.65	2.48	1.84	2.08	2.06	2.05	2.10
프랑스	2.74	2.48	1.95	1.78	1.87	1.92	1.98
독일	2.37	2.03	1.56	1.45	1.38	1.34	1.33
영국	2.72	2.43	1.90	1.83	1.64	1.79	1.84
이탈리아	2.41	2.43	1.68	1.36	1.26	1.32	1.35
OECD평균	3.23	2.71	2.14	1.86	1.64	1.62	1.65

주 : 1)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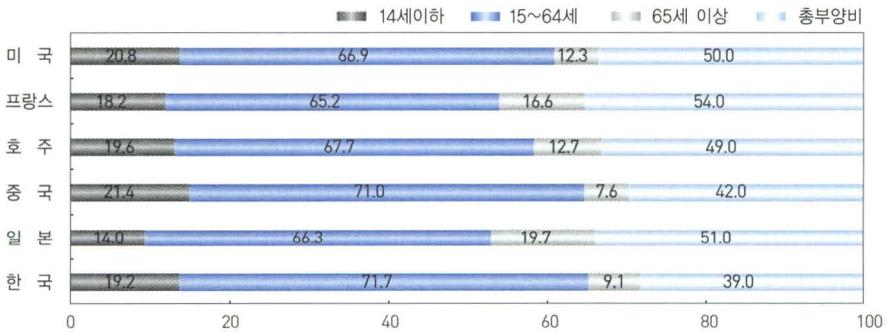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09

# 19-3 인구구조 및 부양비

## 유소년 인구 비중 선진국 보다 높고, 노년 인구 비중은 낮아

- 2005년 우리나라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비중은 19.2%로 일본(14.0%), 프랑스(18.2%)등 선진국보다 높고, 중국(21.4%)보다는 낮음.
- 200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9.1%로 일본(19.7%), 호주(12.7%), 프랑스(16.6%)보다는 낮고, 중국(7.6%)보다는 높음.
- 2005년 총부양비에서 우리나라는 39%로 일본(51%), 프랑스(54%), 미국(50%)보다 낮음.

[그림 19-3] 인구구조 및 총부양비 (2005년)



[표 19-3] 인구구조 및 총부양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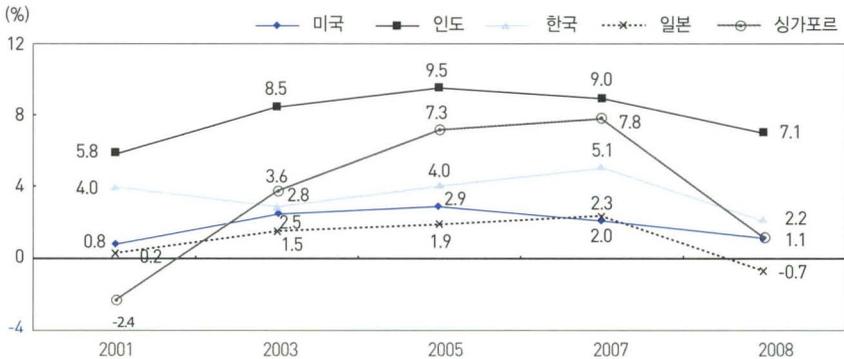
연도	연령분류	한국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미국
1980	14세이하	34.0	23.6	35.5	25.3	22.3	22.4
	15~64세	62.2	67.4	59.8	65.1	63.7	66.4
	65세 이상	3.8	9.0	4.7	9.6	14.0	11.2
	총부양비	60.7	48	67	54	57	51
1995	14세이하	23.4	16.0	26.5	21.5	19.5	22.2
	15~64세	70.7	69.4	67.4	66.6	65.4	65.5
	65세 이상	5.9	14.6	6.1	11.9	15.1	12.3
	총부양비	41.4	44	51	51	54	53
2000	14세이하	21.1	14.7	24.9	20.5	18.8	21.9
	15~64세	71.7	68.1	68.3	67.2	65.2	65.8
	65세 이상	7.2	17.2	6.8	12.3	16.0	12.3
	총부양비	39.5	47	48	50	54	51
2005	14세이하	19.2	14.0	21.4	19.6	18.2	20.8
	15~64세	71.7	66.3	71.0	67.7	65.2	66.9
	65세 이상	9.1	19.7	7.6	12.7	16.6	12.3
	총부양비	39.4	51	42	49	54	5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UN 「<http://esa.un.org/unpp>」 2009.7

##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

- 우리나라의 2008년 경제성장률(기준년가격 GDP 기준)은 2.2%로 페루(9.8%), 인도(7.1%), 아르헨티나(7.0%) 등 보다 낮지만 일본(-0.7%), 미국(1.1%), 독일(1.1%) 등에 비해서 높음.
- 대부분 국가가 2007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일본은 2007년(2.3%)에서 2008년(-0.7%), 싱가포르도 2007년 7.8%에 비해 2008년 1.1%로 하락폭이 큼.

[그림 19-4] 경제성장률



<표 19-3> 경제성장률 (기준년가격 GDP)

(단위 : %)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페루	0.2	4.9	4.0	5.6	6.4	8.0	8.7	9.8
인도	5.8	3.8	8.5	7.5	9.5	9.7	9.0	7.1
아르헨티나	-4.4	-10.9	8.8	9.0	9.2	8.5	8.7	7.0
인도네시아	3.6	4.5	4.8	5.0	5.7	5.5	6.3	6.1
한국	4.0	7.2	2.8	4.6	4.0	5.2	5.1	2.2
네덜란드	1.9	0.1	0.3	2.2	2.0	3.4	3.5	2.0
일본	0.2	0.3	1.5	2.7	1.9	2.0	2.3	-0.7
싱가포르	-2.4	4.1	3.8	9.3	7.3	8.4	7.8	1.1
미국	0.8	1.6	2.5	3.6	2.9	2.8	2.0	1.1
독일	1.2	0.0	-0.2	1.2	0.8	3.0	2.5	1.1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2009.8,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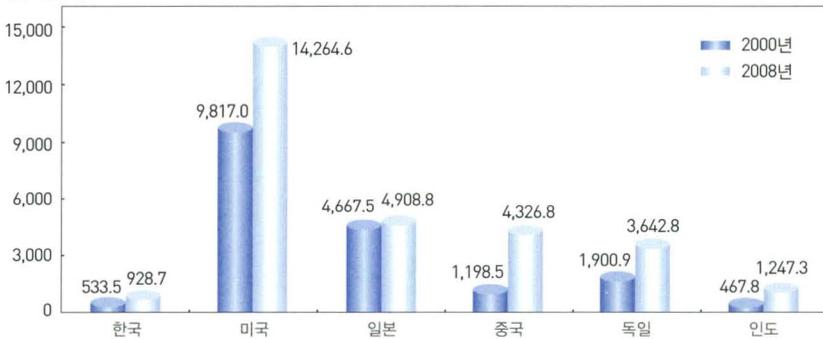
# 19-5 국내총생산

## GDP 규모 세계 15위

- 200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당해년 가격 기준)은 9,287억달러로 호주(9,914억달러)의 뒤를 이어서 세계 15위 규모.
  - 2005, 2006년에 브라질, 러시아에 추월당해 각각 13위, 14위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호주가 한국을 추월함.
- GDP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14조2,640억달러)으로 한국의 15배를 상회함.
  - 뒤를 이어서 일본(4조9,088억달러), 중국(4조3,268억달러), 독일(3조6,428억달러), 프랑스(2조8,517억달러), 영국(2조6,524억달러) 등의 순서.

[그림 19-5] 국내 총생산

(십억달러)



[표 19-5] 국내 총생산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달러)

국가명	2000	2005	2006	2007	2008	순위
미국	9,817.0	12,421.9	13,178.4	13,807.5	14,264.6	1
일본	4,667.5	4,552.2	4,362.6	4,380.4	4,908.8	2
중국	1,198.5	2,236.0	2,658.0	3,382.0	4,326.8	3
독일 <sup>1)</sup>	1,900.9	2,790.0	2,912.8	3,314.5	3,642.8	4
프랑스 <sup>1)</sup>	1,328.5	2,146.9	2,266.5	2,591.9	2,851.7	5
영국	1,477.4	2,277.3	2,434.4	2,801.1	2,652.4	6
이탈리아 <sup>1)</sup>	1,097.8	1,778.0	1,863.7	2,113.4	2,298.4	7
러시아	259.7	764.3	988.5	1,280.1	1,688.4	8
스페인 <sup>1)</sup>	580.9	1,130.3	1,232.5	1,437.2	1,603.5	9
브라질	644.9	882.2	1,089.6	1,334.2	1,575.6	10
캐나다	724.3	1,129.3	1,269.2	1,425.9	1,501.8	11
인도	467.8	813.3	911.4	1,142.3	1,247.3	12
한국	533.5	844.7	951.1	1,049.3	928.7	15

주 : 1) Euro화에 의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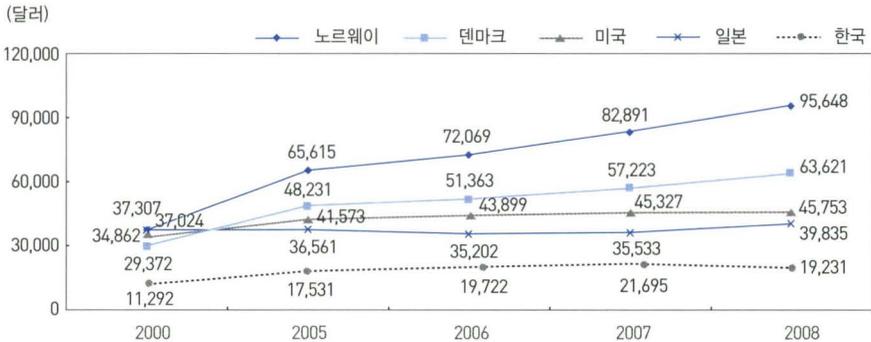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2009.8,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8

# 19-6 1인당 GNI

## 1인당 GNI, 대만보다 높아

- 200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231달러로 노르웨이의 5배 수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지만, 아시아 경쟁국 대만(17,942달러)보다는 높음.
- 1인당 국민총소득이 많은 나라로는 노르웨이(95,648달러), 룩셈부르크(87,574달러, 2007년), 덴마크(63,621달러), 스위스(60,820달러, 2007년), 스웨덴(53,182달러) 등의 순.

[그림 19-6] 1인당 국민총소득



<표 19-6> 1인당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단위 : 달러)

국 가 명	2000	2005	2006	2007	2008
노 르 웨 이	37,024	65,615	72,069	82,891	95,648
룩셈부르크 <sup>1)</sup>	40,431	69,585	68,883	87,574	-
덴 마 크	29,372	48,231	51,363	57,223	63,621
스 위 스	40,280	56,770	58,800	60,820	-
스 웨 덴	27,480	40,311	43,866	50,676	53,182
미 국	34,682	41,573	43,899	45,327	45,753
일 본	37,307	36,561	35,202	35,533	39,835
한 국	11,292	17,531	19,722	21,695	19,231
대 만	14,721	16,113	16,532	17,299	17,542

주 : 1) Euro화에 의한 자료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2009.8,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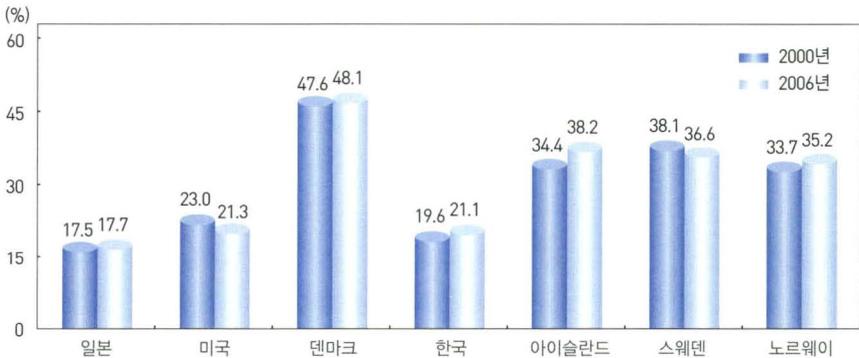
UN 「<http://esa.un.org/unpp>」 2009.8, 대만 「<http://www.stat.gov.tw>」 2009.8

# 19-7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

- 2006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1%로 미국(21.3%)과 비슷하고,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절반 수준임.
  - OECD 평균(26.8%)보다 낮지만, 일본(17.7%)에 비해선 높음.
- 덴마크(48.1%), 아이슬란드(38.2%), 스웨덴(36.6%), 노르웨이(35.2%)는 30~40% 대의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그림 19-7] 조세부담률



<표 19-7> 조세부담률

(단위 : %)

국 가 명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6
일 본	14.3	14.8	19.1	17.9	17.5	17.3	17.7
미 국	21.4	20.3	19.1	20.9	23.0	20.6	21.3
영 국	25.7	29.1	30.9	28.4	30.8	29.5	30.3
덴 마 크	28.8	38.2	44.8	47.7	47.6	49.6	48.1
한 국	-	14.9	16.1	18.1	19.6	20.2	21.1
아이슬란드	24.1	29.2	27.5	28.7	34.4	37.5	38.2
스 웨 덴	30.8	33.2	35.5	34.4	38.1	36.3	36.6
이 탈 리 아	16.8	13.7	22.0	27.5	30.2	28.3	29.6
노 르 웨 이	26.1	29.5	33.8	31.3	33.7	34.6	35.2
OECD평균	20.9	22.9	25.0	25.8	27.1	26.7	26.8

주 :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1965-2007)」

# 19-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 독일보다 높아

-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OECD 국가 중 일본(60.4%), 독일(58.7%), 프랑스(56.3%)보다 높게 나타남.
  - 덴마크(78.1%), 노르웨이(72.7%), 스웨덴(71.1%) 등은 70%대의 높은 수준.

[그림 19-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007년)



〈표 19-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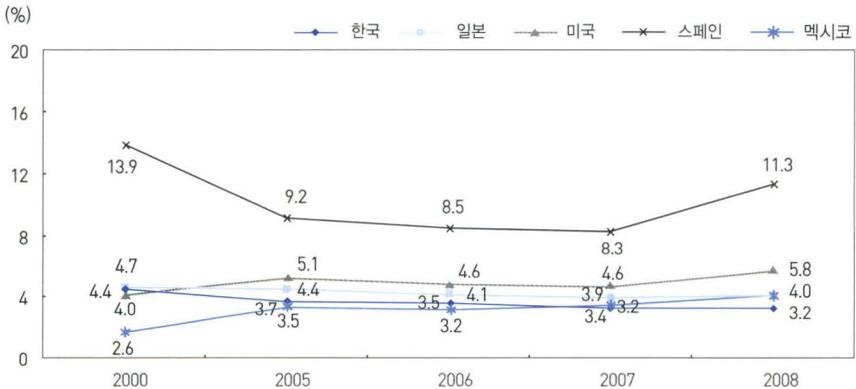
국가명	1975		1985		1995		2000		2005		2007	
	인구	참가율	인구	참가율	인구	참가율	인구	참가율	인구	참가율	인구	참가율
한 국	12,193	58.3	15,592	56.6	20,797	62.0	22,069	61.0	23,689	61.9	24,166	61.7
일 본	54,390	64.2	60,391	63.6	66,670	63.4	67,680	62.5	66,500	60.4	110,440	60.4
대 만	5,656	58.2	7,651	59.5	9,210	58.7	9,785	55.8	10,371	56.2	10,709	58.2
미 국	94,793	61.1	117,167	63.1	132,304	66.6	140,863	-	149,320	-	153,124	-
캐나다	9,488	57.1	12,400	64.8	14,928	64.8	15,847	65.8	17,343	67.2	17,946	67.6
프랑스	21,775	53.5	24,085	54.7	26,083	55.0	-	-	27,636	55.7	27,843	56.3
독 일	26,697	54.9	29,012	55.8	40,083	58.5	39,731	57.1	41,149	58.0	41,771	5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ILO 「<http://laborsta.ilo.org>」 2009.7

## 실업률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2008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업률은 3.2%로 OECD 국가 중 노르웨이(2.6%), 아이슬란드(3.0%)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5.9%)에 비해 낮음.  
- 2007년 실업률도 3.2%로 OECD 평균(5.6%)에 비해 낮음.
- OECD 국가 중 일본(4.0%), 미국(5.8%) 등은 4~5%대이나, 스페인(11.3%), 터키(10.6%), 프랑스(7.4%), 폴란드(7.1%) 등은 높은 실업률을 보임.

[그림 19-9] 실업률



[표 19-9] 실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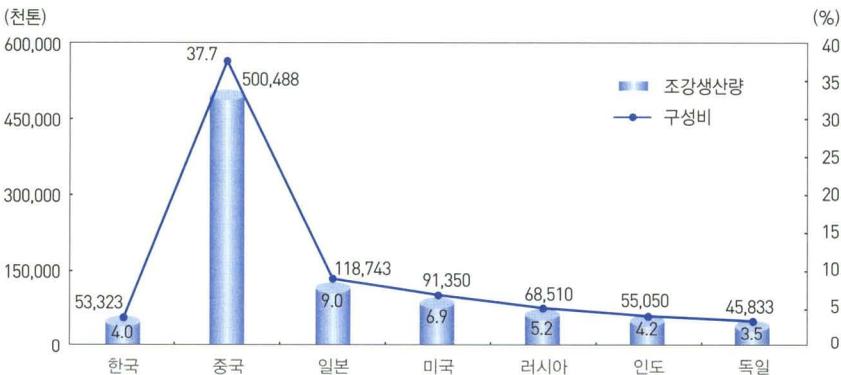
국가명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터 키	7.5	6.5	10.3	9.9	9.9	10.6
한 국	2.1	4.4	3.7	3.5	3.2	3.2
멕 시 코	6.9	2.6	3.5	3.2	3.4	4.0
일 본	3.2	4.7	4.4	4.1	3.9	4.0
미 국	5.6	4.0	5.1	4.6	4.6	5.8
스 페 인	22.9	13.9	9.2	8.5	8.3	11.3
프 랑 스	11.6	10.0	8.8	8.8	8.0	7.4
폴 란 드	13.3	16.1	17.7	13.8	9.6	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ILO 「<http://laborsta.ilo.org>」 2009.7

## 조강 생산량 세계 6위

- 2008년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은 5,332만톤으로 인도(5,505만톤)의 뒤를 이어서 세계 6위(세계 생산비중 4.0%) 수준.
  - 2002년 독일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한 뒤 200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줌.
- 중국은 1년에 5억톤을 생산한 첫 번째 국가로 세계 총 생산량의 37.7%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일본, 미국, 러시아의 순서.
  - 특히, 2008년 중국의 조강생산은 2000년(1억3천만톤)에 비해 4배 급증함.

[그림 19-10] 조강 생산량 (2008년)



<표 19-10> 조강 생산량

(단위: 천톤, %)

국가명	2000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	순위
세 계	847,662	1,146,706	1,251,217	1,351,289	1,326,095	100.0	-
중 국	127,236	355,790	422,989	494,899	500,488	37.7	1
일 본	106,444	112,471	116,226	120,203	118,743	9.0	2
미 국	101,803	94,897	98,557	98,102	91,350	6.9	3
러시아	59,136	66,146	70,830	72,387	68,510	5.2	4
인 도	26,924	45,780	49,450	53,080	55,050	4.2	5
한 국	43,107	47,820	48,455	51,517	53,323	4.0	6
독 일	46,376	44,524	47,224	48,550	45,833	3.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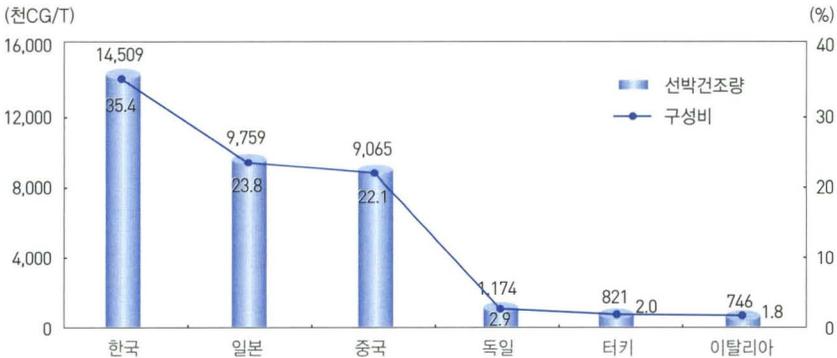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2009

# 19-11 선박 건조량

##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 2008년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1,450만9천CG/T로 세계 선박 건조의 35.4%를 차지함. 2002년 일본을 추월한 이후 7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
  - 전년대비 일본이 10.3% 증가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9.6% 증가해 양국간 선박 건조량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이 세계 선박의 80% 이상을 건조.
  - 한국이 세계 총 건조량의 35.4%, 일본이 23.8%, 중국이 22.1%를 점유했고, 특히, 중국의 건조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39.4%로 가장 높음.

[그림 19-11] 선박 건조량 (2008년)



[표 19-11] 선박 건조량

(단위 : 천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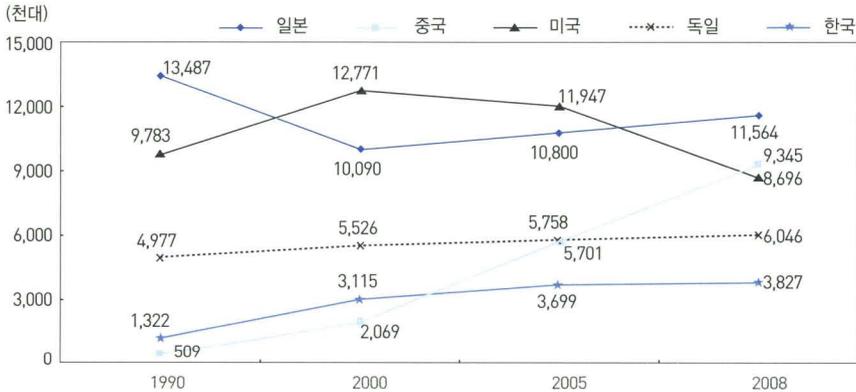
국가명	2000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	순위
세 계	20,044	28,967	33,886	34,598	41,019	100.0	-
한 국	9,481	10,093	11,744	11,197	14,509	35.4	1
일 본	11,079	8,511	9,522	8,850	9,759	23.8	2
중 국	1,556	4,237	5,107	6,503	9,065	22.1	3
독 일	812	1,043	1,096	1,138	1,174	2.9	4
터 키	185	346	429	657	821	2.0	5
이탈리아	756	399	603	768	746	1.8	6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조선자료집」 2009, Lloyd's Register 「World Shipbuilding Statistics」 2009.8

##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와 수출 감소에 따라 2008년 자동차 생산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382만7천대로 세계 5위(세계 생산 비중 5.4%)를 유지.
  - 2004년 세계 5위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1단계 뛰어올라 세계 5위 기록.
- 2006년 이후 일본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등극한 이후 3년 연속 1위.
  - 특히, 내수가 급증한 중국이 2위로 등극했고, 이어서 미국, 독일 등의 순서.

[그림 19-12] 자동차 생산량



〈표 19-12〉 자동차 생산량

(단위: 천대)

국가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순위
일 본	5,289	11,043	13,487	10,090	10,800	11,564	1
중 국	87	222	509	2,069	5,701	9,345	2
미 국	8,284	8,010	9,783	12,771	11,947	8,696	3
독 일	3,842	3,879	4,977	5,526	5,758	6,046	4
한 국	29	123	1,322	3,115	3,699	3,827	5
브 라 질	416	1,165	914	1,682	2,528	3,220	6
프 랑 스	2,750	3,378	3,769	3,184	3,549	2,569	7
스 페 인	539	1,182	2,053	3,033	2,752	2,542	8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산업」 2008

# 19-13 전자제품 생산액

## 전자제품 생산액 세계 4위

- 2008년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생산액은 944억달러로 중국(4,131억달러), 미국(2,824억달러), 일본(1,841억달러)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 중국은 전년 대비 8.4%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우리나라에 이어 독일(815억달러), 말레이시아(637억달러), 싱가포르(525억달러) 등의 순서.

[그림 19-13] 전자제품 생산액 (2008년)



[표 19-13] 전자제품 생산액

(단위 : 백만달러)

국가명	1996	2000	2005	2007	2008	순위
중국	-	-	-	380,989	413,114	1
미국	300,282	385,373	266,680	286,268	282,376	2
일본	244,954	263,562	191,569	185,151	184,137	3
한국	48,136	76,023	98,491	96,826	94,355	4
독일	51,463	61,669	92,748	112,663	81,477	5
말레이시아	29,577	43,182	49,516	61,937	63,683	6
싱가포르	43,597	47,317	50,175	52,886	52,500	7
대만	32,125	51,799	41,331	49,274	51,17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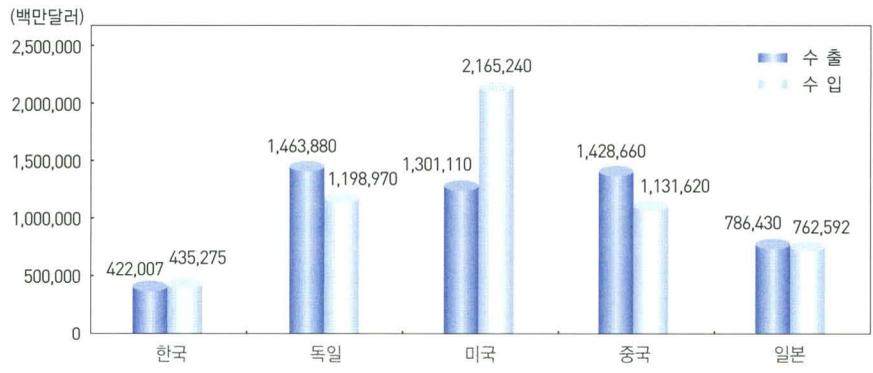
자료 : Elsevier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8

# 19-14 수출 · 수입

## 수출은 세계 12위, 수입은 세계 10위 규모

- 2008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220억7백만달러로 세계 12위(세계 수출 비중 2.7%) 규모.
  - 2008년 수출 1위국은 독일로 1조4,638억8천만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9.3%를 점유하고, 이어서 중국, 미국, 일본의 순서.
- 2008년 우리나라의 수입은 4,352억7천5백만달러로 세계 10위(세계 수입 비중 2.7%) 규모.
  -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세계 총 수입액의 13.4%(2조1,652억4천만달러)를 점유.

[그림 19-14] 수출 · 입 규모 (2008년)



<표 19-14> 수출 · 입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국가명	수 출			국가명	수 입		
	2005	2008	순위		2005	2008	순위
세 계	10,450,200	15,733,200	-	세 계	10,669,900	16,182,800	-
독 일	977,881	1,463,880	1	미 국	1,732,350	2,165,240	1
중 국	761,953	1,428,660	2	독 일	780,444	1,198,970	2
미 국	907,158	1,301,110	3	중 국	659,953	1,131,620	3
일 본	594,905	786,430	4	일 본	514,922	762,592	4
영 국	371,384	459,847	11	프 랑 스	486,444	705,718	5
한 국	284,419	422,007	12	한 국	261,238	435,275	10
멕 시 코	213,891	291,827	13	멕 시 코	231,821	325,157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7

# 19-15 무역 의존도

## 무역의존도 OECD 국가 중 6위

- 2008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5.4%로 홍콩(168.2%), 말레이시아(94.5%), 벨기에(94.8%)에 비해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낮음, 수입의존도도 46.8%로 홍콩(180.2%), 말레이시아(74.1%)보다 크게 낮음.
- 홍콩(348.4%), 말레이시아(168.5%), 벨기에(188.3%)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영국(41.2%), 일본(31.6%), 미국(24.3%) 등은 낮음.
  - 일본은 수출의존도(16.0%)가 수입의존도(15.5%)보다 다소 높은 반면, 미국은 수입의존도(15.2%)가 수출의존도(9.1%)보다 훨씬 높은 모습.

[그림 19-15] 무역 의존도 (2008년)



[표 19-15] 무역 의존도 (2008년)

(단위 : %)

국가명	무역 의존도			국가명	무역 의존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홍콩	348.42	168.22	180.20	중국	59.17	33.02	26.15
말레이시아	168.51	94.45	74.06	멕시코	56.70	26.82	29.88
벨기에	188.27	94.78	93.49	러시아	46.96	27.94	19.02
태국	128.66	63.25	65.41	스페인	43.33	17.32	26.01
네덜란드	118.36	62.20	56.16	영국	41.19	17.34	23.85
한국	92.31	45.44	46.78	일본	31.56	16.02	15.54
독일	73.10	40.19	32.91	미국	24.30	9.12	15.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9. 7

# 19-16 이동전화 가입자 수

## 이동전화 가입자 세계 22위 수준

- 2008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4,561만명으로 22위 수준.
  - 2001년 이후 세계 최대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8년 6억 3천4백만명 규모로 2위 인도(3억5천만명)의 2배에 가까움.
  - 뒤를 이어 미국(2억7천만명), 러시아(1억9천만명), 브라질(1억5천만명)의 순서.
-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47.1%인 6억3천만명으로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 인구 대국인 인도의 성장세는 2006년 이후 매년 40% 이상 폭증세를 기록함.

[그림 19-16] 이동전화 가입자 수



<표 19-16> 이동전화 가입자 수

(단위 : 천명)

국가명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순위
중 국	85,260	269,953	334,824	393,406	461,058	547,306	634,000	1
인 도	3,577	33,690	52,220	90,140	166,050	233,620	346,890	2
미 국	109,478	160,637	184,819	213,000	241,800	263,000	270,500	3
러 시 아	3,263	36,135	73,722	120,000	150,674	163,300	187,500	4
브 라 질	23,188	46,373	65,605	86,210	99,918	120,980	150,641	5
일 본	66,784	86,665	91,474	96,484	101,698	107,339	110,395	7
한 국	26,816	33,592	36,586	38,342	40,197	43,498	45,607	22

자료 : ITU 「http://www.itu.int」 2009.8

# 19-17 1차 에너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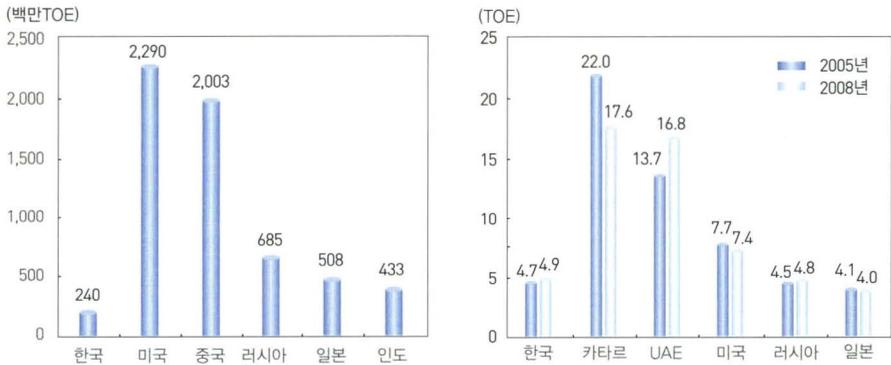
19장 국제편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 에너지 총 소비량 세계 9위, 1인당 소비량은 15위 수준

- 2008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은 2억4천만TOE로 세계 총 소비량의 2.1%를 점유하여 세계 9위 수준.
  -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9TOE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 1.7TOE의 2.9배에 이르는 세계 15위 수준.
- 최대 에너지 소비국은 미국으로 세계 총 소비량의 20.3%인 22억9천만TOE를 소비.
  - 1인당 소비량은 카타르가 세계 평균의 10.4배인 17.6TOE로 1위.
  - 에너지 소비대국인 미국, 일본은 2005년 대비 소폭 감소, 중국, 인도는 증가.

[그림 19-17]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표 19-17] 1차 에너지<sup>1)</sup> 총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단위 : 백만TOE<sup>2)</sup>, TOE)

국가명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국가명	1인당 소비량		
	2003	2005	2008		2003	2005	2008
세계	9,810.5	10,555.3	11,294.9	세계 평균	1.5	1.6	1.7
미국	2,296.7	2,342.7	2,290.0	카타르	17.9	22.0	17.6
중국	1,229.3	1,572.2	2,002.5	아랍에미리트	13.4	13.7	16.8
러시아	639.7	642.8	684.6	미국	7.7	7.7	7.4
일본	506.2	519.7	507.5	한국	4.4	4.7	4.9
인도	316.2	362.2	433.3	러시아	4.4	4.5	4.8
캐나다	310.5	323.1	329.8	일본	4.0	4.1	4.0
한국	211.4	224.6	240.1	영국	3.8	3.7	3.5

주 : 1) 천연상태의 에너지로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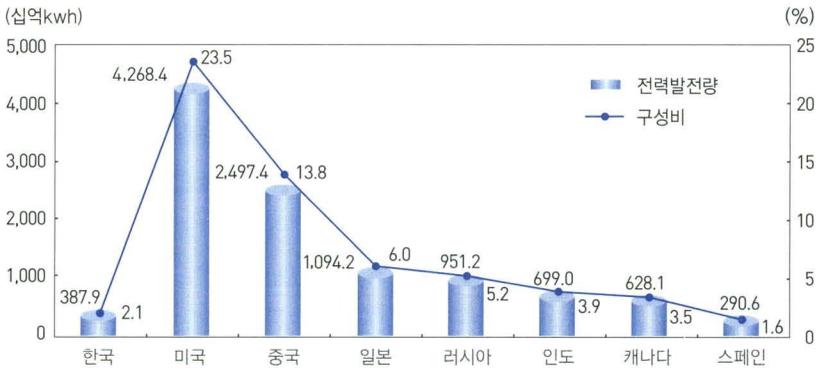
2) TOE = 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

자료 :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9

## 전력발전량 세계 11위 수준

- 2008년 우리나라의 전력발전량은 3,879억kwh로 세계 발전량의 2.1%를 점유하여 이탈리아(2,944억kwh)보다 앞선 세계 11위 수준.
  - 석탄발전 비중이 38.4%로 제일 높고, 원자력 비중은 37.8%임.
- 세계 최대 전력발전국가는 미국으로 세계 총 발전량의 23.5%를 차지하여 4조2,684억kwh임.
  - 이어서 중국(2조5천억kwh), 일본(1조9백억kwh), 러시아(9,512억kwh)의 순서.

[그림 19-18] 전력발전량 (2005년)



<표 19-18> 전력발전량

(단위 : 십억kwh)

국가명	1990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순위
세계	11,735.9	16,014.1	16,618.4	17,372.6	18,155.6	-	-
미국	3,202.8	3,992.7	4,054.4	4,147.7	4,268.4	23.5	1
중국	621.2	1,640.5	1,907.4	2,199.6	2,497.4	13.8	2
일본	836.7	1,087.7	1,037.7	1,071.0	1,094.2	6.0	3
러시아	1,082.0	889.3	914.3	929.9	951.2	5.2	4
인도	289.4	595.5	633.3	667.8	699.0	3.9	5
캐나다	481.9	601.4	586.9	598.4	628.1	3.5	6
한국	105.4	326.9	344.9	366.6	387.9	2.1	11
이탈리아	213.1	277.5	283.4	293.0	294.4	1.6	12
스페인	151.2	242.7	257.9	277.1	290.6	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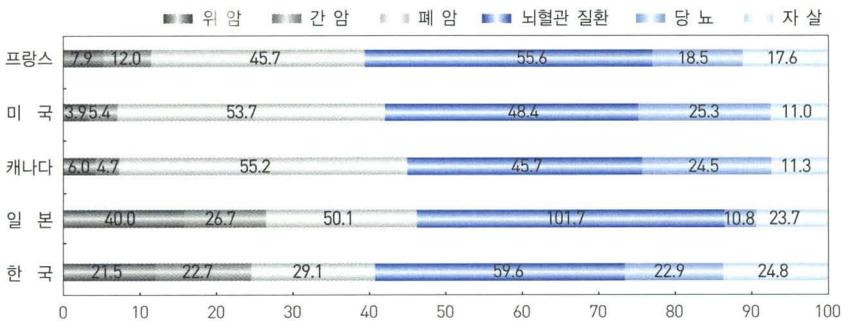
자료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 19-19 주요원인별 사망률 (인구10만명당)

## 자살률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 200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폐암사망률(29.1명)은 일본(50.1명, 2006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음.
  -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폐암사망률은 50명을 상회함.
- 2007년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은 59.6명으로 일본(101.7명)보다 낮은 반면 당뇨에 의한 사망률은 22.9명으로 일본(10.8명)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음.
- 자살에 의한 사망률(24.8명)은 OECD 평균(11.2명)의 두 배 이상으로 가장 높음.

[그림 19-19] 인구 10만명당 주요원인별 사망률



<표 19-19> 인구 10만명당 주요원인별 남·여 사망률

(단위 : 명)

국가명	연도	성별	위암	간암	폐암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자살
한국	2007	계	21.5	22.7	29.1	11.0	59.6	22.9	24.8
		남자	27.9	34.1	42.8	7.4	56.6	23.1	31.5
		여자	15.0	11.2	15.2	14.7	62.6	22.8	18.1
일본	2006	계	40.0	26.7	50.1	4.6	101.7	10.8	23.7
		남자	53.2	36.7	74.6	3.4	99.6	11.8	34.8
		여자	27.4	17.2	26.8	5.8	103.6	9.9	13.2
캐나다	2004	계	6.0	4.7	55.2	6.6	45.7	24.5	11.3
		남자	7.3	6.1	64.0	5.0	37.6	25.4	17.3
		여자	4.7	3.3	46.6	8.2	53.7	23.6	5.4
미국	2005	계	3.9	5.4	53.7	19.3	48.4	25.3	11.0
		남자	4.6	7.2	61.8	16.5	38.8	25.0	17.7
		여자	3.2	3.7	45.9	22.1	57.8	25.7	4.5
프랑스	2005	계	7.9	12.0	45.7	13.4	55.6	18.5	17.6
		남자	10.3	18.4	73.9	9.6	48.3	18.2	26.4
		여자	5.7	6.0	19.0	17.1	62.4	18.8	9.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http://www.who.int>, 2009.8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OECD국가 중 여섯 번째

- 2006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만4천건, 사망자 수는 6천3백명으로 OECD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음.
  - 미국이 교통사고 발생건수(178만5천건), 사망자수(4만3천명) 모두 상위 차지함.
- 2006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의 1.4배,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3.2명으로 OECD 평균(1.5명)의 2.1배 수준.
  -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5.7명)는 한국의 절반,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0.9명)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적음.

[그림 19-20] 도로교통사고 (2006년)



<표 19-20> 도로교통사고 (2006년)

(단위 : 건수, 명)

국가명	총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 사망자수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10억 주행km당 사망자수
미 국	1,785,000	2,574,664	42,642	14.3	1.7	8.8
일 본	886,864	1,097,279	7,272	5.7	0.9	9.5
멕 시 코	462,505	-	5,567	5.3	-	-
독 일	327,984	422,337	5,091	6.2	0.9	7.4
이 탈 리 아	238,124	332,955	5,669	9.6	-	69.3
한 국	213,745	340,229	6,327	13.0	3.2	19.3
프 랑 스	80,309	102,125	4,709	7.7	1.3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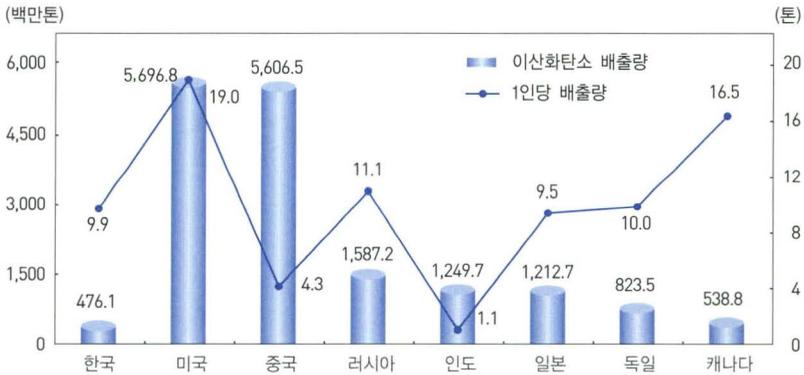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2009.8, IRTAD 「<http://cemt.org>, 2009.9  
ITF 「<http://www.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 2009.9

# 19-21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수준

- 2006년 우리나라의 co<sub>2</sub>배출량은 4억7천6백만톤으로 이탈리아(4억4천8백만톤)와 비슷한 수준.
  - 세계에서 가장 많이 co<sub>2</sub>를 배출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매년 50억톤 이상을 배출. 일본도 12억톤으로 미국의 4분의 1에 해당하지만 다섯 번째로 많음.
- 2006년 우리나라의 1인당 co<sub>2</sub>배출량은 9.9톤으로 일본(9.5톤)과 비슷한 수준.
  -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19톤)이 가장 많아 일본·한국의 2배, 중국의 4배, 인도의 17배 수준임.

[그림 19-21]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6년)



[표 19-21]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백만톤, 톤)

국가명	총량(백만톤)				1인당(톤)			
	2000	2004	2005	2006	2000	2004	2005	2006
미 국	5,693.0	5,772.4	5,784.5	5,696.8	20.16	19.63	19.48	19.00
중 국	3,037.9	4,547.0	5,059.8	5,606.5	2.41	3.51	3.88	4.27
러 시 아	1,513.8	1,524.1	1,531.2	1,587.2	10.35	10.60	10.70	11.14
인 도	976.5	1,114.1	1,160.7	1,249.7	0.96	1.03	1.06	1.13
일 본	1,192.4	1,222.8	1,227.7	1,212.7	9.40	9.57	9.61	9.49
독 일	827.1	843.4	811.3	823.5	10.06	10.22	9.84	10.00
캐 나 다	532.6	550.4	556.3	538.8	17.36	17.21	17.22	16.52
영 국	525.6	535.6	535.4	536.5	8.93	8.95	8.89	8.86
한 국	431.3	478.9	468.9	476.1	9.17	9.97	9.74	9.86
이 탈 리 아	424.7	450.0	453.8	448.0	7.46	7.74	7.74	7.61

자료 : IEA 「co<sub>2</sub>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8

2009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

- 집 필 김형석(통계청 농어촌통계과)  
김혜련(통계청 통계개발원)  
민경삼(통계청 지역경제통계과)  
박소현(통계청 분석통계팀)  
심수진(통계청 통계개발원)  
심원보(통계청 통계협력과)  
이현정(통계청 인구조사과)  
정동욱(통계청 고용통계팀)  
정인숙(통계청 고용통계팀)  
정창호(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정화옥(前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 감 수 양재찬(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주) 편집위원)
- 기 획 전신애(한국통계진흥원장)  
정창신(한국통계진흥원 사무국장)  
노은옥(한국통계진흥원 과장)

---

통권 제1호

발행일 | 2009년 11월 25일  
발행인 | 이인실  
발행처 | 통계청  
기 획 | 전신애 · 정창신 · 노은옥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 경인지방통계청 103호  
전 화 | (02)3443-7954~6  
팩 스 | (02)3443-7957  
이메일 | kspi@stat.or.kr  
디자인 | 도서출판 나래(042-226-2568)  
ISBN | 978-89-963554-0-3

© 2009, 통계청

이책의 내용은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9 788996 355403 93310  
ISBN 978-89-963554-0-3